

연구보고 RR 2013-12

한국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김미란(한국교육개발원)

공동연구자 : 홍영란(한국교육개발원)

김은영(한국교육개발원)

이병식(연세대학교)

연구조원 : 윤나경(한국교육개발원)

세계적인 시장개방의 흐름 속에서 고등교육 글로벌화의 진행으로 갈수록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수인재를 확보하여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재원 확보를 통한 국제 수지 개선을 위해 모든 국가들이 고등교육 국제화에 전력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고등교육의 역량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강화하고자 다양한 국제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 국제화를 추진하는 실질적인 주체는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차원의 국제화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어 정부 정책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이 대학 수준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현황·인식조사 및 사례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우리보다 먼저 국제 교육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의 국제화 정책과 대학수준의 국제화 추진 사례 분석은 물론, 다양한 정책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등교육기관 스스로가 국제화를 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개선 방향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연구 수행을 위해 바쁜 업무 속에서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제공해주시고, 민감하고 까다로운 설문 및 면담 조사에 협조해 주신 각 대학 관계자 및 국제화 관련 전문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연구 수행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2013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

원 장 백 순 근

이 연구에서는 실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이 대학 수준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고등교육기관 스스로가 국제화를 꾀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고등교육 국제화 추진 배경과 정책을 알아보고 국제화 현황 및 인식 조사를 통해 실제 국제화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와 더불어 미국과 일본, 중국의 국제화 정책과 사례를 살펴보고, 모드별로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운영 사례, 나아가 국제화에 관련한 면담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한국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분석을 통해, ①한국의 고등교육 국제화가 WTO와 FTA 체결 등의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화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②한국의 국제화는 유학생 유치를 통해 유학 수지를 개선하거나, 해외 석학 초청, 외국교육기관의 유치를 통한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In-Bound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③대학의 국제화 성과 분석을 통해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학, 지역별로는 지방보다 서울 소재 대학이, 대학 규모에 있어서는 소규모 대학보다는 대규모 대학이 적극적으로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국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를 비교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미국은 국제학생을 가장 많이 유치하는 국가로서 국제화를 주도해왔으며 자국 학생들의 해외파견을 통해 자국의 교육 질을 제고하고 국제적인 경험을 증대시켜 국제화가 자국의 교육 체제에 스며들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개정하고 문화적으로 열린 학습자를 길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은 국제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해외의 최첨단 동향을 살펴 ‘글로벌 인재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육성을 위해 국내 대학의 교육·연구 수준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통용성 증진을 통해 글로벌 위기를 타파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중국의 경우에는 대학의 특성화 분야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차원에서 선택과 집중 지원하고, 이를 위한 국제화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국내 대학의 구체적인 국제화 현황 및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①국제화 전략이 명확하지 않으며, ②구체적인 전략 역시 해외 교류나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③외국어 전용 강좌라거나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과 같이 실제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국제화를 꾀하고 있는 비율은 매우 적었으며, ④해외 인턴십이나 국내 대학의

해외 분교 설립과 같은 Out-Bound 형태의 국제화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중시하여 실시해야 하는 국제화 정책 중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①유학생을 위한 경제적 지원은 물론 기숙사 제공 및 알선, 보험이나 아르바이트와 같은 생활지원 및 정신 상담 등과 같은 유치 환경 조성이나 한국문화교육이나 연수활동, 한국어 교육 등을 중시하고 있으나, ②수업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표준을 설정하거나, 가을학기제의 도입, 나아가 유학생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취업 지원 등과 같은 교육과정 개선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대학들의 유학생 유치에 대한 관심은 국제화 문제 인식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었다. ③대학들이 인식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해외 우수 유학생 확보의 어려움이었으며, 다른 항목 역시 해외 우수 유학생 확보와 관련된 항목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국제화 추진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 개선 항목으로 ④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의 부처 간 연계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각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인 교원이나 연구자 유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국내대학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우수 사례를 모드별로 살펴보았다. 먼저 교육과정 운영 우수 사례대학인 서울대학의 경우, ①공동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상대국과의 제도적, 문화적 차이, ②대학 내부의 합의 도출, ③지속적인 예산 확보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유학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양대의 경우에는 ①직원의 이직율의 증가로 인한 국제화 업무의 비효율화, ②학내 조직 구성의 문제로 국내외 교육기관 협력이 미흡하고, ③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해외 홍보 미진, ④정부의 지나친 규제를 과제로 들었다. 학부 차원에서 외국분교를 국내에 설치한 SUNY-Korea에서는 ①자립적으로 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마련, ②정부의 규제완화, ③국내 대학과의 파트너십 형성과 학문적 교류를 통해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④제도적 장치의 미비 문제를 과제로 들었다. 모드 4에 해당하는 포항공대의 사례에서는 ①인턴십을 할 수 있는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의 부족, ②인턴십 국가와 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희망하는 기간과 전공에 맞는 곳을 찾기 어렵다는 점, ③인턴십 연구에 관한 사전 정보 부족을 문제로 들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며, 향후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국제화 담당자 및 전문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국내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제화가 필요하지만 비전의 부재, 정부 주도의 소극적인 국제화 추진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지나친 규제, 혹은 규정의 미비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국제화에 국가 수준에서 제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

고 있는 부분과 대학 내부에서의 조직적인 대응의 미비가 학습지원 및 생활지원의 미흡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 구성원의 합의를 통한 국제화 비전의 확립과 리더십을 통한 학습지원 및 생활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 대학의 질 제고가 우선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 고등교육법의 정비, 나아가 행·재정 지원을 통한 국제화 지원센터, 정보 공시,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대학 국제화 정책 개선방안을 정부차원과 대학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모드별 중점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정부차원에서는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목표 및 방향 전략의 명료화를 위해 ①국제화 정책 목표 및 방향전략을 국가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②이를 위한 글로벌 인재상을 설정하여, ③국가차원의 국제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개선방안으로 들었다. 다음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①대학 특성에 따른 국제화 전략 수립, ②국제화 추진방식의 효율화를 들고, 내실 있는 국제화 추구를 위해 ①대학 교육의 질 제고, ②평가 및 성과관리 체제 구축을 제언했다. 또한 국제화 추진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위해 ①법 제도의 정비, ②부처간 연계 위원회 구성, ③예산 지원의 확대, 이 모두를 위한 ④부처 간 연계 국제화 지원 센터(가칭)의 설립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화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UNESCO 및 각종 고등교육 인증 등과 관련된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대학의 과제로는 대학 특성에 따른 국제화 목표 및 전략 수립, 교육과정의 내실화, 해외 교류 프로그램 네트워크 형성, 국제화 전담조직의 정비 및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I.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6
3. 연구 방법	7
4. 선행연구 및 시사점	9

II 한국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동향 / 23

1. 고등교육 국제화의 배경	25
2. 시기별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33
3. 시장개방 Mode별 고등교육 국제화 성과	42
4. 소결	63

III. 주요국의 국제화 정책현황 / 65

1. 미국	67
2. 일본	86
3. 중국	101
4. 소결	121

IV. 국제화 현황 분석 / 123

1. 조사 개요	125
2. 현황 조사	128
3. 인식 조사	145
4. 소결	167

V. 모드별 사례조사 / 169

1. 서울대학교(Mode 1) -----	171
2. 한양대학교(Mode 2) -----	181
3. SUNY-Korea(Mode 3) -----	193
4. 포스텍(Mode 4) -----	203
5. 소결 -----	212

VI. 면담 조사 분석 / 215

1. 면담 조사 개요 -----	217
2. 한국 대학 국제화의 필요성 -----	228
3. 한국 대학 국제화 추진의 문제 -----	222
4. 국제화 추진을 위한 개선 방안 -----	234
5. 소결 -----	246

VII.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개선방안 / 249

1. 국제화 추진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 개선안 -----	251
2. 개별 대학 차원의 고등교육 국제화 개선방안 -----	256
3. 고등교육 국제화의 중점 추진과제 -----	258

VIII. 결론 / 263

1. 요약 -----	265
2. 한계 및 향후 과제 -----	268

참고문헌 / 271

ABSTRACT / 281

부록 1: '대학 국제화 관련 인식 조사' 설문지/ 285

부록 2: '대학 국제화 현황 조사' 설문지 / 295

〈표 I-1〉 설문 조사 개요	8
〈표 I-2〉 면담 대상자 예시	9
〈표 II-1〉 교육서비스 시장에서의 고등교육 구분	26
〈표 II-2〉 한국의 FTA 추진 현황	31
〈표 II-3〉 In-bound 및 Out-bound 정책 계획	38
〈표 II-4〉 정부 시기별 정책 특징	41
〈표 II-5〉 Campus Asia 참여 대학 현황: 고려대	42
〈표 II-6〉 Campus Asia 참여 대학 현황: 동아대	43
〈표 II-7〉 Campus Asia 참여 대학 현황: 부산대	43
〈표 II-8〉 Campus Asia 참여 대학 현황: 서울대	43
〈표 II-9〉 Campus Asia 참여 대학 현황: 성균관대	44
〈표 II-10〉 Campus Asia 참여 대학 현황: 성균관대/서울대	44
〈표 II-11〉 Campus Asia 참여 대학 현황: 포항공대/서울대	45
〈표 II-12〉 Campus Asia 참여 대학 현황: KAIST	45
〈표 II-13〉 Campus Asia 참여 대학 현황: KDI국제정책대학원	45
〈표 II-14〉 EU-ICI 교육협력사업 참여기관 현황	46
〈표 II-15〉 주요 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2012. 4. 1. 기준)	47
〈표 II-16〉 Global Korea Scholarship(GKS) 개요	48
〈표 II-17〉 주요 배경변인별 외국인학생 소계 평균 비교	49
〈표 II-18〉 외국인 유학생 소계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50
〈표 II-19〉 주요 배경변인별 외국인 유학생 총계 평균 비교	51
〈표 II-20〉 외국인학생 총계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52
〈표 II-21〉 외국교육기관 유치 및 MOU 체결 계획('12.5월 기준)	53
〈표 II-22〉 외국 고등교육기관 분교 유치 현황	53
〈표 II-23〉 국내 고등교육기관 국외 진출 현황	54
〈표 II-24〉 국내 고등교육기관 국외 진출 계획	55
〈표 II-25〉 주요 배경변인별 교류현황(유치인원수) 평균 비교	56
〈표 II-26〉 교류현황(유치인원수)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57

〈표 II-27〉 주요 배경변인별 교류현황(파견인원수) 평균 비교	58
〈표 II-28〉 교류현황(파견인원수)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59
〈표 II-29〉 주요 배경변인별 외국인 교원수 평균 비교	60
〈표 II-30〉 외국인 교원수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61
〈표 II-31〉 주요 배경변인별 해외취업자수 평균 비교	62
〈표 II-32〉 해외취업자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63
〈표 III-1〉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 학생 분포 상위 10개국	82
〈표 III-2〉 일리노이 대학의 국제교육협력 협약 현황	84
〈표 III-3〉 지역별·유학기간별 일본인 유학생 수	92
〈표 III-4〉 교류 현황	93
〈표 III-5〉 대학과정	94
〈표 III-6〉 대학원과정	95
〈표 III-7〉 전문대학과정	95
〈표 III-8〉 국제학술 컨소시엄(The Academic Consortium 21: AC21)	98
〈표 III-9〉 국제화 프로그램의 추진 유형	106
〈표 III-10〉 베이징어언문화대 원격교육과정	109
〈표 III-11〉 외국인 유학생 현황(1978~2012)	111
〈표 III-12〉 2010 외국인 유학생 현황 분류표	112
〈표 III-13〉 1996~2011년 출국유학생 현황	113
〈표 III-14〉 2010~2011년 유학생 구성 인원	113
〈표 III-15〉 연도별 해외유학생 파견 프로그램	114
〈표 III-16〉 2013년 국가 유학생 파견 프로그램	115
〈표 III-17〉 합작운영기관별 유형 분류	116
〈표 III-18〉 중국 중외합작 대학 대상국 분포 현황	117
〈표 III-19〉 각 국가의 국제화 정책 및 사례 비교	121
〈표 IV-1〉 현황조사 문항표	126
〈표 IV-2〉 인식조사 문항표	127
〈표 IV-3〉 현황 조사 대학의 특성	128

〈표 IV-4〉 시기별 국제화 목표 -----	129
〈표 IV-5〉 시기별 국제화 목표 -----	130
〈표 IV-6〉 국제교류 전담기구 -----	131
〈표 IV-7〉 외국인 기숙사 유무 -----	132
〈표 IV-8〉 외국인 교수 주거지원 여부 -----	133
〈표 IV-9〉 국제교류 협회 및 협의체 가입 순위(복수응답) -----	134
〈표 IV-10〉 국제교류 협회 및 협의체 가입 현황 -----	134
〈표 IV-11〉 대학별 국제교류 협력 협정 체결 동향 -----	135
〈표 IV-12〉 체결 대학 수 동향 -----	136
〈표 IV-13〉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유무 -----	136
〈표 IV-14〉 학내 국제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예시) -----	137
〈표 IV-15〉 외국어 전용 강좌 비율 5% 이상인 대학: 학부 -----	138
〈표 IV-16〉 외국어 전용 강좌 비율 5% 이상인 대학: 석사과정 -----	139
〈표 IV-17〉 외국어 전용 강좌 비율 5% 이상인 대학: 박사과정 -----	139
〈표 IV-18〉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실적 -----	140
〈표 IV-19〉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현황(예시) -----	141
〈표 IV-20〉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실시 여부 -----	143
〈표 IV-21〉 해외 인턴십 운영 현황 -----	144
〈표 IV-22〉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사례 -----	144
〈표 IV-23〉 우수 외국연구소 유치 현황 -----	145
〈표 IV-24〉 조사 대학의 특성(총 138명) -----	145
〈표 IV-25〉 응답자 특성 -----	146
〈표 IV-26〉 해외유학을 졸업·수료 요건으로 하는 교육과정의 설치 -----	147
〈표 IV-27〉 3개월~1년의 단기 해외유학 프로그램 설치(어학이나 다문화 연수 제외) -----	147
〈표 IV-28〉 해외대학에서의 어학·다문화 연수 프로그램(방학 중 프로그램 등) -----	147
〈표 IV-29〉 해외 탐방 프로그램 -----	148
〈표 IV-30〉 해외 대학과의 공동학위 과정 운영 -----	148
〈표 IV-31〉 해외 대학과의 복수학위 과정 운영 -----	149

〈표 IV-32〉 해외 협정 대학의 학점제도 파악	149
〈표 IV-33〉 해외 협정 대학의 성적평가 제도 파악	150
〈표 IV-34〉 해외 협정 대학의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파악	150
〈표 IV-35〉 e-learning을 통한 해외 교육프로그램의 제공	151
〈표 IV-36〉 국제 통용성 확대 필요	151
〈표 IV-37〉 외국 대학과의 공동학위(복수학위) 확대 필요	152
〈표 IV-38〉 e-learning 등과 같은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필요	152
〈표 IV-39〉 국내 유학 희망자를 위한 유학설명회(공동설명회 참가 등)	153
〈표 IV-40〉 정규과정 유학생을 위한 유학생 입시 시험(TOPIK)의 점수 요구	153
〈표 IV-41〉 유학생을 위한 경제적 지원	154
〈표 IV-42〉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 제공 및 알선	154
〈표 IV-43〉 유학생을 위한 생활 지원(보험, 아르바이트 등 지원)	155
〈표 IV-44〉 유학생을 위한 정신적 상담 지원(카운슬링 등)	155
〈표 IV-45〉 학내 자료 및 통지 등, 각종문서의 다언어화	156
〈표 IV-46〉 외국어(영어)가 가능한 직원의 채용·배치	156
〈표 IV-47〉 직원의 국제화교육 실시(Staff Development): 연수, 외국어 교육 등	157
〈표 IV-48〉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157
〈표 IV-49〉 유학생 중심의 교육 과정 운영(영어전용 수업 등)	158
〈표 IV-50〉 유학생을 위한 학습 지원	158
〈표 IV-51〉 수업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표준 설정	159
〈표 IV-52〉 가을(9월) 학기 제도의 도입 운영	159
〈표 IV-53〉 국내 기업에서의 인턴십 프로그램	160
〈표 IV-54〉 유학생을 위한 취업 지원	160
〈표 IV-55〉 유학생 귀국 후의 취업 및 진학 상황 조사	160
〈표 IV-56〉 한국인을 위한 외국어 교육의 충실	161
〈표 IV-57〉 영어 수업의 확대	161
〈표 IV-58〉 해외의 사회·문화에 관한 수업과목의 확대	162
〈표 IV-59〉 외국인 교원의 적극적인 채용	162

〈표 IV-60〉 해외에서의 교육경험을 가진 교원의 적극 채용	163
〈표 IV-61〉 조인트 캠퍼스, 해외 분교 운영	163
〈표 IV-62〉 교원의 해외 파견 지원제도	164
〈표 IV-63〉 직원의 해외 파견 지원제도	164
〈표 V-1〉 재학생 현황	172
〈표 V-2〉 외국인 유학생 수	172
〈표 V-3〉 외국대학 교환학생 수	173
〈표 V-4〉 서울대학교 영어강의 현황	174
〈표 V-5〉 서울대학교 교직원 수 현황	174
〈표 V-6〉 서울대학교 국제 학술교류 협정 현황	174
〈표 V-7〉 서울대학교 국제랭킹 현황	174
〈표 V-8〉 2012 글로벌 초우수 인재 육성사업 지원 현황	176
〈표 V-9〉 해외 대학 네트워크 구축 및 외국인 초우수 대학원생 유치 홍보	177
〈표 V-10〉 서울대학교 학위프로그램 현황	179
〈표 V-11〉 해외 자매결연 대학 현황	182
〈표 V-12〉 외국인 학생 수와 출신 국가	183
〈표 V-13〉 연도별 외국인 정규학생 증가 현황(어학연수생 제외)	183
〈표 V-14〉 외국인 교직원 수	184
〈표 V-15〉 한양대학교 외국인 학생 입학 전형방법	186
〈표 V-16〉 한양대학교의 해외정부장학생 현황	187
〈표 V-17〉 한양대학교 상해 사무소의 주요 사업	188
〈표 V-18〉 유학생 전용 장학금	189
〈표 V-19〉 외국 유학생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	190
〈표 V-20〉 외국 유학생 해외파견 프로그램	190
〈표 V-21〉 한국뉴욕주립대 일반 현황	194
〈표 V-22〉 한국뉴욕주립대 이사회	195
〈표 V-23〉 한국뉴욕주립대 인성교육 프로그램 내용	196
〈표 V-24〉 한국뉴욕주립대 전공 과정 현황	197

〈표 V-25〉 한국뉴욕주립대 교수진 현황 -----	198
〈표 V-26〉 한국뉴욕주립대 학부 및 대학원 과정 지원 자격 요건 -----	199
〈표 V-27〉 한국뉴욕주립대 등록금 현황 -----	200
〈표 V-28〉 한국뉴욕주립대 장학제도 현황 -----	200
〈표 V-29〉 한국뉴욕주립대 기숙사비 현황 -----	201
〈표 V-30〉 포스텍 주요 연혁 -----	204
〈표 V-31〉 2013년 포스텍 외국인 학생 및 전임교원 현황 -----	205
〈표 V-32〉 포스텍 국제화 프로그램 현황 -----	205
〈표 V-33〉 포스텍 국제협력팀 업무 내용 -----	206
〈표 V-34〉 포스텍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참가자 현황 -----	208
〈표 V-35〉 포스텍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채용 기관 현황 -----	209
〈표 V-36〉 포스텍의 영어인증제 등급별 수강 과목 -----	210
〈표 VI-1〉 면담 대상자 현황 -----	217
〈표 VII-1〉 국제화 모드별 추진 전략 -----	260

[그림 I-1] 분석내용 및 방법	21
[그림 II-1] 국내 유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 추이	47
[그림 III-1] 일리노이 대학 국제 학생 총 학생 등록 추이	71
[그림 III-2] 일리노이 대학 학위 종류별 분포	72
[그림 III-3] 일리노이 대학 국제학생 신입생 단과대학별 분포(2012년)	72
[그림 III-4] 일리노이 대학 국제학생들의 지역별 분포(2012년)	73
[그림 III-5] 일리노이 대학 국제학생 신입생 등록 상위 5개 국가(2012년)	73
[그림 III-6] 일리노이 대학 외국인 교직원 수 추세	74
[그림 III-7] 일리노이 대학 외국인 교직원 전공분야	74
[그림 III-8] 일리노이 대학 외국인 교직원 재직 수 상위 10개 학과	75
[그림 III-9] 일리노이 대학 외국인 교직원 출신 국가 상위 10개국	75
[그림 III-10] 일리노이 대학 교직원의 비자 유형에 따른 분포	76
[그림 III-11] IPS 조직도	78
[그림 III-12] 해외 교류 프로그램 참여 기간	81
[그림 III-13] 지역별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 학생 분포	81
[그림 III-14] 출신 단과대학별 유학생 분포	82
[그림 III-15] 나고야 대학 유학생 현황	99
[그림 III-16] 교직원 해외 교류 현황	99
[그림 III-17] 국제화 프로그램(협작)의 추진체계 및 절차	105
[그림 IV-1] 대학 국제화의 문제	165
[그림 IV-2] 대학 국제화 추진을 위한 개선 과제	167
[그림 V-1] 2012년 외국인 유학생 구성비	173
[그림 V-2] 연도별 외국인 정규학생 증가 현황	184
[그림 V-3] 한양대학교 국제협력처 조직도	185
[그림 V-4] 한양대 유학생 상담 프로세스	191
[그림 V-5] 전문 상담 프로그램	191
[그림 V-6] 포스텍 국제협력팀 조직도	207
[그림 VII-1] 주체별 국제화 추진 전략 방안	26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4. 선행연구 및 시사점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화에 따른 고등교육시장 개방이라는 대외적인 교육 환경의 변화로 교육을 경제지표인 통화(currency)로 보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최정운·김미란·박영진, 2011 등). 특히 1995년 WTO 출범 이후, 특정국가간에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분야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철폐함으로써 상호 간 교역증진을 도모하는 특혜 무역협정인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로 표기함)이 다자간 무역체제인 GATT 체제와 더불어 전 세계로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고등교육서비스 개방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한국 역시 FTA를 통한 시장개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거대 경제권과의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한다는 기존 전략을 토대로 그간 우리나라와 교역 비중이 높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미국, 칠레 등 17개국과의 협상은 발효되었고, 12개국과의 협상은 진행 중이며, 특히 한-중 FTA 1차 협상의 경우 2013년 5월 10일 개시될 예정이다(이정미 외, 2012).

또한 세계의 많은 대학들이 고등교육 대중화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 재원확보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이를 타개하고자 국경을 초월하여 고객층을 다변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Altbach, P. G. & Knight, J., 2006; Knight, J., 2011). 나아가 고등교육의 국제화 시장이 3000억 달러 이상의 거대시장으로 부상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고등교육 시장개방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 간 무역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이 중요해지면서 각국에서도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고등교육 국제화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가장 먼저 고등교육 국제화에 주목한 것은 EU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U의 출범으로 학생 이동의 활성화를 위한 볼로냐 프로세스(Bologna Process)를 추진하여 고등교육의 국제화=미국화 시대의 종언을 고했다(館昭, 2009). 볼로냐 프로세스는 1999년 유럽 각국의 고등교육담당 장관회의를 통해 2010년까지 유럽 고등교육권(EHEA)을 형성하는 것으로, 유럽자유무역(EFTA) 가맹국과 15개 EU가맹국이었으나 유럽 평의회, UNESCO 유럽고등교육센터(CEPES), 유럽 대학협의회(EUA), 유럽 고등교육기관협의회(EURASHE), 유럽 학생조합(ESU), 유럽질보증협회(ENQA), 교육국제화유럽기구

(EI) 등, 대학은 물론 질보증기관, 교원조합, 경제단체 등 다양한 이해주체들이 관여하고 있다(Adelman, 2008). 볼로냐 프로세스의 목적은 학생·졸업생, 교직원의 이동성을 촉진하여 학생들의 장래 커리어와 시민 생활을 준비하고 인간 발달을 촉진하여, 질 높은 고등교육 진학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럽 단위 호환 시스템인 ECTS를 활용하여 국경을 넘어선 Joint Degree 취득을 촉진하고 질 보증을 위해 2008년 유럽 고등교육 질 보증 등록 기관을 설치하여 각국의 질 보증 단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¹⁾ 2009년에는 46개국 교육부 장관들이 모여 볼로냐 선언에서 제시한 주요 정책방향을 달성하기 위해 범유럽적, 국가적, 기관 차원에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내용의 루벤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2012년까지 국제적 통용성을 가진 학위시스템, 질 보증, 인증 분야의 국제화를 꾀하고 있다(박민아·이다은·한지혜, 2009).

이처럼 유럽에서 국제화가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유럽의 고등교육이 공공제(Public system)로서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Burton Clark(1983)가 그의 비교 연구에서 지적했듯이, 유럽 시스템은 상부(top):정부와 하부(bottom):민간이 강하고 중간부분(mid-level)이 취약하기 때문에 중간부분에 해당하는 고등교육기관의 리더십을 강화시켜야 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초반부터 주정부는 운영위원회(governing board)를 창설하고, 교육기관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 목적을 제공하는 형태로 국제화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개혁의 많은 부분은 NPM(New Public Management) 개념을 기반으로 한(Ferlie, Ashburner, Fitzgerald and Pettingrew, 1996) 경제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모델로(Gumport 2000; Teichler 1996), 강한 리더십, 운영 위원회, 질과 책무성 중시, 성과주의의 예산 운영 등을 강조하고 있다(Rhoades and Sporn, 2002a). 구체적으로는, ①교육기관의 자율성(institutional autonomy), ②고등교육의 확장(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③조화(harmonization), ④시장화(marketization), ⑤질 관리(quality control)로 요약할 수 있다(Sporn, 2003).

한국 정부에서도 1996년 고등교육 부문 대외개방 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종합방안(Study Korea Project)’을 시작으로 고등교육서비스의 세계화, 국제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고등교육 글로벌 서비스화에 대응한 경제부처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비주도적·비계획적이라 할 수 있는 규제 완화 위주의 정책이 중심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이정미, 2006). 그러나 최근 들어 2010년 유학생 유치 5만 명을 목표로 설정한 Study Korea Project의 조기 목표 달성으로 2008년 유치목표를 2012년까지 10만 명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2011년 우수 외국인 유치관리 선진화 방안을 수립하여 유학생 질 관리를 꾀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뿐만 아니라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한 복수 및 공동학위 수여는 물론이고 외

1) <http://eacea.ec.europa.eu/portal/eurydice> 참조.

국투자 유치 여건 조성 등의 경제적 차원에서도 외국대학 분교 유치와 같은 고등교육 시장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김미란 외,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유학 수요를 흡수하고 다양한 국제협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 고등교육의 시장개방 수준과 이에 따른 고등교육 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박정수 외, 2009). 정규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사교육과 해외 유학이 팽창하고, 국제경쟁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2013년 IMD 평가 결과를 보더라도, 국가경쟁력은 22위이나 교육경쟁력은 25위, 대학교육은 41위에 불과하며, Times 평가에서도 100위내에 랭크된 국내 대학은 서울대(44위), KAIST(56위), 포스텍(60위) 뿐으로 같은 아시아권의 싱가포르, 홍콩, 일본에도 뒤지고 있다(Times Ranking 2013-2014). 또한 Study Korea로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2년 86,87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해외로 나가는 유학생 수가 24만여 명으로 유학 수지 적자가 43억불(한화 5조원)에 이르고 있을 뿐 아니라(e-나라지표)²⁾, 학생 수 부족으로 재정난에 직면한 지방대학이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단순 유학생 유치에 치중하면서 국내 고등교육 국제화의 질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2012년 ‘고등교육 국제화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같은 In-Bound 정책뿐 아니라 해외 분교 설립 지원과 같은 Out-Bound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고등교육 시장개방으로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고등교육서비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국내 대학의 다양한 국제화 모델을 마련함으로써 고등교육 국제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인재양성을 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그러나 고등교육 국제화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고등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고등교육기관 내부의 대학 국제화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최정윤·김미란, 2007). 고등교육기관의 국제화가 중시되면서 대학알리미를 통해 국제화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학생 수나 외국인 교원, 해외 파견 정도에 불과하여, 대학이 어떠한 국제화 전략을 수립하고 어떤 프로세스로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은 물론, 이들 대학들이 향후 국제화 추진 방향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나아가 정부의 국제화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실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이 대학 수준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고등교육기관 스스로가 국제화를 꾀할 수 있는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학 국제화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한국 고등교육 국제화 현황

2) e-나라지표 유학생 현황(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534&bbs=INDX_001&clas_div=C&rootKey=1.48.0).

및 정책의 흐름을 살펴보고, 우리보다 먼저 국제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의 국제화 정책과 대학수준의 국제화 추진 사례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 특성에 따라 국제화 전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를 실행하고 있는지, 나아가 국제화 추진을 위해 정책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현황과 인식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향후 고등교육 시장개방 정책의 방향과 더불어 구체적인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고등교육 국제화는 어떤 정책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실제 한국 고등교육기관의 국제화 추진 현황은 어떠한가?

셋째, 국제화 추진 현장에서 본 국제화 정책 추진의 문제 및 과제는 무엇인가?

넷째, 고등교육기관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의 국제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2 연구 내용

가.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추진현황 분석

먼저 고등교육 서비스 시장 개방의 배경과 현황 이해를 위해 WTO/DDA의 전개, FTA 확산 배경 및 추진 동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한 정부의 대응 현황을 시기별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전체적인 정책 동향과 특징을 도출한다. 그리고 대학정보공시센터의 통계자료 및 기존 자료 분석을 통해 대학의 유형과 특성에 따른 국제화 추진 성과를 살펴보고 고등교육기관 국제화 정책의 문제점과 과제를 제시한다.

나. 주요국의 국제화 정책현황 분석

고등교육 국제화와 관련된 주요국의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과 이에 대응한 대학 수준의 국제화 사례를 분석한다. 특히, 한국 고등교육 국제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과 앞으로 교육시장 개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본, 중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고등교육 체제 및 시장개방 정책을 검토하고 우수 고등교육기관의 국제화 추진 전략 등을 파악하여, 국가마다 상이한 정치적 환경 및 제

도적 기반에 따라 국제화 정책의 방향과 실제 고등교육 국제화 현황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개선 방안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다. 대학 국제화 현황 및 인식 조사

한국 대학 국제화 정책의 성과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대학 국제화 현황 및 인식 조사를 실시한다. 먼저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시장개방에 대응한 국제화 전략의 유무, 조직은 물론, 유학생 유치 및 지원, 해외 교류 등과 같은 대학 국제화 현황과 국제화 필요성, 국제화의 의의, 국제화 추진 프로세스, 앞으로의 중요성 등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면담 조사를 통해 국가수준과 대학 수준에서의 국제화 추진의 문제점과 과제, 그리고 발전 방안 등을 분석하여 국제화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라. 국내 대학의 국제화 우수 사례 조사

정책 성과와 현황 조사 등을 통해 고등교육 글로벌 서비스 형태에 따라 국내 대학의 우수 사례를 선정·분석한다. 국내 대학의 우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이가 벤치마킹의 사례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정책적으로도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 방향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마. 한국 대학 국제화 정책 개선 방안 도출

국내외 정책 동향, 사례 등을 통한 현황 분석과 한국 대학 국제화 요구조사를 토대로 한국 고등교육 시장개방 정책 추진 방향과 세부 정책 제언을 도출한다.

3 연구 방법

가. 국내외 문헌연구

국내외 선행 연구 및 해외 웹사이트 등을 통해 국내외 고등교육 국제화의 현황 및 추이, 문제점과 과제 등을 도출한다. 고등교육 국제화의 개념, 범위, 동향, 우리나라 및 각국의 국제화 추진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외 관련 문헌을 수집, 분석한다.

나. 통계자료 분석

한국 고등교육의 글로벌 협력 및 교류 현황 등과 같은 국제화 관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자료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교육통계서비스(<http://cesi.kedi.re.kr>),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는 물론 교육부, 외교부, 통계청 등의 정부 자료를 수집하여 한국 고등교육 국제화 성과를 검토한다.

다. 설문 조사

실제 고등교육 국제화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전국 4년제 대학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4년제 대학의 국제화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글로벌 협력 및 교류의 구체적인 국제화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관계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협력 및 교류의 필요성, 문제점, 전망, 정책 요구 등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표 I-1〉 설문 조사 개요

구분	현황 조사	인식 조사
조사 대상	·4년제 대학 국제화 관련 부처	·4년제 대학 국제화 관련 교직원
조사 방법	·교육부 국제화 담당부서의 공문 협조를 통한 메일링 조사	
설문 내용	·대학의 국제화 현황	·국제화 현황, 문제점, 전망, 요구 사항 등

라. 사례 조사

현황조사를 통해 각 모드별로 ①Mode 1: 교육과정/프로그램 협력, ②Mode 2: 해외 유학 및 해외 연수, ③Mode 3: 외국교육기관 설립, ④Mode 4: 해외 교류 분야의 국제화 우수 대학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현황과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대학의 국제화 운영에 대한 시사점과 과제를 도출한다.

마. 면담 조사

국제화 관련 전문가 대상 면담 조사를 통해 고등교육 국제화 추진의 필요성 및 문제점, 나아가 정책 요구에 대해 알아본다. 이를 통해 국제화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2〉 면담 대상자 예시

면담 대상자	인수 및 횟수
대학 국제화 담당자	5명 X 1회
외국대학 관련자	3명 X 1회
대학 국제화 정책 관련자	5명 X 1회
총 면담자 : 13명	

바. 전문가 협의회

고등교육시장 개방 및 고등교육의 글로벌 협력 및 교류 관련 전문가, 정책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전문가협의회 개최를 통하여 고등교육 시장개방을 포함한 국제화 정책을 진단하고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화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국내외 전문가 풀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을 토대로 향후 글로벌 교육 교류 및 협력의 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한국 고등교육기관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차원의 국제화 전략 수립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4 선행연구 및 시사점

가. 시장개방과 국제화 개념

먼저 시장개방과 고등교육 국제화의 관련을 살펴보면,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화의 압력이나 상업적 이해의 개입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시장의 힘은 학술 세계의 모든 면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Krip, 2003) 시장의 힘이 강해질수록 ‘고등교육 글로벌 서비스화’가 진행된다. 그 이유를 Roger Geiger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시장은 대학에 보다 많은 자원과 우수한 학생, 선진적 지식에 대한 수용력과 생산적 역할을 요구한다. 동시에 대학 자체의 자율성을 축소시키고 공공에 공헌하는 대학의 목적을 약화시켜 상업적 책임을 지우게 함으로써 지식 생산이라는 대학의 특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Roger Geiger, 2004: 265)

특히 한국과 같은 신흥국가의 경우 재정 기반이 불안정하고 대학 자치의 전통이 약한 경우에는

이러한 시장의 압력은 대학의 연구 방향성, 대학의 관심, 나아가 대학 재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Altbach, 2007). 다시 말해,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ICT의 발달과 더불어 FTA와 같은 시장개방(무역협정)과 같은 글로벌화의 진전을 배경으로 고등교육 내부에 대중화, 공제정의 감소, 책무성의 증가와 함께 국제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고등교육이 경제적인 의미에서 ‘시장’이나 ‘서비스’ 또는 산업이라는 범주에 포함되어 시장 경제 원칙에 따른 서비스 교역의 대상으로 간주되면서 이러한 환경에 대응하고자 전통적인 대학의 역할을 넘어 ‘고등교육 글로벌 서비스화’, 즉 국제화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 국제화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고등교육 국제화가 개인, 조직, 국가 등 여러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접근 방법과 관점에 따라서도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기 때문이다. 과거 1990년대 전반까지는 국제화와 세계화가 동일한 개념으로 이용되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Altbach, 2004). De Wit은 ‘세계화(globalization)’는 기술, 지식, 재정 또는 인적자원, 가치, 아이디어 등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현상이며,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는 이러한 세계화의 충격에 대응하는 개별 국가의 대응 방식’이라고 정의하고(De Wit, 2002) 국제화를 위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학문적인 논리 중, 경제적 논리가 다른 3가지에 비해 더욱 중시되는 경향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Ulrich Teichler(2004)는 세계화는 국가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고등교육의 환경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규정하고, 최근에는 고등교육 내에서는 세계화라는 말 대신 국제화라는 용어로 바뀌어가는 추세라고 하였으나, Peter Scott(2005)는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와 세계화(globalization)는 주체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내려질 수 있는 것으로 이 두 가지는 서로 중복되기도 하며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고 하였다.

특히 최근 10여 년 동안 ‘국경을 넘나드는 교육(cross-border education)’, ‘분교를 통한 해외교육(offshore education)’, ‘교육서비스의 시장화(international trade in educational services)’ 등,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둘러싼 다양한 개념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개념을 정리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De Wit(2011)은 최근 고등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경을 넘나드는 활동으로 고등교육의 국제화의 개념이 특정한 논리나 목적에 따라 정의된다고 보았다. 즉, 국가수준에서의 국제화, 대학수준에서의 국제화가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Altbach, Reisber, Rumbly(2009)는 다음과 같이 세계화와 국제화를 구분지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세계화는 21세기의 주요한 현상으로 고등교육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점차적으로 통합적인 면모를 띠는 세계 경제와 IT기술의 혁신, 국제적인 지식 네트워크의 등장, 영어의 역할 등, 고등교육 기관

의 역할을 넘어서는 다양한 영향을 세계화로 보고 있다. 국제화는 대학과 정부가 세계화에 대한 반응으로 실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다.”(Altbach, Reisber & Rumbley, 2009: 2)

위의 많은 논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세계화는 하나의 현상으로 국제화는 이에 대응한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인력개발, 전략적 동맹, 수익 증대, 상업적 무역, 국가 건설, 사회/문화적 개발, 상호이해 등과 같은 국가수준의 논리와 국제적 명성, 대학 질의 향상, 수익 증대, 학생과 교직원들의 개발, 전략적 동맹과 지식창출 등과 같은 대학수준의 논리가 국제화라는 말로 수렴되고 있지만, 고등교육 국제화는 Knight(2008)의 정의처럼, 고등교육기관과 시스템의 목표, 교육(학습), 연구, 서비스 제공 등, 대학의 중핵적인 기능에 국제적, 이문화적, 글로벌한 특징을 통합하는 다면적이고 다각적인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다. 즉, 세계화란 하나의 현상이며 국제화는 이에 대응한 고등교육의 전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화의 하나인 시장개방(상업적 무역)이란 국제화를 촉진시키는 매개요인이며, 그리고 시장개방에 대한 반응장치가 곧 국제화라 할 수 있는 것이다(Knight, 2008).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경제 시장의 개방과 같은 글로벌화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고등교육의 대응책이 바로 고등교육의 국제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太田浩, 2013).

나. 고등교육 시장개방의 동향

UNESCO나 OECD의 경우에는 고등교육서비스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고등교육서비스의 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OECD에서는 고등교육의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의 배경으로 ①상호간 이해에 대한 욕구, ②세계화된 경제에서의 숙련된 노동자들의 이민, ③추가 수입을 창출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의 욕구, ④노동력의 고학력화라는 국가의 필요성(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우)을 들고, 구체적인 현황을 분석하였다(OECD, 2004). 학생 이동의 측면에서 보면, 유럽은 정책 주도적이거나 아시아퍼시픽 지역에서는 요구(수요) 주도적이며, 북아메리카는 교육기관 주도의 교육 프로그램 및 외국교육기관 제공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경 없는 교육의 성장 및 다양화에 따라, 날로 확대되는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수용능력도 증가하고 있는가? 접근성은 높아지고 있는가? 학생 및 정부에게 비용이 낮아지고 있는가? 자유화가 고등교육 수요증가와 사적인 제공(private provision)의 중요성 증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가? 등에 대해 질과 인정(quality and recognition), 접근성 및 형평성(access and equity), 재정 및 비용(financing and cost), 수용능력 확보를 위한 국경 없는 고등교육의 활용(using cross-border higher education to build capacity), 정책 일관성(policy coherence)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OECD, 2004).

이를 배경으로 UNESCO/OECD 가이드라인에서는 고등교육서비스 분야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촉진하고 질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고등교육서비스 이동과 관련된 정부, 고등교육기관/교육서비스 공급자, 학생, 질 보증·인증기관, 학위·자격인정기관, 전문기구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UNESCO/OECD, 2005). 구체적으로는 대학 및 외부의 질 보장 체제 확립, 질 보장 관련 활동과 정보의 공개, 관련 주체들 간의 국제 협력 강화 등 실천적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질 보장을 통해 학생들에게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서비스 공급주체(국가, 고등교육기관, 관련 단체 등) 간 학점과 학과 교류뿐 아니라 학위와 자격 등에 대한 상호인정을 도모하여 국제적인 통용성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 해외의 고등교육 국제화 연구 동향

이러한 전 세계적인 시장개방 정책 흐름에 따라 개별 국가 수준, 혹은 대학 수준에서의 고등교육 국제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구도 축적되고 있다.

호주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Daly, A.(2011)는 학생이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를 결정하고 대상 국가를 선정하는 맥락적·개인적 요인을 분석 모델로 제시하였다. 먼저, 국제적인 맥락에는 통상과 국제관계, 국제적 능력을 갖춘 대학졸업생에 대한 수요 증가, 문화교류에 대해 달라진 시각, 증가하는 해외여행과 유학, 교환학생 프로그램 주최국의 안전 및 물가 등의 요소가 포함된다. 둘째, 국가적 맥락은 국제교육 및 교류를 강조하고 가치부여를 하는 국가적인 요소를 말한다. 즉, UMAP(University Mobility in Asia and the Pacific)이나 UNIMOR(Universsity Mobility in the Indian Ocean Region)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가 학생들의 국제교류를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로 대학수준의 맥락은 학생이 속한 대학의 조직문화, 관련교직원의 열정과 의지,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홍보, 학생선발 기준 및 방식, 재정지원, 이수학점 인정 여부 등이다. 이러한 맥락적 요인 이외에 개인적 요인에는 성별과 인종, 그리고 가족과 친구의 의견 등이 반영된 사적영역의 특징,³⁾ 타문화에 능숙한 정도, 여행의 경험이나 흥미 정도, 학생의 전공영역, 졸업 후 고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커리어 개발 의지, 외국어 능력, 재정적 상황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요인들이 호주의 학생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3) Daly & Barker(2005)와 Olsen(2008)의 연구에 의하면 호주의 경우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참여도가(60%, 2008) 상대적으로 높고, 다문화 출신의 학생(6%) 보다는 백인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고등교육 국제화의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도 다수 등장하고 있다. Trent, J.(2012)는 홍콩의 외국인 영어 강사(international English-language teaching assistants)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그들이 갖는 교육자로서의 정체성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분석하여, 일괄적인 목표 설정은 지양하고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필요가 반영된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고, 강의 수나 외국인 교원 수와 같은 양적 지표 관리와 함께 질적인 평가를 통해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어교육과 외국어 강의에 대한 질 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일본 정부의 국제화 추진 정책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 또한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Kuwamura A.(2009)는 ‘유학생 30만명 유치’ 정책의 추진 현황을 분석하여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국내 대학의 학생 모집 경쟁이 심화되어 외국 유학생 유치를 통한 교내 다양성 확보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외국인 교수 및 교직원의 증가, 영어 중심에서 보다 다양한 외국어 교육, 외국 유학생 전담 교직원 및 어학교육, 프로그램 운영, 비자, 입국 관련 사항 등에서 전문성을 지닌 교직원의 확보 및 교육 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Whitsed, M. & Volet, S.(2011)는 일본의 국제화 정책이 대학 단위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경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타문화 이해 증진,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교육과정, 외국인 교원에 대한 포용적인 자세 등과 같은 문화적 영역이 간과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Whitsed, C. & Wright, P.(2011)는 외국인 영어 교수의 시각에서 일본 고등교육 국제화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43명의 외국인 영어 교수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을 통해, 고등교육의 국제화라는 일본 정부의 구호와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영어교육의 현실 사이에는 적지 않은 간극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국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영어구술 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 고등교육 국제화정책이 대학이나 학생의 필요와 능력을 무시하고 형식적인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수준에서 고등교육 협력과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적게 언급되었던 남미지역의 국제화를 분석한 연구도 등장하고 있다(Lopez, A., 2011). 남미 지역에서의 대학 협력 및 국제교류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30개 이상의 국제조직의 경향과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남미지역에서의 고등교육의 국제화는 ①해당 국가의 사회·경제 발전 단계와 해당 대학의 문화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고, ②대학차원에서의 주도적인 국제협력력이 아닌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협력 관계가 많아 대학 간의 상보적인 효과가 적으며, ③유수한 대학에서조차 국제협력은 낮은 수준의 기획과 단기간이나 일회적인 성격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등교육의 국제화에 긍정적인 조건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대학의 국제적 공조는 학문적 발전이나 고등교육 전반에 매우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라. 국내의 고등교육 국제화 연구

1) 한국에서의 국제화 개념 정의

한국에서는 국제교육(international education), 국제학(international studies), 국제주의(internationalism), 다국적 교육(transnational education), 세계화(globalization), 지역화(regionalization) 등이 ‘국제화’와 동일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교류, 교육과정, 역량 등의 용어들 역시 국제화와 관련해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교직원이나 학생 교류, 문화교류, 연구협력 등 국제적 교류·협력을 국제화로 보는 견해부터 국제지역연구, 인적자원의 국제적 역량 또는 고등교육 기관을 국제적 차원과 관점으로 변모시키려는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까지 국제화라 정의하기도 한다(김미경, 2011). 이처럼 한국에서는 Globalization이나 Internationalization을 ‘국제화’로 동일하게 사용하여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하는 것, 자국의 고등교육을 국제적 수준으로 표준화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이경숙, 2007). 즉, 대학의 국제화를 대체로 질 제고와 국제적인 요소의 통합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으며 Globalization, Internationalization을 세계화, 국제화로 혼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병식 외, 2006).

김경화(2004)는 교육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FTA 현황을 살펴보고 호주의 국제화 프로그램 사례를 분석하여 전문대학의 국제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국가 간의 경쟁과 협력이 강조되는 21세기에서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국제화로 보고 고등교육 국제화를 ‘우리의 교육을 국제 수준 및 표준에 맞게 구조와 내용을 변화시킴으로써 그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위해 4년제 대학보다 짧은 기간 동안 실무기술을 배울 수 있는 전문대학에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유학생 유치 및 국제 교류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교내 인프라의 구축, 전문대학의 지속적인 질 관리 및 평가, 인터넷을 통한 입학관련 자료제공 및 상담, 다양한 국제 홍보활동의 전개,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국제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다양한 복지 후생 프로그램 개발, 외국대학과의 공동강좌 및 공동학위 제도의 적극적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신현석(2007)은 ‘시장화’(marketization) 개념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 시장화가 진행되는 단계를 4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별로 국가와 시장 그리고 대학이 시장화 경향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그 대응 내용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①고등교육의 시장화 경향은 WTO/GATS의 자유무역을 위한 시장개방협상에서 교육이 서비스 품목으로 포함되면서 촉발되어 정부가 공급과 규제적 역할을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②이처럼 고등교육의 시장화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중심이 되고 있으나 대학의 미션을 인정하고 최대한 자율성을 허용하는 동시에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확인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창출하는 데 정

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③고등교육의 시장화에 대비하여 대학이 국가와 시장으로부터 가해지는 정치·경제적 압박 속에서 생존의 주체이며 생존을 넘어 번영을 기약할 수 있는 전략을 스스로 마련해야 할 것이며, ④고등교육 특성화를 통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여기에서도 시장개방협상을 통해 교육이 서비스 품목으로 포함되면서 시장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대학의 특성화 전략의 하나로 국제화를 거론하고 있다.

‘글로벌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서비스 역량강화 방안 연구’(최석준, 2010)에서는 교육수지 개선을 위해 고등교육에 대한 교육서비스 관련 분야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교육서비스 분야의 국내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여 개방적이고 산업적인 교육정책을 취하고 있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우리에게 적합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서비스산업에는 글로벌 교육서비스라는 말로 관리 육성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사례가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고 글로벌 교육서비스를 ‘국제화 추진 등을 통해 경쟁력을 조기 확보할 수 있고 심각한 유학수지 적자 등 교육서비스 분야 무역역조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전략적 산업’으로 정의하고 국내외 현황 분석을 통해 교육서비스 산업 분야 전담 조직의 강화, 근거 법률의 제정, 전담 연구조직의 지정 및 운영, 기초자료의 확보 및 육성기본계획 수립, 정책수단의 발굴과 예산확보, 관련 규제 완화 등을 들고 있다.

2) 시장개방에 따른 고등교육 국제화 논의

유럽이나 일본 등, 기타 OECD 국가들에 비해 국제화 추진이 늦은 한국에서는, 초기 FTA에 대응하기 위한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김경근 외, 2008; 이병식 외, 2006; 안미리 외, 2007; 채재은·김안나, 2008). 고등교육의 시장 개방과 선택(주삼환, 2002)에서는 고등교육 시장 개방의 압력과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시장 개방의 배경과 개방 원칙, 형태, 찬·반 논란에 대해 살펴보고 개방 형태 별로 시장 여건에 따른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고등교육을 영리사업으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선택에서 사립을 영리로 한다면 ‘내국인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하며, 둘째, 내국인을 위한 개방이냐, 외국인을 위한 개방이냐를 선택할 경우 사립대학에 대한 자율권을 확대하고 외국대학의 경우 특례로 우대하는 역차별이 없도록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셋째, 교육 수출이냐, 교육수입이냐의 선택에서 외국유학생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 교육기관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넷째, 국제화나 시장개방을 선택해야 한다면 적극적인 국제화 노력을 통해 한국 고등교육의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교육서비스 시장 개방이나 국제화와 관련한 준비와 연구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조사연구의 필요성을 강

조하였다.

‘교육서비스 시장개방 논의와 대응방안’(2002)에서는 교육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선별적 시장개방의 원칙 아래 시장개방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향후 협상경과 및 성과에 따라 개방의 폭을 넓혀가야 한다는 전제하에, ①국내에 진출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일정 기준을 적용하여 부실한 외국교육기관의 유입을 억제하고 우수한 교육기관의 선별 유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②국내 교육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교육서비스와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부터 허용하고, ③국내 교육기관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평가인정체제의 확립, 대학 자율성 확대, 정부 지원 및 민간 투자의 확대를 들었다. 그리고 ④교육서비스 무역자유화 추세에 맞추어 국내 교육기관의 해외진출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장덕호는 ‘최근의 국제 관계의 변화와 국제교육정책 형성을 위한 담론’(2007)을 통해 교육을 둘러싼 국제관계의 변화 동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국제 환경 변화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국제교육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국제교육 발전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①교육의 국제화를 논하기 이전에 국가 사회 전반적인 차원에서 국제화 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②법제도 정비, 관련기관 간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전문가 양성과 정보 공유 등과 같은 국제교육 지원행정의 강화, ③정부차원의 마스터 플랜 수립을 통한 전략적 교육시장 개방, ④교육부분의 공적개발원조 강화, ⑤다문화 교육의 실시와 영어교육의 활성화를 들었다. 특히 뒤쳐진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 교육의 국제화를 위해 대학 특성화에 주력하고 세계 수준의 우수 대학원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송영관·송백훈·강준구(2008)의 연구에서는 지식기반서비스의 발전이 고등교육을 통한 인재육성에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고등교육 세계화 정책을 고찰하고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 고등교육서비스의 세계화 정책을 제언하였다. 구체적으로 고등교육서비스의 개방과 관련하여 논의되어야 할 주요 정책으로 외국 학생과 교수진/연구진의 유치, 외국 고등교육 프로그램 및 고등교육기관 유치를 들고 가장 효과적인 재정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고등교육기관이 관리 주체가 되는 질 관리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이를 취해서는 첫째, 한국 고등교육기관의 국제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 연구중심과 교육중심 고등교육기관의 차별적 재정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둘째, 고등교육 서비스 질에 따라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고등교육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질의 특성에 따라 엄정한 평가 체제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며 고등교육기관 내부의 성과-보상 연계 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김승보 외, 2007)에서도 고등교육을 교육과 연구, 산업화(서비스)의 세 가지 기능적 맥락으로 크게 구분하고 각각의 기능들이 대학의 전통적 흐름 속에서 외

부세계의 경쟁력 요구와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며 기여했는지, 그리고 글로벌 단위로 변화한 외부세계의 지형 속에서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요인을 탐색하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프랑스, 미국, 싱가포르, 일본 4개 나라의 개별 대학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사례 연구와 더불어 국제 동향을 살펴 ①교육, 연구 및 산업 기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②자유 경쟁 시스템의 구축 및 지원, ③고급 인재 유인 및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 제고, ④시장 개방 추진 및 대학 특성화 지원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시설 재정 인프라 확충, 대학 교육과정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 산학 연계, 대학 경쟁 시스템의 구축, 개인 단위의 재정 지원, 평가 및 정보 제공, 외부 환경의 개선, 네트워크 역량 강화, 대학 특성화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3) 국제화 지표 개발

최근에는 시장개방의 동향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수준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좌표 역할을 할 수 있는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를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도 이루어졌다. 최정운·김미란(2007)은 앞서 언급한 Internationalization과 Globalization에 대한 Knight의 개념을 차용하여 국제화 평가 항목에 따른 지표를 개발하고 한국 대학의 국제화 현황을 조망할 수 있는 실증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였다. 먼저 ①대학 차원의 국제화 목표, 전략 및 실행 계획, ②조직·재정, ③인프라, ④교육, ⑤연구의 5개 영역으로 나누어, ①에는 전략 수립의 타당성, 실행계획의 체계성을, ②영역에는 조직, 재정, ③영역에는 정보체제, 지원체제, 네트워크 항목을 ④영역에서는 정규교육과정, 비정규교육과정, 외국인 교원 비율과 같은 교수 항목, ⑤영역에서는 연구성과 발표, 연구 활동의 국제화 등으로 하여 4년제 대학 전수 조사를 통해 고등교육 국제화 현황을 분석하였다. 시장개방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고등교육 국제화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들 지표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제언을 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김경근 외(2008)도 세계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들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고등교육 국제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고등교육 국제화 개념과 접근 방법, 국제화 지표 개발의 배경을 고찰하고 OECD가 개발한 고등교육 국제화 질 검토과정과 미국의 대학 국제화 지표를 비교 검토하여 ①고등교육기관 스스로 국제화를 위한 자체평가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제화에 관한 명확한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화 정책의 내실화를 꾀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그리고 ②정부는 고등교육 국제화를 위한 질 보증 체제를 마련하는 한편, 국제화를 위한 자체평가체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학교육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유치 연구

최근에는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유치에 관련된 연구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김장기·지경배(2007)는 ‘교육개방화 시대에 따른 지방정부의 정책대응: 해외 우수대학 유치를 중심으로’라는 연구에서 국내외 우수대학에 대한 국가별, 학문영역별, 학위취득별 현황분석과 해외 우수대학 유치사례를 분석하여, GAT’S 체제 하에서 DDA 아젠다를 통한 국가 간 교육서비스 개방이 필연적이라면 전략적 입장에서 해외 우수대학의 단계별 유치를 통해 국가 및 지역 내부의 대학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이를 토대로 지역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①세계수준의 우선순위와 지명도가 높은 대학을 유치함으로써 국가적·사회적으로 유치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국내 교육시장의 자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방안과 ②학문별·전공영역별로 지명도가 높은 해외 우수대학을 유치하고, ③한국인의 지명도가 높은 국외 우수대학 유치, ④지역내부의 사회자본 개발과 부합된 특성화된 해외 우수대학 유치를 제안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전략적으로 해외 우수대학 유치에 성공한 싱가포르와 호주의 사례를 통해 ①유치 프로그램 개발, ②지방 정부 수준의 지원조례와 규정에 의한 유치가능성 확대, ③지역특성에 부합된 유치, ④협력 시스템의 구축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오정일(2006)은 ‘교육서비스 시장개방의 국제수지 효과 연구’에서 2003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학생들의 코호트 분석을 통해 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국제수지 효과를 추정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2003년 전체 유학 코호트의 유학비용은 24억 6천만 달러로, 대학교 과정에 유학을 떠난 학생 1인당 평균 유학기간은 4.4년이며 유학비용은 13만 2천달러로 추정하고 국제수지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초·중·고등학생의 10%, 그리고 대학·대학원생의 30%가 감소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미국대학들이 국내에 진출하더라도 대학원 과정까지 동반 진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학원 유학생 수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외국 교육기관에 대한 질적 규제가 필요하지만 외국 대학의 국내 진출 활성화를 위해 영리법인 형태의 유치를 해야 하며 국내 대학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통해 고등교육 투자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민윤지(2011)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서비스 시장 현황을 분석하여 고등교육기관 개방에 있어서는 국내 진출하는 외국 교육기관에 대해 일정 기준을 적용하여 부실한 외국 교육기관의 유입을 억제하고 우수한 교육기관의 선별 유입이 가능하도록 전략적으로 유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제반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국내 교육기관의 해외 진출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한 정책연구로 ‘외국대학 유치 모델 및 기준연구’(2011)와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질 보증을 위한 제도개선: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2012) '질 보증을 위한 외국교육기관(대학) 유치 추진전략 및 종합계획'(2012) 연구를 들 수 있다. 먼저 김미란·채재은(2011)의 '외국대학 유치모델 및 기준 연구'에서는 해외의 외국대학 유치 사례와 국내에서 운영 중인 STC-Korea, FAU-Busan, SUNY-Korea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유치 경위 및 유치 과정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한국에서의 바람직한 외국대학 유치 모델 및 기준안을 제시하였다. 유치모델에 관해서는 경제자유구역별로 외국대학 유치 목적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와 연계하여 유치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외국대학 분교의 설립과 운영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소규모 특화 대학원 과정'을 우선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 차원의 캠퍼스 타운 조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분교 설치의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유치 기준(안)으로는 대학 설립 심사 기준의 완화 및 구체화, 부처 간 연계 지원 체계의 구축, 외국대학 유치 전담 컨설팅 기관의 설립·운영, 국내 대학 및 기업과의 산학공동연구 활성화, 정보 공개 시스템의 구축, 질 보증 방안 마련과 이 모두를 위한 정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 확충과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어서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질 보증을 위한 제도개선: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김미란·박병영·차성현·이병식, 2012) 연구에서는 미국, 호주, 일본 등 활발하게 외국대학 분교를 유치하고 있는 국가들의 질 보증 시스템을 분석하고,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의 질 보증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①국가 수준의 학위 및 자격의 유형과 기준, 평가인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②해외 대학이 국내에 분교를 설치하거나 국내 대학과 공동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도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고 국내 고등교육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③국내외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기구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④국내에 진출하려는 외국대학의 분교 설립에 관한 인증절차는 진출하려는 나라의 대학평가인증체제의 우수성에 따라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⑤사후 관리뿐만 아니라 외국대학의 유치 단계에서부터 보다 우수한 대학들이 국내에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제언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외국교육기관 질 보증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교육 프로그램 평가시스템 구축, 국제 통용성 확보를 위한 네트워킹, 전문 평가 기관의 설립 지원, 정부의 행·재정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홍영란·서영인·정영기·김성기(2012)의 '질 보증을 위한 외국교육기관(대학) 유치 추진전략 및 종합계획' 연구에서는 한국 고등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등교육 서비스를 통한 수익성 추구는 물론 해외 우수인력 활용 및 자국 우수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 정책으로서 외국교육기관 유치 전략 및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라는 비전 아래 다양한 고등교육 기회의 제공, 교육수지 및 서비스 개선, 글로벌 인재양성 및 활용을 추진목표로 설정하고

4가지 영역별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①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개선을 위해 국내기업과의 스폰서십 추진을 제안하고 ②우수 교육기관의 전략적 유치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의 유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특화된 전략적 유치, 유치추진단 운영, 국가 및 학생 구성의 다양화, 심사 운영체제 개선, 아태 지역의 수요를 고려한 유치전략 및 홍보 강화 등과 같은 과제를 제시하였다. ③산학연 협력을 통한 외국교육기관 자생력 강화를 위해 산학연 협력 및 상호발전 기반 구축, R&D 사업 참여기회 및 국내 고등교육기관과의 협력 확대, 복수학위 및 학생교류를 제안하고 ④질 관리를 통한 운영 내실화 방안으로 질 관리 체계 확립, 관리 지원 정보망 구축과 운영 내실화, 정주 여건 개선을 제안하였다.

마.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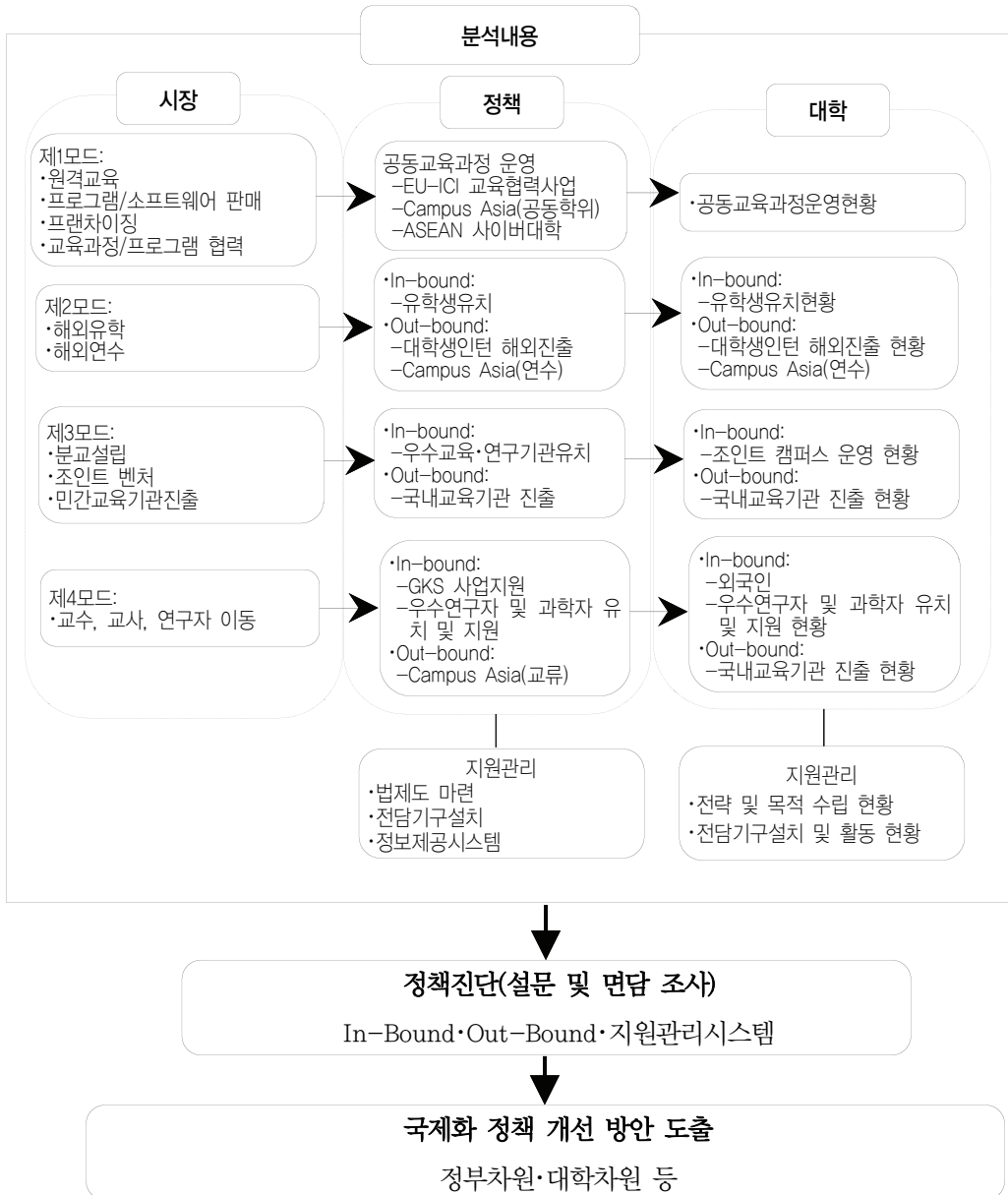
이상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먼저 시장개방과 국제화의 개념을 정리하자면, 세계화의 하나로 시장개방이 이루어지고 국제화는 세계화의 영향을 받아 고등교육기관이 교육, 연구, 서비스 기능을 국제적 차원으로 통합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즉, 고등교육의 국제화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로 고등교육서비스 형태뿐 아니라 자국 고등교육기관의 다양한 활동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의 고등교육 국제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모두 특정 지역의 국가별, 상황별 사례연구이지만, 고등교육 수준에서의 국제적 공조가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협력 주체 간의 상호보완성, 대학 차원에서의 의지, 치밀한 기획은 물론이고 교육과정 운영의 차원에서 질 관리와 같은 선행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도 적극적인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고등교육 국제화 관련 선행연구는 국제화와 세계화 개념이 혼용되면서,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예측하는 과정에서의 찬반론과, 교육시장 개방의 영향 및 효과를 설명 또는 예측하고 정부 및 대학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둔 정책 제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유치와 같은 고등교육기관 수준에서의 국제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학 내부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고 있으나 정부 주도의 정책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 설정은 물론 대학 내부의 국제화 현황에 대한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정책 진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정부의 대학 국제화 정책 흐름에 대해 알

아보고 주요국의 국제화 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한국 대학 국제화의 특징을 도출하여 국제화 정책을 진단한다. 또한 실제 고등교육 국제화 현황과 인식을 조사하고 시장개방 모드별 우수 사례와 대학 관계자 및 전문가 면담을 통해 국제화 과제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구체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1] 분석내용 및 방법

II

한국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동향

1. 고등교육 국제화의 배경
2. 시기별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3. 시장개방 Mode별 고등교육 국제화 성과
4. 소결

II

한국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동향

이 장에서는 한국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동향을 FTA와 같은 시장개방에 대한 배경 설명과 함께 정책 시기별 주요 정책 흐름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시장개방 모드별 한국 고등교육 국제화 성과를 교육부 정책 자료와 대학정보공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고등교육 국제화의 배경

가. 고등교육의 글로벌 서비스화

흔히 시장개방이라고 하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말한다. 서비스 분야의 국제교육을 다루는 최초의 구속적 다자간 규범인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이 WTO 출범에 따라 발효된 것이라고 한다면 FTA란 특정 국가 간에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분야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함으로써 상호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 무역협정을 의미한다. 이는 1950년대부터 시작되어 주로 서유럽과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후 다자간 무역체제인 GATT 체제와 공존하면서 1995년 WTO 출범 이후 전 세계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초기에는 주로 상품 분야의 관세 인하 철폐에 중점을 두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분야 등에 이르기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확대되면서 교육서비스 분야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고등교육서비스의 공급형태별 시장개방 확대에 관련한 WTO의 FTA 논의에 대해서는 W/120 하에서 5.C 고등교육서비스에 해당하며, 이는 UN의 CPC 분류로 923. Higher education services로 WTO 출범 이후 논의가 시작되었다(송영관·송백훈·강준구, 2008). WTO 서비스 협상에서 고등교육 서비스 개방에 대한 논의의 범위는 2001년 각 국가들이 제출한 협상제안서를 통해 제출되었으나 2002년부터의 WTO 서비스 협상에서는 국가별로 상대국에 대한 개방 관심 분야를 담은 1차 양허요청서(initial request)와 양자 간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WTO나 FTA 등과 같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강조하는 경우에는 유학생의 송출 및 유치에 대한 각종 제한 사항에

관한 논의, IT 기술의 발달에 따른 원격교육과 관련된 논의,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학점 및 학위의 인정 또는 교류 문제 등, 시장 교역의 측면에서 중시되는 내용들이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송영관·송백훈·강준구, 2008).

WTO에서 추진하고 있는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에서는 국제적으로 서비스가 공급되는 형태를 국경 간 무역,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 자연인 주재의 4가지로 정의하고 있으며 FTA에서도 GATS의 공급형태 구분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교육서비스의 경우 역시 일반적인 상품 교역의 형태에 상응하는 것으로 Mode 1의 국경 간 무역에서는 교육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는 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서비스가 교역되는 형태를 일컫는다.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과정 또는 e-learning이 이에 해당한다. Mode 2의 교육서비스의 해외소비는 유학 또는 연수 등과 같이 학생이 직접 외국의 교육서비스 공급자의 국가로 이동하여 교육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세계 교육서비스 교역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Mode 3는 공급자가 직접투자의 형태로 해외에 분교 또는 여타의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Mode 4는 외국에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수, 강사, 및 연구자가 직접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교육서비스는 각종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으로 정의되며, WTO 서비스 협정인 GATS에서는 UN의 2002년 개정된 CPC Version 1.1에 따라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기타 교육의 4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표 II-1〉 교육서비스 시장에서의 고등교육 구분

구분	정의
Mode 1 국경 간 무역 Cross-border supply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공급되는 서비스 이러닝과 같은 원격교육 프로그램/소프트웨어판매 프랜차이징 외국교육과정/프로그램 협력
Mode 2 해외소비 Consumption abroad	소비자나 기업이 다른 국가에서 이용하는 서비스 해외유학 및 연수
Mode 3 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	외국회사가 다른 국가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여 공급하는 서비스 외국대학의 국내분교설립 국내대학의 해외분교 설립 내·외국인의 합작교육기관설립 민간교육기관의 진출
Mode 4 자연인 주재 Presence of natural persons	개인이 다른 국가로 이동하여 공급하는 서비스 원어민 교사 및 강사 채용 교사의 해외파견 교육활동

FTA 서비스 및 투자 장(chapter)에서의 기본적 의무로는 시장접근 의무, 내국민 대우 의무, 최혜국대우 의무, 이행요건 부과 금지 의무,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국적요건부과 금지, 현지주재의무 금지가 있다(이정미 외, 2012)

먼저 시장접근(MA: Market Access) 의무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제한 조치로, 서비스 공급자의 수 제한, 서비스 거래나 자산의 총액을 제한, 서비스 영업이나 매출액을 양적으로 제한, 특정 서비스 부문에 고용되는 자연인의 수나 특정 업자가 고용하는 고용인 수의 제한,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는 법적 주체나 합작 형태의 제한 등을 들고 있다.

내국민 대우(NT: National Treatment) 의무는 상대국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할 의무를 말한다. 즉, 내국인 차별금지를 말한다.

최혜국 대우(MFN: Most Favoured Nation) 의무란 WTO의 정의에 따르면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다른 국가에 제공되는 대우를 협정당사국에게도 동등하게 부여해야 할 의무’를 말하는데 최근에는 ‘제 3국에 부여한 서비스관련 특혜를 FTA 상대국에게도 부여할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범위가 좁혀졌다.

이행요건(PR: Performance Requirement) 부과 금지 의무란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매각, 처분과 관련하여 특정한 요건을 부과 또는 강요할 수 없다는 의무를 뜻한다. ‘특정 요건’에는 일정 비율의 상품·서비스를 수출하게 하는 것, 일정 수준 이상의 국내 재료를 사용하게 하는 것, 수입액을 수출액에 연동하는 것, 국내 판매량을 수출에 연동하는 것, 자국민에게 특정 기술, 생산 공정, 그 밖의 재산권 지식을 이전하는 것, 생산지를 국내로 한정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만약 이행의무가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부과될 경우 내국민 대우 제한이 된다.

임원 및 이사회 국적 요건 부과(SMBD: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금지 의무는 경영진 국적요건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저해하지 않을 경우에만 이사회 과반수를 특정국적자나 국내 거주자로 요구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지주재의무(LP: Local Presence) 금지는 국경 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국내 대표사무실 구비 요건, 기업 설치·유지 요건 혹은 거주 요건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현지 주재 의무 부과는 통상적으로 감독이나 법률 집행의 대상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부과되고 있다.

이 외에도 국내 규제 관련 의무로 국내 규제를 합리적, 객관적, 공평한 방식으로 시행할 것을 보장해야 하며,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 결정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행정 결정에 대한 사법 구제 제도를 조속히 설치하며, 그 객관성과 공평성을 보장해야 한다. 서비스 공급에 대한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합리적 기간 내에 그 결정을 통보하고 부당한 지연 없이 신청 사항의 처리 상황에 관

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격 요건, 기술 표준, 면허 요건 등과 관련된 조치가 불필요한 교역 장벽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하고 필요 이상의 부담을 부과하지 않으며 면허 절차의 경우 그 자체가 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아울러 협정 당사국이 준수해야 하는 여타 의무로 면허와 증명에 관한 표준이나 기준과 관련하여 상대방 당사국에서 습득한 교육이나 경험, 충족 요건, 면허나 증명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협정이나 약정으로 자율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표준이나 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 국가 간 차별 수단이나 서비스 무역에 대한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GATS에서는 정부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급되는 서비스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부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급되는 서비스란 ‘상업적 차원(commercial basis)’에서 공급되지 않고 다른 서비스 공급자와 경쟁하에 공급되지 않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많은 국가에서 초등 및 중등교육은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일부 국가에서는 의무교육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 WTO는 초등 및 중등교육은 GATS에서 규정한 정부의 권한을 행사하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대부분의 교육서비스 제안서는 고등교육 및 기타 훈련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다(박순찬, 2002).

나. 한국의 고등교육 서비스 시장 규제 현황

실제 2002년 6월 30일 10여개 회원국들로부터 접수된 WTO 서비스 협상 1차 양허요청서(request list)는 대부분 고등교육 이상의 분야에서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김준동, 2002). 교육서비스 1차 양허안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mode 1의 원격교육은 제외하고, mode 2는 제한이 없으나 mode 3은 비영리법인 유지, 교육·사범대학 및 보건·의료관련 대학 제외, 방송통신대학 제외, 수도권지역 신설 불가, 학생정원 제한, 외국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 학교법인의 이사 수 제한, 정부 지원에 의한 직업훈련 제한 등의 규제를 부여하여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mode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mode 1과 관련하여 국내 규제는 공백 상태에 있다. 외국교육기관이 국내에 사무소나 분교를 설치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불허한다는 국내법이나 정책이 없다. 그러나 Mode 1 형태의 교육서비스는 포괄적으로 유보하되 예외적으로 일부 성인교육(학점·학위 미수여, 전문직 자격 취득과 무관, 정부지원을 받거나 정부권한을 위임받는 기관이 제공하지 않으며 방송을 통하지 않고, 보건·의료와 무관)만 허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사이버 대학이 국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Mode 2의 자국 국민의 해외 유학 및 외국인 유학 등,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다른 국가의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해외 소비의 경우는 In-Bound의 외국인 유학과 Out-Bound의 한국 학생의 외국 유학으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된 국내 법제는 출입국 및 국내체류 관련 법제와 학업 및 국내생활 관련 법제로 나뉜다. 외국인 유학생의 출입국 및 국내 체류와 관련해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자격에 따른 사증 발급 및 입국, 국내 체류, 활동 및 출국에 관한 사항을 「출입국관리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업과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규정이 있으며 국내 생활과 관련해서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입국 비자는 입국 목적에 따라 유학(D-2), 일반연수(D-4), 또는 단기종합(C-3)로 나누어진다. 90일 미만의 한국어 연수과정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비자면제 협정국에 한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외국인 유학생 교육과정은 정규과정과 단기과정, 한국어 연수과정으로 구분하며 정규과정으로 한국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져야 한다(고등교육법 제33조).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인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한 학기 및 두 학기, 방학 중 계절 학기의 형태로 학업을 이수하는 과정을 단기과정이라고 하며 국내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학교와의 교환학생이 대부분이다. 한국어 연수과정은 한국어 습득 목표를 가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10주 이상의 장기과정이나 4주 이하의 단기 과정으로 운영된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유학생 한국어 입학기준을 상향조정하여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또는 일정 수준의 영어능력 보유자(TOEFL 550, CBT 210, iBT 80, TEPS 550)의 선발을 권장하고 있다.

한국 학생의 외국 유학 규제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자비유학을 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당해 학교 관할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중의 하나에 해당하고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23조에 의하여 외국 고등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대학은 외국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의 일부만을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포함하고 있다.

Mode 3 규제의 경우, 외국대학 분교를 국내에 설립하는 경우와 국내 대학 분교를 해외에 설립하는 경우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외국대학 분교의 국내 설립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그 시행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규제한다.

외국대학 분교 설립에 대한 규제는 소규모 분교에 대한 교지, 교원, 교사 등의 설립 조건 완화 및

경제자유구역 내지 기업도시 추가 선정, 외국교육기관 설립 시 수익용기본재산 최소금액 확보에 대한 규제 폐지 등 사실상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김미란·채재은, 2011: 22). 그러나 현행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설립에 대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사립학교법」 제21조 1항에 의해 사립학교 이사장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 기본재산액의 1/2 이상을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장수 2/3 미만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법」 제42·43조 등에 의해 일부 대학은 외국인 설립이 제한된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제10조 제1호에 따라 대학의 신설 및 증설을 규제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제32조 및 그 시행령 제28조에 의해 일부 대학(예: 교원·의료인·수의사 등 양성기관)의 학생 정원이 제한되고 있다.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에 따라 국내대학은 외국공인평가인정기구 또는 당해 국가 정부의 공인이나 추천을 받은 외국대학과 기초과학, 첨단과학기술, 국제학, 대학별 특성화 관련 분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이 가능하다.

국내대학 분교의 해외설립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4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치 가능하며, 동법 제16조는 국내·외 분교 설치인가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대학의 해외 진출 역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1년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국내 대학 설립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지 않고 해당 국가의 기준만 충족하면 설립, 임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의2에 의해 국내 대학의 교비 및 적립금을 해외 분교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한 대학설립위심의위원회로부터 재정,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을 심사 받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도 있으나, 그 심사 기준(교육·재무지표의 기준 미달 여부, 경영부실대학 여부, 국제화 지표 등)의 불명확성에 대하여 비판도 있는 실정이다.

Mode 4의 경우 외국인 교원 및 강사의 채용 관련 규제를 살펴볼 수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규정한 외국인 교수 체류 자격(E-1) 취득을 위한 조건을 살펴보면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조교수 이상의 교원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① 대학졸업자, 동등자격자의 경우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이 4년 이상
- ② 전문대학졸업자, 동등자격자의 경우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이 7년 이상
- ③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

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대학의 외국인 교원의 자격 조건 및 채용에 관련된 사항은 대학의 재량규정에 의해 좌우된다.

다. 한국의 시장개방(FTA) 추진 현황

한국이 체결하거나, 협상을 준비 또는 진행 중인 FTA 현황은 다음 <표 II-2>와 같다.

<표 II-2> 한국의 FTA 추진 현황

진행단계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발효 (9건, 46개국)	칠레	99.12월 협상 개시, 03.2월 서명, 04.4월 발효	최초의 FTA, 중남미시장의 교두보
	싱가포르	04.1월 협상 개시, 05.8월 서명, 06.3월 발효	ASEAN 시장의 교두보
	EFTA (4개국)	05.1월 협상 개시, 05.12월 서명, 06.9월 발효	유럽시장 교두보
	ASEAN (10개국)	05.2월 협상 개시, 06.8월 상품무역협정 서명, 07.6월 발효, 07.11월 서비스협정 서명, 09.5월 발효, 09.6월 투자협정 서명, 09.9월 발효	우리의 제2위 교역대상 (2011년 기준)
	인도	06.3월 협상 개시, 09.8월 서명, 10.1월 발효	BRICs국가, 거대시장
	EU	07.5월 협상 출범, 09.7월 협상 실질 타결, 09.10.15 가서명, 10.10.6 서명, 11.7.1 잠정발효	세계 최대경제권 (GDP기준)
	페루	09.3월 협상 개시, 10.8월 협상 타결, 10.11.15 가서명, 11.3.21 서명, 11.8.1 발효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교두보
	미국	06.6월 협상 개시, 07.6월 협정 서명, 10.12월 추가 협상 타결, 11.10.22 “한·미 FTA 이행법” 미 의회 상·하원 통과, 11.11.22 비준동의안 및 14개 부수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3.15 발효	거대 선진경제권
	터키	08.6월~09.5월 공동연구, 총 4차례 공식협상 개최 (10.4 월~12.3월), 12.8.1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서명, 12.11.22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13.5.1 발효	유럽·중앙아시아진출 교두보
협상타결 (1건, 1개국)	콜롬비아	09.3월~9월 민간공동연구, 총 6차례 공식협상 개최(09.12월, 10.3월, 6월, 10월, 11.10월, 12.4월), 12.6.25 협상타결 선언, 12.8.31 한-콜롬비아 FTA 가서명, 2013.02.21 한-콜롬비아 FTA 정식 서명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협상진행 (5건, 21개국)	인도네시아	11.10월 공동연구보고서 완료, 12.3.28 한·인니 CEPA 협상개시 선언, 총 2차례 협상 개최(12.7월, 12월)	ASEAN 회원국중 우리의 최대 교역국 (2011년 기준)

진행단계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중국	07.3월~10.5월 산관학 공동연구 이후 민감분야 처리를 위한 실무협의, 12.5.2 협상개시 선언, 총 5차례 협상 개최 (12.5월, 7월, 8월, 10월/ 13.4월)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 (2012년 기준)
	베트남	11.11월 공동연구보고서 완료, 12.8.6 협상개시 선언, 12.9월 제1차 협상 개최, 13.5월 제2차 협상 개최	우리의 아세안 최대 투자 대상국 (2012년 기준)
	한중일	03-09년 민간공동연구, 10.5월~11.12월 산관학 공동연구, 12.5월 3국 정상회의의 “연내 협상개시 목표” 합의, 12.11.20 협상개시 선언, 13.3월 제1차 협상 개최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 마련
	RCEP (16개국)	11.11월 ASEAN이 RCEP 작업계획 제시, 12.11.20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 협상개시 선언	세계 GDP의 28.4%를 차지하는 동아시아 경제권
협상재개 여건조성 FTA (6건, 11개국)	캐나다	총 13차례 공식협상 개최(05.7월~08.3월), 12~13년 수석대표간 협의 진행중	북미 선진 시장
	호주	07.5월~08.4월 민간공동연구, 총 5차례 공식협상 개최, (09.5월~10.5월)후 잠정 중단	자원부국 및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뉴질랜드	07.2월~08.3월 민간공동연구, 총 4차례 공식협상 개최(09.6 월~10.5월)후 잠정 중단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일본	03.12월 협상개시, 04.11월 6차 협상 후 중단, 08~12년 협상 재개 환경조성을 위한 협의 총 9차례 개최	우리의 제4위 교역대상 (2011년 기준)
	멕시코	07.12월 기존의 SECA를 FTA로 격상하여 협상 재개, 08.6월 제2차 협상 개최후 중단	북중미 시장 교두보
	GCC (6개국)	08.7월 협상 개시, 09.7월 제3차 협상 개최 후 중단	자원부국, 아중동 국가와의 최초 FTA, 우리의 제3위 교역대상(2011년 기준)
협상준비 공동연구 (4건, 11개국)	MERCOSUR (4개국)	05.5월~06.12월 정부 간 공동연구 완료(07.10월 연구보고서 채택)	BRICs 국가, 자원부국
	이스라엘	09.8월 민간공동연구 개시, 10.8월 완료	서부 중동지역 거점시장
	중미 (5개국)	10.10월 공동연구 개시, 11.4월 공동연구 보고서 완료 (*중미5개국: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 바도르)	북미와 남미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
	말레이시아	11.5월 한·말레이시아 FTA 타당성연구 개시, 12.12월 타당성연구 완료	한-ASEAN FTA Upgrade, 자원부국

주: 1)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유럽자유무역연합)
 2)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동남아시아국가연합)
 3)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4) GCC, Gulf Cooperation Council(페르시아만안협력회의=걸프협력회의)
 5) MERCOSUR, (메르코수르)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 공동시장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FTA 홈페이지
 (<http://www.fta.go.kr/new2/ftakorea/ftakorea2010.asp>)

2 시기별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⁴⁾

이러한 경제 환경의 변화로 실제 고등교육에서의 국제화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연도별 대통령업무보고 자료집을 통해 시기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문민정부(1993~1997)

문민정부에서는 국제화·개방화 시대의 교육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국제기구 교육활동을 강화하였다. 제 6차 유네스코 아태지역 교육장관회의(4~5월), 27차 유네스코 총회(10월)에서 OECD 교육위원회 가입 및 협조사업 추진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와의 교육협력 기반 조성을 통해 문화협정 및 양해각서체결 주요국가와의 쌍무적 교육교류 협력을 확대·내실화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미, 일, 호주, 프랑스, 중국, 몽고를 대상으로 교육문화협정상의 교육협력사업 추진하고 정부 초청 장학생 유치 확대하고 해외한국학 연구기관과 학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특히 GATS의 진전으로 UR 교육서비스 부문 개방대책을 수립하였다. 교육서비스 부문은 UR 차기협상을 거쳐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 분야에 한하여 점진적·선별적으로 개방하도록 하고 개방에 대비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경쟁체제를 구축하며, 우수한 외국교육 서비스의 국내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육부문 개방에 대비한 단계적 전략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1994년에는 대학이 교육의 국제화 추진의 거점 역할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의 어학연구소가 외국어교육 강화 사업을 주도하고, 대학부설 지역연구소의 연구 활동 지원의 강화, 국제협상·국제회의의 전문요원 양성 대학원과정을 설치, 대학별 국제교류·협력업무 담당부서 운영을 활성화 등을 꾀하였다. 나아가 국제교육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교육 분야 국제화 전략 종합계획을 수립,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와의 교육 협력을 활성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교육개방에 능동적 대처하기 위해 교육개방을 교육의 국제화 및 경쟁력 확보의 계기로 활용하고 '95년까지 개방 대응 전략 수립 및 관련 국내 법규·제도를 정비, '95년 전문강습소, '96년 일반강습소를 부분개방하고 '96년 이후 차기협상을 거쳐 고등교육분야 개방에 대처한다는 것이다.

교육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1995년에는 노력하는 우수대학을 중점 지원하여 세계수준의 대학을 육성하고 대학·전문대학의 창의적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 학사 운영의 자율화, 사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철폐하도록 하였다. 또한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슬로베니아 등 8개국과 문화협정 체결하고 해외 한국학 지원을 통한 국제기구 및 국가 간

4) 대통령 주요업무보고 각년도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

교육협력 강화를 꾀하였다. 이듬해에는 대학의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외국석학과의 공동연구 및 국제학술지 발행 지원하였다. 나아가 세계화 대비 교육의 일환으로 각 대학에 원어 강의를 적극 권장하고 해외지역 연구비 지원을 확대하고 자매결연, 학생연수, 학생교류, 학점교환제 실시 등 외국 대학과의 교류를 확대·내실화하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외국어 학원의 전면 개방과 기술계 학원의 개방 확대를 추진하고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확대(60명) 및 자비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생활 적응 지원을 꾀하였다.

1998년에도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유치 기반 조성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등 한국유학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숙소 확보, 장학금 지급 등 편의제공으로 유학여건을 개선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국어 능력평가 및 해외 한국학 지원 및 외국인의 한국어 능력평가 표준시험 실시('97. 10)도 이루어졌다.

나. 국민의 정부(1998~2002)

1998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매년 큰 폭으로 해외유학 및 연수자가 증가하여 무역외수지 적자가 가중되고('96년 유학·연수 수지 적자 11억불로 무역외수지 적자의 15%를 차지) 일부 부유층의 무분별한 자녀 조기 유학으로 인한 국내의 물의와 위화감 조성이 문제가 되자 해외 유학·연수 수요 국내흡수를 위해 고등교육 시장 개방을 통한 외국대학의 국내유치 확대를 꾀하였다. 또한 대학의 외국인 교수임용 확대를 위해 국·공립 대학에서 외국인을 전임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을 추진하였다.

1999년에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국제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2000년에는 한·일, 한·중 교육장관 회담 개최 및 ASEM 장학사업 제안을 통한 아시아·유럽 양 대륙 간 교수·학생 교류 확대 기반을 조성하였다. 2001년에는 해외 우수 인적자원 국내 유치 및 인적자원 국제교류 확대를 꾀하고 대학의 국제화를 위해 프로그램 공동운영 등 세계 우수 외국 대학원의 유치를 추진하는 한편, '교육서비스 협상대책반'을 구성하여 WTO 교육시장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특히 대학·기업체와 연계하여 전략적 유학생 유치정책 시행하여 '03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1만 6천명 유치 추진('01년 11,646명) 계획을 세웠다.

다. 참여정부(2003~2007)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세계수준의 대학 교육·연구 역량 확충을 위해 적극적인 대학 국제화를 추진하였다. 세계수준의 외국대학(원)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개정을 통한 공동학위 인정을 위해 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외국 우수교수 초빙 사업을 확대하여 '03. 12월까지 61명을 초빙하였다. 나아가 국내대학 해외홍보를 위해 6개국에서 해외유학박람회 개최 및 참가하였다.

2004년에는 WTO DDA 협상 추진 및 FTA 체결 확산 등 세계화에 따른 국가 간 교육 제공 및 학생 이동 증가는 물론, 이에 따른 원격교육기관 및 외국 원격교육기관 대행업체가 등장하면서 교육기관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확대를 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①우수 외국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국내 유치를 위해 「제주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04.6)하여 경제특구내 우수 외국 교육기관 유치 기반을 조성하고, 세계수준의 외국대학(원)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지원을 위해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공동학위제(Joint Degree)를 도입하였다.

특히, 2004년에는 WTO DDA 및 일본, EFTA(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ASEAN 등과의 효과적인 FTA 협상 추진교육경쟁력 제고와 국제화를 위한 전략적 개방을 추진하는데 있어 국내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라는 일관된 원칙과 목표 하에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 분야의 전략적 개방을 추진하였다. 먼저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를 위해 'Study Korea Project'를 수립하면서 본격적인 고등교육 시장개방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는 2010년까지 유학생 5만 명을 유치('05년 목표: 18,000명)하는 것으로 외국 기관과 연계한 유학생 유치의 사례로 중국 요동학원 등과 합작대학 설립, 중국대학 2년 수료 후 신라대 3학년에 유학하는 신라대학의 사례가 제시되었다. 또한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의 공동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여 대전시와 8개 지역대학이 공동 투자 형태로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를 건립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을 확대하고 2010년까지 연간 지원인원을 500명으로 확대하여 개도국 우수 인력 집중 유치('05년 목표: 217명)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외 네트워크 강화 및 홍보 활성화와 한국유학안내시스템 서비스 언어 다변화 및 기능 강화, 해외유학박람회를 확대하고 개최방식 다변화(6개국 8개 도시('04) → 8개국 10개 도시('05))를 꾀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외국어 전용강좌,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개설 확대, 민간투자에 의한 대학기숙사 확충으로 유학생 기숙사 수용률 제고, 유학생의 입국사증 발급절차 간소화 정착, 교육인적자원부 등의 유학생 유치업무 담당조직 확대·개편 외국인 유학생 수학·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또한 2002년 12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2005년 5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경제자유구역 등에 우수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고자 제주국제자유도시에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분교 유치를 추진(GWU 관계자 차관 면담: '05. 2.18)하고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에는 Gale사와 AG와 함께 인천 송도에 2천명 규모의 미 동부 명문 초·중등학교 1개교를 설립할 계획을 발표('04. 4.28)하였다.

2006년에는 ‘고등교육의 국제화 전략’을 통해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상호 학점 인정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공동·복수학위 협정 체결 등을 통해 외국 선진대학 교육과정 이수 기회 확대를 위해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05. 2)으로 공동학위를 허용하고 교육과정 운영분야·주체·수업방식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대학과의 공동·복수학위 협정 체결 현황을 보면 '03년 기준 국내 50개 대학이 56개 외국대학과 학생교류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중 44개 대학이 복수학위 수여를 협약하고 연세대-미국 워싱턴대의 경영학 석사과정, 외대-미국 델라웨어대의 복수학위 과정, 고대-UBC의 International MBA 과정 운영 등이 개설되었으며 공동학위로는 서울산업대-영국 노섬브리아대, 계명대-폴란드 쇼팽학원 등이 협약을 진행하였다.

2006년에도 정부 초청 유학생 프로그램 대폭 확대·개편하여 장학생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아시아 및 BRICs 국가 등 발전 잠재력이 큰 국가의 차세대 지도자를 집중 유치하고 기업과 연계, 취업 지원 등을 통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를 꾀하였다. 국내기업이 외국인 기술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출입국상 특혜를 부여하는 골드카드제 홍보 및 유학생 정보를 제공하고 산자부를 통해 기업 수요조사 및 유학생 취업 알선을 꾀하고 기업과 협력하여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을 마련한 우수 대학을 선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용을 지원하였다. 경제자유구역 등에 외국대학(원) 분교 유치를 위해 교지·교사의 임차, 수익용기본재산 보증보험 대체 허용 등 대폭적 규제 완화(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05. 12. 1 시행))하고 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우수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전략을 검토하였다. 또한 외국 대학(원)과의 교육·연구 활성화를 위해 복수학위제, 공동명의 학위제 등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 평가와 연계 추진하고(공동·복수학위 운영(21개 대학), 학점·학생교류(1,385건), 교수교류(1,040건) 전공분야 전문지식 습득, 실무 및 외국어 능력 함양을 위한 대학(원)생 해외 인턴십을 적극 지원하였다.

2007년에는 ‘세계수준으로 고등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간, 연구자 상호간 국제교류 및 국제 공동연구 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과 연구 활동의 국제화를 지원하고 BK21 사업의 글로벌캠퍼스, 국제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학원생의 국제적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 인턴십을 활성화하였다(43명, 10억원('06) → 75명, 10억원('07)). '교육·인적자원분야의 국제적 역할을 강화'를 위해서 ①재외동포 인적자원 개발·활용을 위한 지원, ②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교육외교」를 강화하고, 우리나라 유학에 대한 적극적 해외 홍보를 위해 정부 및 대학의 대표단이 주요 대상국을 직접 방문하여 유학생 유치확대(The Promotion of Study in Korea)를 추진하였다. 또한 법무부 방문취업제와 연계하여 재외동포 유학생의 부모·배우자는 비자 쿼터 없이 입국·취업할 수 있도록

25세 이상의 재외동포에 대하여 국내 연고가 있는 경우 제한 없이, 연고가 없는 경우 비자쿼터를 설정하여 국내입국 및 취업을 지원하는 방문취업제를 추진하였다.

라. 이명박 정부(2008~2012)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계적 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유치를 위해 「해외인력 유치·활용 실천계획」을 수립('08. 6)하고 국가석좌교수·연구원제 도입('08.10)을 통해 우수인재를 매년 200명씩 '12년까지 총 1,000명 유치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2009년에는 국가 이미지 제고 및 친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국제 장학 프로그램(MEST Scholarship)을 추진하였다. 이는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확대, 학생·교원·전문가 교류, 국비유학 및 재외동포 장학 지원 사업 등 마련, 외국인 유학생 입국 전 사전교육 지원, 재학 중 지원, 귀국 후 네트워크 결성 지원 등 전주기적 관리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을 통해 신규 학과·전공 신설을 통해 신성장동력 및 융복합 분야의 미래인재 양성 및 연구 착수와 더불어 세계적 석학 초빙 79개 과제에 '09년 1,600억원을 지원하고 WCU-Nobel Forum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였다.

2010년에는 글로벌 수준의 직업교육을 하는 국제화 거점 전문대학(Global Hub College) 육성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국내 우수 전문대학에 유치하고 졸업 후에는 해외 소재 한국산업체를 중심으로 중견 기술 인력으로 충원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학의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노벨포럼 개최, 대학강의 공개(OCW: Open Course-Ware)를 확대 운영하여 WCU 사업 성과 공유·확산에 주력하고 영문 연구계획서 활성화, 국제동료평가 실시(Int'l Peer Review) 등 해외 우수학자들과의 공동 연구 촉진 및 국내 대학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대학교수들의 해외 파견 연구를 지원하고,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센터를 국내 대학에 설치하여 글로벌 연구역량 제고하기 위해 대학연구인력 국제교류에 40.6억원,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에 16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Global Korea Scholarship(GKS) 사업을 확대하였다.

〈표 II-3〉 In-bound 및 Out-bound 정책 계획

대상	프로그램
외국인 대상(In-bound)	• 장기학위 프로그램(정부초청 장학생: 700명) • 단기유학 프로그램 - 학점취득 등을 위해 교류 중인 외국인 우수 교환학생 지원(500명, 신규) - 자비유학생의 질적 제고를 위한 우수 자비유학생 지원(400명, 신규) - ASEAN, BRICs, ABC 등 주요국가 대학생 초청 연수(120명) • 현지리더 연수 프로그램(30명, 신규)
내국인 대상(Out-bound)	• 장기학위 프로그램(국비유학생 파견: 70명)
기타	• 한일이공계 학부유학생 파견(100명) • 한일 대학생 교류(200명, 신규)

*출처: 대통령 주요업무보고: 이명박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편(2008~2012), p. 57

또한 외국인 유학생 제도 개선 및 글로벌 소양 제고를 통한 차별 개선을 위해 대학, 출입국 관리소 등 관련자에 대한 글로벌 소양교육 강화 및 Best Practice 공유·확산하고 “한국유학안내시스템”에 Online 상담게시판 신설 및 콜센터 전화 상담요원을 배치하고 정책홍보 및 현장으로 상담 등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 정주여건 마련 및 정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공동기숙사(사학진흥재단 BTO 방식) 건립, 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공급방안을 지자체와 협의·추진하고, 입학지원, 입학허가, VISA 발급·관리, 생활정보 제공, 출국까지의 전 과정을 One-stop 서비스로 운영하는 ‘한국유학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유학생 전용 문화체험프로그램 개발·확산하고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 관계부처 공동개최, 기업별 현장면접, 맞춤형 취업 컨설팅 등 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취업 지원을 통한 취업여건을 개선하였다.

2010년 8월에는 글로벌 교육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교육경쟁력 강화와 유학·연수 수지의 적자개선 효과가 큰 4대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각 분야별 세부추진사항을 제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국내 유치(in-bound)를 위해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 유치확대와 더불어 우수한 유학생이 한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질적 제고를 병행할 뿐 아니라, 우수외국기관의 유치를 위해 외국교육기관 유치기획단을 정례화하여 유치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심사기준을 글로벌 수준으로 완화하는 한편, 신청 및 심사기한을 설정하고 설립안내 및 정보제공을 위해 외국인학교 종합안내 홈페이지를 구축하였다. 특히, 글로벌 교육서비스 산업 선점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교육기관 유치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1a). 해외 우수 고등교육기관 유치 활성화를 통해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 인재양성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①결산상 잉여금 송금 및 본국 회계기준 적용 허용과 같은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②

우수 외국교육기관의 전략적 유치, ③산학연 협력을 통한 외국교육기관 자생력 강화, ④질 관리를 통한 운영 내실화 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아태지역 28개국 장관급 각료들이 참석한 UNESCO 국제회의에서 고등교육의 학문적 이동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아태지역의 볼로냐 프로세스라 할 수 있는 ‘아태지역 고등교육의 학위 인정 지역협약(Asia-Pacific Region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in Higher Education)’ 개정안을 채택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1b). 이는 외국에서 취득한 학위에 대해 인정평가(Assessment for Recognition) 기회를 보장하되 국내 학위와 실질적 차이가 없다면 가능한 폭넓게 인정하는 것으로, 인정평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내외 고등교육 제도 및 질 보장 체제에 대한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정보센터(National Information Center) 구축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국가정보센터 네트워크를 설립하여 국가 간 협력을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아태지역 고등교육 교류를 주도하고 고등교육 국제교류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부 부실 대학들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무분별한 학위인정 문제를 바로잡고 학위에 대한 질 관리 체제를 정비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꾀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c).

나아가 질 관리를 위해 2008년 WCU 사업을 통해 우수연구인력 유치를 도모하고, 2011년에는 우수 외국인 유치관리 선진화 방안을 수립하여 유학생 질 관리를 강조하고 국내대학 해외 진출 시 현지 국가의 설립요건을 적용하도록 완화하는 등, 본격적인 국제화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FTA 확산으로 고등교육 서비스 시장 개방이 본격화됨에 따라 고등교육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 국제화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2017년 이후 고교졸업자 수보다 대학입학정원이 많아지게 되는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사립 중심의 국내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 해외 유학생 유치 지원 환경 조성을 꾀하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에서의 해외유학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6만 명에 달하는 해외 유학생들이 해외에 지급하는 금액이 약 43억불(한화 5조 원)에 달하는 등, 서비스수지 적자가 교육부문으로 인하여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 FTA 등 교육개방에 대응하고 아시아 교육·연구 허브로의 도약을 위해 우수 인재와 대학 유치 및 해외진출, 교류 촉진 등을 위한 선진형 고등교육 국제화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국내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외국유학 수요를 흡수하고 국내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국내대학 해외진출을 통해 교육서비스 수지 개선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같은 In-Bound뿐 아니라 국외 분교 설립 지원과 같은 Out-Bound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프라 구축을 위해 ①교육국제화특구법을 제정하여 국제화대학을 육성하고, 이를 위

해 특구 내 혹은 국제화 중점 추진대학에 대해 입학절차와 같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②국제교육진흥원의 출연연, 한국교육원·문화원 통합을 통해 고등교육 국제화 지원기구를 설립하고 ③국가 간 고등교육 질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In-Bound 정책을 위해서는 ④Study Korea 2단계 사업을 통해 202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20만을 유치하고, 유학박람회를 통해 한국유학의 해외 홍보지원, Global Korea Scholarship에 대한 재정지원을 2015년까지 1,000억으로 확대할 뿐 아니라, ⑤2단계 WCU 사업(2013년 시작)을 통해 석학급 해외 학자 및 해외 우수 과학자를 유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⑥토픽 시행을 확대하고 글로벌 교류센터를 만들어 매력적인 유학환경을 조성하고, ⑦우수 외국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Out-Bound 정책으로 ⑧해외인턴 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취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⑨Campus Asia 교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EU-ICI 학생교류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⑩국내 대학의 국외 분교 설립을 지원하고 아세안 사이버 대학을 설립 운영하며 한국형 ODA 확산을 위해 국제협력선도대학을 현재의 2개에서 2015년까지 8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3년에는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EU ICI-ECP 사업의 일환으로 한·EU 대학간 공동학위·복수학위를 개설하여 양측 간 학생교류를 지원하는 ‘한·EU 교육협력 사업(EU ICI-ECP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3). 2013년에는 EU 대학과의 공동학위·복수학위 개설 및 인적교류를 추진할 5개 내외의 컨소시엄을 모집하여 각각 4년에 걸쳐 연 1억 3천 만 원, 3년에 걸쳐 연 1억 1천만원을 지원한다고 한다. 이는 일부 국가(미국)에 편중된 한국 대학의 국제협력 다변화를 꾀하여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한국과 유럽 간 고등교육 인적교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마. 시기별 고등교육 국제화 특징

이상, 정부의 국제화 정책을 시기별로 정리한 것이 다음 표이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GATS의 진전으로 인한 UR 교육서비스 부분 개방, FTA 체결 및 환산에 대응하는 형태로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처음으로 교육 분야에서 국제화 전략 종합계획을 수립한 문민정부 이래, 대부분의 주요 정책이 해외 교류 활성화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인바운드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유학생 유치뿐 아니라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다양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공동학위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의 해외 파견을 장려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인바운드 중심의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표 II-4〉 정부 시기별 정책 특징

정부	배경	주요정책
문민정부	• UR협상	☆인바운드 정책 • 대학의 국제화 추진 거점 확대 - 규제 완화 • 대학의 국제경쟁력 제고 - 원어 강의 확대 및 연구비 지원 - 해외 교류 확대 - 외국인 장학생 확대 및 생활 적응 지원
		★ 아웃바운드 정책 • 국제교육 교류 협력 증진 - 해외 한국학 지원
국민의 정부	• 유학수지적자 • WTO	☆ 인바운드 정책 • 외국대학 국내유치 확대 • 외국인 교수임용 확대(교육공무원법 개정) • 프로그램 교류 •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ASEM장학사업)
		★ 아웃바운드 정책 • 국제교육센터 건립 • 교수 학생 교류 확대(한일, 한중 교육장관회의)
참여 정부	• WTO DDA • FTA확산	☆ 인바운드 정책 • 외국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 운영 • 외국 우수교수 초빙 • 해외 유학박람회 • 유학생 확대(Study Korea Project 등) • 외국교육기관 유치(규제완화) • 정부초청 유학생 프로그램 확대
		★ 아웃바운드 정책 • 해외 인턴십 지원 • 대학원생의 국제 활동역량 강화
이명박 정부	• FTA본격화	☆ 인바운드 정책 • 국가석좌교수, 연구원제 도입 •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다변화 - 2차 Study Korea Project - MEST Scholarship • 외국 우수 석학 초빙 - WCU-Nobel Forum • 외국교육기관 및 연구소 유치
		★ 아웃바운드 정책 • 대학교수 해외 파견 • 장기학위 프로그램(학생 파견 및 교류)

3 시장개방 Mode별 고등교육 국제화 성과

이러한 고등교육 정책으로 실제 고등교육 국제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었는지를 정부 자료와 대학 알리미 자료의 국제화 항목을 통해 모드별로 분석하였다.

가. Mode 1: 교육과정/프로그램 협력

먼저 Joint Degree와 같은 교육과정 공동운영 성과를 보면, 한중일 교육과정 공동 운영 정책인 Campus Asia를 통해 많은 진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Campus Asia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KAIST, 포항공대, 동아대, 부산대 뿐 아니라 KDI 국제정책대학원도 참여하여 중국의 복단대, 광둥외어외무대, 상해교통대, 북경대, 칭화대, 난징대, 길림대 등과 같은 중국 우수 대학과 일본의 동경대, 규슈대, 오카야마대, 나고야대, 히토츠바시대, 동북대, 동경공업대 등의 국립 법인 대학뿐 아니라 고베대, 리츠메이칸대와 같은 사립대학들과도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꾀하고 있다.

1) Campus Asia 참여 대학 현황⁵⁾

① 고려대

〈표 II-5〉 Campus Asia 참여 대학 현황: 고려대

한국	중국	일본	프로젝트명
고려대	복단대	고베대	동아시아 위기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한중일 교육협력 프로그램

대상 : 대학원생(석사)

① 제1단계(2012~2013) : 3개 대학간 교환학생 활성화 및 고려대-고베대간 복수학위제 실시

② 제2단계(2014~2015) : 고려대-복단대, 고베대-복단대 복수학위제 도입

③ 국제학술회의[4회, 고베('12)-서울('13)-상해('14)-인도네시아('15)]

5)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2), 「고등교육 국제화 추진전략」 보고, pp.33~35

② 동아대

〈표 II-6〉 Campus Asia 참여 대학 현황: 동아대

한국	중국	일본	프로젝트명
동서대	광둥외어외무대	리츠메이칸대	동아시아 차세대 인문학 리더 양성을 위한 한중일 공동운영의 트라이앵글 캠퍼스 구성

대상 : 학부생

① 이동식 공동교육 프로그램 : 3국 학생들이 각 대학을 공동으로 이동하며 1학기씩 수강

② 해외 인턴십 : 졸업전 3개월동안 제공

③ 부산대

〈표 II-7〉 Campus Asia 참여 대학 현황: 부산대

한국	중국	일본	프로젝트명
부산대	상해교통대	큐슈대	에너지-환경 과학기술 글로벌인재육성 협동대학원 교육프로그램

대상 : 대학원생(석/박사)

① 박사과정 프로그램 : 1년간 유학에 의한 연구수행, 학점이수 정도에 따라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수여

② 석사과정 협동교육 프로그램 : 상호 학점인정, 교수의 상호파견 또는 원격강의시스템을 이용한 합동분담강의

* 2013년 복수학위제 도입

④ 서울대

〈표 II-8〉 Campus Asia 참여 대학 현황: 서울대

한국	중국	일본	프로젝트명
서울대	북경대	동경대	BESETO 국제학 및 공공정책학 복수 석사학위 프로그램 (BESETO DDMP)

대상 : 대학원생(석사)

① 3개 대학 중 2개 대학에서 1년씩 수학하여 복수학위 취득 + 나머지 1개 대학에서 1학기 수학 후 수학증명서 취득(총 2년6개월)

② 3개 대학 모두 1년씩 수학 후 삼중 복수학위 취득(총 3년)

한국	중국	일본	프로젝트명
서울대	북경대	히토츠바시대	BEST(Beijing-Seoul-Tokyo) Business School Alliance : Asia Business Leaders Program (ABLP)

대상 : MBA(경영학 석사)

① 복수학위, 학점교류, 공동프로그램 개발

② 특화프로그램(Doing Business in Asia) : 3주 집중과정

* 3개국 학생 약 30명이 3개국을 함께 방문하며 진행

⑤ 성균관대

〈표 II-9〉 Campus Asia 참여 대학 현황: 성균관대

한국	중국	일본	프로젝트명
성균관대	길림대	오카야마대	동아시아 현안 문제 해결능력 증진을 위한 차세대 핵심인재양성 프로그램 - 동아시아 고전학을 통한 동아시아적 문화 공동성 모색

대상 : 학부/대학원(석/박사)

① 2개국 공동학위 : 소속대학과 그 외 1개 대학에서 2학기 이상 해당 학점을 이수한 경우

② 3개국 공동학위 : 소속대학과 그 외 2개 대학에서 각 2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

⑥ 성균관대/서울대

〈표 II-10〉 Campus Asia 참여 대학 현황: 성균관대/서울대

한국	중국	일본	프로젝트명
성균관대/ 서울대	인민대/칭화대/ 상해교통대	나고야대	동아시아 '유스 커뮤니티'(공통법) 형성을 향한 법적, 정치적 인식공동체의 인재양성

대상 : 학부생 1학년 교육 종료시 학생선발, 2·3학년때 공통 커리큘럼 교육

(상대국 대학에 수학하여 공통강의 수강)

* 지금까지 교류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던 로스쿨 학생과 대학원생에게도 일부 참여기회를 제공

① 각국의 법·정치에 관한 입문 강의

② 사회과학적 소양과 국제사회에 대한 시야를 배양하기 위한 비교법·정치 강의

③ 사회과학분야에 특화된 어학과목

⑦ 포항공대/서울대

〈표 II-11〉 Campus Asia 참여 대학 현황: 포항공대/서울대

한국	중국	일본	프로젝트명
포항공대/ 서울대	난징대/ 상해교통대	나고야대/ 동북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아시아 교육협력의 시작 : 화학/소재 과학기술영역의 개척

대상 : 학부3,4학년 및 대학원생(석,박사)

① 3-12개월 학생 교환 및 상호 학점인정

* 향후 복수학위 또는 공동학위 프로그램을 위한 시험 프로그램 운영

② 교수 및 연구 인력들간 세미나 형식 강의 교환

⑧ KAIST

〈표 II-12〉 Campus Asia 참여 대학 현황: KAIST

한국	중국	일본	프로젝트명
KAIST	칭화대	동경공업대	TKT CAMPUS Asia Consortium

대상 : 교년차 학사과정 및 석박사과정

① 학점 취득 및 연구 활동이 병행되는 최소 학기 기반의 학기제 교환 프로그램

② 여름학기 프로그램

③ 연구 중심의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 2015년 공동 또는 복수학위 프로그램 도입

⑨ KDI국제정책대학원

〈표 II-13〉 Campus Asia 참여 대학 현황: KDI국제정책대학원

한국	중국	일본	프로젝트명
KDI국제 정책대학원	칭화대	국립정책 연구대학원	동북아시아 정책학 컨소시엄

대상 : 대학원생(석사)

① 2년 6개월 간 3국 모두 수학(1년+1년+0.6개월) 후 모교 및 상대 1개교에서 복수학위 취득

* 1년 체류 시 학위, 6개월 체류 시 학점 인정

2) EU-ICI 교육협력사업 참여기관 현황⁶⁾

최근에는 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유럽 대학들과의 공동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다. EU-ICI 교육협력 사업의 경우에는 한양대, 아주대, 건국대, 부경대, 부산대, 울산대, 경북대, 금오공대, 서울대, 숙명여대, 전북대, 충북대, 고려대, 순천대, 서강대, 한국외대 등이 스웨덴, 프랑스, 영국, 독일, 핀란드뿐 아니라, 리투아니아, 폴란드, 네덜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스페인 등의 유럽 국가들과 교육이나 언어 뿐 아니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협력을 꾀하고 있다.

〈표 II-14〉 EU-ICI 교육협력사업 참여기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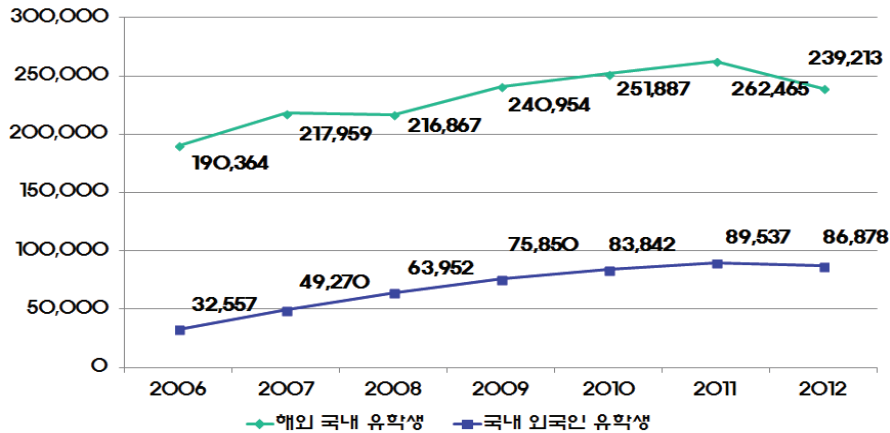
참여기간 (예산)	프로젝트명	교류분야	대표대학	참가대학
2010~2012 (330,000천원)	KOREU GL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한-EU간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글로벌 리더 양성)	글로벌 리더십 양성	한양대	아주대, 건국대
			소데르튼대 (스웨덴)	하가헬리아대(핀란드) 바르샤바 인문사회과학대(폴란드) 플로렌스대(이탈리아)
2010~2012 (337,520천원)	iKEMM(An Innovative Korean- European Multidisciplinary exchange programme for Master level) 혁신적 한-EU 학제교류 프로그램	공동 석사과정 (Dual MS Degree)	부경대	부산대
			오울루대 (핀란드)	임페리얼 칼리지(영국) 파리-도핀대(프랑스) 롤레오대(스웨덴)
2010~2012 (329,600천원)	EUKLA(EU/Korea Leadership Alliance)	글로벌 리더십 양성	울산대	경북대, 금오공대
			바르샤바공대 (폴란드)	부다페스트기술경제대(헝가리) 빌니우스공대(리투아니아) 힐브론 응용과학대(독일)
2011~2013 (328,920천원)	다문화 교육을 위한 인력양성 <다문화 및 외국어교육분야 인력양성>	교육 언어	서울대	숙명여대, 전북대
			투빙엔 대학 (독일)	인알코(프랑스) 네이텐 대학(네덜란드)
2011~2013 (330,000천원)	세계화교육 리더 육성 <글로벌 사업교육계열 교원양성>	교육 정보	충북대	고려대, 순천대
			센트럴 오스트로보트니아 대학(핀란드)	인스부르크 대학(오스트리아) 오울우 대학(핀란드) 탈린 대학(에스토니아)
2011~2013 (221,920천원)	한-EU 협력관계 제도화 <국제관계 글로벌인재 양성>	국제관계	한국외대	서강대
			보르뒤에튀폴리티크 연구원(프랑스)	바르셀로나 오토나마대학(스페인) 벨기에 브리제 대학(벨기에) 베네치아 카포스카리대학(이태리)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2). 「고등교육 국제화 추진전략」 보고, p.37

6)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2). 「고등교육 국제화 추진전략」 보고, p.37.

나. Mode 2: 해외 유학 및 해외 연수

현재 유학을 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8만 6천 8백 78명에 달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13년도 교육통계연보). 국가별로는 중국이 55,427명으로 전체의 63.8%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1] 국내 유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 추이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3). 교육통계연보, p.49

〈표 II-15〉 주요 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2012. 4. 1. 기준)

국가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	대만	몽골	기타	계
유학생수(명)	55,427	4,093	2,665	2,447	1,510	3,797	16,939	86,878
비율(%)	63.8	4.7	3.1	2.8	1.7	4.4	19.5	100.0

*출처: e-나라지표 유학생 현황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_Main.jsp?idx_cd=1534&bbs=INDX_001&clas_div=C&rootKey=1.48.0)

정부의 GKS(Global Korea Scholarship) 지원 개요를 통해 해외 유학 및 해외 연수 내용을 보면,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위해 정부 유학생, 자비 유학생, 교환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국내 학생의 해외 파견을 위해서는 국비 유학생 이외에 한일 이공계 학부 유학생 장학금은 물론 한일 대학생 교류 지원에 2012년 527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527억 중 대부분이 외국인 유학생 지원 예산이며 국내 국비유학생 선발 파견을 위한 예산은 6.4%인 33억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16〉 Global Korea Scholarship(GKS) 개요

세부프로그램		2011년		2012년		지원기간	지원조건
		인원(명)	예산 (백만원)	인원(명)	예산 (백만원)		
외 국 인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67~, 장기)	2,017 (400)	32,639	2,222 (422)	37,791	3~5년 (학부, 석박사 과정)	생활비(80~90만원), 항공료, 입·귀국 준비금, 등록금, 연구비 등
	우수교환학생지원 (’10, 신규)	290 (290)	2,970	297 (297)	2,970	6개월 (1인당)	생활비(80만원), 준비금, 항공료, 보험료 등
	우수자비유학생지원 (’10, 신규)	200 (200)	1,260	200 (200)	1,260	12개월	생활비(50만원) 지원
	현직 리더 초청 연수 (’10, 신규)	0	0	0	0	-	-
	주요국가대학생 초청연수(’04)	117 (117)	314	201 (120)	314	11일	항공료, 체재비, 연수비 등
내 국 인	국비유학생 선발 파견 (’77, 장기)	135 (45)	2,875	147 (40)	3,375	2~3년	국가별 장학금 지급
	한일이공계학부유학생 선발 파견 (’99~, 장기)	493 (100)	5,500	493 (100)	5,500	5년 (예비교육과정 1년 학부과정 4년)	입학금, 수업료, 생활비, 항공료, 예비교육과정비 등(일본 측 50:50 지원)
상 호 교 류	한일대학생 교류 (일본→한국 100명, 한국→일본 300명) (’09~’11)	108 (108)	1,150	100 (100)	1,150	4~12개월	준비금(150만원: 1회) 생활비(80만원)
합계		3,360 (1,260)	46,708	3,579 (1,279)	52,360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2). 「고등교육 국제화 추진전략」 보고, p.25

구체적으로 해외 유학 및 해외 연수 지원성과를 살펴보기 위해 대학알리미 자료를 통해 수집한 자료에 근거하여 대학별로 평균값을 제시하고 어떤 요인이 해외 유학 및 해외 연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회귀 분석을 하였다.

1) 외국인 유학생(과정)

먼저, In-Bound의 측면에서 외국인 유학생(과정) 소계에 대한 평균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대학 유형별로는 일반대가 178명으로 평균을 크게 웃돌았으며, 교육대와 기타 대학은 평균에 크게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설립유형별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규모별로는 학교 규모가 클수록 외국인 학생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기준 재학생수가 5천명 미만인 소규모 학교의 경우 외국인 학생 수가 약 25명인 데 비해 1만 명~2만 명 규모의 학교는 196명, 2만명 이상인 대규모 학교는 575명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학교가 여타 지역 학교에 비해 외국인학생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17〉 주요 배경변인별 외국인학생 소계 평균 비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t)	사후검증
전체		232	161.53	258.11	—	—
대학유형	①일반대	202	178.29	269.12	3.561*	—
	②교육대	8	0.50	1.41		
	③기타	22	66.18	132.27		
설립유형	①국공립대	46	164.63	204.42	.107	—
	②사립대	186	160.76	270.21		
규모	①5천명 미만	87	25.46	47.29	71.927***	①-③***
	②5천명 이상~1만명 미만	45	77.89	85.54		①-④***
	③1만명 이상~2만명 미만	68	196.32	157.46		②-③***
	④2만명 이상	32	575.16	429.96		②-④*** ③-④***
지역 (3범주)	①서울	54	273.81	428.36	8.277***	①-③***
	②광역시	50	173.92	199.83		
	③기타	128	109.32	144.99		
지역 (6범주)	①서울	54	273.81	428.36	3.100*	—
	②수도권(인천,경기)	37	97.89	128.04		
	③충청권(대전,충청)	47	141.30	190.96		
	④강원권	12	69.75	89.08		
	⑤호남권(광주,전라)	29	132.97	156.41		
	⑥영남제주권(부산,대구,울산,경상,제주)	53	145.91	177.39		

***p<.001, **p<.01, *p<.05

외국인 유학생(과정) 소계를 준거지표로 삼아, 대학유형, 설립유형, 학교규모, 지역을 설명변수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학 유형과 학교 규모, 지역이 외국인 유학생 소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보였다. 일반대학에 비해 기타 대학이 외국인 학생 수가 더 적은 경향을 보였고, 학교규모의 경우 5천명 미만 소규모 학교에 비해 1만명~2만명 미만, 2만명 이상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수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의 경우, 서울 지역에 비해 광역시 및 기타 시도는 외국인 학생 수가 더 적었고, 이를 권역별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에서는 서울 지역에 비해 충청권 대학을 제외한 여타 지역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외국인 학생 수가 적었다.

〈표 II-18〉 외국인 유학생 소계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구분	외국인학생 소계		
	b	s.e.	β
상수	83,538 †	45,185	
대학유형(준거: 일반대)			
교육대	14,898	73,359	.011
기타	-90,727*	42,714	-.103
설립유형(준거: 국공립)			
사립	39,811	33,730	.062
학교규모(준거: 5천명 미만)			
5천~1만명 미만	50,043	33,932	.077
1만명~2만명 미만	161,478***	30,325	.285
2만명 이상	536,970***	39,755	.719
지역 (준거: 서울)			
수도권	-112,396**	40,269	-.160
충청권	-57,844	37,296	-.090
강원권	-158,623**	59,739	-.136
호남권	-91,485*	42,930	-.117
영남제주권	-121,045**	36,359	-.197
R^2	.505		

† p<.10, *p<.05, **p<.01, ***p<.001

2) 외국인 유학생(총계)

정규과정이 아닌 학생교류로 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유학생을 포함한 외국인학생 총계는 이보다 훨씬 많다. 전체적으로 평균 265명 정도의 외국인 학생이 재학하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대학 유형별로는 일반대가 평균 약 297명, 교육대학 및 기타 대학은 그보다 훨씬 적은 수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재학 중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교 규모별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 학교 규모가 클수록 외국인 학생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이 여타 지역에 비해 외국인 학생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19〉 주요 배경변인별 외국인 유학생 총계 평균 비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t)	사후검증
전체		232	265.23	448.87	—	—
대학유형	①일반대	202	296.81	471.00	4.025*	—
	②교육대	8	7.25	8.41		
	③기타	22	69.05	133.17		
설립유형	①국공립대	46	255.41	318.63	.209	—
	②사립대	186	267.66	476.29		
규모	①5천명 미만	87	38.72	64.00	64.362***	①-③***
	②5천명 이상-1만명 미만	45	105.00	98.77		①-④***
	③1만명 이상-2만명 미만	68	334.65	258.58		②-③**
	④2만명 이상	32	958.84	802.00		②-④*** ③-④***
지역 (3범주)	①서울	54	523.89	784.03	13.887***	①-②** ①-③***
	②광역시	50	255.18	277.49		
	③기타	128	160.03	201.49		
지역 (6범주)	①서울	54	523.89	784.03	5.221***	①-②** ①-③* ①-⑤* ①-⑥*
	②수도권(인천,경기)	37	158.08	194.24		
	③충청권(대전,충청)	47	205.09	259.07		
	④강원권	12	125.00	161.50		
	⑤호남권(광주,전라)	29	185.38	221.40		
	⑥영남제주권(부산,대구,울산,경상,제주)	53	205.26	241.76		

***p<.001, **p<.01, *p<.05

외국인 학생 총계에 대한 분석 결과 역시 대동소이한 양상을 보여준다. 대학 유형으로는 일반대에 비해 기타 대학은 외국인 학생 수가 유의하게 적다. 학급 규모의 경우 5천명 미만 소규모 대학에 비해 1만 명~2만 명 미만, 2만 명 이상 대학들은 외국인 학생 수가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지역의 경우, 서울 지역은 여타 지역에 비해 외국인 학생 수가 더 많으며, 이 같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20〉 외국인학생 총계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구분	외국인학생 총계		
	b	s.e.	β
상수	215,516**	77,562	
대학유형(준거: 일반대)			
교육대	47,437	125,925	.019
기타	-227,709**	73,320	-.149
설립유형(준거: 국공립)			
사립	81,816	57,898	.073
학교규모(준거: 5천명 미만)			
5천~1만명 미만	63,419	58,247	.056
1만명~2만명 미만	272,171***	52,054	.277
2만명 이상	880,527***	68,241	.678
지역 (준거: 서울)			
수도권	-277,325***	69,123	-.227
충청권	-204,514**	64,021	-.184
강원권	-339,547**	102,545	-.168
호남권	-266,199***	73,692	-.197
영남제주권	-319,345***	62,413	-.299
R^2	.518		

† p<.10, *p<.05, **p<.01, ***p<.001

다. Mode 3: 외국교육기관 설립

1) 외국교육기관 유치

현재 국내에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은 FAU-Busan과 한국뉴욕주립대(SUNY-Korea), STC-Korea의 3개이다. 2013년 10월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중심으로 벨기에의 겐트대학, 미국의 유타대학, 조지메이슨 대학 등이 설립 승인을 받은 상황으로 2014년 개교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 또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러시아의 모스크바대와 상트페테르부르크대, 미국의 알프레드대, 일리노이대가 MOU 체결을 맺고 설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은 미국의 텔라웨어대와 황해 경제자유구역청은 캘리포니아주립대 샌버나디노, 캘리포니아주립대 산호세 대학, 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은 UCLA대학과 MOU를 맺고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표 II-21〉 외국교육기관 유치 및 MOU 체결 계획('12.5월 기준)

지역		외국교육기관	현황	유치기관	비고
인천	송도	조지메이슨대(미국)	-MOU('09.5) 및 설립협약 체결('09.12) -'13년 개교 목표(경제, 경영, 국제학 등)	인천경자청	심사중
		겐트대학교(벨기에)	-MOU('11.3.23) 및 설립협약 체결('11.10) -바이오, 환경, 식품공학 분야 설립 계획		설립 신청전
		유타대학(미국)	-MOU('10.9) 및 설립협약 체결('12.4) -자연대, 사회과학대, 교육대, 인문대 중심의 분 교 설립 계획		
		모스크바대(러시아)	-MOU('11.3) 체결 -설립협약 진행 중		
		상트페테르부르크대 (러시아)	-MOU('11.3) 체결 -물리학, 응용수학, 러시아어, MBA 등 설립 계획		
		알프레드대(미국)	-MOU('11.6.23) 체결 및 설립협약 진행중 -세라믹 분야, 공과대, 예술대 설립 계획		
		일리노이대(미국)	-MOU('11.6.27) 체결 및 설립협약 진행중 -컴퓨터공학, 교육학, 문헌정보학 설립 계획		
대구	대학원	델라웨어대(미국)	-MOU('10.12.22) 체결 -'14년 개교 목표	대구경북 경자청	설립 신청전
항해	대학원	캘리포니아주립대 샌버나디노	-MOU('09.11) 및 설립협약 진행 중 -'14년 개교 목표	항해경자청	설립 신청전
		캘리포니아주립대 산호세대학	-MOU('10.6) 체결		
부산	대학원	UCLA대학	-MOU('12.4.27) 체결 및 설립협약 진행중 -간호학 석사과정	부산진해 경자청	설립 신청전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2). 「고등교육 국제화 추진전략」 보고, p.27

〈표 II-22〉 외국 고등교육기관 분교 유치 현황

구역	외국 고등교육기관	
인천(송도)	한국뉴욕주립대(미국)	'11.7.13 설립승인 '12.3.3 개교
	조지메이슨대(미국)	'12년설립승인신청예정 '14.3 개교목표
	겐트대(벨기에)	'12년 설립승인 신청예정 '13년 9월 개교목표
대구	-	-
광양	STC-Korea (네덜란드)	'08.1.21 설립승인 '08.3.17 개교
부산·진해	FAU(독일)	'09.11.17 설립승인 '11.3.2 개교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2). 「고등교육 국제화 추진전략」 보고, p.26

2) 해외 분교 설립

해외 분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도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나 국내 대학의 해외 분교 유치는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 대학의 해외 분교 유치 상황을 보면, 중앙대학교, 한서대학교, 청암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대원대학교, 한양대학교 등의 7개 대학이 주로 중국에 진출해 있으나 대부분 규모가 적고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양대학교가 400명 이상의 규모에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열린 교육을 제공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등, 활발한 국외 분교 활동을 하고 있으나 이 모두가 분교 형태가 아닌 국외 시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II-23〉 국내 고등교육기관 국외 진출 현황

기 진출									
대학명	국가	형태	시점	목적	규모	비용	교육 프로그램	교육 대상	학점
중앙대학교	기타	국외 시설	2008	분교 프로그램의 질 제고	50명 미만	기타	기타	외국인	
한서대학교	미국	국외 시설	2003	재학생에게 해외 교육기회 제공	100~200명	10억 이하	문화/예술	내국인	내국인 5~10학점
한양대학교	중국	국외 시설	2007	기타	400명 이상	10억 이하	기타	내국인+외국인	내국인+외국인 10~20학점
대원대학교	중국	국외 시설	2010	해외유학생 유치	50명 미만	10억 이하	기타	내국인+외국인	학점 부여 없음
수원과학대학교	중국	국외 시설	2011	해외유학생 유치	50명 미만	10억 이하	기타	외국인	학점 부여 없음
수원여자대학교	중국	국외 시설	2004	기타	50명 미만	기타	문화/예술	외국인	학점 부여 없음
청암대학교	기타	국외 시설	2006	재학생에게 해외교육기회 제공	100~200명	10억 이하	기타	내국인+외국인	학점 부여 없음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2). 「고등교육 국제화 추진전략」 보고, pp.38-39

그러나 한양대의 경우,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해 국외 분교 형태의 진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한양대 이외에도 분교 형태의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대학들도 다수 있다. 서울예술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예수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한국골프대학교가 국외 분교 형태로 진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국외시설의 형태로는 단국대학교, 대림대학교, 홍익대학교가 해외 교육기관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표 II-24〉 국내 고등교육기관 국외 진출 계획

진출 예정									
대학명	국가	형태	시점	목적	규모	비용	교육 프로그램	교육 대상	학점
단국대학교	미국	국외 시설	2015년 이후	재학생에게 해외 교육기회 제공	50~100명	10억 이하	기타	내국인+외국인	내국인+외국인 5~10학점
대림대학교	중국	국외 시설	2012	해외 유학생유치	400명 이상	10억 이하	기타	외국인	학점 부여 없음
서울예술대학교	미국	국외 분교	2015년 이후	해외 유학생 유치	50명~100명	20~50억	문화/예술	내국인+외국인	내국인+외국인 10~20학점 이상
예수대학교	기타	국외 분교	2012	기타	50명 미만	10억 이하	의학/간호	외국인	외국인 100학점 이상
원광보건대학교	기타	국외 시설	2011	재학생에게 해외 교육기회 제공	400명 이상	20~50억	기타	내국인	학점 부여 없음
제주한라대학교	중국	국외 분교	2015년 이후	본교 프로그램의 질 제고	400명 이상	50~100억	문화/예술	내국인+외국인	내국인+외국인 30학점 이상
한국골프대학교	중국	국외 분교	2015년 이후	재학생에게 해외 교육기회 제공	50~100명	10억 이하	기타	내국인+외국인	내국인+외국인 10~20학점
한양대학교	기타	국외 분교	2013	해외 유학생 유치	400명 이상	10억 이하	기타	내국인+외국인	내국인 10~20학점
홍익대학교	미국	국외 시설	2012	재학생에게 해외 교육기회 제공	300~400명	300~500억	문화/예술	내국인+외국인	내국인 10~20학점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2). 「고등교육 국제화 추진전략」 보고, pp.38-39

라. Mode 4: 해외 교류

1) 해외 유치

대학정보공시제 자료를 바탕으로 유치인원수를 중심으로 교류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 다음 〈표 II-25〉이다. 대학유형 및 설립유형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규모, 지역별로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학규모의 경우 학교 규모가 클수록 유치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생이 5천명 미만인 학교는 평균 유치인원수가 약 8명, 5천명 이상-1만명 미만인 경우에는 23명 수준에 그친 데 비해, 1만명 이상-2만명 미만은 97명, 2만명 이상 대규모 학교는 311명에 달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다른 지역에 비해 눈에 띄게 유치인원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II-25〉 주요 배경변인별 교류현황(유치인원수) 평균 비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t)	사후검증
전체		173	96.62	248.65	—	—
대학유형	①일반대	162	102.93	255.78	.817	—
	②교육대	8	4.63	4.81		
	③기타	3	1.67	1.53		
설립유형	①국공립대	42	55.81	83.72	1.944	—
	②사립대	131	109.71	280.86		
규모	①5천명 미만	39	7.92	23.39	12,302***	①-④*** ②-④*** ③-④**
	②5천명 이상~1만명 미만	41	23.15	29.52		
	③1만명 이상~2만명 미만	63	97.30	123.79		
	④2만명 이상	30	310.93	516.05		
지역 (3범주)	①서울	37	259.57	490.36	11,891***	①-②** ①-③***
	②광역시	36	85.97	97.86		
	③기타	100	40.17	58.44		
지역 (6범주)	①서울	37	259.57	490.36	4,521**	①-③* ①-⑥**
	②수도권(인천,경기)	26	74.12	106.99		
	③충청권(대전,충청)	36	52.00	76.70		
	④강원권	11	36.73	51.83		
	⑤호남권(광주,전라)	19	51.42	62.24		
	⑥영남제주권(부산,대구,울산,경상,제주)	44	43.91	53.27		

***p<.001, **p<.01, *p<.05

이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학교 규모와 지역 변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학교 규모의 경우, 준거집단으로 설정한 재학생수 5천명 미만 소규모 대학에 비해 1만명~2만명 미만, 2만명 이상 대학의 경우 유치인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의 경우, 준거집단으로 설정한 서울 지역에 비해 나머지 지역들이 모두 부(negative)로 나타나, 서울 지역의 유치인원이 지방 소재 대학보다 유의하게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26〉 교류현황(유치인원수)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구분	교류현황(유치인원수)		
	b	s.e.	β
상수	109,739 †	64,766	
대학유형(준거: 일반대)			
교육대	40,487	94,064	.034
기타	-58,435	133,241	-.031
설립유형(준거: 국공립)			
사립	40,242	44,858	.070
학교규모(준거: 5천명 미만)			
5천~1만명 미만	18,602	53,709	.032
1만명~2만명 미만	87,769 †	48,786	.170
2만명 이상	285,267***	56,961	.436
지역 (준거: 서울)			
수도권	-140,250*	57,687	-.202
충청권	-152,120**	53,103	-.249
강원권	-167,853*	77,727	-.165
호남권	-173,327**	63,739	-.219
영남제주권	-188,112***	50,272	-.330
R^2	.219		

† p<.10, *p<.05, **p<.01, ***p<.001

2) 해외 파견

대학정보공시제 자료를 통해 해외 파견 인원을 보면, 평균 181명 정도를 해외에 파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유형 및 설립유형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대학규모별로는 대학 규모가 클수록 파견인원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재학생수가 5천명 미만인 대학의 경우에는 교류인원이 평균 23명 수준에 그친 데 비해, 1만명 이상~2만명 이하 규모 대학은 207명, 2만명 이상 대규모 대학은 48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이 여타 지역에 비해 파견인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27〉 주요 배경변인별 교류현황(파견인원수) 평균 비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t)	사후검증
전체		173	181.48	271.38	—	—
대학유형	①일반대	162	192.72	276.79	2,237	—
	②교육대	8	6.13	5.79		
	③기타	3	42.00	59.19		
설립유형	①국공립대	42	138.71	191.15	1,449	—
	②사립대	131	195.19	291.77		
규모	①5천명 미만	39	23.23	53.34	29,583***	①-③**
	②5천명 이상~1만명 미만	41	68.00	59.74		①-④***
	③1만명 이상~2만명 미만	63	207.44	211.77		②-③*
	④2만명 이상	30	487.77	426.46		②-④*** ③-④***
지역 (3범주)	①서울	37	349.22	468.43	11,619***	①-②* ①-③***
	②광역시	36	199.61	178.94		
	③기타	100	112.89	146.46		
지역 (6범주)	①서울	37	349.22	468.43	4,173**	①-③* ①-⑥*
	②수도권(인천,경기)	26	169.54	182.04		
	③충청권(대전,충청)	36	123.17	105.94		
	④강원권	11	77.64	75.64		
	⑤호남권(광주,전라)	19	120.89	214.06		
	⑥영남제주권(부산, 대구, 울산, 경상, 제주)	44	147.32	171.01		

***p<.001, **p<.01, *p<.05

파견 인원수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학교 규모와 지역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도 학교 규모가 5천명 미만인 소규모 학교에 비해 1만명~2만명 미만, 2만명 이상인 학교는 파견인원수가 더 많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에 비해 여타 지역은 모두 부(negative) 부호를 나타내, 서울 지역 소재 대학들이 다른 지역에 위치한 대학들보다 파견 인원수가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I-28〉 교류현황(파견인원수)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구분	교류현황(파견인원수)		
	b	s.e.	β
상수	128,252*	63,255	
대학유형(준거: 일반대)			
교육대	11,683	91,869	.009
기타	-49,733	130,132	-.024
설립유형(준거: 국공립)			
사립	32,495	43,812	.051
학교규모(준거: 5천명 미만)			
5천~1만명 미만	43,791	52,456	.069
1만명~2만명 미만	179,966***	47,648	.320
2만명 이상	441,384***	55,632	.618
지역 (준거: 서울)			
수도권	-115,912*	56,341	-.153
충청권	-151,874**	51,864	-.228
강원권	-199,293**	75,913	-.180
호남권	-186,541**	62,252	-.216
영남제주권	-162,496**	49,099	-.262
R^2	.375		

† p<.10, *p<.05, **p<.01, ***p<.001

3) 외국인 교원

대학의 주요 특성에 따라 외국인 교원 수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대학 유형, 설립 유형, 규모, 지역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학 유형의 경우, 일반대학은 외국인 교원 수가 평균 24명 수준으로 파악된 반면, 교대는 평균 0명, 기타 대학은 2명 수준에 불과하다.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대학(5.69명)보다 사립대학(24.34명)이 외국인 교원을 더 많이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대학규모가 클수록 외국인 교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학교가 여타 지역 학교에 비해 외국인 교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29〉 주요 배경변인별 외국인 교원수 평균 비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t)	사후검증
전체		252	20.48	29.44	—	—
대학유형	①일반대	216	23.67	30.61	9.529***	①-②* ①-③**
	②교육대	11	0.00	0.00		
	③기타	25	1.88	5.04		
설립유형	①국공립대	51	5.69	14.37	4.163***	—
	②사립대	200	24.34	31.12		
규모	①5천명 미만	106	3.72	8.30	41.629***	①-②* ①-③*** ①-④*** ②-③** ②-④*** ③-④*
	②5천명 이상~1만명 미만	45	17.69	17.64		
	③1만명 이상~2만명 미만	68	34.37	33.83		
	④2만명 이상	32	50.94	38.79		
지역 (3범주)	①서울	55	32.04	40.56	6.813**	①-③*
	②광역시	54	22.28	33.91		
	③기타	143	15.35	19.93		
지역 (6범주)	①서울	55	32.04	40.56	3.430**	①-⑤*
	②수도권(인천,경기)	41	19.34	24.32		
	③충청권(대전,충청)	50	21.90	29.78		
	④강원권	12	8.92	12.33		
	⑤호남권(광주,전라)	35	8.69	15.94		
	⑥영남제주권(부산,대구,울산,경상,제주)	59	18.63	25.29		

***p<.001, **p<.01, *p<.05

대학 유형, 설립 유형, 학교 규모, 지역을 설명변수로 하여 외국인 교원 수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대학 유형, 설립 유형, 학교 규모, 지역 등 분석모형에 투입한 변인들은 모두 외국인 교원 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반 대학에 비해 기타 대학의 외국인 교원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으며, 다른 조건이 같다면 국공립 대학에 비해 사립대학의 외국인 교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규모별로는 학교 규모가 클수록, 지역의 경우 서울 지역 소재의 대학에 외국인 교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권역별로는 충청권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의 대학들은 모두 서울보다 외국인 교원 수가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I-30〉 외국인 교원수에 대한 종다회귀분석 결과

구분	외국인 교원수		
	b	s.e.	β
상수	-3,948	5,275	
대학유형(준거: 일반대)			
교육대	14,274 †	7,654	.099
기타	-20,736***	4,793	-.211
설립유형(준거: 국공립)			
사립	22,780***	3,892	.312
학교규모(준거: 5천명 미만)			
5천~1만명 미만	12,403**	3,912	.162
1만명~2만명 미만	28,471***	3,486	.430
2만명 이상	47,820***	4,630	.542
지역 (준거: 서울)			
수도권	-10,544*	4,649	-.133
충청권	-4,532	4,346	-.062
강원권	-19,528**	7,085	-.142
호남권	-15,740**	4,849	-.185
영남제주권	-10,808*	4,203	-.155
R^2		.464	

† p<.10, *p<.05, **p<.01, ***p<.001

4) 해외 취업자

해외취업자수에 대한 주요 배경변인별 평균 비교 결과, 대학 유형 및 설립 유형별로는 의미 있는 차이가 확인되지 않은 반면, 규모, 지역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른 지표들과 마찬가지로 대학 규모가 클수록 해외취업자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광역시가 서울 및 기타 시도에 비해 해외취업자수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를 권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바에 따르면 영남·제주권 대학들이 다른 지역에 위치한 대학들보다 해외취업자수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I-31〉 주요 배경변인별 해외취업자수 평균 비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t)	사후검증
전체		208	3.35	9.50	—	—
대학유형	①일반대	191	3.64	9.86	1.114	—
	②교육대	11	0.00	0.00		
	③기타	6	0.17	0.41		
설립유형	①국공립대	44	1.48	4.15	1.478	—
	②사립대	164	3.85	10.43		
규모	①5천명 미만	75	0.33	1.03	5.392**	①-③**
	②5천명 이상~1만명 미만	40	3.35	7.10		
	③1만명 이상~2만명 미만	62	6.65	15.34		
	④2만명 이상	31	4.06	5.48		
지역 (3범주)	①서울	41	1.22	2.08	5.731**	①-②* ②-③*
	②광역시	46	7.33	17.60		
	③기타	121	2.56	5.46		
지역 (6범주)	①서울	41	1.22	2.08	2.334*	—
	②수도권(인천,경기)	35	2.00	5.05		
	③충청권(대전,충청)	41	3.29	6.97		
	④강원권	12	0.83	1.03		
	⑤호남권(광주,전라)	27	2.59	5.85		
	⑥영남제주권(부산,대구,울산,경상,제주)	52	6.96	16.43		

***p<.001, **p<.01, *p<.05

해외취업자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규모와 지역에 따라 해외취업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학교 규모가 5천명 미만인 소규모 대학에 비해 규모가 큰 대학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해외취업자가 많은 경향을 보이며, 특히 재학생 규모가 1만명~2만명 미만에 해당하는 대학들이 해외취업자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에 비해 광역시에 소재한 대학들의 해외취업자수가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32〉는 지역을 권역별로 세분하여 투입한 결과를 보여준다. 국공립대학에 비해 사립대학이,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에 비해 영남·제주권 대학들이 해외취업자수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해외취업자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설명량이 10% 수준에 머물러, 본 연구에서 투입한 변인들로 대학의 해외취업자수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표 II-32〉 해외취업자에 대한 종다회귀분석 결과

구분	해외취업자		
	b	s.e.	β
상수	-5,020*	2,485	
대학유형(준거: 일반대)			
교육대	2,243	3,352	.053
기타	.529	3,864	.009
설립유형(준거: 국공립)			
사립	3,240 †	1,820	.140
학교규모(준거: 5천명 미만)			
5천~1만명 미만	2,854	1,820	.119
1만명~2만명 미만	6,790***	1,645	.328
2만명 이상	4,054 †	2,055	.152
지역 (준거: 서울)			
수도권	.897	2,110	.035
충청권	1,917	2,048	.081
강원권	.134	3,026	.003
호남권	2,629	2,276	.093
영남제주권	6,511**	1,907	.298
R^2	.100		

† p<.10, *p<.05, **p<.01, ***p<.001

4 소결

이상으로 고등교육 국제화 추진 현황을 WTO의 GATS, FTA 체결과 같은 국제화 배경과 정부 시기별 주요 정책 동향, 그리고 대학알리미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현황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한국의 국제화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교육 국제화가 WTO와 FTA 체결 등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고등교육 글로벌 서비스화와 같은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형태로 고등교육에서의 국제화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또한 대학평가나 정부예산 배분과 같은 정부 정책 추진에 대응하는 형태로 대학의 국제화가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로는 국제화를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로 구분하였을 때, 한국의 국제화는 주로 인바운드 중

심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Study Korea 정책 역시 유학생 유치를 통해 유학 수지를 개선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재정 운영 개선을 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GKS 지원에 있어서도 전체 예산 533억 중에서 내국인의 해외 유학이나 교류를 장려하는 예산은 9억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교육기관의 유치 또는 해외분교 설립 현황 역시 국내 대학의 해외 파견보다는 외국대학의 국내 유치를 통해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교원이나 석학 초빙 등과 같은 연구자 유치를 통해 국내 대학의 국제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은 인바운드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대학정보공시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국제화 현황 점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국내 대학의 국제화 정도에 많은 편차가 있다는 점이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학이 적극적인 국제화를 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지방보다 서울 소재 대학이, 대학 규모에 있어서는 소규모 대학보다는 대규모 대학이 적극적으로 유학생을 유치하거나 교수, 연구자의 해외 파견은 물론, 외국인 교수 채용, 해외 취업 등을 통해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Ⅲ

주요국의 국제화 정책현황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소결

III

주요국의 국제화 정책현황

이 장에서는 한국 고등교육 국제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해외 주요국의 정책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최근 한국과 FTA가 체결되고 오래 전부터 국내 학생들의 해외 유학이 가장 많은 국가인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대학의 국제 경쟁이 격화되면서 활발하게 국제화 정책을 펴고 있는 동아시아에 주목하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유학생을 배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외국대학 분교를 유치하고 있는 중국과, 한국의 고등교육 구조와 가장 유사하고 최근 들어서 고등교육 글로벌화(국제화)에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들어 한국 고등교육 국제화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미국

가. 국제화 정책 추진 배경⁷⁾

21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국제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다. 사실, 미국에서의 국제화는 역사적으로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두 번의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국가 간의 협력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국제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교육의 국제화는 전후 재건이 필요했던 유럽보다는 상대적으로 전쟁의 피해를 덜 입은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호주에 집중되면서 고등교육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제 2차 세계 대전 전에는 국가 주도 보다는 민간단체 주도의 평화와 상호 이해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국제화가 진행되었으나,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국가 안보와 이익 등이 국제화의 동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 안보가 주된 목적과 동기 부여로 작용하면서 정부의 기금지원과 동시에 그에 따르는 규제와 감독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미국에서는 해외 각 지역 전문가 부족에서 오는 정보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연구 차원에서 국제화가 시작되었다. 1946년의 Fulbright 재단의 창설은 미국의 국제화 시발점이자 교두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교수진과 대학원생을 외국으로 파견하고 그 나라로

7) 주요 출처: The Sage Handbook of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2012)의 Chapter 3, The History of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Hans de Wit & Gil Merkkx), pp.50-54

부터 교수진과 학생을 유치함으로써 해외 연구의 기반과 연고를 마련하는 형태의 국제화를 추진하였다. Fulbright 재단의 창설은 미국의 대학을 외국인들에게 알리고 미국인에게 외국의 대학을 소개하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Fulbright 재단을 중심으로 국제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미국에 유학했던 외국 대학의 교수진 풀이 형성되고 이들이 미국 대학에 제자들을 보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학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1959년도에 48,000명 정도에 불과했던 외국인 학생 수는 2009년에는 609,000명에 달했다. 또한 Fulbright 재단의 단기 교류 유학(Study abroad) 프로그램의 실시로, 1950년 이전에는 6개에 불과했던 단기 교환 유학 프로그램이 2005년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단기 교환 유학 프로그램에 224,000명의 미국 학생이 참여하였다(De Wit & Merkx, 2012: 50).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로 미국의 고등교육 국제화 방향 역시 크게 변화하였다. 국제 사회를 지배하던 강대국의 존재와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세계는 이념이나 정치적인 논리보다는 경제적인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로 전환된 것이다. 이전의 국제 교육 교류 프로그램은 항상 상호 이해나 세계 평화 등의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논리에 의하여 정당화되었으나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고등교육의 국제화는 경제적 경쟁력을 회복하고 강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새로운 세계 질서의 도래와 더불어 교육 국제화의 패러다임은 협력(cooperation) 관계에서 경쟁 관계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격변하는 세계 정치 경제 질서 속에서 교육의 국제화는 피할 수 없는 교육 패러다임이 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40년 동안 기술의 급속한 발전, 지식 기반 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자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학생들의 이동은 고도의 기술을 가진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경제적 필요에 따라 호주, 아시아, 남아메리카, 중동, 아프리카 등 전 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지역적 저변의 확대는 교육의 진정한 국제화에 기여하고 있다(De Wit & Merkx, 2012: 54).

변화하는 교육 국제화의 패러다임에 맞추어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2000년 백악관 문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역설하며 글로벌 환경에서 미국 국민들을 준비시키는 데 일관성 있는 국제 교육 전략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De Wit & Merkx, 2012: 54).

“글로벌 경제에서 성공적으로 경쟁을 계속하고 세계 리더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 국민들이 세계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를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고등교육의 국제화는 미국의 세계 대전의 참여, 지역 전문가 양성 등의 정치적인 필요에 따

라서 시작되었지만, 종전 후 Fulbright 재단의 장학금 제도, 국제 교류 프로그램, 그리고 국가 방위 교육법 등으로 장려되는 지역 문화, 외국어 연구 등의 분야에서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류로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국제 경제 시장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개별 고등 교육 기관 역시, 연방 정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과거 미국 고등교육의 국제화는 주로 국제 사회의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필요가 발생하면서 수동적으로 이루어졌지만, 현재에는 경제적인 이유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고등 교육의 국제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De Wit & Merckx, 2012: 51-54).

나. 국제화 추진 정책 동향

앞서 미국 고등 교육의 국제화 과정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미국의 국제화는 국가나 정부 주도라기보다는 민간 부분에서 이루어져왔지만, 1980년대 후반 소비에트 연방의 몰락과 더불어 경제적인 요구가 중시되면서 국제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 교육부에서 발표한 국제교육에 대한 지침서 “Succeeding Globally through International Education and Engagement, U. S. Department of Education International Strategy”에서는 교육이 무한 경쟁인 국제 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자국의 모든 학생들을 위한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과 글로벌한 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실시하고(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2: 2-3), 성공적인 교육성과를 내고 있는 국가들을 벤치마킹하여 미국 교육에 적용할 뿐 아니라, 교육을 통한 국가 교류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미국의 국제화란 국제적인 교류(engagement) 중심이라 할 수 있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2: 5-7).

미국에서 국제화를 중시하는 또 다른 이유는 미국의 교육 자체가 국제화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미국 국제 교육의 전략은 자국의 교육을 강화시켜 질을 제고함으로써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국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모든 학생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과 다른 문화 간의 교류를 장려하고 있는 것이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2: 8-15).

미국 교육제도의 특성상, 고등교육 기관의 자율성이 매우 크다. 초·중등 공교육은 지역 정부나 지역 공동체의 역할이 매우 크지만 고등교육기관은 그렇지 않다는 의미이다. 뿐만 아니라 초·중등 단계에서는 미국 외의 지역 국가에 대한 정보와 이해를 포함하는 교과 과정의 개혁을 통하여 국제화가 이루어지지만, 고등 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자율적인 운영으로 국제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최근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 대학들은 적극적으로 국제화에 대처하며 이에 맞는 제도적인 준비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대학들의 자율적인 국제화 동향을 NAFSA(National Association of Foreign Student Advisors)의 Eva Egron-Polak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Polak, 2012: 1).

- 연구능력 정립을 목적으로 한 고등교육기관의 협력으로부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동맹적 관계를 위한 협력으로 변화
- 국제학생들이 자신의 국가에서 받지 못했던 교육을 제공하는 것에서 세계적인 인재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경쟁으로 변화
- 단결과 결속을 위한 고등교육 기관간의 파트너십에서 경제적이고 지역 정치적인 목적에 연관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변화
- 부드러운 외교적 관계를 추진하는 고등 교육 기관의 협력에서 경제적 경쟁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
- 관점과 세계관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에서 자국의 교육 기관의 국제적인 명성과 비슷하거나 교육 기관의 위치를 상승시켜 줄 수 있는 기관을 찾는 방향으로 변화

이를 통해 미국 대학들의 국제화가 협력보다는 경쟁, 그리고 인재 확보와 더불어 경제적인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공통적인 경향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국제화가 대학의 자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 사례를 통해 미국 국제화의 정책 동향과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일리노이 대학 사례

1) 개요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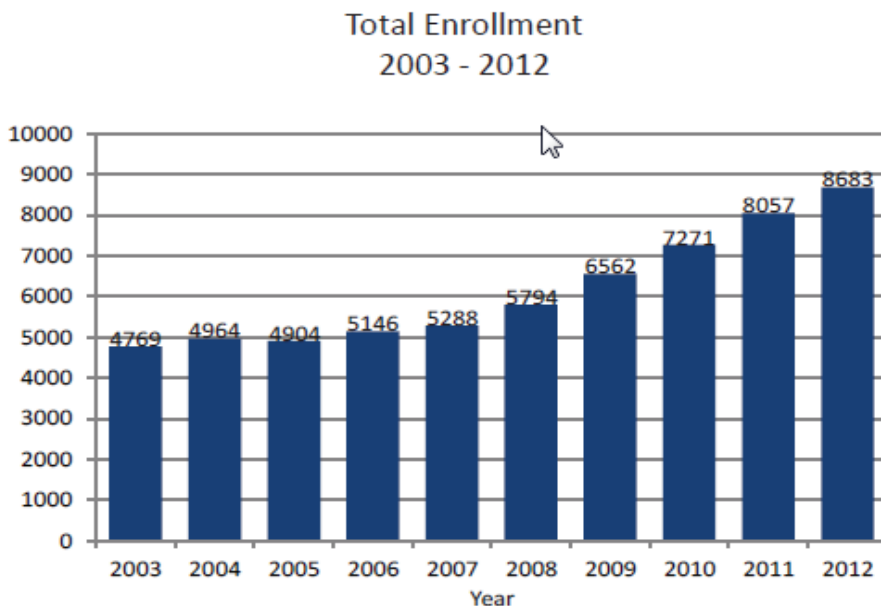
일리노이 대학은 일리노이 주 어바나 샴페인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2-13년도 미국의 공립 대학교 중 가장 국제 학생 수가 많은 대학으로 기록되고 있다. 사립을 포함해도 전미 두 번째로 국제 학생이 많은 연구 중심의 종합 대학이다. 또한 외국인 교원의 숫자로는 미 전국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국제화가 추진되고 있는 대학이라 할 수 있다(ISSS 2012년도 통계자료집: 3). 2008년에는 Senator Paul Simon Award for Campus Internationalization을 수상할 만큼 국제화의 첨

8) 출처: ISSS 2012년도 통계자료집: (http://iss Illinois.edu/download_forms/stats/ta12_stats.pdf).

단을 견고 있다. 국제 학생이나 외국인 교직원의 숫자에서뿐 아니라, 단과 대학 별로 국제 교류, 연구 등의 국제화 프로그램은 물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지원 시스템 측면에서도 국제화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대학이라 할 수 있다.

①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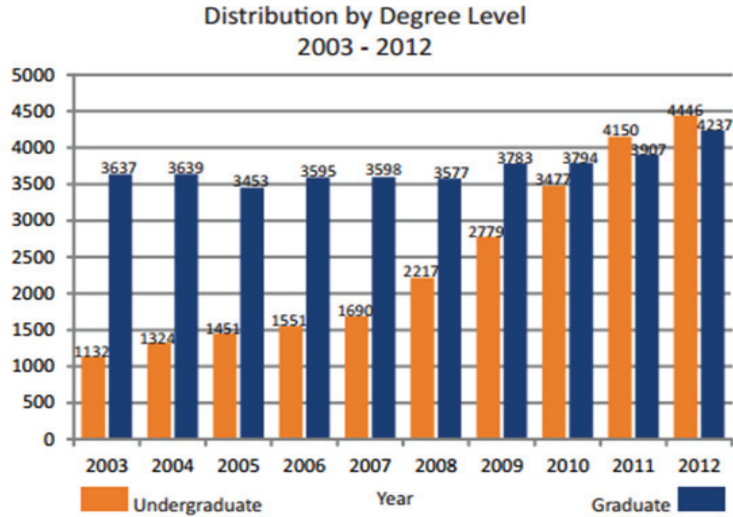
일리노이 대학은 국제 학생의 등록 수가 전미 공립대학으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리노이 대학으로 수학하러 오는 외국학생의 숫자는 최근 10년 동안 증가 추세를 꾸준히 유지해왔다. 일리노이 대학의 국제 학생의 총 숫자는 2003년 4,769명이었으며 향후 4,900명 전후를 유지하다가 2006년 5,146명, 2007년 5,228명, 2008년 5,794명이었으며 2009년 6,562명, 2010년 7,271명, 2011년 8,057명, 그리고 2012년에는 등록한 국제학생의 총 수는 8,683명에 달하고 있다.



[그림 Ⅲ-1] 일리노이 대학 국제 학생 총 학생 등록 추이

*출처: http://issis.illinois.edu/download_forms/stats/fat2_stats.pdf, p.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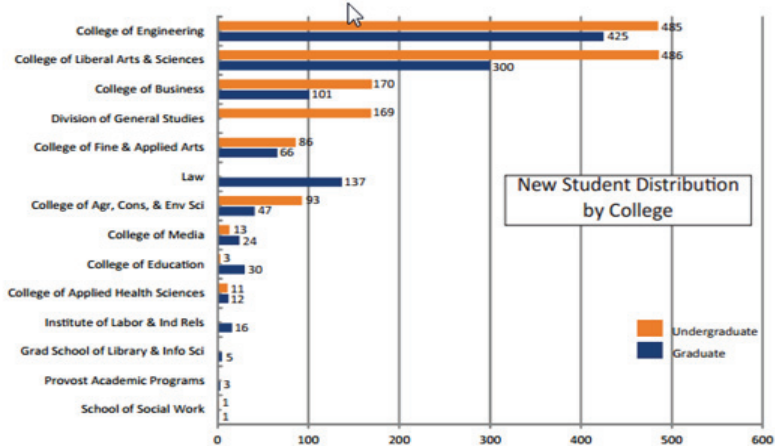
10년 전만 해도 대학원생들이 주를 이루던 등록 경향은 학부생의 꾸준한 증가와 더불어 2011년은 학부생의 숫자가 대학원생을 앞질렀고, 2012년 학부생은 4,446명이며, 대학원생은 4,237명으로 학부생이 약간 많은 숫자를 보이고 있다. 대학원생 중 박사과정은 2,329명, 석사과정은 1,862명이며, 학위과정이 아닌 교환학생이나 방문학생은 402명이다.



[그림 III-2] 일리노이 대학 학위 종류별 분포

*출처: http://isss.illinois.edu/download_forms/stats/ta12_stats.pdf, p.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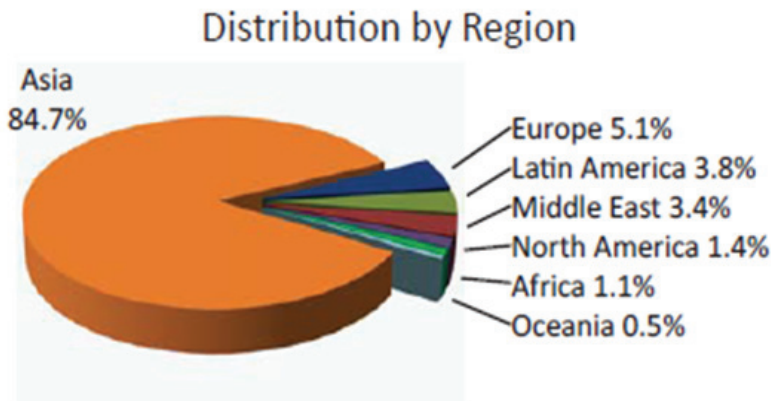
2012년에 새로 일리노이 대학에 입학한 국제학생들에 대한 통계도 전체적인 통계와 별반 다르지 않다. 학부생은 1,517명, 대학원생은 1,161명으로 학부생의 숫자가 더 많다. 단과대학별로는 공과대학, 인문과학 대학, 경영 대학의 순으로 외국 유학생이 많으며, 법학 전문 대학원에도 137명의 국제학생이 등록하고 있다



[그림 III-3] 일리노이 대학 국제학생 신입생 단과대학별 분포(2012년)

*출처: http://isss.illinois.edu/download_forms/stats/ta12_stats.pdf, p.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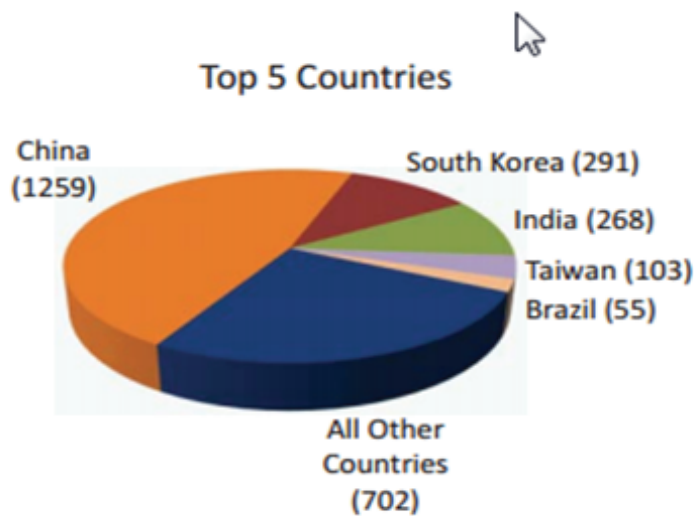
국제학생의 출신별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아시아가 84.7%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유럽, 남아메리카, 중동,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순이다.



[그림 Ⅲ-4] 일리노이 대학 국제학생들의 지역별 분포(2012년)

*출처: http://iss.illinois.edu/download_forms/stats/ta12_stats.pdf, p.22

국가별 국제 학생 신입생 등록 수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이 1,259명으로 1위, 한국이 291명으로 2위, 그리고 인도가 268명으로 3위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Ⅲ-5] 일리노이 대학 국제학생 신입생 등록 상위 5개 국가(2012년)

*출처: http://iss.illinois.edu/download_forms/stats/ta12_stats.pdf, p.6

② 교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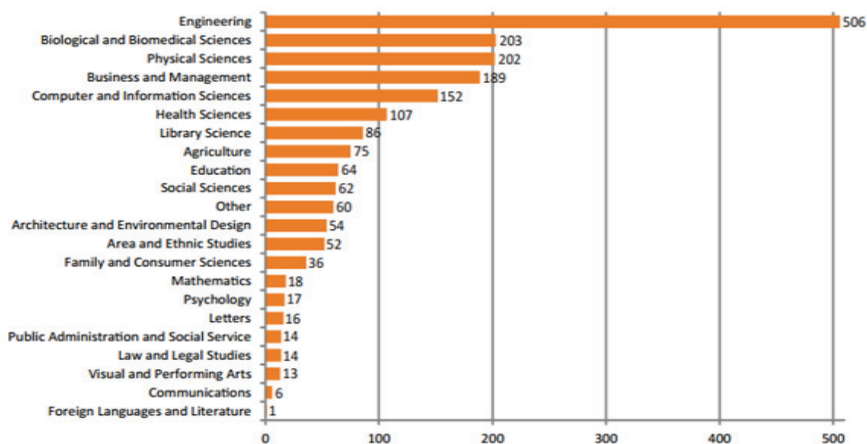
일리노이 대학은 2012년 현재 1,947명의 외국인 학자들을 유치하고 있다. 2008년에는 1,541명의 교수, 방문학자, 교직원들이 있었으며 그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Ⅲ-6] 일리노이 대학 외국인 교직원 수 추세

*출처: http://isss.illinois.edu/download_forms/stats/fa12_stats.pdf, p.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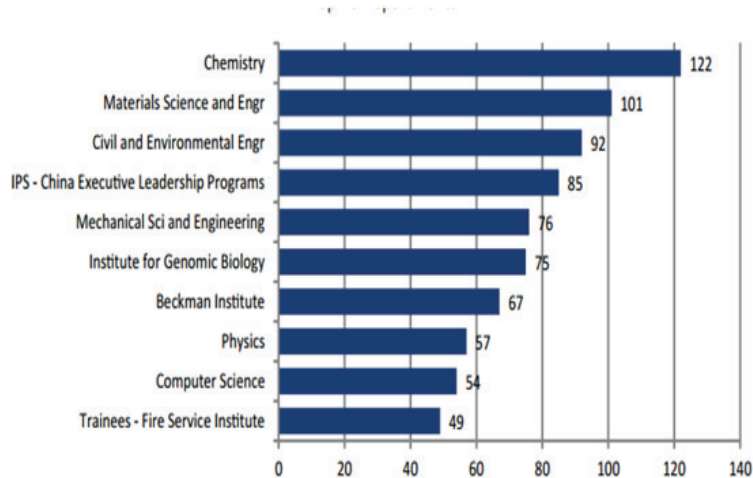
세계 최고의 연구대학으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공과대학은 506명의 교수진을 유치하고 있으며 생명과학 분야는 203명,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202명, 경영학 189명, 컴퓨터 공학 152명, 건강과학 107명 등으로 이공계열에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림 Ⅲ-7] 일리노이 대학 외국인 교직원 전공분야

*출처: http://isss.illinois.edu/download_forms/stats/fa12_stats.pdf, p.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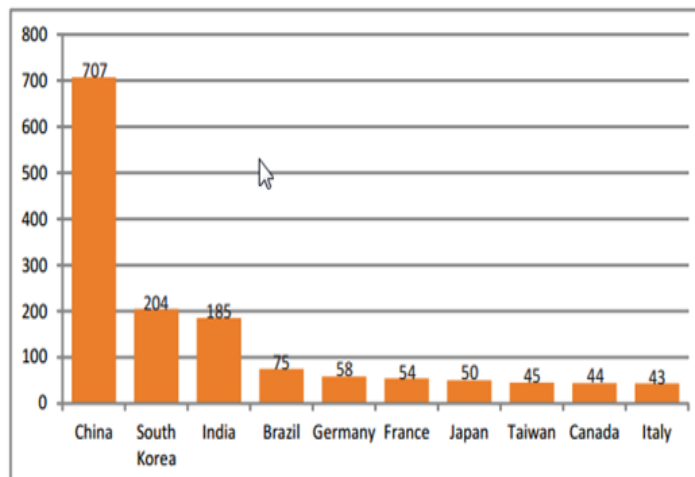
외국인 교직원들이 가장 많은 전공은 화학과이며, 그 뒤로 재료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그리고 중국과 교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IPS의 중국 최고경영자 리더십 과정의 순이다.



[그림 Ⅲ-8] 일리노이 대학 외국인 교직원 재직 수 상위 10개 학과

*출처: http://iss.illinois.edu/download_forms/stats/ta12_stats.pdf, p.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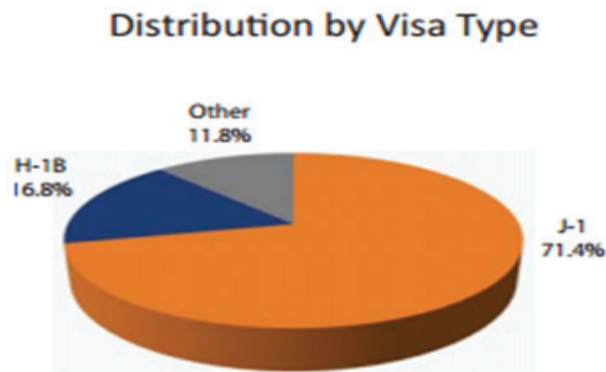
이들 외국인 학자들의 국적은 중국 707명, 한국 204명, 인도 185명, 브라질 75명, 독일 58명, 프랑스 54명, 일본 50명, 대만 45명 등으로, 아시아 출신이 전체 외국인 학자의 67.1%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Ⅲ-9] 일리노이 대학 외국인 교직원 출신 국가 상위 10개국

*출처: http://iss.illinois.edu/download_forms/stats/ta12_stats.pdf, p.22

일리노이 대학의 국제학생·학자 서비스(International Student and Scholar Services)의 통계에는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비자의 유형으로 미루어 볼 때 외국인 학자의 대부분은 단기 교류 학자나 교환, 방문 학자의 가능성이 높다. 단기 비자인 J-1의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학자가 71.4%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 교환 비자로 일리노이 대학에 연구차 단기로 체류하고 있는 방문 학자나 교환 학자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취업 비자인 H-1B의 비자를 소유한 학자는 16.8%, 기타 11.8%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정식 교수직으로 임용된 경우는 20% 정도라 할 수 있다.



[그림 Ⅲ-10] 일리노이 대학 교직원의 비자 유형에 따른 분포

*출처: http://iss.illinois.edu/download_forms/stats/ta12_stats.pdf, p.22

외국인 교원의 고용은 각 학과와 단과대학 소관이며 향후 비자 문제 등은 국제학생·학자 서비스(ISSS)에서 담당한다. 외국 학생들과 학자들의 각종 비자나 이민법 문제 등에 대한 조언과 더불어 국제 학생들과 학자들이 미국의 생활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각 학과나 단과 대학의 국제 학생이나 학자에 관한 문제는 각 학과 담당자들이 ISSS의 조언을 바탕으로 한 협의 하에 해결한다. 또한 학생이나 학자들 자신들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동반 가족에 대하여서도 조언하고 지원한다.

2) 국제화 추진 체제 및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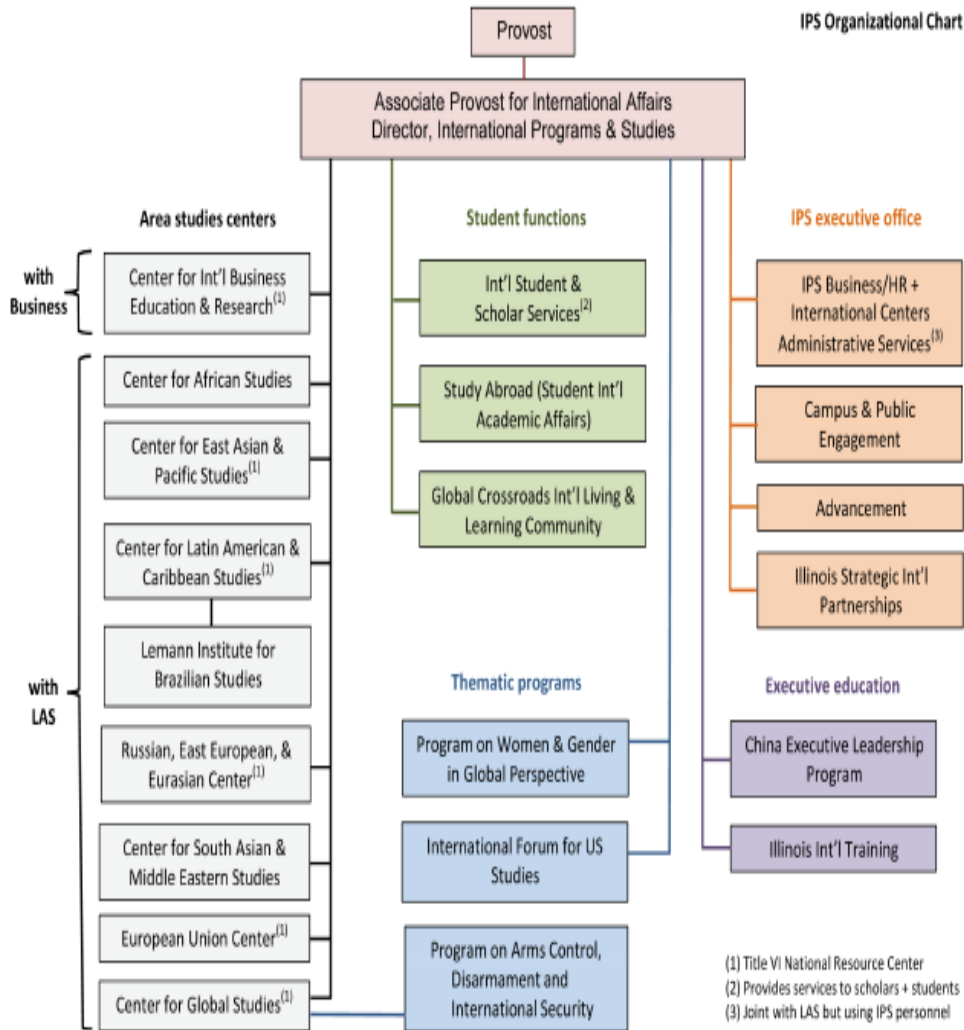
① 국제화 담당조직(campus-wide college level)

일리노이 대학 전체의 국제화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은 Office of International Programs and

Studies(IPS)이다. 이 조직에는 스무 개가 넘는 각각 다른 하부조직이 있다. 국제 문제에 관련된 행정적인 문제를 다루는 국제 학생 학자 서비스(International Student and Scholar Services, ISSS), Study Abroad Office 등을 관장하고 있으며 학문 담당 부총장(Provost of Academic Affairs)에게 보고한다([그림 III-11] 참조). IPS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http://ilint.illinois.edu/about/ips.html>).

- 일리노이 대학교 전 세계의 교육기관들 사이의 생생한 연결 고리를 발전시킨다.
- 캠퍼스 전체에 국제적이고 글로벌한 사안에 대한 연구를 지원한다.
- 전 세계의 관계자와 대표자 등과 대학교의 연결 역할을 수행한다.
- 일리노이 대학의 모든 학생들에게 글로벌 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 지역사회와 국제적인 전문성을 공유한다.
- 대학 캠퍼스 내에서 중요한 국제적인 사안들에 대한 담론을 조성하고 발전시킨다.
- 능력 있는 국제학생들과 학자, 교수진들을 모집하기 위한 캠퍼스 차원의 노력을 강화한다.
- 캠퍼스의 국제적인 측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며 홍보한다.
- 일리노이 대학에서의 다각적이고 다양한 국제적인 활동들을 인도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수행한다.

IPS는 주로 인문과학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연구 센터를 주축으로 한 학문적 영역(area studies),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영역(International Student and Scholar Services, Study Abroad Office), 대학의 국제관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행정적인 영역(Illinois Strategic International Partnership, ISIP)으로 구분되어 있다(<http://ilint.illinois.edu/about/ips.html>).



[그림 III-11] IPS 조직도

*출처: <http://iint.illinois.edu/about/ips.html>

일리노이 대학의 국제화에 관한 조직의 특성은 국제화 정책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IPS같은 조직이 있긴 하지만 각 단과 대학이 자체적으로 국제 교류, 연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행정적인 지원은 IPS같은 조직과의 협력 하에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국제화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법적, 행정적 절차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특히 미국 이외의 국가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경우, 지적재산권이나 여행, 미국 입국, 미국 출국 등의 절차상의 문제가 국제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IPS는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와 더불어 국제적인 파트너십을 담당하는 유닛을 두고 있다. 특

히 일리노이 대학은 국제적인 명성 때문에 광범위한 국제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세계의 고등 교육 기관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 비정부 단체(NGO), 민간 기업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국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활동은 미국 외에 거주하고 있는 교수진, 연구진과 비공식적으로 교류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되지만,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국제적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파트너십을 기관 대 기관으로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http://ilint.illinois.edu/partnerships/isip.html>).

이러한 과정을 관리하는 조직이 Illinois Strategic International Partnerships (ISIP)이다. ISIP는 세계의 각 학과, 단과대학, 연구센터 등을 아우르는 중심 미션인 연구, 교육, 공익, 그리고 경제적인 개발을 진전시키기 위하여 기관간의 관계를 조정하며 지원하는 조직이다. ISIP는 혁신적인 지식이 창출되고,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지며, 교수진과 학생들이 지리적, 문화적, 전공분야, 그리고 학문적인 모든 테두리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하여 전 세계를 아우르는 탈 국가적인 교육 기관을 창출함으로써 연구 중심 대학으로서의 일리노이 대학 명성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http://ilint.illinois.edu/partnerships/isip.html>).

- 새로운 기관 간의 연계체제를 발전시키고 교수진이나 대학 행정 관계자들에게 국제협약 문건을 작성하고 협상하는 것을 의논하는 것
- 주요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별하고 그러한 파트너십을 확장시킬 기회에 대한 정보를 유포함으로써 현재 존재하고 있는 기관간의 연계 체제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
- 일리노이 대학의 연구 관련 기관들과 협력 하에 일리노이 대학 이사회나 일리노이 주에 의하여 정해진 법, 규정, 정책에 국제 협력 과정이 부합되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국제협약에 근거하여 일관성 있고 현재에 맞는 법적 언어로 협약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 현재의 국제 협력자들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유지하고, 기관 간의 연계에 관한 과거와 현재의 기록을 제공하며, 공식적인 기관의 연계를 지원하는 문서들을 보관하는 것

또한 일리노이 대학은 비전을 공유하는 세계의 연구, 교육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학생, 교수진뿐 아니라 일리노이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구체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다(<http://ilint.illinois.edu/partnerships/isip.html>).

- 일리노이 주의 중요 교과 과정에 국제 교육 경험을 포함시키는 것을 증진
- 전통적으로 단기 유학이나 교환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던 전공 학생들의 국제 교육 프로그램 참

여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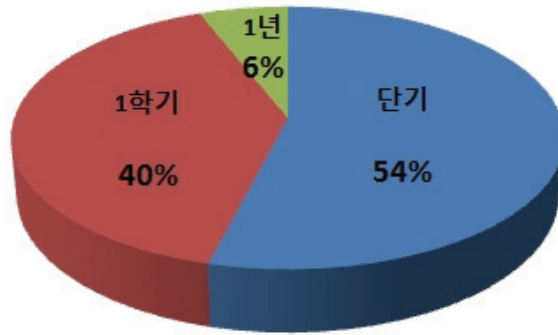
- 새로운 교과과정의 공동 개발이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복수 학위나 조인트 학위가 가능
- 일리노이 대학과 일리노이 대학의 국제 파트너의 협력을 통하여 일리노이 대학 학생들의 연구나 학습기회가 증가하고 다양한 경시 대회나 여름 교류 프로그램 등이 활성화 됨
- 공공 부분이나 민간 부분 등에서 외부 연구 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증가
- 일리노이 대학과 파트너 사이의 진정으로 건설적인 파트너십이 형성되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잠재성 증가
- 파트너십을 통하여 혁신적이고 전공분야와 관계없이 과학 기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증가
- 일리노이 주의 정치,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기술적, 상업적, 정치적 연계를 증진시키고 양성할 수 있는 기회의 증가
- 다국적 기업과 호혜적인 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는 기회의 증가

ISIP는 일리노이 대학 내의 교수진들과 학생들과 협력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트너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향후 잠재적인 혜택과 이점을 평가한 후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통하여 정립된 파트너십이 더욱 효과적으로 정착하고 긍정적인 협력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협력의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The Illinois-Sweden Program for Educational and Research Exchange(INSPIRE)이 있는데 이는 Sweden에 연고나 경험이 있는 인문, 공학 계열의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Sweden의 기술청, 연구기관과 연구협력을 꾀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특정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공과대학, 인문대학, 그리고 예술대학, 미디어대학을 아우르는 융합 협동 교육·연구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일리노이 대학과 국제적인 연구, 교육 협력을 통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관은 ISIP 웹사이트에 따르면, 전 세계 50개국이 넘는 국가의 350개 이상의 교육, 연구 기관과 공식적인 협약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한국교육개발원을 비롯한 13개의 기관과 협약을 맺고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http://ilint.illinois.edu/partnerships/isip.html>).

Study Abroad Office는 각 대학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부서의 협력을 통해 일리노이 대학 학생들의 단기 해외 교류를 담당하고 있다(<http://www.studyabroad.illinois.edu>). 2010~11년 기준, 해외 교류 및 유학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일리노이 대학생의 총 수는 약 2,500여 명으로 그 중 75%에 해당하는 1,907명이 학점이 인정되는 활동/수업에 참여하였으며, 이는 미국 전체 대학 중 18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http://www.studyabroad.illinois.edu/earlyplanning/stats.asp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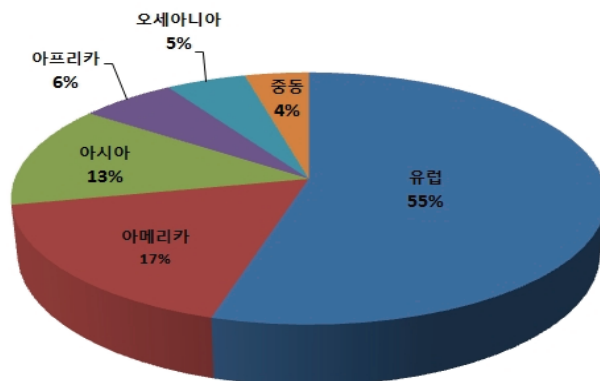
다음 [그림 III-12]를 살펴보면, 반이 넘는 54%의 학생들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통해 단기 경험을 했고 40%의 학생은 한 학기, 그리고 1년을 보낸 학생도 6%나 되었다.



[그림 III-12] 해외 교류 프로그램 참여 기간

*출처: <http://www.studyabroad.illinois.edu/earlyplanning/stats.aspx> 자료 재구성

학생들이 교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선택한 지역을 살펴보면, 54%의 학생들이 유럽을 선택하였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국가 상위 10개국 역시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국가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를 선택한 학생은 13% 정도이며, 이들의 대부분은 중국을 선택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III-13], <표 III-1> 참조).



[그림 III-13] 지역별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 학생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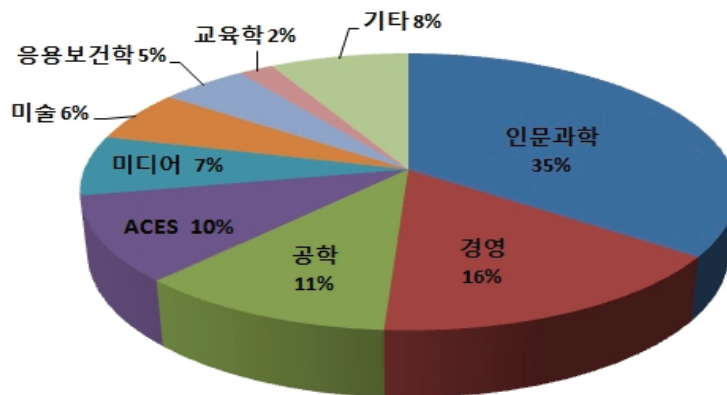
*출처: <http://www.studyabroad.illinois.edu/earlyplanning/stats.aspxv> 자료 재구성

〈표 Ⅲ-1〉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 학생 분포 상위 10개국

순위	국가명	학생 수(명)
1	스페인	216
2	이탈리아	197
3	프랑스	171
4	중국	161
5	브라질	146
6	영국	142
7	호주	91
8	오스트리아	91
9	남아프리카	72
10	독일	57

*출처: <http://www.studyabroad.illinois.edu/earlyplanning/stats.aspx> 자료 재구성

국제교류를 가장 많이 경험한 학생들은 35%가 인문과학대학(College of Liberal Arts and Sciences)이었으며 경영대학은 16% 공과대학은 11%로 나타나고 있다. 해외 교류 경험을 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학부생이었지만 대학원생도 7%에 이른다(<http://www.studyabroad.illinois.edu/earlyplanning/stats.aspx>).



[그림 Ⅲ-14] 출신 단과대학별 유학생 분포

*출처: <http://www.studyabroad.illinois.edu/earlyplanning/stats.aspx> 자료 재구성

②국제화 프로그램

일리노이 대학의 대표적인 국제화 전략은 기존의 대학생이나 대학원 학생들이 학위를 취득하는 수동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각 단과 대학 별 국제 교류를 추진하는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국제적인 시야와 열린 세계관을 심어주는 능동적인 국제화에 있다. 실제, College of Agricultural, Consumer and Environmental Sciences에서는 국제 프로그램 사무실을 설치하여 국제적인 연구 교류와 협력을 꾀하고 있다(<http://intlprograms.aces.illinois.edu/>). College of Business는 경영대학이라는 단과 대학의 특성을 잘 살려 많은 국제적인 연구 교류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나아가 MBA 학위 프로그램 졸업생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있다.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학위를 수여하고 졸업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학교에서 양성된 국제 학생들의 자국에서의 지위 등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양성하는 일은 국제화의 유기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http://www.ciber.uiuc.edu/>, <http://citebm.business.illinois.edu/>). College of Education은 Office of International Programs를 통하여 국제학생을 지원하고 자국 학생들로 하여금 국제적인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 특히 교육 대학이라는 본질적인 특성상 국제적인 교류는 필수적이며 중국, 한국, 인도 등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교육 대학 내의 교수진은 방문 교수나 방문 연구자 지원을 통해 국제적인 학술 교류에 기여하고 있다(<http://education.illinois.edu/international>). College of Engineering은 일리노이 대학의 단과대학 중에서 가장 많은 국제 학생들이 학부생과 대학원생으로 등록하고 있고 외국인 교수진의 숫자도 가장 많은 단과 대학이다. 또한 공과 대학은 단기 해외 유학 연수 프로그램인 International Programs in Engineering을 통해 다양한 해외 경험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글로벌 사회에 대한 인식과 관점을 넓혀주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https://wiki.engr.illinois.edu/display/ipeng/Home>).

일리노이 대학에서는 유학생의 숫자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캠퍼스 차원에서도 유학생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미국생활에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일리노이 대학의 국제학생들이 졸업 후 진로의 안정성을 위한 도움을 주기위한 대학차원의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

③ 외국 교육기관과의 교육 협력 내용

현재 일리노이 대학은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7개국 13개의 기관, 아시아 11개국 126개의 기관, 오세아니아 2개국 12개의 기관 유럽 19개국 135개의 기관 남아메리카 및 캐리비안 지역의 42개의 기관, 중동지역의 6개국 15개의 기관 그리고 캐나다의 2개의 기관과 국제 협약을 맺고 있다

(<http://ilint.illinois.edu/partnerships/list.html>).

〈표 III-2〉 일리노이 대학의 국제교육협력 협약 현황

구분	현황	협약 국가(협약 기관 수)
아프리카	7개국 13개 기관	에티오피아(2), 케냐(1), 르완다(4), 시에라리온(1), 남아프리카(1), 탄자니아(3), 튀니지(1)
아시아	11개국 126개 기관	중국(58), 인도(22), 인도네시아(1), 일본(16), 한국(17), 베트남(4), 말레이시아(1), 파키스탄(3), 필리핀(1), 싱가포르(4), 대만(7), 태국(2),
오세아니아	2개국 12개 기관	호주(9), 뉴질랜드(3)
유럽	19개국 135개 기관	영국(27), 스웨덴(5), 스페인(16), 러시아(3), 포르투갈(1), 폴란드(3), 노르웨이(3), 네덜란드(4), 룩셈부르크(1), 벨기에(2), 이탈리아(12), 아일랜드(7), 그리스(4), 독일(13), 프랑스(25), 덴마크(5), 사이프러스(1), 크로아티아(1), 오스트리아(4)
북미	1개국 2개 기관	캐나다(2)
남미 및 캐리비안	12개국 42개 기관	아르헨티나(10), 브라질(22), 케이맨제도(1), 칠레(3), 코스타리카(1), 에콰도르(1), 과테말라·온두라스·엘살바도르(1), 온두라스(1), 멕시코(7), 트리니다드&토바고(1), 우루과이(1)
중동	6개국 15개 기관	이집트(2), 이스라엘(4), 레바논(2), 사우디아라비아(2), 터키(4), 아랍에미리트(1)

*출처: <http://ilint.illinois.edu/partnerships/list.html>를 참조하여 재구성

일리노이 대학의 대표적인 교수 교환 프로그램인 KUL Faculty Exchange Program은 벨기에에 있는 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과의 협력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40명의 교수진이 이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2009년부터는 박사학위를 받고 있는 대학원생들까지로 그 자격이 확대되었다. 1개월에서 3개월의 단기 교류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의학, 공학, 농학, 그리고 생명공학, 법학, 경영학 등 광범위한 분야에 교수진이 참여하고 있다(<http://ilint.illinois.edu/partnerships/kul.html>).

일리노이 대학은 미국의 학문적 국제교류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계기가 된 Fulbright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2012년에는 두 명의 일리노이 교수와 한명의 박사 대학원생이 Fulbright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프랑스, 독일, 루마니아 등지에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연구할 수 있는 연구기금을 지원받았다(<http://ilint.illinois.edu/partnerships/fulbright.html>).

또한 국제적으로 글로벌 학습센터를 설치하여 단기 교류 과정으로 방문하는 일리노이 대학 학생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현재 오스트리아(비엔나), 벨기에(Leuven), 코스타리카(San Joaquin), 에콰도르, 프랑스, 이태리(로마, 베로나), 일본, 스페인(바르셀로나, 빌바오, 그라나다), 영국, 대만 등에 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스웨덴에도 준비 중이다. 각각의 Learning Center는 단기 국제 교류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그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교류 등, 다양한 경로를 개발하고 있다(<http://www.studyabroad.illinois.edu/userfiles/pages/icgle.aspx>).

④ 해외 분교 유치

대학의 국제화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분교 유치 등은 미국 대학의 입장에서는 꺼리는 경우가 많다. 큰 이유는 교수진을 움직일 수 있는 인센티브가 크지 않고 프로그램의 성공 가능성 등에 대한 불안도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합동 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er)의 형태로 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있다. 일본의 큐슈대학과 운영 중인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arbon-Neutral Energy Research(<http://i2cner.kyushu-u.ac.jp/en/>)와 싱가포르에서 운영되고 있는 Advanced Digital Sciences Center(<http://adsc.illinois.edu/>) 등의 조인트 연구센터는 인지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조인트 학위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⑤ 온라인 학위과정

일리노이 대학은 온라인 학위 과정 또한 운영하고 있으나 국제학생의 참여는 통계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온라인 과정은 학사부터 석사, 그리고 특수 자격증 취득용 까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으나 일리노이 대학의 스프링필드, 시카고를 포함한 세 개의 캠퍼스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각각 원하는 캠퍼스에 입학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수강한 과목의 학점은 다른 교육기관에서 인정이 가능하며 학위취득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많이 수강하는 경향이 있다. 일리노이 대학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학위과정은 국제학생들에게도 열려있다. 인터넷 접근성과 입학조건만 충족시켜 입학을 허가 받으면 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온라인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http://www.online.uillinois.edu/>).

라. 특징

이상 미국의 정책 및 대학 사례를 통해 국제화 추진 동향을 살펴보았다.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미국은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국제화가 빠르게 추진되었지만 정부의 시책이라기보다는 민간단체나 대학 자율로 다양하게 국제화가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풀브라이트 장학 재단을 통해 국제 교류가 전개되고 이가 대학 수준의 국제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도 대표적인 국제화 추진 대학이라 할 수 있는 일리노이 대학 사례를 보면, 양보다는 질적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사적이라 할 수 있다. 이공계나 경영학과의 MBA 프로그램, 나아가 최고 경영자 프로그램 등과 같은 특화된 전공 영역에서 공동연구와 같은 교육과정의 국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두 번째 특징으로 국제화 추진 조직이 매우 시스템화 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IPS, 단과대

학별 국제화 전담 조직인 ISIP와 같은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국제 활동에 대한 지원 조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리노이 대학과 국외의 교육 기관들이 협력관계를 맺을 때 행정적인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국제적 협력을 추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시작된 작은 협력관계라 할지라도 기관과 기관간의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인센티브나 재정적인 지원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세 번째로는 세계적인 네트워킹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일리노이 대학의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국제학생들이 본국으로 귀환하여 교육기관 등에 재직하면서 자신의 학생들을 추천하여 일리노이 대학으로 보낸다거나 본인이 교류 프로그램이나 공동 연구 등을 통하여 모교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등, 다양한 해외 네트워킹을 통해 국제화를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연구 중심대학으로서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국제적인 명성과 위상을 견고히 함으로써 세계의 많은 대학들이 일리노이 대학과의 협력을 구축하기 위하여 일리노이 대학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호주나 뉴질랜드, 캐나다 같은 영어권들이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미국식의 국제교류 중심의 국제화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학생을 외국으로 파견하여 국제적 인성을 함양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즉, 자국의 교육 질을 제고하면서 국제적인 경험을 증대시켜 이를 바탕으로 교육 과정을 개정하고 글로벌한 열린 학습자를 길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일본

가. 시장개방의 배경

일본의 고등교육은 1968년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교육제도의 발족 당시부터 개인, 사회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공공 투자 역시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1918년에 발포된 ‘대학령’으로 국가가 정식으로 인가하는 형태로 사립대학의 설립이 가능해졌지만 그 이전부터 다양한 사립 고등교육기관은 존재하였다(天野, 1989). 와세다 대학이나 게이오대학과 같이 대학령 이전부터 사실상 ‘대학’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사례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1948년 성립된 ‘학교교육법’ 아래 신제 대학,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그리고 1976년 전수학교 전문과정이 고등교육기관으로 규정되었다(国際協力機構国際協力総合研修所, 2003).

대학을 사례로 말하자면,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국립대학, 도도부현, 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립대학, 나아가 비영리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립대학으로 분류할 수 있다. 2004년 이후 모든 국립대학이 공적인 성격을 가진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공립대학의 일부도 공립대학 법인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국립, 공립에 관해서는 외국의 개인이나 단체로부터의 기부나 학장, 이사를 포함한 외국인 고용이 허용되고 있지만 설치자는 어디까지나 국가 혹은 지방공공단체가 된다. 이에 반해,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관해서는 사립학교법 규정으로 문부과학성령으로 정한 수속을 통과한다는 전제 하에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사립대학이나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학장이나 이사의 국적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외국 국적의 개인이나 단체 및 자본은 학교법인 설립에 있어 정해진 기부행위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본 재산은 출자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니라 학교법인에 속하게 된다. 학교법인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대학이나 학교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을 출자자에게 직접 환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米澤, 2010). 실제, 일본에는 외국에 실질적인 본부를 둔 단체가 대학을 설립·운영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조치(上知) 대학은 이탈리아의 로마에 총본부가 있는 예수회가 대학과 그 전신을 설립하고 대학 운영에 깊이 관여해 왔다. 또한 국제기독교대학(ICU) 역시 미국의 기금을 지원 받아 설립된 대학이다(米澤編, 2010).

1980년대 다른 동아시아 여러 나라보다 먼저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어 해외에서도 일본 사회나 교육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또한 일본 내부에서도 경제 발전이나 사회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산업이 하나가 되어 국제화를 추진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특히 미국에서는 연 구대상으로써뿐 아니라 진학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학생 확보를 노리고 일본에 진출하려는 대학들이 급증하였다(チェンバース G. S & 카밍스 W. K, 1990). 당시는 1940년대 후반에 태어난 제1차 베이비부머의 아들 세대에 해당하는 제2차 베이비부머가 1980년대 후반부터 고등교육 진학 연령에 달해 일시적으로 진학 수요가 급증한 시기였다. 또한 당시 일본의 자동차 등과 같은 제조업 분야에서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어 일미 무역마찰이 발생하면서, 1986년 국회의원단의 추진으로 일미 무역 확대 촉진 위원회가 발족되어 무역마찰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미국대학의 일본 유치가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활성화의 수단으로 외국 대학 유치를 추진하였다. 미국대학의 일본 진출은 일미 무역 확대 촉진 위원회 발족보다 앞선 1982년에 펜실바니아 주립대학인 템플대학 Japan이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 일미 무역 확대 촉진 위원회에서 논의되기 이전부터 일본의 학교제도의 범위 내에서는 외국대학 설립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템플 대학 Japan은 설립 당시에는 일본의 주식회사 파소나를 경영 파트너로 삼았지만 현재는 미국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다. 템플 대학 Japan의 일본 캠퍼스 운영이 흑자로 전환된 것은 설립 후 약 20년이 경과해서부터라는 점

에서 템플 대학 Japan은 단기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일본에 진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후, 새로운 고등교육 시장개방이 논의된 것은 2000년대 초 미국이 주도하는 WTO/GATT 추진의 교육 서비스 자유화가 국제적으로 등장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일본에 대해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시장개방을 WTO/GATT 프레임의 하나로 정식으로 요구하였다. 2013년 4월 현재 일본은 13개국과 경제연계협정(EPA),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으나 교육서비스 시장개방의 문제가 주요 문제가 되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미 체결된 상대국은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칠레, 타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ASEAN 전체, 필리핀, 스위스, 베트남, 페루이다. 또한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연계 협정(TPP) 참가를 표명하고 있지만 2013년 5월 현재 교섭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은 다른 국가와 함께 국경을 넘어서 교육 서비스의 개방을 무역시장의 문제가 아닌 교육의 질 보증 문제로 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고등교육 서비스 개방에 관한 전문가 회의 발족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논의는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발표한 UNESCO/OECD의 ‘국경을 넘어서 제공되는 고등교육의 질 보장에 관한 가이드라인’(2005)의 발표로 이어졌다(塚原脩一, 2008).

그러나 학령인구의 감소, 1990년대 이후 대학설립에 관한 규제완화가 진행되어 일본 대학 자체가 공급 과잉 상황이며, 내부 노동시장에서의 인재 육성을 중시하는 일본의 고용 관행과 일본 전체 대학의 중도 퇴학 비율의 저하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여 유학생 유치, 외국고등교육기관 유치와 같은 고등교육 시장 개방보다는 일본의 학생들이 해외에서 학습하려고 하지 않는 ‘내향성’ 지향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였다(鳥居, 2008; 米澤, 2013a, 2013b).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국제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육성 논의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일본의 대학이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를 필두로 하는 신흥국가의 대두로 점차 존재감을 잃고 있으며, 일본의 대학교육을 통해 글로벌화하고 있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라 할 수 있다(Yonezawa, 2011).

그 배경으로 일본 학생의 진로선택에 있어서 외국의 대학이나 해외에서의 취직 지향이 다른 아시아 여러 국가들에 비해 매우 약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일본은 1980년대 중반까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대학의 연구능력이나 대학원에서의 연구자 양성 능력 역시 구미에 대항할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이 높았다. 또한 일본 대기업은 대학 졸업자의 신규 일괄 채용과 기업내부에서의 선발 및 승진과 같은 독특한 내부 노동시장을 구축하였다. 이 같은 강력한 국내 노동시장 덕분에 국가 수준에서의 영어교육 추진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늦은 편이었다. 대기업의 대졸자 신규 일괄 채용, 이후 내부 노동시장에서의 선발이라는 일본의 고용관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학생들의 TOEFL 평균치는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매우 낮은 수준이

며, 이러한 대학생들의 일반적인 영어능력의 부족이 본래의 학력에 어울리는 유학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어 제약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Yonezawa & Horita, 2011).

이에 따라 일본의 국제화는 대부분 유학생이나 외국인 연구자 유치 중심의 시책이 대다수를 점하였으며 재학 중의 학생 교환을 포함한 학생 파견이나 학내에서의 국제적 학습 환경 정비 등은 오히려 최근에 들어서야 정비가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학생이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과도한 유학생 유치 구조로 인해 일본인 학생들이 이들을 경원하거나, 유학생 입국 허가가 법무부의 입국관리정책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경영상의 위험요인이 되기도 한다. 분야별 유학생 유치 역시, 인문·사회과학계가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어 수업의 제공이나 학위 프로그램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고는 하나, 유학생의 대부분은 일본어로 일본의 언어, 문화, 사회에 관해 배우기 때문에 대학교육의 영어화나 일본인 학생의 해외 유학과 같은 국제화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Yonezawa & Horita, 2011).

나. 고등교육 시장개방 정책

최근에는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글로벌 인재 개념에 대해 정의하고, 적극적인 고등교육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2년 정부의 글로벌 인재육성회의의 정의에 의하면 글로벌 인재란 다음 3가지 요소를 가진 인재라고 한다(<http://www.kantei.go.jp/jp/singi/global/1206011matome.pdf>).

요소1: 어학·커뮤니케이션 능력

요소2: 주체성·적극성, 도전정신, 협조성·유연성, 책임감·사명감

요소3: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일본인으로써의 아이덴티티

그리고 대학이 해외의 대학과 연계·협력하거나 스스로의 교육개혁을 통해 이러한 인재 육성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대학을 일본의 국력을 상징하는 존재로 보고 2013년 5월 수상자문회의인 ‘교육재생실행회의’ 제3차 답신 ‘앞으로의 대학교육 방안에 대해’를 발표하였다(教育再生実行会議, 2013). 이를 통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5년간을 ‘대학개혁실행집중기간’으로 정하고 ‘글로벌화에 대응한 교육환경 지원’을 중시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이하 教育再生実行会議, 2013).

첫째는 철저한 국제화를 단행하여 세계무대에서 경쟁하는 대학 교육환경 개선이다. 일본 국내에서 세계 수준의 교육을 향수하거나 일본인 연구자가 해외 우수 연구자와 국제공동연구를 질적으로

나 양적으로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국가는 해외 최고수준의 대학 교육 유닛(교육 프로그램, 교원 등) 전체를 유치하여 일본 대학과의 학과·학부·대학원 공동 설치나 Joint Degree(공동학위)를 제공하는 등 현행 제도를 넘어선 개선이 가능하도록 제도와 재정 측면에서 환경개선을 꾀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은 우수한 외국인 교원의 증원이나 교원 유동성 향상을 위해 연봉제를 비롯하여 교원 능력 등에 대응한 새로운 급여 시스템을 도입할 뿐 아니라, 일본인 교원의 어학력, 특히 영어 교육력을 향상시켜 영어 수업 비율을 높이며, 외국인 교원의 생활환경의 정비·지원(영어 의료, 교육, 배우자 취업 등), 대학 사무국의 국제화 등 종합 지원을 위한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대학은 외국 대학이나 현지 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해외 캠퍼스의 설치를 추진하여 해외에서도 매력 있는 일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대학의 적극적인 해외전개를 통한 국제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제도와 재정 측면에서 환경을 정비하고, 일본인의 해외 연구 활동 지원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의 글로벌화를 진전시킨 현행의 ‘대학 국제화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 추진 사업(글로벌 30 사업)’의 경험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외국인 교원의 적극적 채용이나 해외 대학과의 연계, 영어 수업만으로 졸업 가능한 학위 과정의 확충 등 국제화를 단행하는 대학(수퍼 글로벌 대학)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나아가 국제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세계 대학 랭킹 Top 100에 10개교 이상을 올려 국제적 존재감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각 대학이 글로벌화에 대응한 교육방침을 책정·공포하고 글로벌한 시점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지적 추진 거점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둘째는 의욕과 능력이 있는 모든 학생의 유학을 실현하기 위해 일본인 해외 유학생을 12만 명으로 증가시키고 외국인 유학생을 30만 명까지 늘린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은 대학입시나 졸업 인정 TOEFL과 같은 외부 검정시험의 활용, 영어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를 추진하여 학생들에게 실천적인 영어력을 습득시켜 이가 해외 유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외부 검정시험에 대해서는 대학이나 학생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영어력이 뛰어난 학생에게는 동아시아의 글로벌화에 대한 대응의 하나로 실천적 중국어 습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은 해외 대학과의 교환 유학이나 단위 교환을 추진함과 동시에 가을 입학이나 쿼터제 등, 국제화에 대응한 학사 일정의 유연화를 꾀한다. 국가는 이를 위해 대학의 해외 인턴십의 실시 촉진이나 단위 인정의 촉진 등 학생이 해외에서 활약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나 개인 등과의 협력을 통한 무상장학금을 포함한 유학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나 기부 촉진 조직을 창설하여 가을학기 입학 등과 같은 학사 일정의 유연화를 꾀하고 Gap Term을 활용한 유학이나 해외에서의 체험활동 등, 일본인 학생의 단기, 장기 해외 유학 지원 체제를 강화한다. 지방 공공단체 역시 유학비용 지원에 관해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해

야 한다. 산업계 및 국가는 기업이나 국가 공무원 채용에서 유학 경험을 가진 학생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가을 입학 등에 따른 채용시험, 자격시험 실시 시기를 개선한다. 또한 채용 후에도 의욕이 있는 사람은 유학을 할 수 있도록 유학 경험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도록 촉진한다.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의 전략적인 유치 확대를 위해 국가, 대학은 윈스톱으로 유학이 가능한 해외 거점을 정비하여 입학 수속의 공통화·간소화와 함께 도일하지 않고도 입학허가나 장학금 지급 결정을 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한다. 또한 영어 수업, 일본어 교육, 기숙사 정비 등의 생활 지원이나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의 일본 기업 취직 등을 지원하고 강화한다. 국가는 중점지역이나 중점 분야를 설정하여 국비 유학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 지원하고, 기업은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셋째, 초·중등 교육 단계에서부터 글로벌화에 대응한 교육을 충실히 한다는 것이다. 국가는 초등학교 영어학습의 발본적인 확충(실시 학년의 조기화, 지도시간의 증가, 교과목화, 전임교원 배치 등)과 중학교에서의 영어 수업의 실시, 초·중·고 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영어교육에 대해 학습지도 요령의 개정까지를 시야에 넣어 선진 외국의 영어교육 사례를 참고하여 검토한다. 국가, 지방 공공 단체는 소인수 영어 지도체제의 정비, JET프로그램의 확충 등에 따른 원어민의 배치 확대, 영어 캠프 등, 영어에 친숙할 기회를 확충한다. 나아가 영어교원의 양성을 위해 원어민에 의한 영어 과목의 이수를 추진한다. 국가 및 지방 공공 단체는 영어 교원이 TOEFL과 같은 외부 검정 시험에서 일정한 성적(TOEFL iBT80 정도 이상)을 거둘 수 있도록 현직 교원의 해외 파견을 포함한 연수의 충실을 꾀하고, 채용에 있어서도 외부 검정 시험의 활용을 촉진한다.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선진적 교과를 지정하여 외국어, 특히 영어 사용 기회의 확대, 폭넓은 교양이나 문제해결력 등, 국제적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국제 바칼로레아 인정 고등학교에 대해 일부 일본어 Diploma Program의 개발과 도입을 추진하여 대폭적으로 확대한다(16개 고교에서 200개 고교). 또한 고등학생의 해외교류 사업이나 단기 유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일본인 학교 등, 재외 교육시설에서는 현지의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일본어 교육과 일본 문화의 이해를 촉진한다.

넷째, 일본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함양하고 일본 문화를 세계에 발신한다. 일본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함양하고 일본 문화를 세계에 발신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해 초·중등 교육 및 고등교육을 통해 국어 교육과 일본의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 확대를 위한 방안을 충실히 한다. 국가는 해외 대학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해외에서의 일본어 학습과 일본 문화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촉진한다. 또한 일본 문화에 대한 지도·소개할 수 있는 인재의 육성과 지도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한다.

다섯째, 특구제도의 활용을 통한 글로벌화에 적절하게 대응한다. 대학 등의 교육기관, 지방 공공

단체가 본 제언에서 제시한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교육환경을 정비하는데 있어 효과가 인정될 경우 국가는 필요한 규제 개혁과 지원 조치를 강구한다. 이 때 산업경쟁력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가 전략특구(가칭)’을 활용한 방안을 국가가 지원할 것도 고려한다.

1) 교육과정/프로그램 협력

교육과정이나 교육프로그램 협력의 경우에는 대학 자율성이 커서 대학별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없으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 해외 유학 및 해외 연수

일본 정부에서는 글로벌 30이라고 하는 ‘국제화 거점 정비사업(대학 국제화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 추진 사업)’을 추진하여, 유학생에게 매력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유학생과 더불어 배우는 환경 속에서 국제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일본인 인재 양성을 꾀하고 있다(http://www.mext.go.jp/a_menu/koutou/ryugaku/boshu/1312948.htm). 앞서 배경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유학생 30만 명 정책을 통해 다양한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서는 유학생 유치보다는 국내 학생의 해외 유학 및 파견을 장려하고 있다(文部科学省, 2013). 구체적인 지역별 일본인 유학생 현황을 보면, 주로 북미와 아시아에 유학을 하고 있으며 대학원보다는 학부 단계에서의 유학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3〉 지역별·유학기간별 일본인 유학생 수

(단위: 명)

지역명 \ 기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년 이상		계
아시아	8,133	(4,613)	553	(421)	1,121	(865)	1,701	(1,292)	180	(292)	11,688
중동	58	(58)	4	(1)	19	(13)	19	(13)	1	(9)	90
아프리카	78	(23)	0	(15)	3	(6)	19	(18)	0	(3)	100
오세아니아	2,593	(1,890)	1,282	(1,094)	328	(341)	379	(325)	17	(59)	4,599
북미	5,077	(4,300)	1,608	(1,402)	2,510	(2,409)	2,757	(2,104)	146	(494)	12,188
중남미	78	(31)	35	(36)	33	(28)	87	(80)	11	(8)	244
유럽	3,357	(2,711)	1,307	(1,021)	803	(818)	2,125	(1,580)	155	(437)	7,747
계	19,374	(13,626)	4,883	(3,996)	4,802	(4,468)	7,087	(5,412)	510	(1,302)	36,656

*출처: 日本学生支援機構『留学生受入れの概況2012』

*주: ()는 전년도

〈표 Ⅲ-4〉 교류 현황

대학원	39,641명	(▲108명(▲0.3%) 감)
대학(학부)·단대·고전	71,361명	(117명(0.2%) 증)
전수학교(전문과정)	25,167명	(▲296명(▲1.2%) 감)
준비교육과정	1,587명	(▲32명(▲2.0%) 감)

*출처: 日本学生支援機構『留学生受入れの概況2012』

일본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학의 자율성이 매우 커서 대학별로 유학생 유치나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별 유학생 유치 및 해외 파견 전략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http://www.uni-international.mext.go.jp/ja-JP/university_list/).

① 도호쿠 대학

세계 리딩 유니버시티에 어울리는 질 높은 국제적 교육환경 속에서 국제사회에서 활약하는 지도적 인재 육성과 배출을 목적으로 한다.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총장 특별 장학생 제도를 창설하고 University House와 같은 유학생 기숙사를 세워 유학생에 대한 지원을 꾀하고 있다. 또한 일본인 학생의 해외파견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략적 국제화를 추진하여 특히 러시아와는 해외 대학 공동 사무소를 통해 다양한 국제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② 오사카 대학

오사카 대학은 ‘지역을 기반으로 세계로 나간다’는 기본 이념 아래 교육의 다양화와 고도 첨단 연구를 꾀하고 적극적인 대학 국제화를 통해 일본인 학생의 해외 파견은 물론 유학생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30 사업에서는 ①매력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②유학생의 일본 도착 전후 및 체재 중의 생활, 학습, 취업에 관한 지원을 실시하며, ③최첨단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단기 유학 유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또한 다언어·미디어를 통해 해외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발신하고 홍보 활동을 통해 오사카 대학의 글로벌 역량 향상을 꾀하고 있으며 유학생 유치 중점국에서의 학생 리쿠르트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④국내의 다른 대학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 협동을 통해 일본인 학생의 해외 파견 프로그램 및 유학생, 외국인 연구자 유치 지원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⑤나아가 산업계 연계를 통해 유학생의 취업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③ 메이지대학

메이지 대학은 재단법인 아시아 학생 문화협회(ABK), 주식회사 JTB법인 도쿄, 주식회사 베네세

코포레이션과 국제 교육 파트너즈를 결성하여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JTB해외 지점을 활용하여 대학 정보를 발신하고, 베네세와 연계한 범용적인 Web 지원 시스템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ABK와 연계하여 일본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각 연계 기관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 입학, 취직까지의 Total Solution Mode 확립을 꾀하고 있다.

3) 분교설립

1980년대 많은 수가 진출했던 미국대학 일본 분교는 대부분 철수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04년에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외국대학의 일본 분교 지정제도를 개시하였다(中央教育審議会, 2010). 이를 통해 외국대학의 일본 분교 중, 해당 외국의 학교 교육제도에 따라 해당 외국 대학의 일부로 인정된 대학을 지정하여 해당 외국 대학에 준해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지정 프로세스 역시 간소화하여 본국 대사관 등을 통해 인정대상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받고 문부과학대신 고시를 통해 지정을 받도록 하였다(http://www.mext.go.jp/b_menu/shingi/chukyo/chukyo4/027/siryo/attach/1294698.htm).

- 외국대학의 일본 분교를 졸업한 자에게 우리나라(일본) 대학원 입학자격을 인정함(학교교육법 시행규칙 제155조 제4호)
- 외국대학의 일본 분교로부터 우리나라(일본) 대학에 전학할 수 있음(학교교육법 시행규칙 제162조)
- 외국대학의 일본 분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우리나라(일본) 대학과 학점교환 가능함

이에 따라 2013년 5월 현재 문부과학성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분교 설치 현황은 다음과 같다(http://www.mext.go.jp/a_menu/koutou/shitu/08052204/001.htm).

〈표 Ⅲ-5〉 대학과정

지정 고시일	명칭	위치	과정
2005년 2월 14일	템플대학저팬	도쿄도	교양학부
			커뮤니케이션학부
			예술학부
			관광비즈니스학부
2006년 6월 23일	전수학교 러시아극동대학하코다테교	홋카이도	러시아지역학과
2006년 9월 20일	텐진 중의약대학 중약학원 일본교	고베시	중약과정

〈표 Ⅲ-6〉 대학원과정

지정 고시일	명칭	위치	과정
2005년 2월 14일	템플대학저팬	도쿄도	교육학영어교수법 석사과정
			교육학영어교수법 박사과정
			로스쿨
			MBA
2006년 9월 20일	컬럼비아대학 티처스컬리지 일본교	도쿄도	교육학영어교수법 석사과정

〈표 Ⅲ-7〉 전문대학과정

지정 고시일	명칭	위치	과정
2005년 2월 14일	템플대학저팬	도쿄도	준학사과정
2005년 12월 15일	레이크랜드대학 저팬캠퍼스	후쿠오카	준학사과정
2006년 6월 23일	전수학교 러시아극동대학하코다테교	홋카이도	러시아어과

이들 대학 중, 미국의 명문 대학인 컬럼비아대학 Teacher's College는 몇 년 동안의 적자경영을 이유로 24년에 걸친 교육에 중지부를 찍고 2013년 8월에 폐교 조치를 공표하였다(<http://www.tc-japan.edu/provost.html>). 지정교의 대표적인 사례로 템플 대학 저팬과 전수학교 러시아 극동 대학 하코다테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Yonezawa 2013년 조사).

① 템플대학 저팬

템플대학 저팬은 외국대학 중에서 처음으로 진출한 대학으로 현재 일정 부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예외적인 성공 사례라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주식회사 파소나를 일본 미지니스 파트너로 하였지만 1996년부터 완전 독립하여 미국 본교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3년 현재,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한 학생은 학사 과정 690명, 대학원을 포함하여 1,010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생 829명이 있다. 국적은 학사과정의 경우 미국인이 43%로 가장 많으며 일본인은 39%이다. 풀타임 교원 29명, 직원 103명과 파트타임 교원 130명, 직원 40명이 지원을 하고 있다. 교원의 국적은 37%가 미국인, 일본인은 31%이다. 2010년에는 일본어학과를 설립하는 등, 영어로 학습을 하고 싶은 일본인 학생과 다양한 이유로 도쿄에서 학습을 희망하는 외국 학생, 쌍방에 대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미국 본교나 기타 미국 대학으로의 편입이나 튜닝 프로그램도 구비하고 있으며 온라인 수업 진행 등 다양한 학생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나아가 취업 지도를 통해 외자계 기업 인턴이나 취직 지원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② 전수학교 러시아극동대학 하코다테교(통칭: 러시아 극동연방 종합대학 하코다테교)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 본부가 있는 러시아 극동연방 종합 대학의 분교로 1994년 교육활동을 개시하여 1996년 ‘전수학교 파이스탄스테이와 유니버시티 하코다테교’라는 이름으로 홋카이도 지사의 인가를 받고 2007년 전수학교 러시아 극동대학 하코다테교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일본에서의 법적 위치는 대학이 아닌 중등 후 교육기관인 ‘전수학교’가 되고 운영 주체는 비영리 학교법인 하코다테 국제학원이다. 재정적으로는 본교인 러시아 극동 연방 종합대학과 독립되어 있으며 하코다테 시로부터 재정 원조를 받아 일본 학교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원은 본교에서 파견하지만 급여는 하코다테교에서 지불하는 형태이다. 2년제의 러시아어학과와 4년제 러시아지역학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2년제 과정은 1개월, 4년제 과정은 3개월 동안 본교 유학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4년제 졸업생에 대해 학사 학위와 동등한 ‘고도전문사’라는 전수학교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으며 고도전문사 학위로 4년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진로는 러시아 관련 기업 이외에 진학도 증가하고 있다. 학생 수는 연간 90명 정도였으나 2010년 이후 감소하여 현재는 전체 대학 학생이 30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4) 외국인 교원 채용 및 국제 교류

일본에서는 국립대학개혁 강화추진사업(2012~)을 통해 외국인 교원의 채용이나 해외 파견을 장려하고 있다(http://www.mext.go.jp/b_menu/shingi/kokuritu/gijiroku/attach/1319237.htm). 가장 대표적인 대학으로 교토대학을 들 수 있다. 교토대학에서는 글로벌화에 대응한 교학 메니지먼트를 위한 조직을 개혁하고 국제고등교육원(가칭)의 설치하여 학부의 글로벌화 추진을 꾀하고 있다. 대학교육의 국제화를 위해 세계의 대학이나 외국인 연구자와의 긴밀한 커넥션을 활용하여 100인 규모의 외국인 교원을 신규채용하고 교양과목의 반 이상을 영어 강의로 할 수 있도록 글로벌화에 대응한 교학 메니지먼트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 대학 사례: 나고야 대학⁹⁾

1) 국제화 추진체제 및 역할

나고야 대학은 1939년에 설립된, 역사가 가장 짧은 제국대학으로 인문·사회과학계 학부가 추가되어 종합대학으로 승격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이다. 자유로운 학풍을 가지고 있어 전통에 구애

9) 출처: <http://www.nagoya-u.ac.jp/extra/22boy//plan2009.html>.

받지 않는 연구·교육활동을 전개하여 화학 분야를 중심으로 4개의 노벨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많은 업적을 쌓고 있다.

현재는 하마구치 총장 체제 하에 World Class 대학으로의 전략적인 달성목표를 가지고 하마구치 플랜이라는 전략 계획을 책정하여 국제화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제담당 부총장을 장으로 한 국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양한 국제교육 업무와 지침을 정하여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학내 대학원에서도 국제·유학생 담당 교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들 교원이 본부의 국제연계업무를 담당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모든 대학 전체 조직으로 유학생 센터가 있으며 여기에서는 일본어 교육을 포함한 유학생 유치 및 서비스, 일본인 학생의 해외파견 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유학생 센터 1층에는 유학생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도서관에도 유학생 코너가 설치되어 있다. 이처럼 캠퍼스 환경의 국제화를 위해 다양한 시설 설비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노스캐롤라이나와 우즈베키스탄 등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다. 또한 대학교육의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조직이 마련되어 있으며 고등교육연구센터에서는 영어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의 연수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학생을 위한 핸드북과 지원가이드를 각국의 언어로 작성하여 구비해 놓고 있다. 글로벌 30 프로그램에 채택되어 대학원과 학부 과정에서 다수의 외국인 교원이 채용되어 있으며 영어를 통한 학위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무국 직원의 국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연수를 실시하고 학내 규정 역시 영문판을 구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누구나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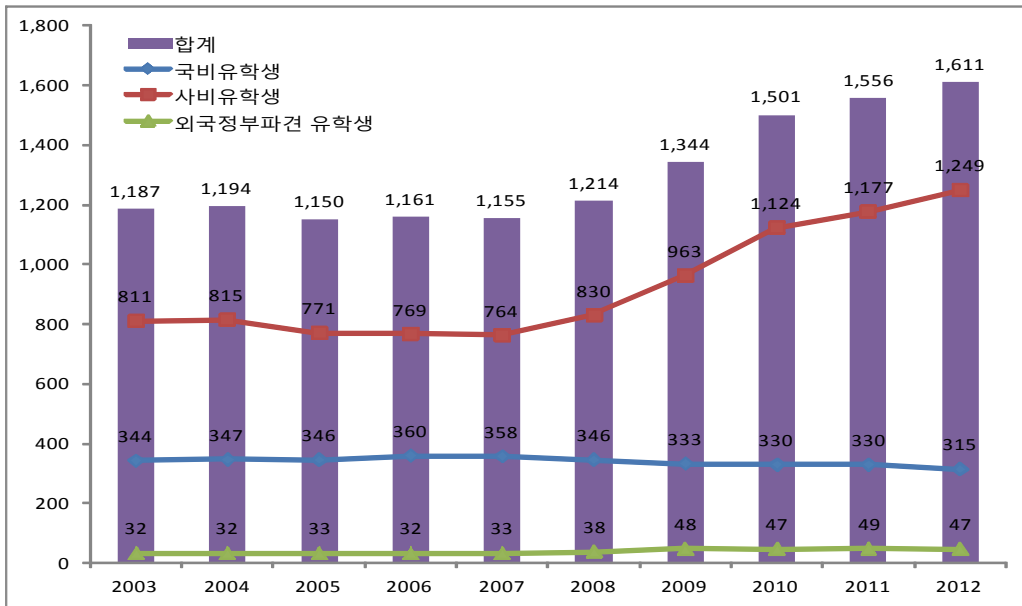
1991년에 이미 영어 수업이 100%인 학위 프로그램을 가진 대학원 과정의 국제개발대학원을 설립하고 법제도의 정비와 농업 개발 분야에서 국제공헌을 하는 센터를 설립하는 등, 국제화를 위한 다양한 선진적 활동을 통해 유학생 유치를 추진하였다. 농업이나 이공계 분야에서의 탁월한 연구능력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 중심 산업과 연계하여 일본의 과학기술과 사업·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국제 원조의 측면에서 일본어와 영어 쌍방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 연계를 통해 일본 국비장학생 이외에도 인재육성지원 무상사업(JDS)과 아시아 개발은행 장학금 등, 개발원조 관련 장학금을 획득하였다. 또한 나고야 대학을 사무국으로 한 ‘국제 대학 컨소시엄 AC21’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 대학 컨소시엄 초기 멤버인 영국의 워릭 대학, 호주 시드니 대학이 탈퇴하고 신흥국인 타이의 추라롱콘 대학과 남아프리카의 스테린보쉬 대학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 교류를 촉진하고 교환학생을 보내는 등, 나고야 대학뿐 아니라 일본 국제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표 Ⅲ-8〉 국제학술 컨소시엄(The Academic Consortium 21: AC21)

국가	기관명
중국(7)	화중과기대학, 길림대학, 상해교통대학, 동제대학, 동북대학, 남경대학, 북경대학
미국(2)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 미네소타대학
호주(2)	아델레이드대학, 시드니대학
태국(2)	카세사트대학, 출라롱콘대학
독일(2)	켄니츠대학, 프라이부르크대학
일본(1)	나고야대학
인도네시아(1)	가자마다대학
남아프리카(1)	스텔렌보쉬대학
프랑스(1)	스트라스부르대학
라오스(1)	라오스국립대학

*출처: <http://www.nagoya-u.ac.jp/extra/22boy//plan2009.html>

협정대학과의 단기 학생 교환 프로그램인 ‘나고야대학 교환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NUPACE)’ 역시 유학생 유치와 국내학생 해외파견에 매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원래 문부과학성의 단기 학생 교환 프로그램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지만 일본 국내에서는 최초의 시도였다. NUPACE는 유럽의 단위호환제도 ECTS와 호환 가능한 단위환산 시스템을 도입하여 유학생이 나고야 대학의 교육 질을 믿고 나고야 대학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 협정 대학의 외국인 학생에게 제공되는 섬머 프로그램에서는 일본의 대표적인 기간산업인 자동차 공학을 중심으로 대학과 기업에서 강사를 선정하여 기업이 실습을 담당하는 형태로 많은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 2009년부터는 정부의 ‘국제화거점정비사업(대학국제화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 추진사업)’에 채택되어 학사과정은 물론 대학원과정에서 영어를 통한 학위 수여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유학생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 사업을 활성화하여 해외에서의 입학자 선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정부 예산의 중점 배분 프로젝트인 ‘국립대학개혁강화추진사업’에 인근 지역의 아이치 교육대학, 미에 대학과 공동으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국제인재 육성과 대학연계를 통한 국제화의 가속 추진’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일본인 학생 1,200명을 해외에 파견하고 외국인 유학생도 연간 3,600명 유치를 목표로 활발하게 국제화를 전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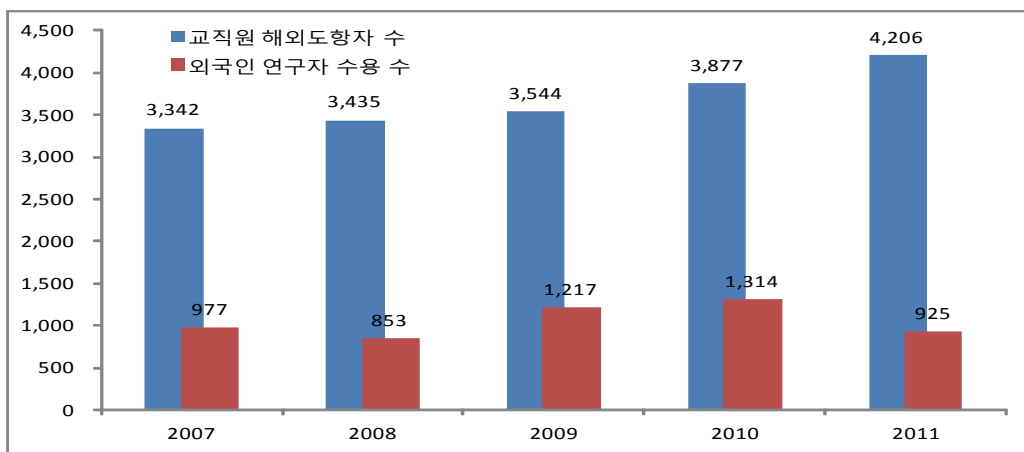


[그림 Ⅲ-15] 나고야 대학 유학생 현황

*출처: <http://www.nagoya-u.ac.jp/extra/22boy//plan2009.html>

3) 외국인 교원 유치

나고야 대학에서는 글로벌 30 채택 이후, 우수한 외국인 교원 확보를 위해 고용계약 등의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Ⅲ-16] 교직원 해외 교류 현황

*출처: <http://www.nagoya-u.ac.jp/extra/22boy//plan2009.html>

4) 외국교육기관과의 교육협력

나고야 대학에서는 앞서 설명한 NUPACE 이외에도 정부의 다양한 프로젝트 사업, 예를 들어 ‘대학의 세계전개력 강화사업’ 등을 통해 아시아 및 북미 대학과의 사이에 학생교환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교육과정에 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 특징

일본은 글로벌화에 대응한 대학의 국제화에 대해 심각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 정부뿐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일본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강력하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대학 국제화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의 최첨단 동향을 살펴 일본에서 필요로 하는 ‘글로벌 인재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육성을 위해 발본적인 교육개혁을 통해 글로벌 위기를 타파하려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국가가 주도적으로 어학·커뮤니케이션 능력, 주체성·적극성, 도전정신, 협조성·유연성, 책임감·사명감,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일본인으로써의 아이덴티티 등과 같은 구체적인 글로벌 인재상을 제시하고 국가차원과 지방정부 차원, 나아가 대학차원에서의 구체적인 국제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국제적인 통용성을 증진하고자 규제 완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외국 대학 분교 설립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 평가기관의 평가만으로도 일본 국내에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특구제도의 활용을 통해 필요한 규제 개혁과 지원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각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일본 국내 대학의 교육·연구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점이다. 대학의 교육 목표나 미션을 고려하여 대학에 따라 특성화된 국제화 추진을 장려하고, 이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 지원을 꾀하고 있다.

넷째, 이에 따라 대학 스스로가 국제화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나고야 대학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글로벌 30’, ‘대학의 세계전개력 강화사업’, ‘국립 대학 개혁 강화 추진 사업’ 등과 같은 국가 정책 사업에 참여하여 교수나 학생의 해외 파견은 물론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화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중국

가. 교육시장개방의 추진 배경

중국은 정치적으로 사회주의 노선을 포기하지 않은 채 비교적 성공적으로 시장경제를 수용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시장개방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의 기초를 마련하여 국제사회에 영향력 있는 일원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고등교육개혁은 국가차원의 핵심과제이자 동력이었다. 이러한 개혁 개방을 축으로 경제와 교육의 협력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추진된 교육시장개방은 2001년 WTO 가입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중앙정부의 통제력 약화와 교육 분야의 민감한 문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시장개방을 추진하였으나, 다양한 국가와 FTA 체결을 추진하면서 교육시장을 지키려는 수구적 자세에서 점차 개방적인 자세로 전환되고 있다(최정운 외, 2011: 176-177).

본격적으로 경제 부문과 연동하여 교육시장을 개방하려는 정책은 2010년 6월 6일 발표된 ‘국가중장기인재발전계획요강(國家中長期人才發展規劃綱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2020년까지 교육시장을 개방하고 우수한 인재를 교육하여 1억8천만 명의 국가 인재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양성할 계획이라고 공포했다. 이를 위해 중국은 국제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해외의 교육자원을 도입해 국가적 차원에서 발전을 위한 교육시장 개방을 준비 중이다. 또한 초중고 및 직업학교의 대외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다문화교육을 추진하여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계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시장의 개방은 곧 해외시장의 개척이라는 사업 명분을 제공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은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공자학원’과 같은 교육기관을 해외에 설립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비 해외유학 시스템을 정비하여 전국 단위의 우수인재를 해외에 파견하고 해외의 인재를 중국에 유치해 교육시장의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교육시장을 개방할 때 중국정부가 기대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정부 간 학력 및 학위 인정과 해외의 우수 과학기술 연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것이다. 특히 첨단과학 분야의 연구 및 교육 역량을 시장개방을 통해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에는 교육시장 개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이석희, 박재운, 박영진, 2012: 60-62).

- ① 교육시장 개방 이후에도 중국의 사회주의 정신은 불변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해외기관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견제가 불가피하다.

- ② 교육시장 개방의 근본 취지에 적합하도록 ‘전면 개방’과 ‘전면 경쟁’을 수용하되 내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 ③ 교육시장 개방의 긍정적인 효과는 전면적으로 수용하되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인 개방 원칙을 고수한다.

나. 고등교육 시장개방 정책

중국 고등교육 시장개방 정책은 매우 독특하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의 고등교육개혁, 특히 국제화 분야의 개혁안에는 대학의 경쟁력 확보와 우수 대학에 대한 벤치마킹, 혹은 특성화 전략 및 국제교류 등에 치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국 역시 이러한 개혁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나 다른 나라와 달리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중국 고등교육개혁의 국제화 전략은 자국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이와 연동되어 추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2001년 WTO 가입으로 고등교육 시장개방의 당위성과 ‘국제화, 세계화’라는 슬로건을 확립하고 세계적인 일류대학을 건설하고자 국가 차원에서 지원 및 관리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대표적으로 ‘211공정’을 들 수 있다. 이는 90년대부터 시작된 ‘21세기 100개의 우수 중점대학 육성’을 목표로 추진된 고등교육의 시장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이다. 이 공정은 중국 내 100개의 중점대학을 선정함으로써, 대학의 구조 조정은 물론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제도를 공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211공정’은 100개 대학을 선정하는 것이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과 선정 대학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인해 시장개방을 고려할 때 전략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211공정’에 이어서 추진된 ‘985공정’은 1998년 5월 베이징대(北京大) 개교 100주년 기념식에서 장쩌민(江澤民)이 연설한 내용에 기초한 고등교육개혁 방안이다. 이 방안은 시장개방을 통해 세계적인 일류대학 건설을 목표로, 미국의 하버드나 영국의 옥스퍼드와 같은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진 대학을 중국에 건설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박영진, 2005: 118; 윤종혁 외, 2010: 102-103).

이 외에도 중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 시장개방 정책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다양하다. 이중 중국정부가 자국의 일류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베이징대와 칭화대(淸華大)를 중심으로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111계획¹⁰⁾, 장강학자 장려계획(長江學者獎勵計劃)¹¹⁾, 해외 우수인재 유치 계획(海外高層人才引進計劃)¹²⁾, 해외 명사 초청계획(海外名師聘請計劃)¹³⁾,

10) 2006년 9월 중국교육부가 발표한 세계 100위권 대학에서 세계적인 인재 1천명을 초빙하여 중국 100대 대학에서 연구 및 교육하도록 지원하는 계획. 주요 수혜 대학 중 하나가 베이징대임.

11) 중국교육부와 홍콩의 ‘장강기건(長江基建/CKI)’ 그룹의 리지아청(李嘉誠) 회장이 중국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1998년부터 공동으로 실시한 ‘특별초빙교수직위제도(特聘教授崗位制度)’.

12) 향후 5~10년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세계적인 수준의 학자 1천명을 영입하겠다는 일명 ‘천인계획’.

강석교수(講席教授)제도¹⁴⁾ 등이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교육부가 지원하고 대학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장개방 정책에 따른 대표적인 국제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들의 특징은 주로 이공계, 자연계 전공에 치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체성과 연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분야를 빼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나아가 중국은 자국의 고등교육 시장개방에 따른 조치로 해외에 고등교육기관을 설립 및 확대함으로써 국가 이미지 제고를 꾀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약 30개 대학은 해외에 분교를 설립하고 있거나 해외학교 운영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 주도로 해외에 6천여 반의 중국어 과정을 개설하여 13만 명의 외국인에게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으며, 중국의 철학, 역사, 언어, 교육, 문화 등을 소개하는 행사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매년 2천여 회의 행사에 140만 명을 참여시키고 있다(박영진, 2011: 32). 중국이 교육시장 개방 및 개척을 축으로 자국의 이미지 제고를 추진하는 데에는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고등교육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 즉, 국제적인 교류 사업이 단기적인 수익을 가져올 수는 없을지라도, 장기적으로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여 G2에 걸맞은 고등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책사업은 ‘공자학원(학당)’이다. 공자학원은 해외의 교육서비스 시장을 개척하고 활성화 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세계 81개국에 256개의 공자학원과 58개의 공자학당이 설립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시아 26개국에 90개, 유럽 26개국에 103개, 아프리카 14개국에 21개, 미주 10개국에 81개, 오세아니아 2개국에 10개교가 설립되어 있다. 중국교육부 국제교류사(國際交流司)에서 주관하는 공자학원은 해외사업의 전략적 요충지를 중심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공자학원의 주요 프로그램은 해외 대학과의 교류와 협력, 어학과정 운영 및 인증, 중국 문화 전파, 중국 정부의 해외 장학금 선정 및 관리, 비즈니스 센터 운영, 학위 인증 등을 들 수 있으며, 대부분 해당 국가의 학생들에게서 호평을 받고 있다(서울공자아카데미 홈페이지, <http://www.cis.or.kr/main.htm/>).

공자학원 외에도 중국은 자국의 교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있다. 현재 110여 개 국에 파견된 중국어 교원은 약 2천여 명으로 매년 증가세에 있으며, 중국정부가 초청하여 연수를 받는 외국인 교원도 매해 1만7천여 명에 달한다(중국교육부 홈페이지, 統計數據, <http://www.moe.gov.cn/>).

이러한 일련의 고등교육 개방정책은 자연스럽게 대학의 국제화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외 개방에 폐쇄적이었던 과거의 학풍을 반성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었던 대학교육에 대한 한

13) 2007년 7월부터 중국교육부가 주관하고 ‘국가외국전문가국(國家外國專家局)’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 유명학자 초빙 프로그램. 주요 초빙대상은 노벨상 수상자이거나 이에 준하는 국제적 수준의 학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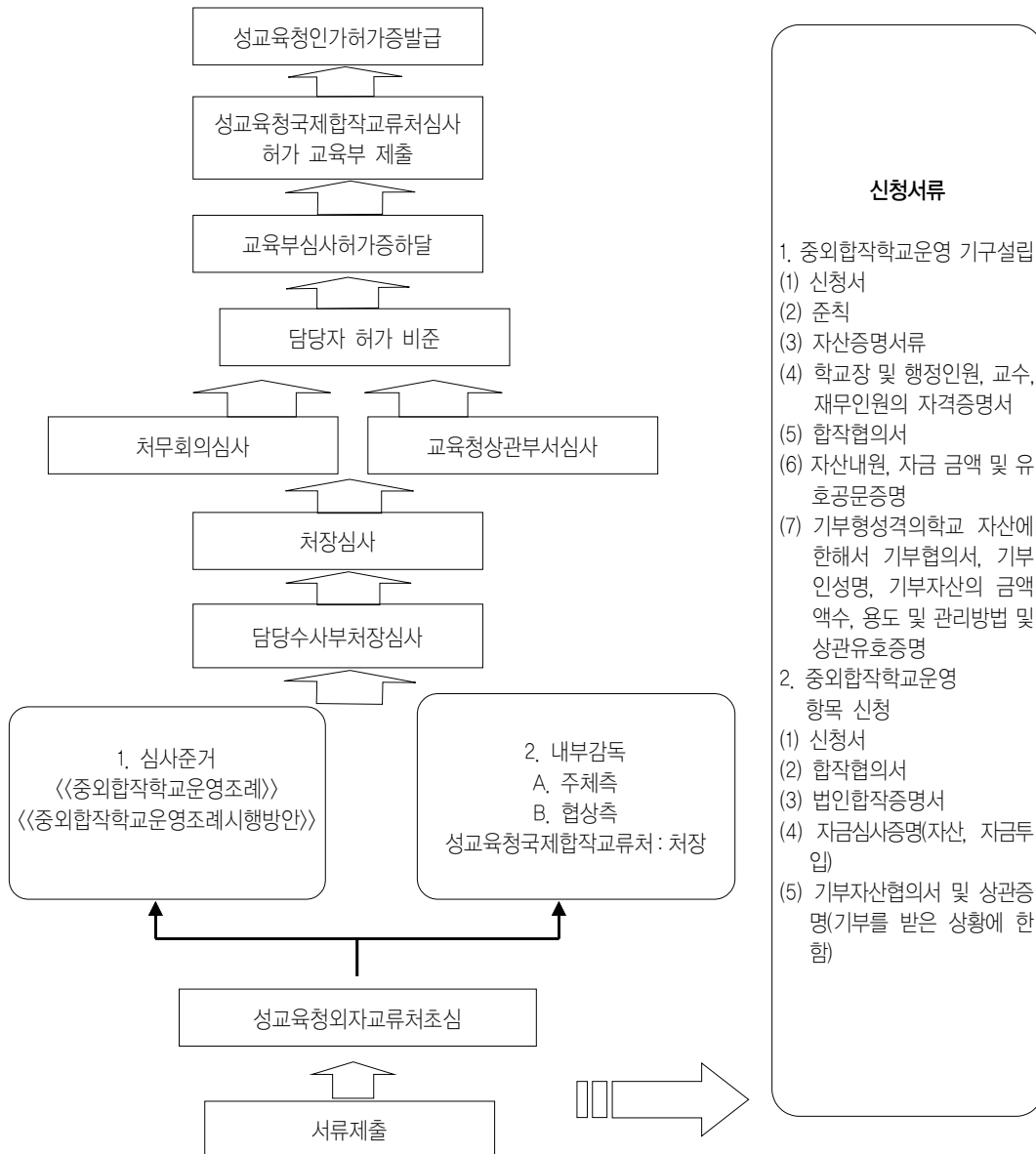
14) 2001년부터 시작된 초일류 석좌교수 제도로 대표적인 인재유치 프로그램임.

계를 인정하면서, 차츰 국제화, 세계화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고등교육의 시장개방 정책들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사립대학 육성 정책, 교육시장의 경쟁구도 조성, 대학 및 교수 평가제도의 확립 등의 사업을 견인했다. 일련의 정책이 반영되어 중국은 2020년까지 고등교육 시장개방에 따른 인재육성의 규모 확대, 구조의 최적화 및 배치의 합리화 실현, 인재경쟁의 비교우위 확립 및 인재강국 진입을 목표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인재수준을 현재 1억1,400만 명에서 1억8,000만 명 수준으로 58% 확대하여 전체 인력지원 총량의 16%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또한 대졸 이상의 인구 및 고급 기능 인력을 각각 20%와 28%까지 제고하고 GDP 중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현재 11%에서 15%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장운정, 2010: 10 참고 및 재정리).

고등교육 시장의 개방으로 다양한 해외 교육기관과의 합작 설립도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대학과 외국의 대학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중외합작대학(中外合作大學)’은 크게 제3의 독립된 법인자격을 갖춘 대학을 설립하는 형태와 독립된 법인자격 없이 양측이 기존의 중국 대학 내에 공동으로 단과대학을 설립하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2012년까지 중외합작대학은 56개로 개혁개방 초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교육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 교육기관의 중국 교육시장 진출이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형식적으로는 외국의 고등교육 기관이 100% 단독투자자 대학 설립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저해요소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규정에 따르면 <중외합작교육조례(中外合作辦學條例)>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인을 주요 모집 대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은 중외합작 형식만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종재 외, 2011: 94-95; 최정운 외, 2011: 80-82 재정리). 중국정부는 자신들에게 필요하다고 여기는 분야인 고등교육과 직업교육 분야의 고등교육 시장개방은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는 분야에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으로 인해 중국은 부가가치가 높은 학문 및 기술 분야의 합작운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면 개방에 따른 경쟁구도에는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1) 국제화 프로그램 추진 체계 및 역할

중국 대학에서 국제화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 그 체계를 분석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다양한 사례가 존재함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민감한 부분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사업체계를 유추하여 적용하면 국제화 프로그램의 추진 체계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중국 고등교육의 국제화 프로그램은 외국 기관과의 합작대학을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합작대학의 운영은 가장 대표적인 국제화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가장 절차가 까다로운 사업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대학 국제화 프로그램의 추진 체계와 절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 [그림 III-17]과 같은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Ⅲ-17] 국제화 프로그램(합작)의 추진체계 및 절차

*주: 1. 심사과정에서 한 절차라도 문제가 생겨 심사가 정지될 경우 담당처장이 서면으로 담당 행정부서에 통보함.

2. 행정합의는 성교육청영도가 상관담당부서를 조직운영하며 실무담당자들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3. 전문가 평가팀의 전문가, 심사위원의 구성은 심사 담당처에서 조직 구성함.

*자료: baidu홈페이지(<http://image.baidu.com>) 이미지 검색 후 번역.

중국 대학의 국제화 프로그램의 추진 체제는 매우 다양하다. 이를 유형별로 구분한다면, 국가차원에서 관리와 지원이 가능한 대학(유형 1), 지방정부의 관리와 지원을 받는 대학(유형 2), 그리고 자체 역량으로만 국제화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하는 대학(유형 3)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유형 1’은 국가차원에서 관리와 지원이 가능한 대학으로, 충분한 예산과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역량을 갖췄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업을 시도할 수 있는 유형이다. 다음으로, ‘유형 2’는 지방정부와 연계된 대학의 경우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끝으로, ‘유형 3’은 자체 역량만으로 국제화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로, 대학의 설립 목적이나 다양한 평가에 준하여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대학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부분 국가차원의 우수한 국제화 프로그램은 ‘유형 1’에 해당하며 일부 ‘유형 2’의 사례가 주목받기도 한다. 매우 특성화된 대학에 한하여 ‘유형 3’의 사례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3가지 유형의 국제화 프로그램을 추진 유형별로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9〉 국제화 프로그램의 추진 유형

제출서류 및 심사방식	유형 1 예) 베이징대, 칭화대	유형 2 예) Ningbo 노팅엄대학	유형 3 예) 지린재경대
제출서류	중외합작프로그램 신청서, 합작운영에 관한 협의회, 중국대학 및 외국대학 합작운영기관의 법인자격증명서, 자산 및 투자금 증명서, 기부금 협의회 및 관련증명서, 수여 학위 및 학력 증명서 견본, 상세한 수업계획, 수업설계안, 교사 및 교재의 준비 상황, 평가보고서	준비상황보고서, 합작협약서, 중외합작 법인 자격 증명, 정관 및 구성원 명부, 연계교육기관 자산증명 및 구성원 자격증명서, 기부자산협약서 및 상관증명(기관이 없을 경우 배제), 교학대강(교육목적, 교육목표, 교과목 해설 및 운영 등), 교수-학습계획, 교수진, 교육과정, 교재	중외 합작 교육 기관 또는 항목 신청서, 합작 협의회, 중외 합작 설립자의 법인자격 증명, 자산 확인 증명서, 기부 투자 자산 협의서와 관계 증빙자료
심사기관	교육부	지방정부(자장성 교육청) 심사→교육부	지린성 교육청
심사항목	외국대학의 교육과정, 교재, 교수 역량	제출 서류의 항목	관리 체계, 경비사용과 관리, 양성 목표와 방안, 양성 조건, 교사교육 조직, 교육 질, 합작기관의 교육적 효과, 합작 기관이 가지는 특징
심사절차	법제화된 심사절차 없이 합작 대학 간의 현장방문과 협의를 통해 이루어짐	서류제출→담당자 허가 비준→교육부 심사허가증 하달→성교육청국제합작 교류처심사→허가 교육부 제출→성교육청인가허가증발급	국무원학위위원회의의 전문가들이 최종 평가하여 결정
인가서 발급기관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
인가서 유효기간	공상관리 2014년 12월 31일 위생관리 2016년 6월 30일 치주임상 2017년 2월 28일 사회복지 2014년 12월 31일	2055년 5월 20일	2017년 12월 31일

*출처: 중국 교육부의 내부 자료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재구성함. 구지역, 박영진, 안병환(2012: 207) 참조.

일반적으로 대학의 국제화 프로그램이 추진될 경우 그 추진 주체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개별 대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주체는 사업규모와 필요에 따라 그 역할을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앙정부는 자체적으로 국제화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국가 차원), 지방정부와 대학에 협조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며, 사업 주체별 협력 체계를 구성한다. 반면에 지방정부나 대학이 요청하는 국제화 프로그램(지방정부 혹은 대학 차원)은 타당성, 형평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가 심의 및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지방정부의 경우는 중앙정부에 사업신청 및 예산을 요청하고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지방정부가 자체적인 국제화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는 지역 발전 및 역량을 고려하여 심의 및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지역 내 대학과 협력을 의뢰한다.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국제화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 사업 규모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이나 지방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고 심의 및 지원을 요청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은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추진되는 과정과 각 주체의 역할을 병렬한 것이다.

- ① 중앙정부는 ‘국제교육사(國際交流司) 사업계획’의 기초 구상 및 심의(9월). 이 시기에는 작년 국제화 사업 평가를 통해 새로운 사업 구상 및 각 지역, 대학의 계획 및 의견¹⁵⁾을 수렴하여 논의하는 과정(사업 규모 기초 분석)임
- ② 국가계획위원회(國家計劃委員會)와 기초적인 국제화 사업방안을 협상 후, 익년의 전국에 사업 계획을 종합하여 조정안 마련(10월)
- ③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 조정안 전달(10월)
- ④ 각 지방 국무원, 계획위원회, 교육청의 논의 및 수정안 작성(11월, 사업의 적절성 및 형평성 검토)
- ⑤ 각 지역 계획위원회와 고등교육사(高等教育司)는 익년 국제화 사업방안과 지역국제화 사업의 계획과 내용을 중앙에 제출(12월)
- ⑥ 중앙정부(교육부, 외교부)와 국가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편제 조정(12월, 지역별 사업계획 심의)
- ⑦ 국가계획위원회의 편제 조정안을 전국계획공작회의(全國計劃工作會議)에 편성하여 심의 요청(1월)
- ⑧ 국무원은 지방정부에 해당 연도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통지(國民經濟和社會通知)” 배포(1월)
- ⑨ 이 “통지”에 근거하여 사업예산, 사업규모, 기타 교육부문의 지역 배분안 마련(2월)
- ⑩ “양회(全國人民代表者會議, 全國人民政治協商會議)” 분과에 제출(3월)

15) 중국의 국제화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은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먼저, 중앙 부(위) 소속대학으로 “대학(전공별 지역할당)→소속 부(위) 조정→교육부 조정”의 단계를 거친다. 둘째, 전국모집 대학으로 “대학(전공별 지역할당)→성 교육위 종합→교육부 조정→성 고등교육사 제출”단계를 거친다. 셋째, 지방정부 소속 대학은 “대학(전공별 지역할당)→성 교육위 종합→성 고등교육사 제출”의 과정을 거친다.

- ⑪ 전인대(全人大)에서 통과된 “국가사회발전계획(國家社會發展計劃)”을 교육부에 제출(4월, 사업계획 및 지역 국제화 사업 규모 확정안 포함)
- ⑫ 교육부 고등교육사 “전국 국제교류 사업회의(全國國際交流計劃工作會議)” 개최(4월, 중앙정부 내 각 부서에 시행계획 업무분장)
- ⑬ 교육부 직할 대학의 국제화 사업 실시안 적용(4-5월, 각 성 관할 대학은 지방 교육위원회가 국제화 사업회의 개최 및 실시)
- ⑭ 각 대학별 국제화 프로그램 실시 계획 발표(5월 말~)

①에서 ⑭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제화 사업은 전체 고등교육 발전계획 중 상당히 중요한 논의 및 심의 사항이다. 결국 각 대학의 자율적 사업계획 및 요청과 지방정부의 판단, 그리고 중앙정부의 거시적인 조정에 의해서 국제화 사업의 규모와 내용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2) 교육과정/프로그램 협력

중국 내 원격교육은 필요성을 인지한 가운데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개별 대학에는 보편화 되어 있지 않다. 90년대 이후, 중국의 경제발전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자 원격교육의 연구역량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원격교육을 접하고, 연구하며, 교류할 수 있는 기초적인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본격적으로 원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문제에 봉착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등교육 분야의 원격교육은 주로 평생교육과 외국어교육 등 비학위과정 에 머물러 있으며, 정규 학위과정에는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외국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은 공식적으로 개설되어 있지 않으며, 간헐적으로 외국어강좌를 제공하기도 하나 전적으로 외국인 학생을 위한 강좌는 아닐 수 있다. 예를 들어, 베이징어언문화대학(北京語言文化)은 외국인학생을 위한 원격강좌를 개설해 놓고 관련 홈페이지¹⁶⁾를 통해 ‘웹사이트 신청, 분반 테스트, 코스 선택, 강좌 승인, 강좌 수강, 평가 및 인증’의 과정을 거쳐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강생들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중국에 유학 중인 외국인의 입장에서 강의실에서 교수와 직접 만나 수강하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큰 호응은 얻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중국의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원격교육 중 대표적인 베이징어언문화대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16) <http://www.eblcu.com/index.shtm;jsessionid=8C616894D7356958F3E4D3E242841471.tomcat3>.

〈표 Ⅲ-10〉 베이징어언문화대 원격교육과정

과정	과목명	학점	이수시간
중국어학과정	기초중국어종합	6	60~80
	기초중국어독해	3	30~40
	중국어듣기입문	3	24~30
	중국어회화입문	2	30~40
	기초중국어회화	2	30~40
트레이닝 과정	기초회화 비즈니스 중국어	2	48
	비즈니스 중국어 실제	2	30
중국어능력시험과정 (HSK)	HSK듣기훈련		30
	HSK문법훈련		30
	HSK독해훈련		30
	HSK문제풀이훈련		20
중국어교사연수과정	통합트레이닝특별과정		183
	어학이론특별과정		63
	교수학습특별과정		39
	교육방법특별과정		28
	중국문화특별과정		45
	언어이론과지식특별과정		53
중국어교사예비트레이닝과정	외국인을위한중국어교육입문		12
	현대중국어 I (단어)		12
	현대중국어 II (문법)		12
	외국인을위한중국어문법교육		12

*출처: 베이징어언문화대 홈페이지(<http://www.eblcu.com/learning/learningHome.jspr>)에서 재구성함.

중국 정부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원격교육 실시 기관은 ‘중앙방송TV대학’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원격대학인 동시에 중국에서 유일한 단일 형태의 원격교육대학이다. 이 대학은 원격교육 분야에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미 양적인 성과를 거두어 왔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홍콩, 마카오, 대만 등의 원격교육기관들은 중앙방송TV대학과 양질의 교류·협력관계를 맺고 광범위한 학술, 프로그램 개발, 콘텐츠 활용 등을 공유하고 있다.¹⁷⁾

중앙방송TV대학은 아시아개방대학협회(AAOU)의 회원이며 국제원격개방교육이사회(ICDE)의 회원이기도 하다. 또한 베이징TV대학, 허난TV대학, 장쑤TV대학, 장시TV대학, 산시TV대학, 상하이TV대학, 쓰촨TV대학, 톈진TV대학, 윈난TV대학 및 홍콩공개대학 등 역시 아시아개방대학협회의 독

17) 참고: 중앙방송TV대학 홈페이지(www.crtvu.edu.cn/)

립적인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각 대학의 원격교육 전문가들은 각 기관의 원격교육 활성화와 선진화를 위해 연구와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한편, 원격교육 분야에 있어서 해외합작으로 진행된 사례는 중앙방송TV대학과 브리티시 오픈대학이 합작한 영어과정, 진로교육, 멀티미디어의 설계와 제작 등이 있다. 또한, 해외 교육기관 및 오즈 네트워크사(奧茲網路公司)와 손을 잡고 평생교육과정을 개설하였으며, 상하이TV대학과 일본 교토 세이카대학은 애니메이션 디자인 전문과정을 합작 형식으로 개설했다.

일반대학 중에서도 해외합작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칭화대 평생교육대학원은 국제합작양성부서(國際合作培訓部)를 개설하여, 현재 영국, 미국, 호주 등 국가의 우수한 대학과 합작하고 있으며, 교직원과 당해 졸업생들에게 국제합작 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런민(人民)대학은 브리티시 오픈대 사이버 대학원과 합작하여 MBA 석사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캐나다 앨버타이공대(Alberta Institute of Technology)와 베이징이공대학이 합작하여 정보기술응용 학사학위 과정을 개설하였다. 베이징국제공상관리연수학원 역시 미국의 관리기술대학(UMT)과 합작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샤먼(廈門)대학의 경우에는 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해외에 중문 원격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화난(華南)사범대학은 미국의 온라인 출판회사와 합작하여, 인터넷으로 인도네시아 화교어(중국어)에 대한 단기연수 및 학위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베이징어언문화대도 ‘화하대지교육(華夏大地教育)’과 손을 잡고 인터넷 대외교학(對外教學) 비학위과정, 한어수평고시(HSK) 학습 및 보충과정, 대외한어교학 등에 관련된 인터넷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설하였다. 이 과정은 수강생들에게 총장 명의의 학력을 인정해주고, 학위증 및 수료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중국의 원격교육은 정부차원에서 활성화 시키고 있으며, 대단위의 투자에 기반하여 실시되고 있다. 개별 대학은 정부의 인프라와 지원에 기초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소속 정규 학생들에게 원격교육을 통한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데에는 학위인증 등의 법적인 문제와 원격교육에 대한 인식 및 재원 마련 등에 한계가 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원격교육 활성화를 통해 대국민 소양을 높이기 위하여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더라도 어디서나 명문대학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120개 중국 대학자원 공유 과정”을 발표했다. 이 과정은 전국에서 “수업사랑(愛課程, <http://www.icourses.cn/>)” 홈페이지에 등록만 하면 명문대학의 수업을 수강할 수 있으며, 수강한 과목에 대해서는 추후 소속 대학으로부터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주로 대학 공공 기초과정, 전공 기초과정, 전공 핵심과정으로 나뉜다. 모든 과정은 수업내용에 대한 소개, 수업계획안, 수업일정, 교안, 과제, 참고자료 목록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강좌는 이학, 공학, 문학, 법학, 경제학, 교육학 등 10개 학문 분야에 걸쳐, 학부생 수업과정 84개, 직업전문대학 과정 22개, 온라인교육 과정 14개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정부는 이를 발전시켜 향후 3,600개의 5분

강좌를 개설해 원격교육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人民日報 인터넷판, 2013년 7월5일자).

3) 해외 유학 및 해외 연수

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현황

중국은 세계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폭이 매우 큰 나라이다. 1950년 건국 이후 33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받은 중국은 2000년까지 총 36만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했다. 이 과정에서, 개발도상국과 제3세계 국가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외교, 과학 HRD 분야를 양성하여 자국의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특히 2000년 이후 빠른 경제성장에 연동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입은 가속화 되었다. 2001년에서 201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규모는 연평균 20% 이상 증가하였고, 매년 3만 명 이상의 유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교육부는 2020년까지 50만 명의 유학생을 유치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표 Ⅲ-11〉 외국인 유학생 현황(1978-2012)

시기	유학생(명)	국가 및 지역(개국)
1978~2003이전	620,000	-
2003	78,000	175
2004	110,000	180
2005	140,000	184
2006	162,695	184
2007	195,503	188
2008	234,500	189
2009	259,463	190
2010	281,390	192
2011	292,611	194
2012	328,500	198

*출처: 중국교육망(中國教育網, www.chinaedunet.com)의 통계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edu.cn/>), 인터넷자료(www.baidu.com) 등을 종합하여 작성함.

2012년에는 198개 국가 및 지역에서 328,500명의 외국 유학생이 중국에 유입되었다. 이들은 전국 31개 성·자치구·직할시에 있는 660개 대학 및 연구소에서 유학하였으며, 2011년 대비 35,889명(11.2%)이 증가했다. 이중 중국정부 장학생은 28만 7천여 명으로 184개국(지역)에서 온 유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아시아 53%, 아프리카 23%, 유럽 14%, 미주 8%, 호주 및 기타 2%이며, 계열별로는 이공계열 22%, 인문사회계열 21%, 경영 및 의학계열 13%, 국가별로는 한국, 미국, 일본, 태국,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순이다. 또한 학위과정으로 구분하면 학부생 74.44%, 석사과정 19.74%, 박사과정 5.83%이며, 비학위과정은 59.39%이다.

〈표 Ⅲ-12〉 2010 외국인 유학생 현황 분류표

(단위: 명)

구분	졸업생수	수여 학위수	신입생 모집수	재학생수					
				합계	1년	2년	3년	4년	5년
합계	52,745	7,406	71,294	106,870	58,877	20,327	14,072	9,661	3,933
과정별	박사	488	429	1,101	3,221	1,048	830	760	330
	석사	1,813	1477	3,839	7,522	3,540	2,172	1,430	278
	본과	6,441	5,500	14,540	49,855	13,595	12,644	11,232	8,858
	전문대	256		355	613	328	223	62	
	직업	43,747		51,459	45,659	40,366	4,458	588	195
대륙별	아시아	34,959	6,374	47,538	79,054	38,662	16,003	11,988	8,779
	아프리카	1,516	349	3,608	6,220	3,340	1,582	860	339
	유럽	9,174	402	11,888	12,727	10,261	1,470	609	288
	북아메리카	5,570	188	6,377	6,397	4,931	838	372	174
	남아메리카	856	43	1,070	1,491	994	285	141	56
	호주	670	50	813	981	689	149	102	25
경비 출처별	국제조직의 자금지원	31	6	124	148	107	14	6	20
	중국정부의 자금지원	3,564	874	7,325	12,271	6,854	2,790	1,681	748
	자국정부의 자금지원	457	71	741	1,385	740	275	297	52
	학교간 교환	4,365	282	5,445	5,346	4,451	678	155	60
	자비	44,328	6,173	57,659	87,720	46,725	16,570	11,933	8,781

*출처: 중국 교육부 홈페이지 統計數據(<http://www.moe.gov.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s73382/list.html>)와 장윤정(2010)에서 재편집 및 재인용 함.

나) 유학생 송출 및 해외 파견 현황

1978년부터 2009년 말까지 중국의 출국 유학생 수는 모두 162.07만 명에 이르고 이중 귀국자는 총 49.74만 명에 그쳤다. 즉, 유학생의 62.3%가 학업을 마친 뒤 귀국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말까지 유학생 신분으로 출국하여 해외에 남아있는 유학생이 123.08만 명으로, 2011년 출국 유학생 수는 총 26.13만 명이었으며, 이중 국비가 1.6만 명, 직장(單位)에서 파견형태는 1.5만 명,

자비가 23.03만 명이었다.

2011년에 유학 후 귀국한 중국인은 18.62만 명으로 2010년 대비 38.08% 증가하였다. 또한 2012년 귀국한 중국인 유학생 수는 23.03만 명으로 약 70%에 달한다(中國教育在線, www.eol.cn). 2011년 귀국한 유학생은 중 국비 1.07만 명, 직장 1.28만 명, 자비 12.24만 명이었다.¹⁸⁾ 이 중 91.29만 명이 외국의 전문대, 대학 학부, 석사, 박사 등의 과정에서 학업 중에 있었으며 박사 후 과정이나 학술방문 등도 포함되어 있다.

〈표 Ⅲ-13〉 1996~2011년 출국유학생 현황

(단위: 만 명)

분류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출국 유학생	2.09	2.24	1.76	2.37	3.90	8.40	12.50	11.73	11.40	11.85	13.40	14.45	17.98	19.38	22.61	26.13

*자료: 각 해당연도 《中國統計年鑑》을 참고하여 재정리.

〈표 Ⅲ-14〉 2010~2011년 유학생 구성 인원

(단위: 만 명)

구분	출국유학생 인원수	
	2010년	2011년
국비	1.49	1.60
직장파견	1.37	1.50
자비	19.75	23.03
총계	22.61	26.13

*자료: 각 해당연도 《中國統計年鑑》을 참고하여 재정리.

중국의 국비유학생의 경우 매년 중앙정부 차원에서 규모를 정하고, 각 지방정부와 협의과정을 거친다. 해외에 유학생을 파견하기 위해 마련된 근거는 〈국가중장기발전계획강요(國家中長期人才發展計劃綱要) 2010-2020〉, 〈국가중장기교육개혁및발전계획강요(國家中長期教育改革和發展計劃綱要) 2010-2020〉에 따른다. 다음은 1990년에서 2009년까지 중국정부가 실시한 해외유학생 파견 프로그램이다.

18) 数据来源于教育部官网 《教育部公布2011年度各类留学人员情况统计结果》.

〈표 Ⅲ-15〉 연도별 해외유학생 파견 프로그램

연도	프로그램별 주요 내용
1990	귀국유학생 과학연구시행 기금(留学回国人员科研启动基金) 운영
1996	춘회계획(春晖计划) - 박사학위 취득 후 본인의 전문 분야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룬 우수 유학인재를 뽑아 단기 귀국하도록 하여 국가업무에 참가하도록 함
1998	중국유학생 광저우(广州)과학기술교류회 - 교육부가 과학기술부 등 관련부처와 연합하여, 매년 1회 개최함 장강학자장려계획(长江学者奖励计划) - 매년 국내외 중청년 인재들이 중국 고등교육기관 건설에 참여하도록 함
2001	해외유학인재 학술�휴가 귀국업무 프로젝트(海外留学人才学术休假回国工作项目) - 우수 유학인재들이 학술�휴가를 받아 귀국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함 서부지역 인재배양 특별 프로젝트 - 「국가서부대개발전략(国家西部大开发战略)」에 맞추어 계획됨
2003	전문 관리감독 기관 설치 - 자비유학중개, 국제교육전 등 자비유학과 관련 깊은 기관이나 그 활동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목적으로 교육부의 주도로 진행되었음 국가우수자비유학생장학금(国家优秀自费留学生奖学金) 프로젝트 - 지와 덕을 겸비한 자비유학생들의 우수한 학업성취 장려를 목적으로, 교과부가 주무부처임
2004	청년핵심교원 출국연수 프로젝트(青年骨干教师出国研修项目) - 고등교육기관 고위급 창의적 인재 계획(高等院校高层次人才计划)에 맞춰 진행됨
2005	교육부의 “세 가지 일류” 국비유학생 선발원칙 제언 - “국내 일류 학생을 뽑아, (해외) 일류 학과영역에 파견하고, 일류 지도교수에게 배우도록” 하는데 있음 해외유학 관련업무의 관리 및 운영의 내실화 - 39개의 해외 대사관(영사관)에서 58개의 교육처(팀)를 만들고, 해외 교육처(팀)의 지휘 하에 2,000여개의 해외중국유학생 사단법인, 300여개의 전문학술단체가 설립되었으며, 이는 자매결연을 지원하고 학술교류를 촉진시키며 국가업무의 활동을 넓히는 데 주요 목적이 있음
2007	「국가파견 대학원 유학생 관리규정(시범시행)(国家公派出国留学研究生管理规定(试行))」 반포 - 국비 대학원 유학생의 파견 및 관리업무 개선을 목적으로 교육부와 재정부가 협력하여 반포하였음 국가 교수준 대학설립 및 대학원생 파견 프로젝트(国家建设高水平大学公派研究生项目) - 교육부와 재정부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인재강국전략으로 높은 수준의 대학을 설립하며, 이는 창조적 국가 서비스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짐 - 2007년~2011년 연속 5년간 중점적으로 세워진 높은 수준의 대학에서 매년 5000명의 일류학생을 선발하여, 이들을 해외 일류대학·전공분야에 파견하도록 함 - 이 프로젝트를 통해 2007년에는 국비 대학원생 3,952명이 선발되었으며, 이 중 중점지원분야에 선발된 인원이 95%를 차지하고 있음
2009	“춘회배(春晖杯)” 중국유학생 창신창업대회 - 2009년을 기준으로 총 4회 개최되었으며,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주관함 - 해외 우수 유학생들의 참신한 업무 개설편과 귀국업무 및 국가업무에 대한 봉사의 장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춤

*출처: 중국교육부 홈페이지, 최정윤 외(2011), 윤종혁 외(2010)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함.

이러한 프로그램은 다양성보다는 체계화를 거쳐 점차 국가차원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편되었다. 즉, 시기사안별 프로그램은 유지하거나 축소하되, 국가차원의 항시적인 프로그램을

영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유학생파견법(國家公派出國留學選派辦法)>을 제정하여 2013년 세계 각 국가에 중국 인재를 유학시키겠다는 계획을 공시하였다. 이 공시의 규모는 1만8천명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공식 해외유학 프로그램 중에는 가장 큰 규모이다. 구체적인 국가 유학생 파견 프로그램명과 할당 인원은 다음과 같다.

〈표 Ⅲ-16〉 2013년 국가 유학생 파견 프로그램

(단위 : 명)

	프로그램	할당 인원	비고
1	고급연구학자 및 방문학자	2,500	·박사후 과정 포함
2	우수 박사과정 파견	6,000	
3	석사과정 파견	300	
4	우수 대학생 국제교류	2,000	
5	국제 합작	5,000	·우수교원 해외연수 3,000 ·서부지역 및 지방합작 1,500 ·관련 업무 합작 500
6	국외 합작	950	·국가 간 장학금 합작
7	전문 인재 배양	1,250	·국제지역전문가 및 외국어분야 1,050 ·예술분야 200

*출처: 國家留學網 사이트(<http://www.csc.edu.cn/Chuguo/baa9ae154ba94951b3e85e222787d916.shtml>)

4) 외국대학 분교 설치

중국에서 외국대학을 유치한다는 의미는 사실상 외국대학과의 합작에 의해서 대학을 설립하거나 운영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중외합작(中外合作)’이라고 하는데, 그 성격에 따라 <중외합작학교운영조례>, <중외합작학교조례실시방법>, 그리고 <중외합작학교운영잠행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되고 있다. 이를 유치 유형별로 구분하면, 첫째, 중앙정부 주도로 유치하는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스토포드대, 와세다대), 둘째, 지방정부 주도의 전략적 유치 대학(닝보노팅업대, 시안교통리버풀대), 셋째, 개별 대학 주도로 유치하는 특성화 대학(찰스스터트대, 뉴캐슬대)으로 구분할 수 있다(구자역, 박영진, 안병환, 2012: 214-218 재정리).

주요 대학을 살펴보면, 베이징대는 세계 50여 개국 200여 개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 교류협정을 맺고 있으며, 이 중 아시아 지역의 57개 대학, 유럽지역의 69개 대학, 미주 지역 46개 대학, 아프리카 지역 4개 대학, 호주 지역 8개 대학과 교류하고 있다(베이징대 홈페이지, <http://www.pku.edu.cn/>). 칭화대는 40여 개 대학과 교류협정을 맺고 있으며 매년 200여 명이 교환학생으로 선정되고 있다.

특히 ‘칭화-UIU 프로젝트’, ‘중국-프랑스 2+2’ 프로젝트 등을 통해 외국교육기관과의 교육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 등과 공동학위제를 실시 중이다(칭화대 홈페이지, <http://www.tsinghua.edu.cn/>). 중요한 것은 개별 대학이 외국의 교육기관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정부의 심사 및 심의, 예산지원, 국가차원의 타당성 등에서 공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중외합작’ 대학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중외합작 교육설립자가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설립하지 않고, 현지의 교육기관에 특정 학과나 전공을 운영하는 형태이다. 그 다음으로 교육기관과의 합작은 중국과 외국 양측 대학 간의 교류협정에 의하여 상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존의 교류활동을 심화시킨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일반적이지는 않으나 조례와 관련 규정에 의해 법인자격을 갖추고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기관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구자익 외, 2012: 40-41). 합작운영기관별 유형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다.

〈표 Ⅲ-17〉 합작운영기관별 유형 분류

성격	합작기관 및 합작 프로그램 수	학위과정	하위분류	개수	합계
〈중외합작학교운영조례〉와 〈중외합작학교조례실시방법〉	248	학부단계	합작운영기관	12	187
			합작운영프로그램	175	
		석사단계	합작운영기관	9	58
			합작운영프로그램	49	
		박사단계	합작운영프로그램	3	3
〈중외합작학교운영임시시행규정〉	462	학부단계	합작운영기관	21	353
			합작운영프로그램	332	
		석사단계	합작운영기관	5	108
			합작운영프로그램	103	
		박사단계	합작운영프로그램	1	1
합계	710		710	710	

*출처: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本科中外合作办学機構與項目(含內地與港臺地區合作办学機構與項目)名單(2012)”, pp. 1-15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함.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고등교육의 중외합작은 주로 학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고, 대학원 과정은 소극적인 편이다. 전체 중외합작대학의 분포 비율은 학부 76%, 석사과정 23.4%, 박사과정 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외합작 대학을 대상 국가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18〉 중국 중외합작 대학 대상국 분포 현황

순위	합작 국가 및 지역	합작수	비율(%)	비고
1	영국	145	26.9	
2	러시아	86	15.9	78개는 헤이룽장성에 분포함
3	호주	77	14.3	
4	미국	74	13.7	
5	캐나다	38	7.0	
6	독일	28	5.2	
7	한국	19	3.5	12개는 산둥성에 분포함
7	프랑스	19	3.5	
9	아일랜드	12	2.2	
10	일본	10	1.9	
10	뉴질랜드	10	1.9	
12	홍콩	6	1.1	
13	네덜란드	4	0.7	
14	이탈리아	3	0.6	
15	오스트리아	2	0.4	
15	덴마크	2	0.4	
17	우크라이나	1	0.2	
17	인도	1	0.2	
17	대만	1	0.2	
17	남아프리카공화국	1	0.2	
17	포르투갈	1	0.2	
	합계	540	100	

*출처: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本科中外合作辦學機構與項目(含內地與港臺地區合作辦學機構與項目)名單(2012)”의 pp. 1-15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함.

중국은 13개시와 성에 총 33개의 합작 고등교육기관을 두고 점차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중 특이한 경우는 저장성의 Ningbo 노팅엄대와 장쑤성의 시안교통리버풀대의 사례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의 고등교육기관은 ‘중외합작’의 형태로 유치 및 운영해야 하지만 이 두 대학은 예외적으로 독립적인 형태의 합작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 유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국제 교류

중국에서는 해외 유학 경험이 있는 중국인과 외국인이 대학 및 연구소에서 근무할 경우 ‘해외인

재’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중국의 해외인재 유치사업은 80년대를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처음 중국정부는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인재와 자국 내 필요하지만 부족한 인재를 수급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하였다. 이에 중국과학원의 젊은 과학자 수를 늘리고, 차츰 “백인계획(百人計劃)”과 같은 국가차원의 해외인재 유치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외국에서 학위를 하고 해외에 거주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자국에 유입하기 위해 “걸출청년기금계획(杰出青年基金計劃)”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중국 교육부는 1997년에 “춘취계획(春暌計劃)”을 실시하여 해외에 나가 있는 인재들이 어머니의 품에 돌아오듯, 모국에 돌아와 헌신할 수 있도록 해외인재 유치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윤종혁 외, 2010: 104-113 ; 최정운 외, 2011: 78-79).

현재까지 중국에서 가장 규모로 실시되고 있는 해외인재 유치 프로그램은 중국 교육부와 홍콩의 기업인 리지아청(李嘉誠)이 재원을 마련한 “장강학자장려계획(長江學者獎勵計劃)”이다. 이 계획은 1998년부터 “교수특별초빙제도(特聘教授崗位制度)”를 통해 해외의 우수한 학자를 중국 내에 유치하였으며, “장강학자성취상(長江學者成就獎)”을 통해 그 성과를 시상하였다. 이 계획을 통해 유치된 약 1,500명의 학자는 전국 100여개 대학 및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으며 약 98%가 박사학위 소지자이다. 또한 96%는 해외유학 또는 해외근무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평균연령은 42세(최연소 30세)로, 약 25%는 해외에서 직접 초빙한 외국인 학자로 구성되어 있다(神州學人 長江學者獎勵計劃, www.chisa.edu.cn). 중국 교육부의 통계자료를 보면, 2011년 고등교육기관에 단기 및 장기 초빙된 외국국적의 교수는 46,090명으로, 이들을 초청하는데 99,582만 위안의 경비가 소요되었다(중국 교육부 統計數據, <http://www.moe.edu.cn>). 이러한 양적인 증가 외에도 질적인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교육부는 국가의 중점 연구계획 및 중점 학과 지원과 더불어 해외인재와 전문가 집단과의 연계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각 학교별 프로젝트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1,500개의 중점 연구과제에 대한 재정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다. 대학 사례(베이징 대학)

1) 베이징대 연혁 및 현황

베이징대는 중국 최초의 국립종합대학이다. 1898년 경사대학당(京師大學堂)으로 시작된 베이징대는 1912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과 함께 베이징대로 개칭되었다. 현재 인문학부, 이학부, 정보 및 공정학부, 의학부 5개 학부와 20개 단과대학, 9개의 개별학과, 92개 학사전공, 248개의 석사과정과 263개의 박사과정이 있으며, 800만 여 권의 장서가 보유하고 있다. 또한 중국교육부 직속 고등교육기관으로 이미 211공정과 985공정 대학에 우선적으로 선정되었다. 지난 115년 동안 중국의 고등교

육을 주도해 왔으며 국가를 대표적인 대학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베이징대학은 현재 81개 국가중점 학과를 보유하고 있으며, 274만여㎡의 캠퍼스를 갖추고, 53명의 중국국가과학원(CAS) 원사와 7명의 중국공정원(CAE) 원사 및 14명의 제3세계과학원(TWAS) 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베이징대는 사상가이자 문학가인 루쉰(魯迅) 등이 가르쳤던 대학이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신문화운동의 중심이었고, 5.4운동의 발원지였다. 이러한 정신에 기초하여 ‘세계일류대학을 건설하고 국제적 시각을 갖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대학발전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베이징대 홈페이지, <http://www.pku.edu.cn> ; 윤중혁 외, 2010: 158).

〈베이징대 12·5 계획(北京大學十二五規劃)〉에 따르면 2011-2015년 동안 베이징대학은 학생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데에 대학교육의 핵심역량을 투입하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세계의 저명한 학자들을 유치하고 우수한 대학과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인 교육기관과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공유하고 ‘최고 대학 간의 협력계획(强强合作計劃)’을 실시하여 국제적인 다원화 교육으로 연구와 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구자익, 박영진, 안병환, 2012: 106).

2) 베이징대학의 학생수(유학생 수 포함)

베이징대학의 정규학위과정의 학생 수는 2013년 현재 총 29,584명으로, 학부생 14,465명, 석사과정 10,031명, 박사과정 5,08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유학생은 정원 외로 관리하는데 그 규모는 3,000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또한 베이징대 소속 교원 중 박사학위소지자는 726명이며, 정교수 1,031명, 부교수 1,379명, 박사지도교수 938명, 외국인전문가(교수)는 2,3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¹⁹⁾ 이는 2008년²⁰⁾ 조사에 비해서 상당한 규모로 성장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 수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단기와 장기, 어학과정과 진수생(進修生) 과정, 공동학위 과정과 특별전형 학생 등으로 나뉘어서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2008년 1,000여명 규모에서 2013년 3,000명 규모로 3배 이상 성장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유치 유학생의 국가별 추세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은 최근에 나타난 특징이다. 즉, 불과 5~10년 전만해도 아시아 국가의 학생수가 60% 이상이었으나 차츰 서구와 아프리카의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G2국가로서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며,

19) 중국 교육부 통계자료(<http://www.moe.edu.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s7382/list.html>) 및 baidu 검색(http://www.baidu.com/s?wd=%E5%8C%97%E4%BA%AC%E5%A4%A7%E5%AD%A6%E6%9C%89%E5%A4%9A%E5%B0%91%E7%A7%8D%E5%AD%A6%E7%94%9F+site%3Awenwen.soso.com&i=8&ie=utf-8&rsv_crq=1). 검색일 2013년 7월 28일.

20) 참고로 2008년에는 학부생 9,671명, 석사과정 3,514명, 박사과정 1,240명, 외국인 유학생 1,016명이었다. 교원들 중 박사학위 소지자는 530명이었으며, 교수 810명 부교수 840명, 박사지도교수 530명, 외국인전문가(교수) 410명이었다.

자원외교 정책으로 인한 전략적 유치결과에 기인한다.²¹⁾

3) 조직

베이징대의 국제협력 관련 관리 기구는 국제합작부이다. 국제합작부는 ‘유학생 사무실(留學生辦公室)’을 두고 유학생을 선발 및 관리하고 있다. 또한 중국인 학생 중 해외 국비유학 지원자에게 국가유학기금관리위원회와 교육부 국제교류사 등과 연계하여 국비유학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즉, 국제합작부는 국제협력을 축으로 국내외 학생들의 유학업무를 담당하고, 매년 유치될 외국인 유학생 규모와 해외에 유학하고자하는 중국인 학생 규모를 파악하여 교육부에 보고하는 등 행정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각 국가별 유학생회를 관리 및 지원하고 외국 및 외국교육기관과 우호관계 및 교육협력을 증대하기 위하여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²²⁾

라. 특징

중국에서는 국제화, 세계화의 일환으로 고등교육 시장개방이 추진되었다. 현재까지 고등교육 시장개방의 과정 중에 나타난 각 사업에 대해 성과를 논하기에는 성급한 감이 없지 않다. 또한 너무 짧은 기간에 국가 차원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했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은 국가차원의 고등교육 시장개방 정책이 양질의 토양이 되어 대학교육의 활성화는 물론,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사례를 남겨준 대표적인 국가라 할 수 있다.

첫째, 강력한 정부의 지도력에 기초한 국제화라는 점이다(김병로 외 2012: 204-206). 국제화 프로그램의 주관 부처는 교육부이지만, 실무 주체인 국가외국전문가국(國家外國專家局)이 대단위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재정부, 외교부, 과기부, 상무부 등이 국책사업의 위상에 맞춰 협조하고 있다. 이처럼 긴밀한 협조체계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도하에 행정, 재정, 성과 등에 관한 부처 간의 이견이 조율되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지방정부, 대학 및 연구소의 이해와 요구를 국가 정책에 맞춰 반영해 왔기 때문에 각 국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 국제적인 시각과 비전을 가진 유학파 지도부에 의해서 중국은 체제전환의 가시적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경제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또한 국제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인재를 다각적으로 공유하면서 상생의 관계를 맺어 온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OECD 가입과 세계 각 국과의 FTA

21) 베이징대 교육학원 스샤오광(施紹廣) 교수와의 인터뷰에 근거.

22) 베이징대 교육학원 스샤오광(施紹廣) 교수와의 인터뷰 및 베이징대 홈페이지의 정보를 재구성.

체결, 국제적 영향력 증대를 기반으로 한 자원 외교 등은, 시기별로 과감하게 개방하고 선진적인 모형을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선택과 집중의 국제화이다. 중국은 모든 기관, 모든 분야, 모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국가차원에서 유망하거나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분야에 국한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히 우수한 해외인재의 유치, 유학생 귀국 프로그램, 해외합작 교육기관 설립 등의 분야를 지원할 때도 해외인재의 전공, 프로그램의 구성, 해외 교육기관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실리추구 및 장기적인 포석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넷째, 시장개방에 따른 장기적인 국가차원의 전략을 들 수 있다. 특히 지속적인 우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장기적인 국제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4 소결

이상으로 미국, 일본, 중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주요 내용을 비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19〉 각 국가의 국제화 정책 및 사례 비교

내용	미국	일본	중국
추진주체	·대학자율	·대학자율 + 국가주도	·국가주도
추진방향	·경제적 이익	·국내 대학 활성화	·국내 경쟁력 강화
추진내용			
모드1	·원격교육 활발 ·교육과정 수출	·원격교육이나 공동교육과정 협력 미비	·원격교육 활발 ·TDP형태의 교육과정
모드2	·유학생 최대 유입 ·해외파견 장려	·유학생 최대 유입 ·해외파견 장려	·유학생 최대 송출
모드3	·해외 분교 설립	·기관 교류 미비	·해외 분교 국내 유치
모드4	·교류활발	·교류미비	·교류활발
특징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미국의 경우에는 국제교류 차원에서 경제 논리로 국제화 방향이 전환되면서 각 대학 자율로 활발한 국제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강력한

정부의 지도 아래,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국제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은 중국과 미국의 중간에서 국제화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 고등교육 국제화 추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국가의 구체적인 국제화 전략의 제시이다. 일본의 ‘글로벌 인재상’의 제시에서처럼 글로벌 인재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선택과 집중의 재정 지원을 통해 교육 목표나 미션을 고려하여 대학에 따라 특성화된 국제화 추진을 장려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장기적인 국가차원의 전략을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등교육 국제화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가 구체적인 국제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수한 해외인재의 유치, 유학생 귀국 프로그램, 해외합작 교육기관 설립 등과 같은 각 모드별 국제화를 추진할 때, 전공, 프로그램, 전문성 등을 고려한 특성화 분야를 명확히 하여 다양한 국제화 전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를 위해 부처 간 연계는 물론, 국제기구, 대학 등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국제화 프로그램의 주관 부처는 교육부이지만, 재정부, 외교부, 과기부, 상무부 등이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역시 대학 차원에서 국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학생 국제화를 재생산하고 있으며, 일본도 정부와 대학의 긴밀한 협조 아래 대학 스스로가 국제화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주체 간의 협조 체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교육의 질 제고이다. 미국에서도 교육 질을 제고하면서 국제적인 경험을 증대시켜 이를 바탕으로 교육 과정을 개정하고 글로벌한 열린 학습자를 길러내기 위해 교육과정의 국제화를 꾀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지속적인 우수 국제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국제화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제통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의 개발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제화 추진 조직의 구축이다. 일리노이 대학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IPS나 단과대학별 국제화 전담 조직인 ISIP와 같은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적인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국제적 협력을 꾀하여 기관과 기관간의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IV

국제화 현황 분석

1. 조사 개요
2. 현황 조사
3. 인식 조사
4. 소결

IV

국제화 현황 분석

1 조사 개요

가. 조사 대상

전국의 4년제 대학의 국제협력처에 대해 교육부 공문과 함께 설문지를 의뢰하여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전국 209개 대학에 배포하여 63개 대학의 현황조사 설문지와 89개 대학의 국제협력처 관련자 설문지 138개를 유효표집하였다.

나. 조사 영역

1) 현황 조사

먼저 대학에 관련된 소재지, 설립주체, 대학규모 등의 기본 사항 이외에 국제교류활동에 대해 물었다. 국제화 목표, 전략 및 실행 계획 영역에서는 중장기 전략 수립 유무를, 조직 및 예산 현황 조사를 위해 국제교류 부서의 운영 유무, 국제교류부서의 업무, 직원 현황, 예산 등의 항목을 설정하였다. 국제화 인프라 항목으로는 국제화 관련 오리엔테이션, 문화적응 프로그램,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등의 항목을 설정하고, 국제교류네트워크 가입 유무를 통해 국제교류네트워크 정도를 물었다. 또한 외국인 구성원 기숙사 수용관련 주거 지원 정도를 파악하였다. 학습 프로그램으로는 국제교류 협정 체결은 물론, 외국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복수학위와 공동학위 운영현황에 관련된 항목을 추가하고, 외국어 전용 강좌, 학점교류 프로그램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다. 인적 구성원 활동 영역에서는 외국인학생, 외국인 교원 항목을 설정하고,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과 우수 외국인 구소 유치 유무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사 영역은 다음과 같다.

〈표 IV-1〉 현황조사 문항표

변수		변수명	설문문항
일반 특성	응답자 특성	소속 대학	문 1
		대학 소재지	문 2
		대학 설립 주체	문 3
		대학 규모	문 4
		수행 중인 국제교류 활동	문 5, 5-(1)
목표, 전략 및 실행계획	전략수립의 타당성	발전 전략	문 6, 6-(1)
	실행계획의 체계성	시기별 국제화 목표	문 7, 7-(1)
조작재정	국제화 전담 조직	국제화 전담 기구 유무 및 형태	문 8, 8-(1)~(2)
		국제교류부서 유무 및 업무, 직원 현황	문 9, 9-(1)~(3)
		국제화 사업 운영 형태	문 10, 10-(1)
		직원 해외 연수 및 출장	문 11, 11-(1)
	재정	국제교류부서 전담 예산	문 12, 12-(1)
인프라	정보 체제	오리엔테이션 유무 및 운영 주체	문 13, 13-(1)~(2)
		문화적응 프로그램	문 14, 14-(1)
	지원 체제	학내 국제화 프로그램	문 16, 16-(1)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문 17, 17-(1)
		외국인 학생 기숙사	문 18, 18-(1)
		외국인 교수 주거 지원	문 19, 19-(1)
	네트워크	국제교류 협회 및 협업체 가입 현황	문 15, 15-(1)~(2)
		외국대학과의 국제교류협력협정 체결 현황	문 20, 20-(1)
교육	정규 교육 과정	외국어 전용 강좌 운영 현황	문 25, 25-(1)
		외국인 학생의 외국어 학습 강좌 및 외국인 학생 전용 강좌	문 26, 26-(1)
	비정규 교육 과정	해외 인턴십 운영 현황	문 31, 31-(1)
	교수	외국인 교원 현황	문 29, 29-(1)
	학생교류	외국인 학생 현황	문 27, 27-(1)
		학점교류 프로그램 참가 학생 현황	문 28, 28-(1)
	학생 성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실적	문 22, 22-(1)
		복수학위 실적	문 23, 23-(1)~(3)
		공동학위 실적	문 24, 24-(1)~(3)
분교유치	해외 분교	해외 분교 설립 실적 및 계획	문 21, 21-(1)
		우수연구소 유치 현황	문 30, 30-(1)

2) 인식조사

인식조사의 경우, 먼저 일반적인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고, 대학 국제화 활동 항목에 따른 중시 정도에 대한 설문을 통해 모드별 활동 정도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의 유형, 규모, 소재 지역 등과 같은 특징에 따라 시장개방 모드별 활동의 실시 혹은 중요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FTA 추진을 통한 고등교육 서비스의 글로벌화와 대학 국제화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특히 대학 국제화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고등교육 글로벌 서비스화에 대한 자유기술 항목을 설정하였다.

〈표 IV-2〉 인식조사 문항표

변수		변수명	설문문항
일반 특성	응답자 특성	소속 대학	문 1
		대학 소재지	문 2
		대학 설립 주체	문 3
		대학 규모	문 4
		성별	문 5
		연령	문 6
		직위	문 7
		소속	문 8
		업무 경력	문 9
Mode 1: 국경 간 무역	이러닝	운영	문 15-(5)
		시장개방	문 17-(9)
	외국교육과정	교육 과정 설치	문 11-(1)
		교육 과정 운영 파악 및 관리	문 12-(1)~(8)
		공동 및 복수 학위 운영	문 15-(20)~(21)
		시장 개방	문 17-(6)
Mode 2: 해외 소비	외국인 유학생	정보	문 14-(1)~(2), 15-(7), 15-(10)
		지원	문 14-(3)~(12)
		교육 과정	문 13-(1)~(6), 15-(7), 15-(10)
		성과	문 14-(13)~(16)
	한국인 유학생 해외 파견	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문 11-(2)~(7)
		관리, 지원 활동	문 12-(1)~(14)
		문화언어 교육 및 영어 수업	문 15-(1)~(4)
		Mode 3: 상업적 주재	외국대학 분교 설립
국내대학 해외 분교 설립	조인트캠퍼스 및 해외분교 운영		문 15-(19)
Mode 4: 자연인 주재	원어민 교사 및 강사 채용		시장 개방
		채용	문 15-(8)
정책제언			

다. 변수

대학 설립 유형, 대학 규모, 대학 소재 지역에 따라 운영 현황 및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에 사용한 변수는 다음과 같다.

① 설립 유형

대학 설립 유형은 국공립과 사립으로 나누었다.

② 대학 규모

대학 규모는 재학생 규모로 하여 5천명 미만과 2만 명 이상으로 하여 5,000명 단위 구간으로 4개 카테고리를 설정하였다.

③ 대학 소재 지역

대학 소재 지역은 서울 지역과 서울 수도권 근접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과 그 외 지역으로 나누었다.

2 현황 조사

가. 현황 조사 개요

먼저 현황 조사 대학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4년제 대학 중, 현황조사에 응답한 대학은 63개 대학으로 전체 30%에 불과하다. 설립 유형이나 대학규모, 지역별 응답 대학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IV-3〉 현황 조사 대학의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설립유형	①국공립대	12	19.05
	②사립대	51	80.95
대학규모	①5천명 미만	19	30.16
	②5천명 이상~1만명 미만	20	31.75
	③1만명 이상~2만명 미만	14	22.22
	④2만명 이상	10	15.87
지역	①수도권	17	26.98
	②그 외 지역	46	73.02

이를 한국 대학의 국제화 현황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므로 현황 분석은 설립유형과 대학규모, 지역에 따라 어떤 특징이 있는지 대략적인 개요만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한다.

나. 항목별 대학 국제화 현황

1) 목표 및 전략

먼저 대학 차원에서 국제화를 위한 구체화된 단기 및 중장기 계획, 혹은 실천 전략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었다. 조사 응답 대학의 약 60%가 국제화 목표를 수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보다 국공립대가 국제화 목표를 수립하고 있었으며, 수도권의 대학 규모가 큰 대학들이 구체적인 국제화 목표를 수립하고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대학 규모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4〉 시기별 국제화 목표

구분		시기별 국제화 목표 유무		Total	유의확률
		있음	없음		
설립유형	①국공립대	9 (75.00)	3 (25.00)	12 (100)	0,210
	②사립대	28 (54.90)	23 (45.10)	51 (100)	
	Total	37 (58.73)	26 (41.27)	63 (100)	
대학규모	①5천명 미만	3 (15.79)	16 (84.21)	19 (100)	0.000***
	②5천명 이상~1만명 미만	17 (85.00)	3 (15.00)	20 (100)	
	③1만명 이상~2만명 미만	9 (64.29)	5 (35.71)	14 (100)	
	④2만명 이상	8 (80.00)	2 (20.00)	10 (100)	
	Total	37 (58.73)	26 (41.27)	63 (100)	
지역	①수도권	12 (70.59)	5 (29.41)	17 (100)	0,252
	②그 외 지역	25 (54.35)	21 (45.65)	46 (100)	
	Total	37 (58.73)	3 (15.00)	20 (100)	

***p<.001, **p<.01, *p<.05

구체적인 목표 내용을 보면, 주로 유학생 유치 및 해외 파견, 자매대학 등과의 해외 교류가 가장 많으며 한국어나 외국어 교육 강화를 목표로 내거는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5〉 시기별 국제화 목표

대학명	시기별	목표
KS대학	단기	미주권 유학생 수 확대, 해외 언론 보도를 통한 이미지 제고
	중장기	Vision 2025
KW대학	중장기	어학연수 확대 및 해외 거점 확보,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관리 강화, 자매대학 국제교류 활동 내실화 및 활성화
KH대학	단기	국제교류 프로그램 개발, 외국인 교원과 학생지원 프로그램,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 Global Eminence
	중장기	캠퍼스 글로벌 문화 구축
TH대학	단기	국제화 기반 조성
	중장기	국제화 교육의 강화, 국제화 프로그램의 확대 및 활성화
HB대학	단기	외국어능력 향상
	중장기	외국어기초능력 향상

2) 국제화 관련 조직

이러한 국제화 관련 계획의 실행을 위해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는 국제교류 전담기구 설치 유무 및 형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국제교류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있다는 대학은 전체의 81%에 해당하는 51개 대학이었다. 국제교류 전담기구는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규모가 큰 대학들이 대부분 설치하고 있었다. 설치형태를 보면, 재학생 규모가 큰 대학의 대부분이 본부 내 계선조직의 형태로 국제교류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있었으며(30개 대학), 부속기관의 형태로 국제교류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있는 대학은 30%에 해당하는 15개 대학이었다(표 생략). 이 외에도 국제학생지원센터 내 계선조직(KAIST), 국제외국어교육원(동의대), 대외협력처 내 국제교류과(중부대), 국제교류원(충북대), 국제개발협력대학원(국립한경대) 등, 다양한 조직 형태로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표 IV-6〉 국제교류 전담기구

구분		국제교류 전담기구 유무		Total	유의확률
		있음	없음		
설립유형	①국공립대	11 (91.67)	1 (8.33)	12 (100)	0.301
	②사립대	40 (78.43)	11 (21.57)	51 (100)	
	Total	51 (80.95)	12 (19.05)	63 (100)	
대학규모	①5천명 미만	11 (57.89)	8 (42.11)	19 (100)	0.013*
	②5천명 이상~1만명 미만	17 (85.00)	3 (15.00)	20 (100)	
	③1만명 이상~2만명 미만	13 (92.86)	1 (7.14)	14 (100)	
	④2만명 이상	10 (100)	0 (0)	10 (100)	
	Total	51 (80.95)	12 (19.05)	63 (100)	
지역	①수도권	11 (64.71)	6 (35.29)	17 (100)	0.046*
	②그 외 지역	40 (86.96)	6 (13.04)	46 (100)	
	Total	51 (80.95)	12 (19.05)	63 (100)	

***p<.001, **p<.01, *p<.05

3) 인프라

① 유학생 기숙사

외국인 구성원 기숙사 수용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유학생 기숙사 운영에 대해 알아보았다. 전체 82.5%에 해당하는 52개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운영은 설립유형이나 대학규모, 지역과 전혀 별개로 대학의 역량에 따라 운영되고 있었다.

〈표 IV-7〉 외국인 기숙사 유무

구분		기숙사 유무		Total	유의확률
		있음	없음		
설립유형	①국공립대	10 (83.33)	2 (16.67)	12 (100)	0.937
	②사립대	42 (83.35)	9 (17.65)	51 (100)	
	Total	52 (82.54)	11 (17.46)	63 (100)	
대학규모	①5천명 미만	13 (68.42)	6 (31.58)	19 (100)	0.120
	②5천명 이상~1만명 미만	16 (80.00)	4 (20.00)	20 (100)	
	③1만명 이상~2만명 미만	13 (92.86)	1 (7.14)	14 (100)	
	④2만명 이상	10 (100)	0 (0)	10 (100)	
	Total	52 (82.54)	11 (17.46)	63 (100)	
지역	①수도권	13 (76.47)	4 (23.53)	17 (100)	0.448
	②그 외 지역	39 (84.78)	7 (15.22)	46 (100)	
	Total	52 (82.54)	11 (17.46)	63 (100)	

***p<.001, **p<.01, *p<.05

② 외국인 교수 주거지원 여부

외국인 교수 주거지원 여부를 조사한 결과, 70% 정도의 대학들이 외국인 교수 주거를 지원하고 있었다. 지역과 규모의 경우 유의미한 통계치가 나타나, 서울지역의 대규모 대학일수록 외국인 교수를 위한 주거를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8〉 외국인 교수 주거지원 여부

구분		외국어 교수 주거지원 여부		Total	유의확률
		있음	없음		
설립유형	①국공립대	11 (91.67)	1 (8.33)	12 (100)	0.087
	②사립대	34 (66.67)	17 (33.33)	51 (100)	
	Total	45 (71.43)	18 (28.57)	63 (100)	
대학규모	①5천명 미만	8 (42.11)	11 (57.89)	19 (100)	0.003**
	②5천명 이상~1만명 미만	15 (75.00)	5 (25.00)	20 (100)	
	③1만명 이상~2만명 미만	13 (92.86)	1 (7.14)	14 (100)	
	④2만명 이상	9 (90.00)	1 (10.00)	10 (100)	
	Total	45 (71.43)	18 (28.57)	63 (100)	
지역	①수도권	9 (52.94)	8 (47.06)	17 (100)	0.049*
	②그 외 지역	36 (78.26)	10 (21.74)	46 (100.00)	
	Total	45 (71.43)	18 (28.57)	63 (100)	

***p<.001, **p<.01, *p<.05

③ 네트워크 1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가입한 국제교류 관련 협회나 협의체에 대해 물었다. 조사에 응답한 대학의 60% 정도만이 국제교류 관련 협회나 협의체에 가입하고 있었다. 가장 많이 가입되어 있는 단체는 KAFSA로 총 응답 대학의 90% 이상이 가입하고 있었으며, KAIE가 그 뒤를 이어 국내 국제교류협회에 주로 가입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국제적인 교류협력 단체인 NAFSA, EAIE, APAIE, AAIE, IIE, JAFSA 등의 국제교류협의체 이외에도 KADIA, SAF, ISEP, IAUP, ACUCA 등은 물론 국내 권역별로 지역대학 국제교류 관리자 협의회 등을 통해 국제화 추진을 꾀하고 있었다.

〈표 IV-9〉 국제교류 협회 및 협의체 가입 순위(복수응답)

협회 및 협의체명	빈도(총 응답수 31)	순위
KAFSA	28/31	1
KAIE	24/31	2
NAFSA	10/31	3
EAIE	7/31	4
APAIE	7/31	5
QSAPPIE	3/31	6
JAFSA	3/31	7
IIE	1/31	8

〈표 IV-10〉 국제교류 협회 및 협의체 가입 현황

구분		국제교류 협회 및 협의체 가입		Total	유의확률
		있음	없음		
설립유형	①국공립대	7 (58.33)	5 (41.67)	12 (100)	0.958
	②사립대	29 (59.18)	20 (40.82)	49 (100)	
	Total	36 (59.02)	25 (40.98)	61 (100)	
대학규모	①5천명 미만	5 (26.32)	14 (73.68)	19 (100)	0.000***
	②5천명 이상~1만명 미만	10 (52.63)	9 (47.37)	19 (100)	
	③1만명 이상~2만명 미만	12 (85.71)	2 (14.29)	14 (100)	
	④2만명 이상	9 (100)	0 (0)	9 (100)	
	Total	36 (59.02)	25 (40.98)	61 (100)	
지역	①수도권	8 (53.33)	7 (46.67)	15 (100)	0.613
	②그 외 지역	28 (60.87)	18 (39.13)	46 (100)	
	Total	36 (59.02)	25 (40.98)	61 (100)	

***p<.001, **p<.01, *p<.05

이를 설립유형, 대학규모,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학규모가 클수록 많은 국제교류 협력 단체에 가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네트워크 2

국제협력 이외에 실제로 각 대학별 국제교류 협력 협정 체결 동향을 조사하였다. 63개 조사 응답 대학 모두가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의 북미와 국제교류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있었으며 62개 대학이 아시아, 61개 대학은 오세니아, 57개 대학이 중남미, 아프리카 소재 대학들과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거의 대부분 대학 수준에서 협정을 체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체결대학 수를 보면 아시아 지역에서 2,705 대학, 북미가 935 대학, 유럽이 804 대학으로 가장 많은 대학들이 체결한 대학 소재 지역은 아시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11〉 대학별 국제교류 협력 협정 체결 동향

구분		아시아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설립유형	①국공립대	12 (19.35)	12 (19.05)	12 (21.05)	12 (21.05)	12 (19.05)	12 (19.67)
	②사립대	50 (80.65)	51 (80.95)	45 (78.95)	45 (78.95)	51 (80.95)	49 (80.33)
대학규모	①5천명 미만	18 (29.03)	19 (30.16)	16 (28.07)	16 (28.07)	19 (30.16)	18 (29.51)
	②5천명 이상~1만명 미만	20 (32.26)	20 (31.75)	19 (33.33)	19 (33.33)	20 (31.75)	19 (31.15)
	③1만명 이상~2만명 미만	14 (22.58)	14 (22.22)	14 (24.56)	14 (24.56)	14 (22.22)	14 (22.95)
	④2만명 이상	10 (16.13)	10 (15.87)	8 (14.04)	8 (14.04)	10 (15.87)	10 (16.39)
지역	①수도권	17 (27.42)	17 (26.98)	14 (24.56)	14 (24.56)	17 (26.98)	17 (27.87)
	②그 외 지역	45 (72.58)	46 (73.02)	43 (75.44)	43 (75.44)	46 (73.02)	44 (72.13)
Total		62 (100)	63 (100)	57 (100)	57 (100)	63 (100)	61 (100)

***p<.001, **p<.01, *p<.05

〈표 IV-12〉 체결 대학 수 동향

구분		아시아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Total
설립유형	①국공립대	879	435	19	21	46	60	1,460
	②사립대	1,826	500	54	33	358	77	2,848
대학규모	①5천명 미만	183	25	0	0	4	3	215
	②5천명 이상~1만명 미만	710	143	8	17	115	35	1,028
	③1만명 이상~2만명 미만	797	234	21	12	145	22	1,231
	④2만명 이상	1,015	533	44	25	540	77	2,234
지역	①수도권	937	513	45	30	514	71	2,110
	②그 외 지역	1,768	422	28	24	290	66	2,598
Total		2,705	935	73	54	804	137	4,708

4) 학습프로그램

① 한국어 연수

먼저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유무를 보면, 이 역시 대학규모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70%에 해당하는 44개 대학이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설립유형이나 지역과는 상관이 없었으나 대학 규모가 큰 학교들이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을 규모가 작은 학교에 비해 한국어 연수에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13〉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유무

구분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유무		Total	유의확률
		있음	없음		
설립유형	①국공립대	10 (58.82)	2 (16.67)	12 (100)	0.264
	②사립대	34 (66.67)	17 (33.33)	51 (100)	
	Total	44 (69.84)	19 (30.16)	63 (100)	
대학규모	①5천명 미만	4 (21.05)	15 (78.95)	19 (100)	0.000***
	②5천명 이상~1만명 미만	17 (85.00)	3 (15.00)	20 (100)	
	③1만명 이상~2만명 미만	13 (92.86)	1 (7.14)	14 (100)	

구분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유무		Total	유의확률
		있음	없음		
	④2만명 이상	10 (100)	0 (0)	10 (100)	
	Total	44 (69.84)	19 (30.16)	63 (100)	
지역	①수도권	10 (58.82)	7 (41.18)	17 (100)	0.253
	②그 외 지역	34 (73.91)	12 (26.09)	46 (100)	
	Total	44 (69.84)	19 (30.16)	63 (100)	

***p<.001, **p<.01, *p<.05

② 국제화 프로그램

외국인 학생 또는 외국인 교수가 참여하고 있는 학내 국제화 프로그램을 보면, 많은 대학들이 국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멘토-멘티 등의 상담 프로그램과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적응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IV-14〉 학내 국제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예시)

대학명	프로그램명	외국인 구성원의 활동 내역
KS 대학	1. Mentor Program	외국 신입 학생과 같은 국적 혹은 유사 문화 국적의 재학생과 연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2. Buddy Program	외국 신입 학생과 한국 재학생을 연결하여 사교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3. 언어교환프로그램	배우고자 하는 언어가 있는 학생과, 그 언어를 모국어로 하거나 능숙한 학생을 연결하는 프로그램
	4. KAIST ONE	자국에 대한 발표 후 그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행사
	5. Saturday Movie Night	각 나라의 대표적인 영화를 감상함으로써 그 나라에 대한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
	6. Art Class	외국 학생, 교원은 물론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미술 교실
	7. 한국어 교실	외국 학생, 교원은 물론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한국어 교실
	8. International Food & Culture Festival	다양한 국가의 대표 요리들을 맛볼 수 있고, 여러 국가들의 전통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행사 (년 1회)
KW 대학	1. 글로벌 써포터즈	외국인 학생 입학 및 학업상담, 체류지원
	2. 가족 멘토링	외국인 학생과 지역주민 가족 연결 문화교류 프로그램
	3. 글로벌 멘토링	외국인-한국인, 외국인-외국인 간 전공 및 어학 학습
KH 대학	1. GC Summer program	Summer Program 강의
	2. 문화 연수단	외국인 학생만을 위한 해외 영어 및 문화 연수 실시
	3. 해외봉사단	사회적 책임과 지구적 존엄의 실천을 위한 해외봉사단 파견 실시

대학명	프로그램명	외국인 구성원의 활동 내역
	4. 한국어 도우미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어 공부를 도와주고 한국 생활과 문화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움 제공
	5. 한중일 캠퍼스 하모니 대회	한국의 대학생들과 한국에서 유학중인 일본, 중국 대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UCC와 Presentation으로 팀별 경연을 펼치는 행사
SN 대학	1. 글로벌라운지 (국제협력본부)	국제협력본부 1층에 글로벌라운지 운영, 교내 외국인학생들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세계 방송 및 신문, 잡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어로 작성된 한국문화 프로그램 홍보를 접할 수 있음.
	2. 외국인 교수 사랑방 (국제협력본부)	국제협력본부 1층에 외국인교수 사랑방을 운영, 교내 외국인 교수들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이용 가능함.
	3. 외국인 교원을 위한 한국어 강의 (국제협력본부)	매학기 국제협력본부에서 지원하여 교수아파트에서 진행하는 한국어 강의로 교내 모든 외국인 교원 참여 가능.
	4. SMP(School life Mentoring Program) (학사과)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신입생을 멘토로 서울대 재학생 선배를 멘토로 짝을 지어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프로그램.
	5. 한국어 단기 연수과정 도우미 (언어교육원)	한국어 학습 도와주기 및 한국문화 설명해주기 등의 활동뿐만 아니라 한국 및 서울대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6. Buddy Program	외국인 교환학생대상 문화 활동(템플스테이, 한옥마을체험 등)
CH 대학	1. 교환학생 도우미	1학기 한국 문화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보조
	2. 국제여름학교 도우미	3주간 한국 문화 체험 보조
	3. 유학생 도우미	1학기 한국 문화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보조
	4. 민간봉사위원	1학기 한국어 및 한국문화적응을 위한 보조

③ 외국어 전용 강좌

학부 수준에서 외국어 전용 강좌 비율이 전체 강좌의 5% 이상인 대학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 다음 표이다. 전체 강좌 수가 작은 소규모 대학에 해당하는 루터대학, 삼육대학, 대구가톨릭대학, 한남대학, 인제대학에서 비율이 높으며, 대규모 대학에서 외국어 전용 강좌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KAIST, 경희대, 서울대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15〉 외국어 전용 강좌 비율 5% 이상인 대학: 학부

순위	학교명	외국어 전용 강좌 비율	외국어 전용 강좌 수	전체 강좌 수
1	KAIST	75.93	776	1,022
2	경희대학교(서울)	28.72	1,107	3,854
3	경희대학교(국제)	24.17	1,044	4,319
4	루터대학교	15.22	30	197
5	인제대학교	15.00	679	4,515

순위	학교명	외국어 전용 강좌 비율	외국어 전용 강좌 수	전체 강좌 수
6	서울대학교	11.80	729	6,185
7	삼육대학교	7.80	346	4,427
8	대구가톨릭대학교	7.66	438	5,715
9	한남대학교	5.56	465	8,352

대학원 석사과정에서는 외국어 전용 강좌 수가 가장 많은 대학은 경희대학교였으며 서울대학교가 59개, 삼육대학교 25개, 국립한경대학교가 23개였다. 대학원 박사과정의 외국어 전용강좌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KAIST(58%), 서울대(14.1%), 인제대(13.8%), 경희대(6.0%), 국립한경대(6.0%)의 순이었다.

〈표 IV-16〉 외국어 전용 강좌 비율 5% 이상인 대학: 석사과정

순위	학교명	외국어 전용 강좌 비율	외국어 전용 강좌 수	전체 강좌 수
1	삼육대학교	9.73	25	257
2	경희대학교(서울)	9.6	119	1,239
3	서울대학교	7.0	59	841
4	경희대학교(국제)	6.0	358	2,319
5	국립한경대학교	5.6	23	404

〈표 IV-17〉 외국어 전용 강좌 비율 5% 이상인 대학: 박사과정

순위	학교명	외국어 전용 강좌 비율	외국어 전용 강좌 수	전체 강좌 수
1	KAIST	57.99	617	1,064
2	서울대학교	14.1	30	213
3	인제대학교	13.8	124	896
4	국립한경대학교	6.0	5	82
5	경희대학교(국제)	6.0	358	157
6	대구가톨릭대학교	5.21	18	345

④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나아가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의 경우에는 하나라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 적었다. 전체 14개의 대학만이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고 있었다. 다음 표를 통해 국

공립대와 대학규모가 큰 대학이 사립대학이나 대학규모가 작은 대학보다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18〉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실적

구분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실적		Total	유의확률
		있음	없음		
설립유형	①국공립대	6 (50)	6 (50)	12 (100)	0.010*
	②사립대	8 (16)	42 (84)	50 (100)	
	Total	14 (22,58)	48 (77,42)	62 (100.)	
대학규모	①5천명 미만	1 (5,26)	18 (94,74)	19 (100)	0.002**
	②5천명 이상~1만명 미만	4 (20)	16 (80)	20 (100.)	
	③1만명 이상~2만명 미만	3 (21,43)	11 (78,57)	14 (100)	
	④2만명 이상	6 (66,67)	3 (33,33)	9 (100)	
	Total	14 (22,58)	48 (77,42)	62 (100)	
지역	①수도권	2 (12,5)	14 (87,5)	16 (100)	0.270
	②그 외 지역	12 (26,09)	34 (73,91)	46 (100)	
	Total	14 (22,58)	48 (77,42)	62 (100)	

***p<.001, **p<.01, *p<.05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의 사례를 예시로 제시하였다. 각 대학의 지역적 위치와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동학위 과정보다는 복수학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음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IV-19〉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현황(예시)

대학명	학위 종류	학위 구분	학과(부)	협약대상		참여 학생수	시기
				국가명	대학명		
KS대학	석사	복수	소프트웨어 대학원	미국	카네기멜론	83	2003~
KW대학	학사	복수	무역학과	중국	연변대학	12	2007
	학사	복수	회계학과	중국	연변대학	1	2007
	학사	복수	경영학과	중국	연변대학	9	2007
	학사	복수	경제학과	중국	연변대학	5	2008
	학사	복수	국어국문학과	중국	북화대학	14	2012
	학사	복수	스포츠과학부	중국	연변대학	1	2012
	학사	복수	체육학과	중국	북화대학	1	2013
	학사	복수	지역경제학과	중국	길림대학	13	2009
	학사	복수	지역경제학과	중국	연변대학	19	2011
	학사	복수	식품영양학과	미국	동부테네시주립	3	2012
	학사	복수	방사선학과	미국	동부테네시주	3	2012
	학사	복수	치위생학과	미국	동부테네시주립	2	2012
TH대학	학사	복수	중어중국학부	중국	사천사범대	3	2006
	학사	복수	중어중국학부	중국	사천사범대	1	2007
	학사	복수	중어중국학부	중국	사천사범대	3	2008
	학사	복수	화장품약리학과	미국	이스턴켄터키대학	1	2008
	학사	복수	중국어전공	중국	사천사범대	1	2009
	학사	복수	한약재생산가공학과	미국	이스턴켄터키대학	1	2009
	학사	복수	중국어전공	중국	사천사범대	3	2010
	학사	복수	중국어전공	중국	사천사범대	2	2011
	학사	복수	중어중국학부	중국	중국해양대	2	2012
	학사	복수	중어중국학부	중국	사천사범대	4	2013
SN대학	석사	복수	외교학과	영국	서리대		2012
	석사	복수	경영학과	미국	듀크대	11	2003
	석사	복수	경영학과	프랑스	ESSEC		2004
	박사	복수	자연대학	프랑스	파리11대	1	2005
	박사	복수	자연대학	미국	조지메이슨대		2007
	박사	공동	자연대학	독일	마인츠대	10	2008
	박사	복수	자연대학	스웨덴	차머스공대		2011
	박사	복수	자연대학	프랑스	피에르마리퀴리	1	2012
	석사	복수	공과대학	프랑스	생떼쉴리에폴데민대	17	2012
	석사	복수	공과대학	프랑스	INSA	2	2007
	석사	복수	공과대학	프랑스	n+i	2	2009

대학명	학위 종류	학위 구분	학과(부)	협약대상		참여 학생수	시기
				국가명	대학명		
	학사	복수	공과대학	미국	조지아공대		2009
	석사	복수	공과대학	미국	조지아공대		2009
	박사	공동	공과대학	미국	조지아공대		2009
	석사	복수	공과대학	일본	홋카이도대		2011
	박사	복수	공과대학	일본	홋카이도대		2011
	석사	복수	공과대학	몽골	몽골과기대		2012
	박사	복수	공과대학	몽골	몽골과기대		2012
	박사	복수	농생대학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1	2007
	석사	복수	사범대학	캐나다	앨버타대		2011
	박사	복수	사범대학	캐나다	앨버타대		2011
	박사	복수	사범대학	프랑스	그로노블대	1	2011
	석사	복수	국제대학원	프랑스	ESSEC	28	2002
	석사	복수	국제대학원	일본	동경대	5	2012
	석사	복수	경영전문대학원	프랑스	ESSEC	4	2008
	석사	복수	경영전문대학원	중국	북경대	8	2008
CH대학	학사	복수	전체대상	중국	연변대	91	2006
	학사	복수	전체대상	몽골	몽골국립대		2008
	학사석사	복수	전체대상	호주	플린더스대		2008
	학사	복수	간호학과	호주	플린더스대		2009
	학사	복수	전체대상	미국	일리노이공대	14	2004
	학사	복수	약학대학	중국	심양약학대		2006
	학사	복수	화학과	미국	휴스턴대	1	2009
	학사	복수	전체대상	중국	산둥대	2	2005
	학사	복수	전체대상	미국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	65	2006
	학사	복수	전체대상	미국	노스다코타주립대	16	2008
	석사	복수	경제학과	미국	노스다코타주립대	1	2008
	박사	복수	수의학과	이탈리아	피사대	2	2010
	학사	복수	전체대상	캐나다	위니펙대		2010
	학사	복수	전체대상	미국	솔리퍼리락대		2011
	학사	복수	전체대상	미국	오쉬코쉬 위스콘신대		2011
	학사석사	복수	전체대상	미국	포트헤이즈주립대		2011
	학사석사	복수	전체대상	미국	이스턴일리노이대	3	2011
	학사	복수	전체대상	미국	서던아칸사스대		2011
	학사	복수	전체대상	미국	노스앨라배마대		2012

⑤ 해외 인턴십

해외 인턴십 현황을 보면, 약 60개의 대학이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이나 지역 소재지는 유의미하지 않으나 대학규모에 따라 해외 인턴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대학 규모가 클수록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표 IV-20〉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실시 여부

구분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실시 여부		Total	유의확률
		있음	없음		
설립유형	①국공립대	8 (66.67)	4 (33.33)	12 (10)	0.308
	②사립대	24 (50)	24 (50)	48 (100)	
	Total	32 (53.33)	28 (46.67)	60 (100)	
대학규모	①5천명 미만	4 (22.22)	14 (77.78)	18 (100)	0.008**
	②5천명 이상~1만명 미만	11 (57.89)	8 (42.11)	19 (100)	
	③1만명 이상~2만명 미만	10 (71.43)	4 (28.57)	14 (100)	
	④2만명 이상	7 (77.78)	2 (22.22)	9 (100)	
	Total	32 (53.33)	28 (46.67)	60 (100)	
지역	①수도권	7 (43.75)	9 (56.25)	16 (100)	0.378
	②그 외 지역	25 (56.82)	19 (43.18)	44 (100)	
	Total	32 (53.33)	28 (46.67)	60 (100)	

***p<.001, **p<.01, *p<.05

구체적으로 해외 인턴십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응답대학이 평균 약 20명을 해외에 인턴십으로 보내고 파견 국가는 3.28이나, 프로그램 수의 평균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IV-21〉 해외 인턴십 운영 현황

구분	응답대학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프로그램 수	57	0.75	1.21	0	7
파견 인원	57	19.77	41.92	0	253
파견 국가 수	57	3.28	5.14	0	23

〈표 IV-22〉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사례

대학명	프로그램명	파견 인원(명)	파견 국가수
KW대학	국외 인턴십	73	15
KS대학	해외 취업 인턴십	48	12
KH대학	KOTRA 해외 인턴십	49	20
	글로벌 현장학습 -호주	6	1
	해외기업실무인턴십-캐나다	7	1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	3	1
	UN/국제기구 인턴십	10	5
	네오르네상스 인턴십 장학	13	9
	‘교육역량 지원사업’ 국제기구 인턴십	10	5
	해외 인턴십	10	1
	해외 인턴십	8	1
	해외 인턴십	5	1
	해외 인턴십	3	1
SL대학	부산시 해외인턴 취업지원사업	253	12
UG대학	을지 글로벌 체험 프로그램	105	14
IJ대학	2013년 해외 인턴십	150	3
CH대학	해외 농업기술개발센터 파견 인재 사업	6	5
	제10기 WEST	1	1
	해외(무급) 인턴십	25	1
	해외 현장 실습	3	3

⑥ 분교 설립

국내 대학의 해외 분교 설립의 경우 실적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대진대 하나였으며, 우수연구소는 강원대가 미국의 스크립스 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소를, 고려사이버대학이 케어기빙을 전문으로 하는 미국의 RCI-Korea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3〉 우수 외국연구소 유치 현황

대학명	연구소명	국가명	기관명	연구 분야	연구소 설치시기
KW대	스크립스 연구소	미국	한국 스크립스 항체연구소 (SKAI)	항체 연구 개발 인재 양성, Global Networking 등	2009.07
KR대	RCI (Rosalynn Carter Institute for Caregiving)	미국	RCI-KOREA	케어기빙	2009.09

3 인식 조사

가. 인식 조사 개요

인식조사를 통해 모드별 국제화 활동 인식을 분석하였다. 국제화 관련 인식 조사에는, 전체 4년제 대학 중, 89개 대학에서 138명이 참여하였다. 설립 유형이나 대학규모, 지역별 응답 대학 현황은 다음 〈표 IV-24〉와 같으며 응답자 특성은 〈표 IV-25〉와 같다.

〈표 IV-24〉 조사 대학의 특성(총 138명)

구분		빈도(명)	비율(%)
설립유형	①국공립대	30	21.74
	②사립대	108	78.26
대학규모	①5천명 미만	28	20.29
	②5천명 이상~1만명 미만	43	31.6
	③1만명 이상~2만명 미만	24	17.39
	④2만명 이상	43	31.16
지역	①수도권	47	34.06
	②그 외 지역	91	65.94

〈표 IV-25〉 응답자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①남	70	50.72
	②여	68	49.28
연령	①30세 미만	35	25.36
	②30세 이상~40세 미만	59	42.75
	③40세 이상~50세 미만	35	25.36
	④50세 이상	9	6.52
직위	①교수	7	5.07
	②직원	131	94.93
국제화 관련 업무 경력	①1년 미만	46	33.33
	②1년 이상~4년 미만	49	35.51
	③4년 이상~5년 미만	11	7.97
	④5년 이상	32	23.19
총 응답자 수		138명	

나. 항목별 대학 국제화 인식

1) Mode 1: 교육과정/프로그램 협력

이러닝이나 외국과의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같은 모드 1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 중시하여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균값을 살펴보았다. 해외유학을 졸업이나 수료 요건으로 하는 교육과정의 경우 평균값이 매우 낮았으나 3개월~1년의 단기 해외유학 프로그램이나, 해외대학에서의 어학·다문화 연수 프로그램 등과 같이 방학 중, 혹은 단기간의 해외 경험 활동은 실제 대학에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중시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IV-26〉 해외유학을 졸업·수료 요건으로 하는 교육과정의 설치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t)
설립유형	①국공립대	30	1,500	0,820	4.67*
	②사립대	108	1,972	1,115	
대학규모	①5천명 미만	28	1,464	0,793	1.93
	②5천명 이상~1만명 미만	43	2,070	1,203	
	③1만명 이상~2만명 미만	24	1,958	1,160	
	④2만명 이상	43	1,884	1,005	
지역	①수도권	47	1,787	0,999	0.42
	②그 외 지역	91	1,912	1,112	

***p<.001, **p<.01, *p<.05

〈표 IV-27〉 3개월~1년의 단기 해외유학 프로그램 설치(어학이나 다문화 연수 제외)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t)
설립유형	①국공립대	30	3,433	0,817	4.52*
	②사립대	108	2,991	1,055	
대학규모	①5천명 미만	28	1,964	1,105	21.87***
	②5천명 이상~1만명 미만	43	3,302	0,939	
	③1만명 이상~2만명 미만	24	3,167	0,816	
	④2만명 이상	43	3,558	0,502	
지역	①수도권	47	2,979	1,151	0.80
	②그 외 지역	91	3,143	0,950	

***p<.001, **p<.01, *p<.05

〈표 IV-28〉 해외대학에서의 어학·다문화 연수 프로그램(방학 중 프로그램 등)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t)
설립유형	①국공립대	30	3,300	0,651	1.38
	②사립대	108	3,083	0,948	
대학규모	①5천명 미만	28	2,214	1,031	16.77***
	②5천명 이상~1만명 미만	43	3,419	0,731	
	③1만명 이상~2만명 미만	24	3,250	0,676	
	④2만명 이상	43	3,372	0,655	
지역	①수도권	47	3,106	1,005	0.05
	②그 외 지역	91	3,143	0,838	

***p<.001, **p<.01, *p<.05

〈표 IV-29〉 해외 탐방 프로그램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t)
설립유형	①국공립대	30	3,167	0,592	3.13
	②사립대	108	2,815	1,043	
대학규모	①5천명 미만	28	2,250	1,110	6.39***
	②5천명 이상~1만명 미만	43	2,977	1,012	
	③1만명 이상~2만명 미만	24	2,917	0,974	
	④2만명 이상	43	3,209	0,600	
지역	①수도권	47	2,851	1,021	0.12
	②그 외 지역	91	2,912	0,950	

***p<.001, **p<.01, *p<.05

해외 대학과의 공동학위 과정이나 복수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제도적인 활동에 대한 각각의 평균 값은 2.073과 2.891로 나타났다. 공동학위 과정보다는 복수학위 과정을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더 중시하고 있는 정도라 할 수 있다.

〈표 IV-30〉 해외 대학과의 공동학위 과정 운영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t)
설립유형	①국공립대	30	1,933	1,143	1.73
	②사립대	108	2,213	0,996	
대학규모	①5천명 미만	28	1,857	0,848	2.55
	②5천명 이상~1만명 미만	43	2,070	1,033	
	③1만명 이상~2만명 미만	24	2,042	0,999	
	④2만명 이상	43	2,488	1,099	
지역	①수도권	47	2,021	1,011	1.15
	②그 외 지역	91	2,220	1,041	

***p<.001, **p<.01, *p<.05

〈표 IV-31〉 해외 대학과의 복수학위 과정 운영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t)
설립유형	①국공립대	30	3,133	0,860	5.61*
	②사립대	108	2,648	1,026	
대학규모	①5천명 미만	28	1,964	0,922	12.44***
	②5천명 이상~1만명 미만	43	2,651	1,044	
	③1만명 이상~2만명 미만	24	2,917	0,830	
	④2만명 이상	43	3,279	0,766	
지역	①수도권	47	2,468	1,080	5.91*
	②그 외 지역	91	2,901	0,943	

***p<.001, **p<.01, *p<.05

그리고 이러한 교육과정 연계 운영을 위해 해외 협정 대학의 학점제도나 성적평가제도, 나아가 교육내용을 파악하는 활동에 대한 평균 점수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의 실시나 중시도에 비해 높았다. 모든 항목에서 평균 점수가 3을 넘어 현재 실시하고 있거나, 특히 중시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2〉 해외 협정 대학의 학점제도 파악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t)
설립유형	①국공립대	30	3,167	0,461	2.35
	②사립대	108	2,935	0,789	
대학규모	①5천명 미만	28	2,286	0,937	13.90***
	②5천명 이상~1만명 미만	43	3,093	0,570	
	③1만명 이상~2만명 미만	24	3,208	0,588	
	④2만명 이상	43	3,209	0,514	
지역	①수도권	47	2,957	0,751	0.10
	②그 외 지역	91	3,000	0,730	

***p<.001, **p<.01, *p<.05

〈표 IV-33〉 해외 협정 대학의 성적평가 제도 파악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t)
설립유형	①국공립대	30	3,000	0,830	0,84
	②사립대	108	2,843	0,833	
대학규모	①5천명 미만	28	2,179	0,983	10,56***
	②5천명 이상~1만명 미만	43	2,953	0,688	
	③1만명 이상~2만명 미만	24	3,208	0,588	
	④2만명 이상	43	3,070	0,737	
지역	①수도권	47	2,979	0,766	1,07
	②그 외 지역	91	2,824	0,864	

***p<.001, **p<.01, *p<.05

〈표 IV-34〉 해외 협정 대학의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파악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t)
설립유형	①국공립대	30	3,100	0,662	1,36
	②사립대	108	2,917	0,787	
대학규모	①5천명 미만	28	2,143	0,932	18,44***
	②5천명 이상~1만명 미만	43	3,140	0,560	
	③1만명 이상~2만명 미만	24	3,167	0,565	
	④2만명 이상	43	3,186	0,546	
지역	①수도권	47	3,000	0,752	0,23
	②그 외 지역	91	2,934	0,772	

***p<.001, **p<.01, *p<.05

그러나 해외 협정 대학의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파악, 혹은 해외 대학의 학점제도나 성적제도의 파악과 같이 모드 1의 국제화를 위해 준비하는 경우에 비해 실제 e-learning을 통한 해외 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은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표 IV-35〉 e-learning을 통한 해외 교육프로그램의 제공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t)
설립유형	①국공립대	30	2,467	1,008	0,32
	②사립대	108	2,352	0,979	
대학규모	①5천명 미만	28	1,893	0,994	5,37**
	②5천명 이상~1만명 미만	43	2,302	0,914	
	③1만명 이상~2만명 미만	24	2,333	0,963	
	④2만명 이상	43	2,791	0,914	
지역	①수도권	47	2,362	1,031	0,02
	②그 외 지역	91	2,385	0,963	

***p<.001, **p<.01, *p<.05

향후 교육과정 개선을 통한 학위의 국제 통용성 확대와 외국 대학과의 공동학위(복수학위)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모드 1에 대한 고등교육 서비스의 글로벌화에 대한 평균 점수는 3점 정도로,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IV-36〉 국제 통용성 확대 필요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t)
설립유형	①국공립대	30	3,000	0,695	0,21
	②사립대	108	3,065	0,687	
대학규모	①5천명 미만	28	3,143	0,705	1,28
	②5천명 이상~1만명 미만	43	2,884	0,697	
	③1만명 이상~2만명 미만	24	3,083	0,654	
	④2만명 이상	43	3,140	0,675	
지역	①수도권	47	3,000	0,692	0,39
	②그 외 지역	91	3,077	0,687	

***p<.001, **p<.01, *p<.05

〈표 IV-37〉 외국 대학과의 공동학위(복수학위) 확대 필요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t)
설립유형	①국공립대	30	3,033	0,669	0.01
	②사립대	108	3,046	0,661	
대학규모	①5천명 미만	28	3,143	0,591	0.40
	②5천명 이상~1만명 미만	43	2,977	0,672	
	③1만명 이상~2만명 미만	24	3,083	0,654	
	④2만명 이상	43	3,023	0,707	
지역	①수도권	47	2,957	0,690	1.21
	②그 외 지역	91	3,088	0,644	

***p<.001, **p<.01, *p<.05

〈표 IV-38〉 e-learning 등과 같은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필요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t)
설립유형	①국공립대	30	3,167	0,592	1.35
	②사립대	108	2,991	0,767	
대학규모	①5천명 미만	28	3,107	0,685	0.47
	②5천명 이상~1만명 미만	43	2,977	0,801	
	③1만명 이상~2만명 미만	24	2,917	0,717	
	④2만명 이상	43	3,093	0,718	
지역	①수도권	47	3,064	0,704	0.16
	②그 외 지역	91	3,011	0,753	

***p<.001, **p<.01, *p<.05

2) Mode 2: 해외 유학 및 해외 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또는 국내 학생의 해외 파견에 해당하는 모드 2의 국제화 활동은 매우 활발하였으며 앞으로도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보, 지원, 교육과정, 사후관리 형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유학생 유치 전략

먼저 유학생 유치 전략의 하나로 유학생 박람회와 같은 정보 지원에 대한 현황과 중시 정도를 보

면, 규모가 큰 국공립대학의 경우 유학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유학생을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표 IV-39〉 국내 유학 희망자를 위한 유학설명회(공동설명회 참가 등)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t)
설립유형	①국공립대	30	3,233	0,971	4.88*
	②사립대	108	2,759	1,058	
대학규모	①5천명 미만	28	1,857	1,079	15.13***
	②5천명 이상~1만명 미만	43	3,000	0,951	
	③1만명 이상~2만명 미만	24	2,958	0,806	
	④2만명 이상	43	3,326	0,837	
지역	①수도권	47	2,766	1,108	0.59
	②그 외 지역	91	2,912	1,029	

***p<.001, **p<.01, *p<.05

〈표 IV-40〉 정규과정 유학생을 위한 유학생 입시 시험(TOPIK)의 점수 요구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t)
설립유형	①국공립대	30	3,400	0,770	0.74
	②사립대	108	3,241	0,926	
대학규모	①5천명 미만	28	2,429	1,103	13.63***
	②5천명 이상~1만명 미만	43	3,512	0,768	
	③1만명 이상~2만명 미만	24	3,375	0,711	
	④2만명 이상	43	3,535	0,592	
지역	①수도권	47	3,170	1,007	0.99
	②그 외 지역	91	3,330	0,831	

***p<.001, **p<.01, *p<.05

뿐만 아니라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한 TOPIK(유학생 입시시험)을 중시하여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계적으로 대학규모가 큰 대학들이 특히 중시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유학생 생활 적응 지원

유학생을 위한 경제적 지원 정도의 평균값은 3.031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모가 2만 명 이상 대학의 경우에는 3.349로 이를 특히 중시하여 실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나아가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 제공 및 알선 항목에 대한 평균값은 3.262로 매우 높았으며 이 역시 대학의 규모가 클수록 중시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41〉 유학생을 위한 경제적 지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t)
설립유형	①국공립대	30	3,200	0.664	3.17
	②사립대	108	2,861	0.981	
대학규모	①5천명 미만	28	2,250	1,076	9.52***
	②5천명 이상~1만명 미만	43	2,907	0.971	
	③1만명 이상~2만명 미만	24	3,042	0.624	
	④2만명 이상	43	3,349	0.650	
지역	①수도권	47	2,830	1,049	0.91
	②그 외 지역	91	2,989	0.863	

***p<.001, **p<.01, *p<.05

〈표 IV-42〉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 제공 및 알선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t)
설립유형	①국공립대	30	3,367	0.765	1.41
	②사립대	108	3,157	0.877	
대학규모	①5천명 미만	28	2,607	1,100	9.06***
	②5천명 이상~1만명 미만	43	3,209	0.861	
	③1만명 이상~2만명 미만	24	3,167	0.637	
	④2만명 이상	43	3,605	0.495	
지역	①수도권	47	3,021	1,032	3.26=
	②그 외 지역	91	3,297	0.738	

***p<.001, **p<.01, *p<.05

구체적으로 보험 가입이나 아르바이트 등의 생활지원 정도의 평균값은 3.141로 대부분의 조사 응답 대학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아가 상담이나 카운슬링과 같은 정신적 지원 역시 3.123으로 대부분의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43〉 유학생을 위한 생활 지원(보험, 아르바이트 등 지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t)
설립유형	①국공립대	30	3,300	0,702	2.74
	②사립대	108	2,981	0,986	
대학규모	①5천명 미만	28	2,357	1,162	8.19***
	②5천명 이상~1만명 미만	43	3,186	0,958	
	③1만명 이상~2만명 미만	24	3,042	0,690	
	④2만명 이상	43	3,372	0,618	
지역	①수도권	47	2,766	1,068	6.84*
	②그 외 지역	91	3,198	0,833	

***p<.001, **p<.01, *p<.05

〈표 IV-44〉 유학생을 위한 정신적 상담 지원(카운슬링 등)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t)
설립유형	①국공립대	30	3,200	0.805	0.65
	②사립대	108	3,046	0.951	
대학규모	①5천명 미만	28	2,357	1,162	10.04***
	②5천명 이상~1만명 미만	43	3,163	0,898	
	③1만명 이상~2만명 미만	24	3,083	0,584	
	④2만명 이상	43	3,465	0,631	
지역	①수도권	47	2,936	1,071	1.74
	②그 외 지역	91	3,154	0,829	

***p<.001, **p<.01, *p<.05

학내 자료 및 통지와 같은 각종 문서를 다언어로 만들어 유학생 편의를 도모하는 정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단, 대학규모가 큰 대학일수록 이러한 유학생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표 IV-45〉 학내 자료 및 통지 등, 각종문서의 다언어화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t)
설립유형	①국공립대	30	2,800	0.887	0.89
	②사립대	108	2,602	1,050	
대학규모	①5천명 미만	28	1,964	0.962	7.15***
	②5천명 이상~1만명 미만	43	2,605	1,003	
	③1만명 이상~2만명 미만	24	2,917	0.830	
	④2만명 이상	43	2,977	0.963	
지역	①수도권	47	2,489	1.081	1.68
	②그 외 지역	91	2,725	0.978	

***p<.001, **p<.01, *p<.05

외국인 유학생의 생활 및 학습 지원을 위해 영어 가능한 직원의 채용이나 배치를 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평균 3.023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학 규모가 큰 대학일수록 중시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위해 해외 연수나 외국어 교육 등과 같은 직원의 국제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응답 결과를 보면 국공립대보다는 사립대가, 규모가 작은 대학보다는 규모가 큰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학습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46〉 외국어(영어)가 가능한 직원의 채용·배치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t)
설립유형	①국공립대	30	3,000	0.871	0.07
	②사립대	108	3,046	0.825	
대학규모	①5천명 미만	28	2,250	1,005	14.18***
	②5천명 이상~1만명 미만	43	3,209	0.559	
	③1만명 이상~2만명 미만	24	3,083	0.776	
	④2만명 이상	43	3,349	0.650	
지역	①수도권	47	3,128	0.797	0.86
	②그 외 지역	91	2,989	0.850	

***p<.001, **p<.01, *p<.05

〈표 IV-47〉 직원의 국제화교육 실시(Staff Development): 연수, 외국어 교육 등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t)
설립유형	①국공립대	30	2,800	0.997	5.63*
	②사립대	108	2,324	0.965	
대학규모	①5천명 미만	28	1,929	0.900	5.29**
	②5천명 이상~1만명 미만	43	2,372	0.900	
	③1만명 이상~2만명 미만	24	2,958	0.751	
	④2만명 이상	43	2,512	1.099	
지역	①수도권	47	2,277	0.994	1.67
	②그 외 지역	91	2,505	0.982	

***p<.001, **p<.01, *p<.05

③ 유학생 학습 지원

유학생 학습 지원 활동에 대해 알아보았다.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문화 적응을 위한 활동을 통해 국내 대학들의 유학생 지원 정도를 보면, 설문에 응답한 대학들의 대부분이 이러한 지원활동을 매우 중시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규모의 규모가 큰 대학에서는 한국어 교육뿐 아니라 한국문화교육 및 연수 활동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48〉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t)
설립유형	①국공립대	30	3,333	0.844	0.82
	②사립대	108	3,157	0.968	
대학규모	①5천명 미만	28	2,321	1.124	14.30***
	②5천명 이상~1만명 미만	43	3,256	0.928	
	③1만명 이상~2만명 미만	24	3,375	0.711	
	④2만명 이상	43	3,605	0.495	
지역	①수도권	47	2,936	1.071	5.58*
	②그 외 지역	91	3,330	0.844	

***p<.001, **p<.01, *p<.05

나아가 유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전용 수업 등과 같은 유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아

직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값이 2.585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3점에 못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IV-49〉 유학생 중심의 교육 과정 운영(영어전용 수업 등)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t)
설립유형	①국공립대	30	2,567	1,104	0,03
	②사립대	108	2,602	1,013	
대학규모	①5천명 미만	28	1,821	1,020	10,01***
	②5천명 이상~1만명 미만	43	2,535	1,077	
	③1만명 이상~2만명 미만	24	2,792	0,721	
	④2만명 이상	43	3,047	0,844	
지역	①수도권	47	2,681	1,045	0,50
	②그 외 지역	91	2,549	1,025	

***p<.001, **p<.01, *p<.05

〈표 IV-50〉 유학생을 위한 학습 지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t)
설립유형	①국공립대	30	3,133	0,860	0,15
	②사립대	108	3,065	0,868	
대학규모	①5천명 미만	28	2,536	1,105	6,03***
	②5천명 이상~1만명 미만	43	3,093	0,840	
	③1만명 이상~2만명 미만	24	3,167	0,761	
	④2만명 이상	43	3,372	0,578	
지역	①수도권	47	2,957	0,977	1,43
	②그 외 지역	91	3,143	0,797	

***p<.001, **p<.01, *p<.05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수업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표준을 설정하거나, 가을 학기제를 도입 운영할 계획이 있는 지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중요하지만 아직 실시하지는 않고 있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표 IV-51〉 수업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표준 설정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t)
설립유형	①국공립대	30	2,667	0,884	1.80
	②사립대	108	2,417	0,908	
대학규모	①5천명 미만	28	1,893	0,956	7.17***
	②5천명 이상~1만명 미만	43	2,419	0,794	
	③1만명 이상~2만명 미만	24	2,583	0,881	
	④2만명 이상	43	2,837	0,814	
지역	①수도권	47	2,362	0,965	1.04
	②그 외 지역	91	2,527	0,874	

***p<.001, **p<.01, *p<.05

〈표 IV-52〉 가을(9월) 학기 제도의 도입 운영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t)
설립유형	①국공립대	30	2,700	1,022	3.77
	②사립대	108	2,269	1,090	
대학규모	①5천명 미만	28	1,786	0,995	4.44**
	②5천명 이상~1만명 미만	43	2,326	0,969	
	③1만명 이상~2만명 미만	24	2,750	0,989	
	④2만명 이상	43	2,558	1,181	
지역	①수도권	47	2,085	1,139	4.76*
	②그 외 지역	91	2,505	1,037	

***p<.001, **p<.01, *p<.05

④ 유학생 사후 관리

유학생의 유치나 생활·학습지원 뿐 아니라 취업이나 귀국 후의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국내 기업에서의 인턴십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정도를 보면 평균 2.190으로 낮은 편이었다. 취업 지원 역시 2.775로 낮았으며, 유학생 귀국 후의 취업 및 진학 상황 조사의 실시 역시 2.566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대학 규모에 따라 유학생 사후 관리 정도가 다르다는 점에서 대규모 대학의 규모가 클수록 유학생 유치에서 생활 및 학습지원은 물론, 사후 관리까지를 통합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53〉 국내 기업에서의 인턴십 프로그램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t)
설립유형	①국공립대	30	2,167	1,085	0.05
	②사립대	108	2,213	0,996	
대학규모	①5천명 미만	28	1,679	0,905	6.43***
	②5천명 이상~1만명 미만	43	2,000	0,976	
	③1만명 이상~2만명 미만	24	2,542	0,884	
	④2만명 이상	43	2,558	1,007	
지역	①수도권	47	2,255	1,073	0.19
	②그 외 지역	91	2,176	0,984	

***p<.001, **p<.01, *p<.05

〈표 IV-54〉 유학생을 위한 취업 지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t)
설립유형	①국공립대	30	2,800	0,997	0.06
	②사립대	108	2,750	0,987	
대학규모	①5천명 미만	28	2,179	1,090	6.46***
	②5천명 이상~1만명 미만	43	2,651	0,973	
	③1만명 이상~2만명 미만	24	3,000	0,933	
	④2만명 이상	43	3,116	0,762	
지역	①수도권	47	2,723	1,036	0.10
	②그 외 지역	91	2,780	0,964	

***p<.001, **p<.01, *p<.05

〈표 IV-55〉 유학생 귀국 후의 취업 및 진학 상황 조사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t)
설립유형	①국공립대	30	2,567	1,006	0.00
	②사립대	108	2,565	0,920	
대학규모	①5천명 미만	28	2,071	1,052	4.65**
	②5천명 이상~1만명 미만	43	2,535	0,882	
	③1만명 이상~2만명 미만	24	2,625	0,770	
	④2만명 이상	43	2,884	0,879	
지역	①수도권	47	2,426	0,994	1.60
	②그 외 지역	91	2,637	0,901	

***p<.001, **p<.01, *p<.05

⑤ 국내 학생을 위한 국제화

국내 학생의 해외 파견이나 국제화 학습 지원을 위한 Out-Bound 부분을 살펴보았다. 먼저 국내 학생을 위한 외국어 교육의 충실 정도를 보면, 대학 규모가 클수록 외국어 교육을 충실하게 정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어 교육 중, 세계 공용어라 할 수 있는 영어 수업은 외국어 수업에 비해 평균점이 낮아 영어 이외의 다양한 외국어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56〉 한국인을 위한 외국어 교육의 충실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t)
설립유형	①국공립대	30	3,233	0,817	0,54
	②사립대	108	3,111	0,801	
대학규모	①5천명 미만	28	2,393	0,994	13,46***
	②5천명 이상~1만명 미만	43	3,419	0,587	
	③1만명 이상~2만명 미만	24	3,167	0,702	
	④2만명 이상	43	3,326	0,606	
지역	①수도권	47	3,064	0,845	0,60
	②그 외 지역	91	3,176	0,783	

***p<.001, **p<.01, *p<.05

〈표 IV-57〉 영어 수업의 확대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t)
설립유형	①국공립대	30	3,033	0,850	0,02
	②사립대	108	3,056	0,863	
대학규모	①5천명 미만	28	2,429	1,034	8,81***
	②5천명 이상~1만명 미만	43	3,023	0,801	
	③1만명 이상~2만명 미만	24	3,208	0,721	
	④2만명 이상	43	3,395	0,623	
지역	①수도권	47	3,064	0,965	0,02
	②그 외 지역	91	3,044	0,802	

***p<.001, **p<.01, *p<.05

나아가 국제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해외의 사회나 문화에 관한 수업과목의 확대를 얼마나 중시하

여 실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해외의 사회·문화에 관한 수업과목은 실시하는 비율이 적었다. 평균 2.562정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중시하고 있는 정도로 나타났다.

〈표 IV-58〉 해외의 사회·문화에 관한 수업과목의 확대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t)
설립유형	①국공립대	30	2,633	0,890	0.56
	②사립대	108	2,491	0,932	
대학규모	①5천명 미만	28	1,893	0,916	6.64***
	②5천명 이상~1만명 미만	43	2,558	0,881	
	③1만명 이상~2만명 미만	24	2,708	0,751	
	④2만명 이상	43	2,791	0,888	
지역	①수도권	47	2,532	0,952	0.01
	②그 외 지역	91	2,516	0,911	

***p<.001, **p<.01, *p<.05

학생의 국제화 교육을 위해 외국인 교원이나 해외에서의 교육경험을 가진 교원을 채용하는 정도에 관한 설문에는 외국인 교원의 적극적인 채용은 평균 2.772, 해외에서의 교육경험을 가진 교원의 적극적인 채용은 2.872로 중시하지만 실시하고 있지 않는 정도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도 대학 규모가 클수록 외국인 교원이나 해외에서의 교육경험을 가진 교원의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59〉 외국인 교원의 적극적인 채용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t)
설립유형	①국공립대	30	2,600	0,894	3.54
	②사립대	108	2,944	0,884	
대학규모	①5천명 미만	28	2,143	1,008	9.81***
	②5천명 이상~1만명 미만	43	2,930	0,768	
	③1만명 이상~2만명 미만	24	3,083	0,776	
	④2만명 이상	43	3,163	0,754	
지역	①수도권	47	2,957	0,955	0.69
	②그 외 지역	91	2,824	0,864	

***p<.001, **p<.01, *p<.05

〈표 IV-60〉 해외에서의 교육경험을 가진 교원의 적극 채용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t)
설립유형	①국공립대	30	2,800	0,887	0,68
	②사립대	108	2,944	0,841	
대학규모	①5천명 미만	28	2,143	0,891	12,18***
	②5천명 이상~1만명 미만	43	3,140	0,601	
	③1만명 이상~2만명 미만	24	3,000	0,834	
	④2만명 이상	43	3,140	0,774	
지역	①수도권	47	3,085	0,830	2,96
	②그 외 지역	91	2,824	0,851	

***p<.001, **p<.01, *p<.05

3) Mode 3: 외국교육기관 설립

외국대학의 국내분교설립이나 국내대학의 해외분교 설립, 내·외국인의 합작교육기관설립과 같이 타국에 분교를 설립하여 공급하는 교육서비스인 모드 3의 국제화 활동에 대한 인식을 물었다. 먼저 외국대학과의 조인트 캠퍼스 운영이라거나 해외분교 운영에 대한 중시정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에 대한 평균값은 1.645로 매우 낮았다.

〈표 IV-61〉 조인트 캠퍼스, 해외 분교 운영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t)
설립유형	①국공립대	30	1,567	0,728	0,76
	②사립대	108	1,722	0,895	
대학규모	①5천명 미만	28	1,500	0,745	1,79
	②5천명 이상~1만명 미만	43	1,558	0,765	
	③1만명 이상~2만명 미만	24	1,958	0,999	
	④2만명 이상	43	1,791	0,914	
지역	①수도권	47	1,660	0,962	0,08
	②그 외 지역	91	1,703	0,810	

***p<.001, **p<.01, *p<.05

4) Mode 4: 해외 교류

Mode 4: 해외 교류의 경우, 직원의 해외파견 교육활동보다는 교원의 해외파견 교육활동을 더욱 중시하여 실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원의 해외 파견 지원제도의 평균값은 2.801이었으나 직원의 해외 파견 지원제도는 2.171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특히 교원의 해외 파견은 국공립대보다, 사립대, 그리고 규모가 클수록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IV-62〉 교원의 해외 파견 지원제도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t)
설립유형	①국공립대	30	3,000	0,910	4.22*
	②사립대	108	2,602	0,947	
대학규모	①5천명 미만	28	2,143	1,008	6.42***
	②5천명 이상~1만명 미만	43	2,628	0,846	
	③1만명 이상~2만명 미만	24	2,708	0,955	
	④2만명 이상	43	3,093	0,840	
지역	①수도권	47	2,574	1,016	1.03
	②그 외 지역	91	2,747	0,914	

***p<.001, **p<.01,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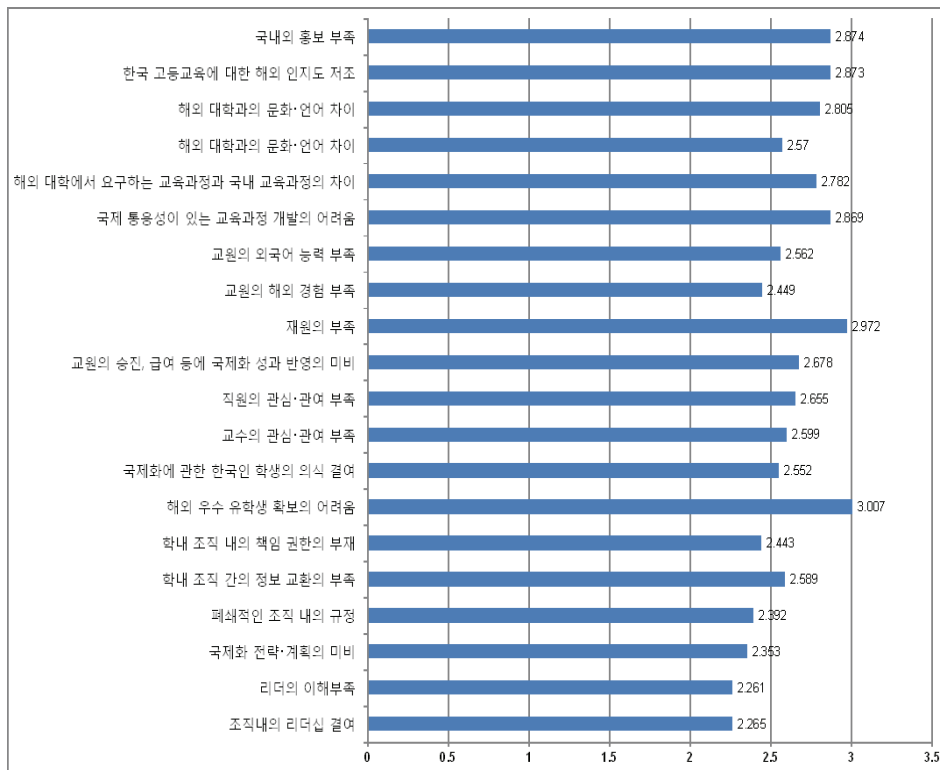
〈표 IV-63〉 직원의 해외 파견 지원제도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t)
설립유형	①국공립대	30	2,333	1,124	2.47
	②사립대	108	2,009	0,962	
대학규모	①5천명 미만	28	1,679	0,772	2.55
	②5천명 이상~1만명 미만	43	2,023	0,859	
	③1만명 이상~2만명 미만	24	2,250	1,113	
	④2만명 이상	43	2,302	1,145	
지역	①수도권	47	2,085	1,100	0.00
	②그 외 지역	91	2,077	0,957	

***p<.001, **p<.01, *p<.05

5) 대학 국제화의 문제

실제로 대학 국제화가 바람직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국제화의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들이 인식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해외 우수 유학생 확보의 어려움으로 4점 만점 척도에 3.007을 기록하고 있다. 나머지 항목들은 해외 우수 유학생 확보가 어려운 이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재원의 부족(2.972), 국제 통용성이 있는 교육과정 개발의 어려움(2.869), 국내외 홍보 부족(2.874), 한국 고등교육에 대한 해외 인지도 저조(2.873), 해외 대학과의 문화 및 언어 차이(2.805) 등의 순으로 대학 국제화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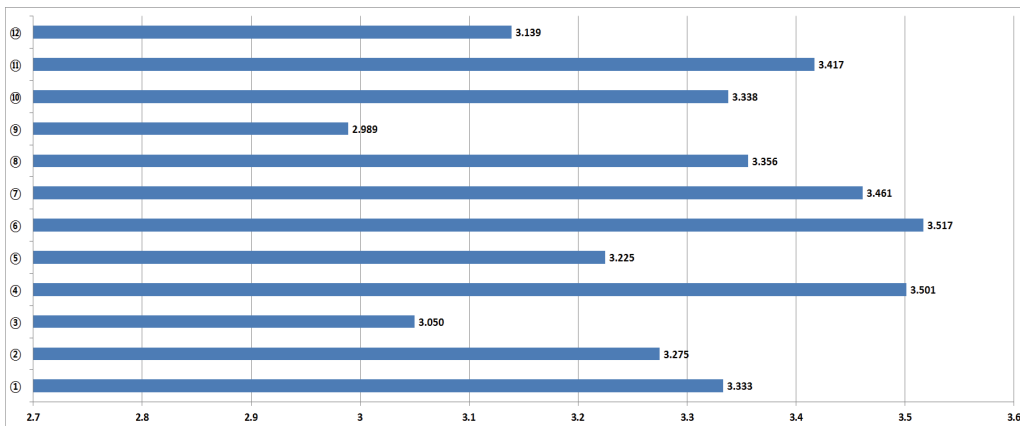
[그림 IV-1] 대학 국제화의 문제

이 외에도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정부 부서 간 협조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에 대한 자유기술 의견을 다수 접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부 목표는 유학생 확대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는 불법체류자를 막기 위한 정책 시행으로 정부 부처 간 협조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Study-Korea 등을 통해 무조건 유학생을 늘리자고 무차별적으로 유학생 유치

를 하다가, 갑자기 TOPIK이나 유학생 인증제와 같이 질 관리를 하는, 서로 상충되는 목표와 방침들 사이에서 대학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6) 대학 국제화 개선 과제

그렇다면 대학 국제화 추진을 위해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개선이 필요한 내용을 4단계 척도로 응답한 결과가 다음 [그림 IV-2]이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장 개선이 필요한 내용은 ⑥번의 ‘유학생 유치 및 학생 해외 파견, 인턴십 활성화를 위해 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의 부처 간 연계가 필요하다’는 항목의 평균점이 3.517이었으며, 다음으로 ④번 항목의 ‘출입국관리법 등을 개선하여 유학생 및 외국인 교원·연구자 유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평균점 3.501으로 뒤를 이었다. 평균점0이 가장 낮은 항목은 ⑨번의 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를 강화하여 국제화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면 평균점이 2.989에 지나지 않는다. 다음으로는 ③ 교육국제화특구법과



[그림 IV-2] 대학 국제화 추진을 위한 개선 과제

- *주) ① 국제화 추진을 위해 정부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② 대학 국제화 추진을 위한 국가수준의 종합 컨설팅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③ 교육국제화특구법과 같은 법 제정을 통해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확대해야 한다
 ④ 출입국관리법 등을 개선하여 유학생 및 외국인 교원·연구자 유치를 활성화해야 한다
 ⑤ 학교법인과 같은 법·제도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의 해외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
 ⑥ 유학생 유치 및 학생 해외 파견, 인턴십 활성화를 위해 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의 부처 간 연계가 필요하다
 ⑦ 국제화 선도 대학과 같은 벤치마킹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⑧ 국제 통용성을 위한 고등교육 질 관리(평가 및 지원)가 필요하다
 ⑨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를 강화하여 국제화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⑩ 해외 대학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화 관련 DB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⑪ 국제화 추진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
 ⑫ 유학생 성과 조사와 같은 국제화 성과 분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같은 법 제정을 통해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확대해야 한다가 3.050, ⑫ 유학생 성과 조사와 같은 국제화 성과 분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항목에 3.13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자유기술에서도 지적되고 있듯이, 앞으로의 개선 과제로 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의 부처 간 연계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각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인 교원이나 연구자 유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나, 국제화 성과분석 시스템 구축과 같이 정부 주도의 타율적인 국제화 추진에 대해서는 크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교육기관 유치의 경우에는 국내 대학들이 그다지 반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와 같은 정부 주도의 국제화 정책을 각 대학의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 업무 담당자들의 네트워크를 국가(정부) 차원에서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4 소결

이상으로 국내 대학의 국제화 현황 및 인식 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다. 응답률이 낮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대학이 국제화 추진 목표를 세우고 있었으나 캠퍼스 글로벌 문화 구축, 국제화 기반 조성 등과 같이 모호한 목표가 많았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역시 해외 교류나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해외 교류를 보면 대부분의 대학에서 아시아,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해외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있었으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유학생 기숙사나 외국인 교수 주거지원을 피하고 있었다. 외국인 유학생의 학습을 위해서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한국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외국어 전용 강좌라거나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과 같이 실제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국제화를 피하고 있는 비율은 매우 적었으며, 해외 인턴십이나 국내 대학의 해외 분교 설립과 같은 out-bound 형태의 국제화 추진은 매우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앞으로 중시하여 실시해야 하는 국제화 정책 중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유학생을 위한 경제적 지원은 물론 기숙사 제공 및 알선, 보험이나 아르바이트와 같은 생활지원 및 정신 상담 등과 같은 유치 환경 조성이나 한국문화교육이나 연수활동, 한국어 교육 등을 중시

하여 실시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유학생의 학습과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직원의 국제화교육이나 유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은 물론 수업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표준을 설정하거나, 가을 학기제의 도입, 나아가 유학생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취업 지원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넷째, 이와 같은 대학들의 유학생 유치에 대한 관심은 국제화 문제 인식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었다. 대학들이 인식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해외 우수 유학생 확보의 어려움이었으며, 재원의 부족, 국제 통용성이 있는 교육과정 개발의 어려움, 국내외 홍보 부족, 한국 고등교육에 대한 해외 인지도 저조, 해외 대학과의 문화 및 언어 차이 등, 해외 우수 유학생 확보와 관련된 항목이 대부분이었다.

다섯째, 그리고 국제화 추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개선 항목으로 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의 부처 간 연계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각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인 교원이나 연구자 유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모드별 사례조사

1. 서울대학교(Mode 1)
2. 한양대학교(Mode 2)
3. SUNY-Korea(Mode 3)
4. 포스텍(Mode 4)
5. 소결



모드별 사례조사

이 장에서는 정책 성과와 현황 조사 분석을 통해 각 모드별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국제화 현황과 실제 운영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mode 1: 교육과정/프로그램 협력 사례로 가장 공동교육과정 운영 활동이 활발한 서울대학교를 분석하였다. 서울대학교는 국내 대학 중에서 학위와 연계한 많은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학점 교환 등을 통해 국제적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mode 2: 해외 유학 및 해외 연수 부분에서는 전체 학생 대비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4%를 넘어서고 있으며, 해외에 국외 시설 및 국외 분교를 설치하고 2007년부터 400명이 넘는 국내의 학생들에게 학점 인정을 하고 있는 한양대를 사례로 들었다. mode 3: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는 SUNY-Korea 사례를 살펴보았다. 현재 국내에 설립된 외국고등교육기관 중, 국내에서 유일하게 학부과정과 대학원과정을 운영하는 외국고등교육기관이며, 한국 최초의 미국 대학으로 국제적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SUNY-Korea 관계자 면담과 자료 수집을 통해 mode 3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교원 채용과 학생파견을 꾀하고 있는 포스텍 사례를 통해 mode 4: 해외교류 부분을 살펴보았다. 2011년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출간한 ‘The Road to Academic Excellence: The Making of World Class Research Universities’에서 한국대학을 대표하는 사례로 선정된 연구중심대학으로, 국내대학 최초로 영어공용화 캠퍼스(Bilingual Campus)를 실현하고 있으며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공계열 학생들에게 다양한 해외 연구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해외교류에 관한 정책 진단 및 개선 방안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1 서울대학교(Mode 1)

가. 개요²³⁾

서울대학교는 1895년 당시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설립한 최초의 근대 국립고등교육기관이다.

23) 출처: <http://www.snu.ac.kr/history>.

1946년 국립서울대학법으로 9개 단과대학과 1개 대학원으로 개교하여 2013년 현재 16개 단과대학, 1개 일반대학원, 9개 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되었다. 1968년 서울대학교 종합화 10개년 계획 성안을 통해 종합화 기틀을 마련하고 서울대학교시설확충특별회계법 및 서울대학교 설치령을 공포하였다. 1975년에는 캠퍼스 통합을 통해 종합대학의 기틀 마련하고 ‘서울대학교학칙’을 단일화하여 단과대학별 운영을 대학본부 중심으로 변경하였다. 1987년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1987~2001)’ 완성: 2001년까지 서울대학교를 ‘국제수준의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로 대학을 개혁하고 1994~2010년 국제화 시기를 통해 1999년 정부의 두뇌한국21 사업을 시작하여 2002년 SCI 논문 발표수 세계 30위 권 진입을 달성하였을 뿐 아니라 2005년 영국 THE-QS 세계대학랭킹에서 세계 100대 대학 선정되었다. 2011년 ‘국립대학법인’으로 법적지위가 전환되어 ‘국립서울대학법인’이 되어 2012년 QS 세계대학랭킹에서 세계 37위, 아시아 4위에 오른 국내 최고의 우수대학이라 할 수 있다.

나. 서울대학교 국제화 현황

서울대학교 전체 재학생은 2만 8천여 명으로 학사과정에 16,712명, 석사과정에 8,002명, 박사과정에 3,297명이 재학하고 있다.

〈표 V-1〉 재학생 현황

(단위: 명)

구분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재학생	16,712	8,002	3,297	28,011

*출처: <http://www.snu.ac.kr/facts>

*주: 조사기준일은 2013. 4. 12이며 대학원의 경우 WCU 정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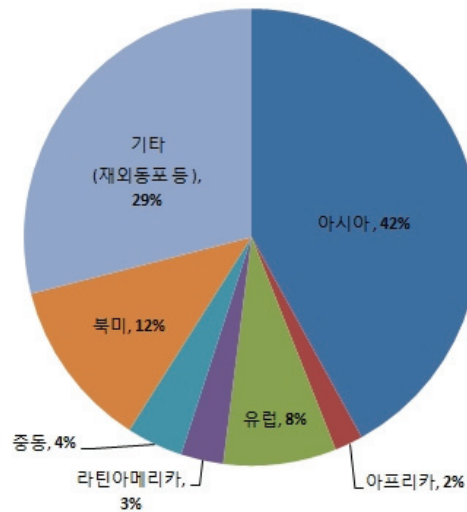
이 중 외국인 유학생은 2012년 봄 전체 3,106명으로 전체의 11.1%이며 아시아에서 42%, 북미 12%, 유럽 8%이며 재외동포는 29%에 이르고 있다. 대학 간 학술교류협정에 의해 상호 학생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교환학생 수는 322명, 어학연수생은 2,788명이다.

〈표 V-2〉 외국인 유학생 수

구분	2010년 봄	2011년 봄	2012년 봄
학부	1,046	1,083	1,135
대학원	1,563	1,696	1,971
계	2,609	2,779	3,106

*출처: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 브로셔 p.38

구체적으로 서울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구성비를 보면, 중국, 베트남, 몽골 등의 아시아 출신 유학생이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북미, 12%, 유럽 8%로 국내 유학생 구성비보다 다양한 국가 출신의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었다.



[그림 V-1] 2012년 외국인 유학생 구성비

*출처: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 브로셔 p.38

〈표 V-3〉 외국대학 교환학생 수

(단위: 명)

구분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외국대학 교환학생	239	78	5	322

*출처: <http://www.snu.ac.kr/facts>

*주 1) 조사기간: 2012. 01. 01 ~ 2012. 12. 31

2) 조사대학: 대학 간 학술교류협정에 의해 상호 학생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유학생

뿐만 아니라 대학 간 학술교류협정에 의해 상호 학생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외국대학의 교환학생도 학부에 239명, 대학원에 83명이 재학하고 있었다. 어학을 목적으로 서울대학교에 등록하고 있는 어학연수생도 2,788명에 이르고 있다(<http://www.snu.ac.kr/facts>).

이 같은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와 더불어 영어강의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 전체의 13.2%에서 2011년 15.6%로 증가하였다.

〈표 V-4〉 서울대학교 영어강의 현황

연도	영어강의 수	영어강의 비율(%)
2009년 봄	637	13.2
2010년 봄	749	15.3
2011년 봄	781	15.6

*출처: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 브로셔 p.13

외국인 교직원 수 역시 2010년 200명에서 2012년 24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국제 학술교류 협정이나 학생 교환 협정도 본부, 각 단과대학, 연구소 수준에서 활발하게 체결되고 있다.

〈표 V-5〉 서울대학교 교직원 수 현황

연도	교직원 수(명)
2010년 봄	200
2011년 봄	242
2012년 봄	243

*출처: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 브로셔 p.38

〈표 V-6〉 서울대학교 국제 학술교류 협정 현황

구분	총 학술교류 협정	학생 교환 협정
본부	59개국 296기관	51개국 212기관
단과대학	51개국 643단과대학	46개국 284단과대학
연구소	35개국 260연구소	17개국 56연구소

*출처: <http://www.snu.ac.kr/facts>

*주 1) 조사기준일: 2013. 4. 1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2010~2013년도 국제랭킹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V-7〉 서울대학교 국제랭킹 현황

평가사(국가)	국제랭킹 종류	서울대 랭킹
QS(영국)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2012	세계 37위
	QS Asian University Rankings 2012	아시아 4위
THE(영국)	THE World University Rankings 2012-2013	세계 59위

평가사(국가)	국제랭킹 종류	서울대 랭킹
	THE Asian University Rankings 2012-2013	세계 8위
	THE World Reputation Rankings 2013	세계 41위
Shanghai Ranking Consultancy (중국)	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 2013	세계 101~150위
Ecoles des Mines de Paris - Mines Paris Tech (프랑스)	2011 International Professional Rankings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세계 10위
국립대만대학(대만)	2012 National Taiwan University Rankings: Performance Ranking of Scientific Papers for World Universities	세계 60위
중동기술대학(터키)	2012 University Ranking by Academic Performance	세계 39위
CWUR(사우디아라비아)	World University Rankings 2013	세계 40위

*출처: <http://www.snu.ac.kr/global/ranking>

다. 서울대학교 국제화 사업 및 운영 프로그램

서울대학교에서는 2006년부터 2010년에 걸쳐 국제하계강좌(SNU International Summer Institute),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Future Star Project), 신문명 프로젝트(New Civilization Project) 등을 통해 학문 분야별 세계적인 석학을 초빙, 최고 수준의 강의를 제공하고 해외 파견 및 방문 학생을 포함한 단기 유학생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또한 여름방학에 스탠포드대나 예일대에 파견, 어학강좌를 수강하면서 여름학기 수강이 가능한 어학연수 프로그램인 ‘스탠포드 & 예일대 여름학기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매년 30여 명의 학생들을 파견하고 토플 성적 제출 등 일정한 자격 심사를 거쳐 세계 각국의 원하는 대학에서 1~2학기를 수학하고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는 SAF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10년부터는 세계대학랭킹 200위권 내 세계 대학과의 중점적 교류협력 체결하고, 신문명 프로젝트(New Civilization Project)를 통해 해외 유수의 대학들과 전략적 교환학생 협정을 맺어 향후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해외 수학기회를 대폭 증진시킬 수 있도록 장학제도 및 외국대학과의 협정 등을 확대 개선 중에 있다. 한편, 국제하계강좌(SNU International Summer Institute)를 더욱 발전시켜 모든 코스를 영어로 하는 한국학과 아시아학 관련 약 30여개의 과목을 중점적으로 개설하고 있다. 또한 BESETOHA(북경대, 서울대, 동경대, 하노이대 네트워크), APRU (Association of Pacific Rim Universities), AEARU(Association of East Asian Research Universities), WC2(World Cities World Class Universities Network) 등 세계 각국의 우수 대학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http://www.snu.ac.kr/global/project1>, <http://www.snu.ac.kr/global/project2>).

1) 2012 글로벌 초우수 인재 육성사업 지원

국제적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우수인재를 조기 발굴하여 세계 수준의 학문후속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2012년 신규사업으로, 글로벌 초우수 인재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이 안정적으로 학문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 학부생 및 대학원생 총 652명에 대해 약 29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표 V-8〉 2012 글로벌 초우수 인재 육성사업 지원 현황

(단위: 명, 천원)

사업명	대상	지원내역	예산	집행현황		집행잔액
				인원	금액	
우수신입생 장학금	학부생	등록금, 생활비, 기숙사비	560,000	59	559,164	836
김재익 Fellowship	대학원생	등록금, 생활비, 항공료	2,318,600	10	244,230	0
학문후속세대 지원		등록금, 생활비, 항공료		39	910,966	0
핵심인재 지원		등록금		77	608,803	0
한국어 집중수업	학부·대학원생	언어교육원 수강료		43	25,040	0
외국학생 멘토링		멘토비		173	207,600	0
SOC, SSAP 등		현지대학 수업료, 기숙사비, 보험료 등		251	321,005	956
계			2,878,600	652	2,876,808	1,792

- ※ 학부 우수신입생 장학금: 입학본부에서 선정한 동북3성 등의 우수신입생 지원
- ※ 김재익 Fellowship: 대학원과정에 입학한 개도국의 공공부문 종사자 지원
- ※ 학문 후속세대 지원: 기초학문분야의 초우수 대학원생 지원
- ※ 핵심인재 지원: 각 전공별 초우수 대학원생 지원
- ※ 한국어, 멘토링: 한국문화 및 학교생활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 학생 지원
- ※ SOC(SNU Overseas Campus)
 - 본교생들의 국제화 감각 증진 및 해당 국가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관련 학과 등과 연계하여 현지 학생 및 교수와 네트워킹하며 집중교육을 받는 프로그램, 서울대 재학생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3학점~6학점 인정)
 - 운영 프로그램: SNU in Beijing, SNU in Tokyo, SNU in Washington
- ※ SSAP(SNU Study Abroad Program)
 - 교수가 정규 또는 계절학기 강의의 일환으로 해외 Study Abroad Program을 직접 기획운영함으로써, 수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국제적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

*출처: 2012년도 서울대학교 운영성과 자체평가 보고서 p.41

〈표 V-9〉 해외 대학 네트워크 구축 및 외국인 초우수 대학원생 유치 홍보

일시	국가	대학	상당실적
2012. 6. 4.(월)~6. 9.(토)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University Kebangsaan Malaysia 외 3개 대학	약 270여명
2012. 6.10.(일)~6.16.(토)	중국	북경대 공과대학 외 6개 대학	약 72여명
2012. 6.10.(일)~6.16.(토)	베트남, 태국	베트남국립대 외 20개 대학	약 470여명
2012. 9.12.(수)~9.16.(일)	몽골	몽골국립대 외 1개 대학	약 220여명
2012. 9. 9.(일)~9.19.(수)	칠레, 브라질	Los Andes 대학 외 3개 대학, 국제교육전 참가	약 300여명
2012.10.28.(일)~10.30.(화)	인도네시아	Universitas Indonesia Bogor Agricultural University	약 90여명
2012.10.28.(일)~10.30.(화)	중국	하얼빈 공대	약 50여명
2012.10.28.(일)~10.31.(수)	중국	동북3성의 우수대학 (연변과기대, 연변대, 길림대)	약 420여명

*출처: 2012년도 서울대학교 운영성과 자체평가 보고서 p.42

2) 서울대학교의 Global Programs²⁴⁾

교육과정/프로그램 교류 사례의 하나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의 Global Program은 다음과 같다.

① 교환 학생 프로그램(Student Exchange Program)

② 방문학생 유학 프로그램(Visiting Student Study Abroad Program)

서울대학교는 SAF(Study Abroad Foundation) 회원으로, SAF를 통해 유학프로그램 신청을 하게 되면,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에 한 학기 혹은 1년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영어 수업도 제공하며, 학점 교류(academic credit transfer)도 가능하다.

③ Stanford & Yale Summer Program

여름방학 기간에 스탠포드나 예일 대학에서 어학 코스를 들을 수 있다. 매 년 약 30명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예일 대학에서는 정규 여름학기 코스 수강도 가능하다.

24)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참조(<http://www.snu.ac.kr/global/project1>, <http://www.snu.ac.kr/global/project2>).

④ Harvard-Yenching Program(Harvard University)

하버드-옌칭 연구소는 서울대학교에서 지명한 박사과정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재정을 지원한다.

⑤ Asia in Today's World Program

전공 불문하고, 일본 큐슈대학에서 아시아 연구 여름 학기 코스를 수강할 수 있다.

⑥ Seoul-Tokyo-Peking International Summer School

한국, 일본, 중국에서 선발된 학생들이 3주에 걸쳐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서울대, 와세다대, 북경대에서 1주씩 보내게 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정치경제 이슈에 대한 세미나 및 현장 학습 등을 실시한다.

⑦ APRU Undergraduate Summer Program

APRU(Association of Pacific Rim Universities) 멤버인 대학에서 여름 학기를 수강하여 3학점을 받을 수 있다.

⑧ Global Talent Program

CDC(Career Development Center)에서는 학부 및 대학원생들을 선발하여 글로벌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Global Talent Awards를 통해 인턴십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3) 학위 프로그램²⁵⁾

많은 국제화 프로그램 중, 특히 서울대가 우수한 점은 다양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공동 혹은 복수 학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다음 <표 V-1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대부분 복수학위 형태로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스웨덴 등과 같은 구미 국가들과 활발하게 협약을 체결하여 학위 교환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몽골 등의 아시아 국가와도 공동(복수) 학위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위가 석사와 박사 등과 같은 대학원 중심이지만 미국의 조지아 공대와는 학사 과정 학위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

25) 출처: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최종 방문일: 2013/09/16),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 브로셔.

〈표 V-10〉 서울대학교 학위프로그램 현황

학위 종류	학위 구분	학과 (부)	협약대상		협약 설치 강좌	실제 개설 강좌	참여 학생	외국인 교수	시기
			국가명	대학명					
학사	복수	공과	미국	조지아공대					2009
석사	복수	외교	영국	서리대					2012
석사	복수	경영	미국	듀크대			11		2003
석사	복수	경영	프랑스	ESSEC					2004
석사	복수	공과	프랑스	생떼쥬엔에폴데민			17		2012
석사	복수	공과	프랑스	INSA			2		2007
석사	복수	공과	프랑스	n+i			2		2009
석사	복수	공과	일본	홋카이도대					2011
석사	복수	공과	미국	조지아공대					2009
석사	복수	공과	몽골	몽골과기대					2012
석사	복수	사범	캐나다	앨버타대					2011
석사	복수	국제(원)	프랑스	ESSEC			28		2002
석사	복수	국제(원)	일본	동경대			5		2012
석사	복수	경영전문	프랑스	ESSEC			4		2008
석사	복수	경영전문	중국	북경대			8		2008
박사	복수	자연	프랑스	파리11대			1		2005
박사	복수	자연	미국	조지메이슨대					2007
박사	공동명의	자연	독일	마인츠대			10		2008
박사	복수	자연	스웨덴	차머스공대					2011
박사	복수	자연	프랑스	피에르마리퀴리대			1		2012
박사	공동명의	공과	미국	조지아공대					2009
박사	복수	공과	일본	홋카이도대					2011
박사	복수	공과	몽골	몽골과기대					2012
박사	복수	농생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1		2007
박사	복수	사범	캐나다	앨버타대					2011
박사	복수	사범	프랑스	그로노블대			1		2011

*출처: 본 연구에서 실시한 대학 국제화 현황 설문조사 자료

특히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Campus Asia Program) 시범사업 사업단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① BESETO DDMP

베세토 국제학 및 공공정책학 복수 석사 학위 프로그램으로 3개 대학 중 2개 대학에서 1년씩 수

학하여 복수학위를 취득하며 나머지 1개 대학에서 1학기 수학 후 수학증명서를 취득하는 2년 6개월 코스와 3개 대학 모두 1년씩 수학 후 삼중 복수학위를 취득하는 3년 코스로 나뉜다. 이는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생들은 한국, 일본, 중국 세 국가에서 수학하고, 학점을 인정받아 joint/double degree를 받아 졸업이 가능하다.

② BEST(Beijing-Seoul-Tokyo Business School Alliance: Asia Business Leaders Program)

대상은 경영학 석사(MBA)로 복수학위, 학점교류, 공동프로그램 개발의 형태로 진행되며 3주 집중과정인 특화프로그램(Doing Business in Asia)을 통해 3개국 학생 약 30명이 3개국을 함께 방문하며 진행한다.

③ 유스코무네

서울대학교의 국제대학원, 경영대, 법대, 공대가 중국의 인민대학, 칭화대학, 상해교통대학, 일본의 나고야대학과 연계하여 동아시아 공통법 형성을 향한 법적, 정치적 인식공동체 인재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학부생 1학년 교육 종료시 학생을 선발하여 2, 3학년 공통 커리큘럼을 상대국 대학에서 수강하는 프로그램으로 로스쿨 학생과 대학원생에게도 일부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인 교육과정은 각국의 법·정치에 관한 입문 강의, 사회과학적 소양과 국제사회에 대한 시야를 배양하기 위한 비교법·정치 강의, 사회과학분야에 특화된 어학 과목 등이다.

④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아시아 교육협력의 시작

서울대학교가 중국의 난징대와 상해교통대, 일본의 나고야대와 동북대와 같이 학부 3, 4학년 및 석박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교수 및 연구 인력 세미나 형식 강의 교환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3-12개월 학생 교환을 하고 상호 학점인증을 하는 것으로 향후 복수학위 또는 공동학위 프로그램을 위한 시범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라. 공동학위과정 운영의 과제

서울대학교는 해외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사업 결과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지의 우수 인재들로부터 관심과 지원이 증폭되고 있으며 최우수 외국인 유학생이 학문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 포함 장학금(Full Scholarship)을 지원하여 점진적으로 본교의 우수한 외국인 학생 비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다. 정부초청장학생은 교

육부(국립국제교육원)에서 선발하고 각 대학에서는 위탁받은 학생들을 관리하는 수준임에 비하여, 직접 우수한 학생들을 직접 면담선발하여 대학에서 필요한 핵심 원천기초 분야의 심화된 우수인재를 주도적으로 선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학과별, 전공별 우수 인재 영입이 가능하므로 ‘글로벌 오픈 두뇌 유치’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추후 Ph.D. 학위가 없는 해외대학 우수 교원에 대한 본교 학위 수여로 지속적인 해외대학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2012년도 서울대학교 운영성과 자체평가보고서, pp. 112~116).

그러나 국제화는 물론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첫째는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상대국과의 제도적, 문화적 차이이다.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커리큘럼의 개발을 비롯하여 수업 방법, 이수 학점, 학위 규정 등에 대한 국제 공통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것이 나라마다 달라 조정이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 수준이 달라 어느 부분을 교육과정에 편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힘들며, 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소 이수 학점 기준이나 학위를 공동학위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복수학위로 할 것인지에 대한 각 나라의 규정이 달라 공동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대학 내부 운영의 문제를 들 수 있다. 공동교육과정 운영은 단과 대학 내의 각 전공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단과 대학 혹은 전공 내에서의 개별 대응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학 본부 차원에서의 조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고 결국 일부의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Washington Accord와 같이 국제적인 통용 기준이 있는 공학 부분이나 경영학 MBA를 중심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셋째, 재정 지원의 문제이다. 학생들의 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학금뿐만 아니라 기숙사 등의 ‘패키지 형 지원’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어학연수나 방문 등과 달리 공동교육과정 운영은 학점 인정, 나아가 공동학위 혹은 복수학위 취득이 전제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의 개인부담이나 학내 자원의 투입만으로는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수준에서의 재정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한양대학교(Mode 2)

가. 개요

한양대학교는 1939년에 설립된 사립대로 서울과 ERICA, 두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캠퍼스에는 공과대학, 의과대학,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정책과학대학, 경제금융대

학, 경영대학, 사범대학, 생활과학대학, 음악대학, 체육대학, 예술학부, 국제 학부 등 14개 단과대학이 있고, ERICA캠퍼스에는 공학대학, 약학대학, 국제문화대학, 언론정보대학, 과학기술대학, 경상대학, 디자인대학, 예체능대학의 8개 단과대학이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 16개 대학원 및 116개 부속, 부설 기관을 갖추고, 4,394명의 시간강사를 포함한 교원과, 1,119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대규모 대학이다. 2013년 현재 전체 등록학생수는 36,677명으로 학부에 26,426명, 대학원에 10,251이 재학 중이다. 한양대학은 2039년 ‘세계 100위권 안에 드는 대학’의 목표를 세우고, 자교의 세계화를 위해 대학 구성원의 해외 교류를 확대하고 학문적 발전과 문화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부합되는 인적 자원을 배출하고, 세계 명문 대학과 비견될만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양대학교는 대학의 국제화 관련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아왔는데, 2011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는 외국인 교환학생 5위를 차지하였고, 2012년 국립국제교육원의 유학생 관리 인증학교로 선정된 대학이다. 연간 2,087명의 외국인 학생이 한양대 학위과정에서 수학하고 있고, 해외파견에 있어서도, 연간 2,177명을 파견하고 있어 대학의 국제화, 특히 국내 외국유학생과 해외파견과 관련된 Mode 2 영역에서 선도적인 성과를 이루어내는 대학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나. 한양대학교 국제화 추진 현황

1) 국제화 현황

한양대학교는 국제적인 수준의 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해 대학 구성원들이 국제화 기준에 부합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외대학 교수 및 학생들의 교환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 업무 전담기구인 국제협력처를 운영하여 외국 대학과의 교류 및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으며, 교수 및 학생들에게 국제교육 전반에 관한 최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각 언어권별 전문가들이 국제교육 및 교류의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전 세계 유수의 대학 등과 학술교류 협정체결로 국내 재학생의 교환유학 기회를 확대해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52개국 412개의 해외 기관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미주, 아시아 유럽 지역의 392개의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표 V-11〉 해외 자매결연 대학 현황

지역	북·남미	유럽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기타
자매결연대학 수	86	117	9	172	1	6	1

*출처: 이기정, 2013²⁶⁾

한양대학교 전체 재학생은 3만 6천여 명으로 학사과정에 26,426명, 대학원 과정에 10,251명이 재학하고 있는데, 2012년 기준 한양대학교의 외국인 학생 수는 총 4,713명으로 전체의 12.9%를 차지한다.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별 외국인 학생 분포는, 학사과정은 1,957이며, 어학연수 과정은 2,044명, 여름학기 과정은 712명으로, 각 과정 별 출신국가의 분포는 학사과정이 65개, 어학연수는 48개, 여름학기는 20개 지역의 출신 학생들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표 V-12〉 외국인 학생 수와 출신 국가

과정별 구분	학사과정	어학연수	여름학기	계
학생 수	1,957명	2,044명	712명	4,713명
출신 국가	65개	48개	20개	133개

*출처: 이기정, 2013²⁷⁾

연도별 외국인 정규 학생의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128명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에 1,000이상의 학생이 분포하였고, 2012년에는 1,957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게 되어, 평균 32.74%의 성장률을 보였다.

〈표 V-13〉 연도별 외국인 정규학생 증가 현황(어학연수생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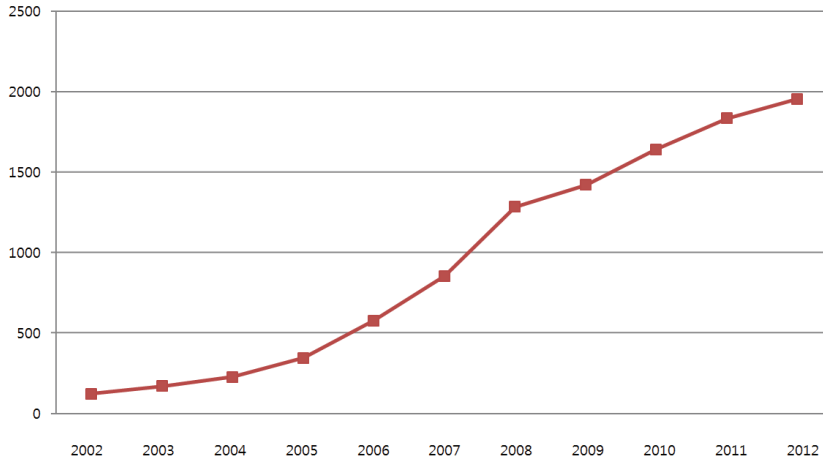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외국인학생 수(명)	128	175	231	350	581	858	1,287	1,424	1,644	1,837	1,957
전년대비 증가율(%)	20	37	32	52	66	47	50	10.6	27	12	6.53

*출처: 이기정, 2013²⁸⁾

26) 본 자료(이기정, 2013)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우수사례’라는 제목으로 저자가 4월 30일에 발표한 한양대학 내부 프리젠테이션 자료임.

27) 본 자료(이기정, 2013)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우수사례’라는 제목으로 저자가 4월 30일에 발표한 한양대학 내부 프리젠테이션 자료임.

28) 본 자료(이기정, 2013)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우수사례’라는 제목으로 저자가 4월 30일에 발표한 한양대학 내부 프리젠테이션 자료임.



[그림 V-2] 연도별 외국인 정규학생 증가 현황

*출처: 이기정, 2013²⁹⁾

외국인 교직원 수는 2011년부터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2013년 기준 인문사회 계열이 61명으로 가장 분포가 높았고, 공학에서 22명, 자연과학에서 7명, 의학에서 2명, 예체능에서 3명의 외국인 교원이 재직하고 있다.

〈표 V-14〉 외국인 교직원 수

연도	교직원 수(명)
2011	94
2012	92
2013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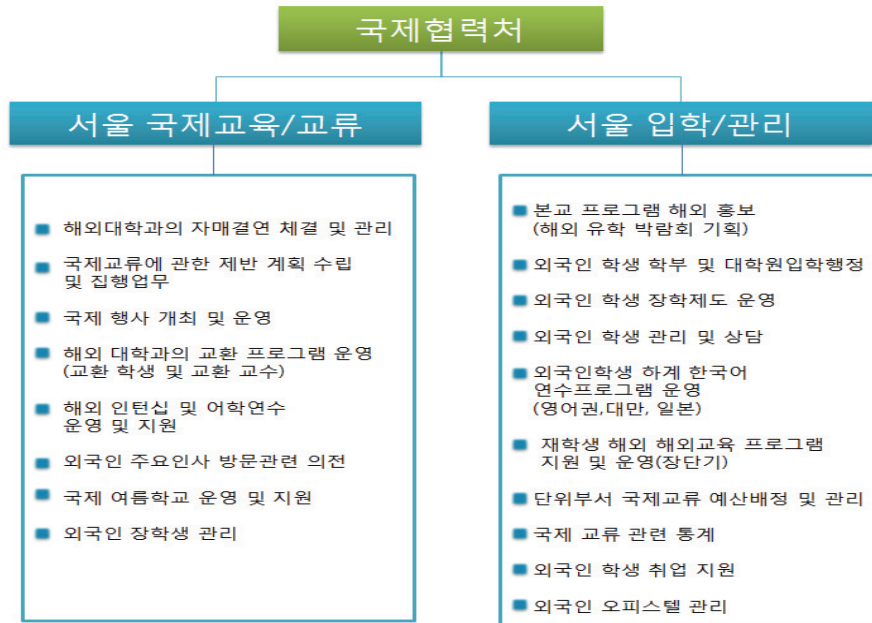
*출처: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주: 2013년 9월 30일 검색

2) 국제화 추진 조직

한양대학교는 국제협력처를 두어 국제교육/교류 업무와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 및 관리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운영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29) 본 자료(이기정, 2013)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우수사례’라는 제목으로 저자가 4월 30일에 발표한 한양대학 내부 프리젠테이션 자료임.



[그림 V-3] 한양대학교 국제협력처 조직도

*출처: 이기정, 2013

국내의 다른 대학의 학생 입학 관리 홍보 등이 다른 부처에서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한양대의 국제협력처는 21명의 직원을 두고 한 개의 팀으로 국제협력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 수도 타 대학에 비해 많은 편인데, 8명이 근무하고 있는 외국유학생의 입학 관리업무의 경우 타 대학에 비해 2배 가량 많은 인원이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국제협력처 예산의 경우 타 대학에 비해 2배 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한양대학교 교직원 면담, 8월 8일).

3) 외국인 유학생 선발 방법

한양대학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외국인 학생 입학 전형에 필기시험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필기 시험은 우수한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논술 시험을 보고 있고 시험은 4개 국어(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로 문제를 제출하고, 답안은 학생의 모국어(일반적으로 8개 국어)로 작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의 한국어 능력보다는 수학능력(논술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입학생 학업능력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외국인 학생들 스스로 시험을 보고 합격하였다는 자부심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제도는 외국인 학생 유치 관리인증제 심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표 V-15〉 한양대학교 외국인 학생 입학 전형방법

과정	모집단위	전형 방법				
		서류 평가	시험		면접	기타
			지필	실기		
학부 과정	전체 (예체능 제외)	0	논술 한국어		학과에 따라 별도 진행	- 서류평가와 논술형 지필시험(100점 만점)에 모두 합 격하면 최종 합격 - 논술시험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몽골어 중 언어를 택 1하여 답안 작성(사 고 및 수학능력 측정 가능)
	예체능계열	0	한국어	작품		

*출처: 이기정, 2013³⁰⁾

다. 한양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전략

유학생이 정원 외로 인정되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는 대학의 직접적인 수익 증대로 이어지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지만, 이 외에 한양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국내 재학생의 국제화이다. 재학생 한 명을 해외에 파견하여 얻어지는 국제화 성과는 해당 학생에게만 주어지거나, 그 주변 학생에게 간접적으로 미치는 정도로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외국인 유학생을 국내 캠퍼스에 유치할 경우 국내 캠퍼스에 재학 중인 다수의 학생에게 좀 더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한양대학의 국제협력처 직원뿐만이 아닌 학내 최고위 리더십에서도 공유되고 있어서 이 대학이 외국학생 유치에 적극적일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하고 있다(한양대학 교직원 면담 자료, 8월 8일).

두 번째는 해외 네트워크 구축이다. 이는 한 명의 외국인 학생을 교육시켜 그 학생이 자국으로 돌아가 한국을 알리고, 궁극적으로 한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한파, 혹은 친-한양대학파의 양성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의 학생보다는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국가의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현지 정부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국내로 유학을 오는 우수학생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한양대학은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다양한 각도와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타 대학과 차별화된 두 가지의 방식은 해외 정부와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이다.

1) 해외 정부와의 직접 커뮤니케이션

30) 본 자료(이기정, 2013)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우수사례’라는 제목으로 저자가 4월 30일에 발표한 한양대학 내부 프리젠테이션 자료임.

1986년 말레이시아 정부 장학생을 유치한 것을 필두로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중국, 브라질 등의 국가에서 529명의 정부장학생이 한양대학에서 수학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 장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현지 정부와 연계하는 방법은 정부주도의 에듀케이션 페어에 참석해서 학교 홍보를 하거나 정부나 고등교육기관을 직접 연결하여 학생을 유치하는 것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현지 정부 장학생을 받아들이는 나라는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이며, 브라질 칠레 등의 국가들은 정부 장학생을 파견하는 에듀케이션 페어를 통해 유학생을 한양대에 파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양대의 경우, 유학생 유치의 가능성이 엿보이는 지역은 관계자를 직접 만나서 학생 유치나 협력프로그램 개발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현지를 직접 찾아가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타 대학과는 차별화된 특징이라고 하겠다. 2013년 들어 칠레와 오만 정부와의 협약 체결을 한 상태라 외국정부 장학생의 유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V-16〉 한양대학교의 해외정부장학생 현황

국가	시작연도	현 재학생 수	과정 구분	누적 인원
말레이시아	1986	30	학부	231
사우디아라비아	2009	6	학부/대학원	7
파키스탄	2006	107	대학원	215
중국	2009	312	대학원	32
브라질	2012	44	학부/대학원	44

*출처: 이기정, 2013³¹⁾

해외 정부 장학생을 유치의 경우 현지의 우수한 학생을 교육하여 이 학생들이 자국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향후 국제네트워크 구축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말레이시아와 파키스탄의 경우는 현지에서 한양대학 출신의 동문회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해외정부 장학생 유치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의 성과를 조금씩 이루어내고 있는데, 말레이시아의 경우 2011년 처음으로 동문회를 개최하여, 현지에서 교수 및 기업의 주요 포지션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양대학 출신의 인재를 배출한 성공사례라고 볼 수 있겠다. 말레이시아 출신의 정부장학생을 유치하기 시작한 1986년 이래 25년이 지나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고 있다는 위 대학 교직원의 말은 이 대학이 국내 대학이 국제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던 1990년 대 후반보다 훨씬 앞서 투입한 노력의 결과물이 이제와 서서히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졸업생 배출을 통한 해외네트워크 구축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전략과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하는 영역임을 알 수 있다.

31) 본 자료(이기정, 2013)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우수사례’라는 제목으로 저자가 4월 30일에 발표한 한양대학 내부 프리젠테이션 자료임.

2) 해외 사무소 및 해외 유학반 운영

한양대학은 현재 중국 상해와 우한 두 지역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학홍보 및 유학생 유치 및 다양한 문화 활동, 교육사업, 중국 대학과의 교류창구 역할, 비즈니스 관련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 상해 사무소의 주요 사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V-17〉 한양대학교 상해 사무소의 주요 사업

구분		업무소개
비즈니스	기술해외사업화	한양대학 특허기술 판매를 위한 제반 사업
	컨설팅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 컨설팅
	중진공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민간컨설팅 센터 사업 수행
교육문화	대표처사업	대학 및 소단위(학과, 연구소)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 A대 중국사이트 운영
	학생유치	유학생 유치 사업 언어연수생 유치 사업 우수 중국 인재 유치 사업
	정기문화활동	중국인 대상 수요 문화 강좌 한국어 말하기 경진대회
현지사업	한국어교육	유학희망자에게 한국어 교육하는 수익사업

*출처: 한국사학진흥재단(2006), 한양대학교 상하이센터 소개자료³²⁾

한양대학은 중국 8개 지역에서 총 18개의 해외 유학반을 운영하여 매 학기 약 100~120명의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화중사범대학, 상구고등학교, 북경대, 산둥대의 유학반이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 이들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모집하고 대학에서 운영하는 해외사무소를 통하거나 강사를 파견하여 모집된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실력을 갖춘 학생을 입학시키는 방식으로 학생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해외유학반을 통해 입학하는 중국학생의 입학비율은 약 20% 정도로 알려져 있다³³⁾.

32) 본 자료는 ‘한양대학교(2006), 한양대 상하이센터 소개자료(http://www.hanyang.ac.kr/code_html/H6BA/000001/112/sanghai.pdf)’를 참고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간략하게 재정리한 자료임.

33) 출처: 국립국제교육원, 2013, 인증대학 우수사례 <http://www.studyinkorea.go.kr/confirm/>.

라. 한양대학교 유학생 서비스 관련 제도

외국인 유학생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이러한 추세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외국인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한양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외에도 다음과 같은 외국유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 외국인 유학생 대상 제도

① 외국인 학생 장학금 제도

한양대학교의 유학생 전용 장학 프로그램은 엄격한 심사를 통한 선발한다. 우선 외국인 유학생 기본 감면 장학금이 없으며, HIEA 장학금의 경우 서류심사 뿐만 아니라 면접도 진행한다. 장학 프로그램 운영은 성적 향상 및 상담을 통해 유학생들이 매 학기 선발하는 외국인 유학생 전용 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 성적 상승에 매진하며, 장학금 면접 심사는 유학생 상담 기능의 효과가 있다. 상담 내용으로는 유학 생활상의 어려움, 학업 문제, 진로 등의 문제들이다.

〈표 V-18〉 유학생 전용 장학금

입학생 장학금(등록 시 적용)	재학생 장학금(매 학기 선발)	외부 장학(상시 선발)
- HISP장학금 입학 신청자 중 우수 학생선발(50~100% 감면) - 여학우수장학금 입학 신청자 중 TOPIK5급 이상 소지자 (첫 학기 30% 감면) - 이공계우수장학금 이공계열 입학 신청자 중 본교 교수 추천자(50% 감면)	- HIEA장학금 •매 학기 선발: 전 학기 성적 3.0이상이고 TOPIK 성적 소지자에 한해 지원 가능 •전 학기 성적, 면접 점수를합산하여 순위별로 장학금을 차등 배정함(30~100%) •계열별 재학생 인원을 고려하여 선발인원 책정: 계열별 형평성 만족	- GKS장학금 GKS우수자 비장학금 홍보 및 추천 - 외부 기관 장학 각 기관의 장학 추천 조건에 맞는 우수한 학생들을 추천

*출처: 이기정, 2013³⁴⁾

② 외국인 학생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한양대학교는 향후 한국에서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가장 큰 이슈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취업 대기업 인사 관계자를 초청하여 외국인 학생 취업 상담 진행과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면접, 자기소개서 작성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 진행 등이 있으며, 상해 센터와 연결한 중국학생 현지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다. 그리고 국내 대학 중 가장 모범이

34) 본 자료(이기정, 2013)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우수사례’라는 제목으로 저자가 4월 30일에 발표한 한양대학 내부 프리젠테이션 자료임.

되는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학생의 인턴십 개발 및 취업 증대를 위해 2012년 90여개의 회사와 인턴십, 정규채용 등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표 V-19〉 외국 유학생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

국제협력처홈페이지 취업정보 게시	취업교육 프로그램	중국 현지 인턴십	취업 성공자 특강
- 매년 약 90건 게시 - 유학생 취업 전담 직원 2명 배치 - 지원서 작성 지도	- 4주 과정 - 평점 2.0이상자 지원 가능 - 50명 제한 - 수료 후 중국 인턴십 프로그램 신청 가능	- 4주 과정 - 취업 교육 프로그램 수료생 지원 가능 - 선발 시 상해로 인턴십 파견 -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 가능	- 졸업생 중 한국 또는 본국에서 취업에 성공한 선배를 초청하여 특강 진행

*출처: 이기정, 2013³⁵⁾

③ 외국인 학생을 위한 해외파견 프로그램

외국인 학생을 위한 해외파견 프로그램은 전 세계 30개 이상의 국가에 파견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인턴십 프로그램, 전 세계 탐방을 목적으로 한 글로벌 프론티어, 어학연수 및 탐방을 목적으로 한 단기 교환 프로그램 등 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표 V-20〉 외국 유학생 해외파견 프로그램

프로그램 명	파견 인원(명)	모집 시기	파견 시기	비 고
교환학생	800명	1, 8월	9, 1월	전세계 30개 이상 국가 파견
인턴십 프로그램	300명	4, 7, 10, 1월	7, 9, 12, 3월	파견 인원 및 국가 다변화 진행중 (말레이시아, 호주, 몰타 등 추가 진행 중, 전세계 대사관, KOTRA 지사 파견)
글로벌 프론티어	100명	4월	7, 8월	매년 20팀 선발 전세계 탐방 진행
단기 교환 프로그램	300명	4, 7, 10, 1월	7, 9, 12, 3월	전세계 다양한 언어 연수 및 탐방 프로그램 진행(2013년 칠레:스페인어/남아공:영어 연수 진행 예정)
화상영어 프로그램	400명	2, 7월	3, 9월	미국, 필리핀 현지 강사들과 1:1 강의 진행(성적우수자 해외 파견 진행)
단과대학 자체 교환 프로그램	500명	심의 중		2013년 신규로 단과대학 프로그램 진행
계	2,5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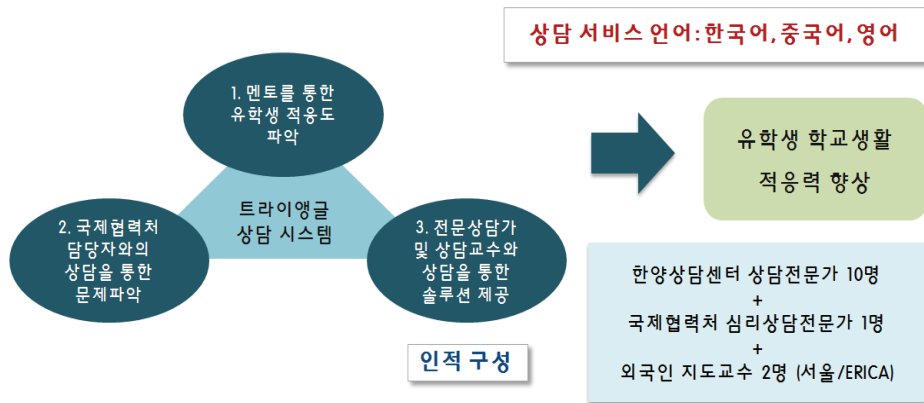
*출처: 이기정, 2013³⁶⁾

35) 본 자료(이기정, 2013)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우수사례’라는 제목으로 저자가 4월 30일에 발표한 한양대학 내부 프리젠테이션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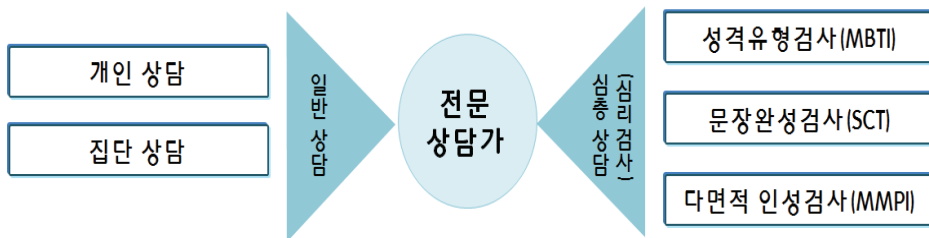
36) 본 자료(이기정, 2013)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우수사례’라는 제목으로 저자가 4월 30일에 발표한 한양대학 내부 프리젠테이션 자료임.

④ 외국인 학생 상담제도

한양대학교는 멘토를 통한 유학생 적응도 파악, 국제협력처 담당자와의 상담, 외국인 학생 상담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전문 상담가 및 상담교수와 상담을 통해 솔루션을 제공하는 트라이앵글 시스템으로 상담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상담서비스 언어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이며 상담전문가 10명, 국제협력처 심리 상담 전문가 1명, 외국인 지도교수 2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이러한 외국인 학생 상담 제도는 유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그림 V-4] 한양대 유학생 상담 프로세스

*출처: 이기정, 2013³⁷⁾

[그림 V-5] 전문 상담 프로그램

*출처: 이기정, 2013³⁸⁾

37) 본 자료(이기정, 2013)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우수사례’라는 제목으로 저자가 4월 30일에 발표한 한양대학 내부 프리젠테이션 자료임.

38) 본 자료(이기정, 2013)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우수사례’라는 제목으로 저자가 4월 30일에 발표한 한양대학 내부 프리젠테이션 자료임.

마.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운영의 과제

한양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일원화된 국제화 창구 운영과 국제협력 업무 경험이 있는 직원을 단과대학의 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으로 재배치하여 국제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외국학생 유치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대학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직원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처이다. 세 번째는 입학한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개별적이고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단일화 된 국제협력 업무 창구 운영은 의사 결정을 빠르고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과 국제협력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접하게 되어 직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첫째는 직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수 불가결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이직으로 인한 업무 차질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직원의 안정성이 적어 이직율이 높아 전문성을 축적하지 못하고 지속 가능한 국제화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학내 조직 구성의 문제로 국내외 교육기관 협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단과 대학이나 학과 중심의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꾀하고 싶어도 학내의 중앙집권적인 의사 결정 체제로 인해 개별 학과나 프로그램별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셋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외국어 전용 강의라거나 외국어 전용 트랙을 개설할 경우, 해외 홍보가 미진하여 국가 간 협력이 어렵다는 점이다.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폴란드나 리투아니아, 터키 등은 프로그램을 교육부 등의 해당 국가 정부에 등록을 하고 이를 정부 차원에서 각국에 홍보를 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이 모든 것이 대학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넷째, 정부의 규제 문제이다. 외국인 유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과 개설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 모집의 수단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악용하고 있는 소수 지역 대학의 교육 질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라 할 수 있지만 이를 전체 대학 수준에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 전용 학과 개설의 문제로 유학생 유치 확대를 꾀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남아있다.

다섯째, 유학생관리인증제의 평가지표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학생관리인증제의 평가지표 중, 유학생 출결관리 항목을 예로 들자면, 유학생 개개인이 등록한 모든 수업의 출결관리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데 실효성이 적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3 SUNY-Korea(Mode 3)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을 외국학교 법인에 한하고 있다. 외국학교법인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유아·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으로 관련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다. 현재 외국교육기관이 설립 가능한 지역으로는 6개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6개 기업도시, 평택시,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김미란 외, 2011). 외국교육기관은 해당 법령에 따라 설립준비 및 설립승인에 관한 심의 단계를 거치게 되며, 교육부장관의 최종 설립 승인으로 법인 등록 후 개교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교육부 승인 후 개교하여 학부 수준의 고등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외국교육기관은 SUNY-Korea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가. 개요

한국뉴욕주립대학교(SUNY Korea)는 2012년 인천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에 개교한 한국 최초의 미국대학교로 2012년 3월 석·박사과정을 시작으로 2013년 3월 학부과정까지 운영하는 외국고등교육기관이다. 한국뉴욕주립대의 본교인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스톤브룩(SUNY Stony Brook)은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주요대학으로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주립대학교인 총 64개 뉴욕주립대학교(SUNY)에 속하는 대학이다. 1957년에 개교한 스톤브룩 대학은 총 24,594명의 학부 및 대학원생이 재학 중이며, 1,900명 이상의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경제학, 의학, 물리학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 3명, 수학계의 노벨상인 필즈상 수상자 1명, 풀리처상 수상자 2명 등 우수한 교수진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또한, US News & World Report에서 미국 전국 100대 대학에 선정되었으며, 런던 The Times의 세계 대학 랭킹(Higher Education-QS World University Rankings)에서 상위 1%에 선정된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뉴욕주립대는 미국 스톤브룩 대학과 동일한 교육과정과 학위를 제공하는 확장 캠퍼스(extended campus)로 분교 캠퍼스(branch campus)와는 다른 개념으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현재 개설한 학과는 컴퓨터과학(Computer Science)과 기술경영(Technology & Society) 등 2개 전공의 석·박사 과정과 기술경영의 학부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9월에는 컴퓨터과학 학부과정을, 2015년 3월에는 기계공학 석·박사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캠퍼스 규모는 총 2,500명이 수용가능 100,335.47㎡(약 3만평)으로 강의연구동, 기숙사, 대강당, 수영장 등 학교운영에 필요한 주요 시설이 배치되어 있다. 학부학생 전원은 학교 내 기숙사에

서 기숙형 대학(residential college) 생활을 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 학생의 30%는 외국인, 70%는 내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미국 본교에서 파견된 교수진들과 100% 원어민으로 제공하는 한국뉴욕주립대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³⁹⁾.

〈표 V-21〉 한국뉴욕주립대 일반 현황

구분	내용
개교일	2012년 3월 3일
대학명	한국뉴욕주립대학교(SUNY Korea)
총장	김춘호
캠퍼스 규모	100,335.47㎡(약 3만평)
학생 모집인원	학부 100명, 대학원 90명
개설과정	기술경영(학부, 석·박사과정) 컴퓨터과학(석·박사과정)
등록금	연간 약 2만불
주소	인천시 연수구 송도문화로 119 406-840
웹사이트	http://www.sunykorea.ac.kr

*출처: 한국뉴욕주립대 홈페이지(<http://www.sunykorea.ac.kr>)를 토대로 재구성

나. 조직 운영의 특징

1) 비전 및 미션⁴⁰⁾

한국뉴욕주립대의 비전은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교육기관”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슬로건은 ‘History Makers. We Change The World.’ 이다. 즉, 인류의 향상을 위하여 공헌하는 실질적이고 실재하는 변화를 만드는 역사적 인물을 양성하는 세계적인 우수 교육기관이 되고자함을 의미한다. 또한 인류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미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뉴욕주립대의 교육적 사명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미션으로 Global Challenge를 해결하는 창의적 리더 양성,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지식을 세상과 나누는 공존 번영(Shared Prosperity),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과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상상력 및 비즈니스 개발(Imagination & Business Development), 오늘날 지식기반 사회에서 필요한 젊은 재능을 육성하는 글로벌 기업가정신(Global Entrepreneurship) 등이 있다.

39) 2013-2014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소개 자료(내부자료) 참고.

40) 출처: 한국뉴욕주립대 홈페이지(<http://www.sunykorea.ac.kr>).

2) 리더십 및 조직문화⁴¹⁾

한국뉴욕주립대의 조직 운영에서 중요한 리더십으로 섬김의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강조하고 있으며, 교수, 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 전체가 서로를 섬기는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한국뉴욕주립대는 한국에 설립된 미국대학이라는 점에서 구성원들 간의 관료제적 문화에서 벗어나 함께 공유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바탕으로 대학의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미국 본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전 직원은 한국어와 영어를 함께 구사할 수 있는 이중 언어 구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 조직 운영에서 본교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3) 조직구조⁴²⁾

한국대학의 경우 총장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만, 한국뉴욕주립대는 미국대학의 조직운영 구조를 따르기 때문에 총장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미국 본교인 스톤브룩 대학의 총장 평균임기가 14년 6개월이라는 점에서, 총장은 대학 조직 운영에서 CEO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대학기관의 질 관리를 위하여 2년마다 승인(accreditation)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뉴욕주립대에서도 2년마다 미국으로부터 대학기관으로서의 승인을 받고 있다. 한국뉴욕주립대는 주요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뉴욕주립대 이사회(〈표 V-22〉 참조)와 미국 뉴욕주립대학 총괄재단 총장의 프로세스가 함께 진행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표 V-22〉 한국뉴욕주립대 이사회

성명	직책
Dr. Dennis Assanis	Provost & Senior Vice President for Academic Affairs, Stony Brook University
Dr. Charles S. Taber	Dean of the Graduate School & Vice Provost for Graduate Education, Stony Brook University
Dr. Myung Oh	Chairman of the Board of Trustees, KAIST
Dr. Yacov Shamash	Vice President for Economic Development & Dean of College of Engineering and Applied Sciences, Stony Brook University
Mr. Lyle P. Gomes	Vice President for Finance, Stony Brook University
Dr. Mitch Leventhal	Vice Chancellor for Global Affairs, SUNY

*출처: 한국뉴욕주립대 홈페이지(<http://www.sunykorea.ac.kr>)

41) 출처: 한국뉴욕주립대 면담 자료, 9월 3일.

42) 출처: 한국뉴욕주립대 홈페이지(<http://www.sunykorea.ac.kr>).

4) 교육과정

한국뉴욕주립대의 학부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기숙형 대학(residential college) 생활에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매 학년에 맞게 설정된 주제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 한 후 학교의 비전과 사명을 실천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인성교육 프로그램 내용으로 1학년 때 대학 졸업 후 삶의 진로에 대한 계획과 설계를 돕는 코칭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2학년 때는 미국 본교에서 1년 동안 교양과정을 공부하면서 미국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후 한국뉴욕주립대로 돌아온 3학년과 4학년 때는 졸업 전 본인의 진로에 맞는 리더십 키우고 국내외의 리더들과 함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대학 졸업 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참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있다⁴³⁾.

〈표 V-23〉 한국뉴욕주립대 인성교육 프로그램 내용

학년	주제	내용
1학년	Life Planning -Dream, Hope, Vision	코칭 프로그램 명사 초청특강
2학년	Overseas/Global Experience	미국 본교 교양과정 수학 외국생활 경험
3학년	Entrepreneurship	기업가 정신 리더십
4학년	Case Study	국내외 리더들의 멘토링 프로그램

*출처: 2013-2014 한국뉴욕주립대 소개 자료(내부자료)

현재 한국뉴욕주립대에서 개설된 교육 프로그램은 스토니브룩 대학의 학위가 수여되는 기술경영학과(Technology & Society)와 컴퓨터과학과(Computer Science)이다(〈표 V-24〉 참조). 교수진은 미국 본교에서 파견되며, 모든 교육과정의 설계와 운영은 본교와 동일하며 모든 수업과정은 100% 영어로 진행된다.

기술경영학과는 공학 및 응용과학대학의 통합 전공으로 교육혁신과 STS(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커리큘럼 개발에서 대학, 지역, 국가적 리더십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학사과정에서는 실무능력을 갖춘 기술사업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기술과 경영의 융합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석사과정은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회에 직면한 많은 이슈를 정의하고 이해하기

43) 출처: 2013-2014 한국뉴욕주립대 소개 자료(내부자료) 참고.

위한 분석적인 도구와 실용적인 기술을 제공한다. 박사과정은 국가적 리더십의 중심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위한 과정으로 기술 혁신과 사회 변화의 상호작용 속에서 정책과 연구 설계 및 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컴퓨터과학과는 최근 대학원 과정 미국국립연구평가기관인 NRC Survey에서 미국 우수 석사 프로그램 20에 선정된 우수한 교육과정으로 현재 석·박사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석사과정은 비즈니스, 산업 및 정부에서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으로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프로젝트 업무 경험을 제공한다. 박사과정은 대학, 정부 및 산업 연구 기관 등에서 연구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과정으로 산업통산자원부가 주관하는 IT명품인재양성사업에 선정되어 등록금 및 기숙사비의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한국뉴욕주립대 면담 자료, 9월 3일).

〈표 V-24〉 한국뉴욕주립대 전공 과정 현황

전공명	학위	이수학점
Technology & Society	B.S. in Technological Systems Management	120학점
	M.S. in Technological Systems Management	30학점
	Ph.D. in Technology, Policy, and Innovation	34학점
Computer Science	M.S. in Computer Science	31학점
	Ph.D. in Computer Science	20학점

*출처: 한국뉴욕주립대 홈페이지(<http://www.sunykorea.ac.kr>)

5) 교수진

한국뉴욕주립대의 교수는 미국 본교인 스토니브룩 대학의 교수들로 파견되어 전공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주하는 교수들의 경우 캠퍼스 내의 교직원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미국 본교에서 수업을 병행하는 관계로 2~3주 단기로 거주하는 교수들의 경우 팀티칭으로 진행하며,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 한국뉴욕주립대는 본교의 확장캠퍼스 개념으로 운영됨에 따라 기술경영학과의 경우 학과장이 현재 상주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국가 출신의 교수진들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학업 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기술경영학과 5명, 컴퓨터과학과 7명으로 총 12명의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표 V-25〉 참조), 이 외에도 미국 본교의 교수들의 교육과 연구에 관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한국뉴욕주립대 면담 자료, 9월 3일).

〈표 V-25〉 한국뉴욕주립대 교수진 현황

소속	성명	직책	최종학력
기술경영학과 (Department of Technology and Society)	Fred Y. Phillips	Chair	Ph.D.,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Ted Teng	Professor	Ph.D., University of Pittsburgh
	David L. Ferguson	Distinguished Service Professor and Chair	Ph.D.,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Johng-lhl Lee	Professor	Ph.D., University of Cincinnati
	Hongshik Ahn	Professor	Ph.D., University of Wisconsin
	Y. J. Park	Assistant Professor	Ph.D., Syracuse University
	Nasir Sheikh	Assistant Professor	Ph.D., Portland State University
	Alexander J. Krejci	Research Assistant Professor	Ph.D., Vanderbilt University
	Jang Ik Lee	Research Professor	Ph.D., University of California
	Youngmin Oh	Research Professor	Ph.D., Seoul National University
컴퓨터과학과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Klaus Mueller	Chair	Ph.D., Ohio State University
	Bong Jun(David) Choi	Assistant Professor	Ph.D., University of Waterloo, Canada
	Pradipta De	Assistant Professor	Ph.D., Stony Brook University
	Sael Lee	Assistant Professor	Ph.D., Purdue University
	Ilchul Yoon	Assistant Professor	Ph.D.,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Vladimir Skvortsov	Research Assistant Professor	Ph.D., Saint Petersburg State Technical University, Russia
	Hyeon-Cheol Shin	Research Professor	Ph.D., University of Iowa

*출처: 2013-2014 한국뉴욕주립대 소개 자료(내부자료)

6) 학생선발

한국뉴욕주립대의 비전과 미션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하여, 전 세계의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선발에 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개도국의 학생들을 선발하여 한국의 우수한 기술 및 정보와 미국 교육과정을 배우고, 자국의 경제성장을 돕는 우수한 미래지도자로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KOTRA, 대사관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가추천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이 많으며, 현재까지 케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총 14개국의 학생들이 한국뉴욕주립대에서 수학하고 있다. 한국 학생의 경우 현재 전체 재학생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입학한 학생들의 특성으로 외교, 국제교 등 외국유학을 목표로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점에서 외국학생들과의 생활에 대한 적응과 이해도가 높은 편이다. 또한, 학생선발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학생 모집정원을 채우는 것보다 입학학생들의 수준을

높게 유지하여 대학교육의 질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한국뉴욕주립대 면담 자료, 9월 3일).

학생선발 시기는 봄, 가을학기로 나누어 학부 및 석·박사과정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전형일정에 따라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을 통해 입학사정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뉴욕주립대의 입학에 관한 모든 절차와 결정은 본교 입학처의 규정과 권한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 입학지원서 작성 시 미국 본교 사이트를 통해 접수하게 되어 있으며, 제출 서류의 경우 미국 본교 입학처로 우편 발송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뉴욕주립대의 학부 및 석·박사과정의 지원 자격 요건은 아래의 <표 V-26>과 같다.

<표 V-26> 한국뉴욕주립대 학부 및 대학원 과정 지원 자격 요건

구분	전공	지원 자격
학부과정	기술경영학과	■ 고교 졸업생 및 이에 동등한 학력 소지자 ■ 공인영어성적 (TOEFL IBT 80점 이상, IELTS 6.0이상, SAT CR 430점 이상)
석사과정	기술경영학과 컴퓨터과학과	■ 국내외 정규대학 4년제 학사학위 취득자 및 기타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 이상 학력 인정된 자 ■ 학부성적 3.0 이상(4.0 만점 기준) ■ 공인영어성적(TOFEL IBT 85점 이상, IELTS 6.5 이상) ■ GRE 성적 제출 가능자 ※ 기술경영학과: 전공무관/ 컴퓨터과학과: 이학 및 공학 관련 전공자
박사과정	기술경영학과 컴퓨터과학과	■ 국내외 정규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 및 기타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 이상 학력 인정된 자 ■ 학부성적 3.0 이상(4.0 만점 기준) ■ 공인영어성적(TOFEL IBT 90점 이상, IELTS 6.5 이상) ■ GRE 성적 제출 가능자 ※ 기술경영학과: 전공무관/ 컴퓨터과학과: 이학 및 공학 관련 전공자

*출처: 2013-2014 한국뉴욕주립대 소개 자료(내부자료)

7) 학교생활

가) 등록금 및 장학제도

등록금은 미국 본교와 동일한 학비로 적용되며, 한국뉴욕주립대에 재학하는 외국인 학생의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필수로 규정하고 있다. 등록금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생회비 등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한 학기 단위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표 V-27> 참조). 장학제도는 학부과정을 대상으로 5가지 종류의 장학제도가 있으며, 대학원과정은 4가지 종류의 장학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특히, 개도국 출신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서 전액장학금을 지급하여 한국뉴욕주립대에서 수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학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V-28>과 같다.

〈표 V-27〉 한국뉴욕주립대 등록금 현황

구분	등록금 (입학금+수업료)	기타납입금 (학생회비 등)	총계
학부과정	\$8,905	\$1,000	\$9,905
대학원과정	\$9,175	\$600	\$9,775

*주: 한 학기(16주) 기준

*출처: 2013-2014 한국뉴욕주립대 소개자료(내부자료)

〈표 V-28〉 한국뉴욕주립대 장학제도 현황

구분	장학종류	자격	지급내역
학부 과정	Presidential Scholarship	입학정원 3%이내 성적우수자	등록금 전액, 기숙사 및 식비 지원
	Merit Scholarship	성적 우수/사회 배려자	등록금 일부 지원
	Shared-Prosperty Scholarship	성적 우수 외국인	등록금 전액, 기숙사 및 식비 지원, Work-Study 기회
	학기 성적우수 장학	재학생 중 신청자 내	1학기 등록금 지원
	사회배려자 장학	북한이탈주민, 저소득계층	등록금 전액 지원
대학원 과정	대학원 연구장학	학과 추천	내부 심사 후 결정
	수업조교 장학	학과 수업조교	내부 심사 후 결정
	연구조교 장학	학과 및 지도교수의 연구조교	내부 심사 후 결정
	IT명품인재양성전형 (박사과정)	박사과정 10명 이내	등록금 전액, 생활비 지원 (기숙사 제공)

*출처: 2013-2014 한국뉴욕주립대 소개자료(내부자료)

나) 기숙사

한국뉴욕주립대의 학부과정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전원 학교 내 기숙사에서 기숙형 대학(residential college) 생활을 하고 있으며, 대학원 재학생의 경우 주말입사를 허용하고 있다. 기숙사에는 체력단련실, DVD Room, 세탁실, 독서실, 휴게실 등 다양한 시설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1인실과 2인실로 구성되어 있다. 기숙사비의 경우 16주의 정규학기 기준으로 1인실은 약 150만원, 2인실은 약 100만원이며, 식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표 V-29〉 참조).

〈표 V-29〉 한국뉴욕주립대 기숙사비 현황

(단위: 원)

구분	1인실		2인실	
	정규	주말	정규	주말
생활관비	1,500,000	750,000	950,000	475,000
보증금	50,000	50,000	50,000	50,000
총 금액	1,550,000	800,000	1,000,000	525,000

*주: 한 학기(16주) 기준

*출처: 송도글로벌대학 홈페이지(www.sgu.or.kr)

다) 학교시설⁴⁴⁾

도서관은 강의연구동에 위치한 대학도서관과 Multi-Complex에 위치한 중앙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스토니브룩 전자 도서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더욱 많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에게 연구와 학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학생들의 운동경기에서 문화 활동에 이르는 다양한 범위의 동아리를 조직하여 학생들의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강의연구동에 위치한 One Stop Service Center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업 및 학교생활과 학비, IT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곳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8) 예산 운영⁴⁵⁾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초기 정착에 필요한 초기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뉴욕주립대의 경우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에서 5년 동안 학교건물 및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내대학과의 파트너십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학교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현재 박사과정으로 IT명품인재양성사업을 포스텍과 공동으로 진행하여, 해당 전공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과 연구 활동비를 지원하여 최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대학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하여 한국뉴욕주립대에서는 단기적 계획에서부터 중장기적 계획까지 마련하고 있다. 현재, 단기적인 예산 확보 계획은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업, 복지가 등으로부터 자금조성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도국 출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44) 출처: 한국뉴욕주립대 홈페이지(http://www.sunykorea.ac.kr).

45) 한국뉴욕주립대 면담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면담일: 9월 3일).

지급하여 우수한 학생들을 확보하고 있다. 중장기적인 단계로는 창의적인 수익사업을 개발하여 한국뉴욕주립대에 입학하는 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뉴욕주립대의 졸업생들의 학교발전을 위한 기부금을 또 하나의 자원마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9) 정부의 지원 및 규제⁴⁶⁾

한국뉴욕주립대와 같이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에 유치되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초기 정착을 위하여 5년 동안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대학운영 지원금과 관련하여 초기 운영비에 필요한 재정을 연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50%, 인천시에서 50%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외국교육기관 유치 시 본교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조건으로 기타 대학운영에 관하여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을 따르는 한국뉴욕주립대의 경우 국내 대학과 달리 교사 및 교지에 대한 임차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뉴욕주립대는 외국교육기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뉴욕주립대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미국 본교로 송금하는 과실송금은 불가하다. 또한, 국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은 외국학교법인에 한하여 설립할 수 있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리법인에 의한 학교설립을 규제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교육부에서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및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거나 가액을 보험금으로 하는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다. 외국분교 운영의 과제

첫째는 안정적 재정 확보의 문제이다.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대학운영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초기 지원금을 5년 간 지원받는 한국뉴욕주립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5년 후 자립적으로 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현재는 동문 네트워킹을 통해 우수한 개도국 학생들을 선발하여 전액 장학생으로 한국뉴욕주립대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우수한 학생을 확보하기 위한 안정적인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교육과정 운영의 확대에 있어서의 규제이다. 현재 한국뉴욕주립대에서 기술경영학과와 컴

46) 한국뉴욕주립대 면담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면담일: 9월 3일).

퓨터과학과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컴퓨터과학과의 학부과정과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전공을 추가로 개설하고, 64개 뉴욕주립대학교 시스템에 속하는 미국 유명 패션대학인 FIT(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의 패션디자인(Fashion Design), 머천다이징(Merchandising) 전공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또한, 뉴욕주립대 빙햄턴(SUNY Binghamton)의 사회과학 및 인문학계열 전공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미국 본교와 한국 정부 간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셋째, 국내대학과의 파트너십 구축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뉴욕주립대는 국내 우수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협업과 교류를 통해 우수한 교육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포스텍과 파트너십으로 IT명품인재양성 박사과정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려대 컴퓨터과학과 학생들과 한국뉴욕주립대 기술경영학과 학생들 간의 융합과 관련한 인재양성 프로젝트를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대학과의 파트너십 형성과 학문적 교류를 통해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과제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제도적, 문화적 차이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외국교육기관이 국내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고등교육기관은 3곳이며, 한국뉴욕주립대는 2012년 3월에 개교하였다는 점에서 대학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다. 교육과정은 미국 대학의 내용으로 운영되지만, 학생들과 직원들은 국내에서 생활한다는 점과 관련하여 남학생들의 군입대 연기 문제, 사학연금 적용 불가 등과 관련된 세세한 제도적 장치 문제로 인한 대학 운영의 행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미국 본교는 주립대학으로 대학 유형이 분류되나, 한국에서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국내에서의 대학 기관의 정체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부족에 관한 문제는 한국뉴욕주립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4 포스텍(Mode 4)

가. 개요⁴⁷⁾

포스텍은 ‘우수한 연구결과를 창출하고 이를 사회에 전파함으로써 국가와 인류사회에 봉사한다’는 건학이념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철강 기업인 포스코(POSCO)의 지원으로 1987년 포항에 개

47) 출처: 포스텍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정리(<http://www.postech.ac.kr>).

교한 이래로 20여년 만에 세계수준 대학으로 성장한 우수 사립대학이다. 포스텍은 과학과 기술 분야에 중점을 둔 연구중심대학으로 학부·대학원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학년도부터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학부 입학정원 300명 전원을 선발하고 있다. 포스텍은 2020년까지 세계 우수 20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VISION 2020을 선포하고 선택적 중심적 접근, 연구 협업, 국제화를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포스텍에서 국제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해외교수 영입, 세계적인 연구소와의 공동연구 활성화와 융합연구센터 건립, 국내대학 최초 영어공용화 캠퍼스 실현, 국제화 실현을 위한 1,800여억 원 집중 투자 등을 들 수 있다.

〈표 V-30〉 포스텍 주요 연혁

1985 ~ 1989	국내 최초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출범
1987. 03. 05	제 1회 입학식
1988. 03. 02	제 1회 대학원 입학식
1990 ~ 1999	시대를 앞서가는 연구, 사이언스 메카
1991. 01. 14	제 1회 학사학위수여식
1998. 05. 15	아시아위크지 ‘아시아 과기대 1위’ 선정
2000 ~ 현재	국내 정상을 넘어, 아시아 최고의 이공계 대학으로 성장
2002. 08. 17	교육개혁 우수대학 7년 연속 선정
2004. 07. 16 ~ 22	제 35회 국제 물리올림피아드 개최
2006. 04. 10	‘POSTECH VISION 2020’ 선포
2007. 08. 14	포스코국제관 개관
2009. 10. 30	POSTECH 제1호 해외사무소 중국 베이징사무소 개소식
2010. 03. 02	Bilingual Campus 선포
2010. 05. 18	POSTECH 제2호 해외사무소 베트남 하노이사무소 개소식
2013. 04. 12	2013년 The Times 아시아 대학평가 5위(국내 1위)
2013. 06. 20	영국 더타임즈 설립 50년 이내 세계대학평가(100 under 50) 1위 (2년 연속)

*출처: 포스텍 홈페이지(<http://www.postech.ac.kr>)

나. 국제화 추진 현황

1) 국제화 현황⁴⁸⁾

포스텍은 국제화 캠퍼스 실현을 위하여 2013년 4월 현재 전 세계 24개국 87개의 우수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여 다양한 학술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10년 이후 교양교육을 제외

48) 포스텍 국제협력팀 내부자료(2012)를 참고하여 정리.

한 모든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을 100% 영어강의로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현재 학부수업의 70%와 대학원 수업의 100%가 영어강의로 운영되고 있다. 이 외에도 외국인 구성원(〈표 V-31〉 참조)을 위한 외국인통합지원서비스센터(ISSS: International Student and Scholar Services)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국제협력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제화 프로그램은 아래의 〈표 V-32〉와 같다.

〈표 V-31〉 2013년 포스텍 외국인 학생 및 전임교원 현황

학생		전임교원	
교환	11명	교수	14명
방문	14명	부교수	4명
공동학위·복수학위	0명	조교수	3명
어학연수	0명	전임강사	정보없음
합계	25명	합계	21명

*출처: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2013. 07. 26 기준)

〈표 V-32〉 포스텍 국제화 프로그램 현황

구분	프로그램 명	주요내용
Outbound Program	해외단기유학	■ 선진대학의 교육 및 해외문화 체험 기회 제공 ■ 외국대학 수강 가능한 외국어 실력 갖춘 3학년 학생 ■ 한 학기동안 해외 자매결연대학 수강 후 학점 인정
	Study Abroad Program	■ 해외자매대학 외 영미권의 명문대학에서 한 학기 또는 1년간 학점취득 및 폭 넓은 해외문화 체험 기회 제공 ■ 해외단기유학과 동일한 학점인정절차로 유학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에서 인정 ■ 단기유학과 달리 학생들이 유학 학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봄학기 및 가을학기 두 차례에 걸쳐 지원자 모집
	Summer Session	■ 학부 재학생 중 2학년 이상 학생 대상 ■ 해외명문대학에서 여름 계절학기동안 Summer Session 교과목을 수강하거나, 어학연수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Summer Session에서 수강한 교과목은 학과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 하에 본교 학점 인정
	해외인턴십	■ 세계 우수기업, 연구소, 대학 등에서 기술실무 및 국제 경험 체득기회 제공
	AEARU Student Summer Camp	■ 동아시아 연구중심대학협의회(Association of East Asian Research Universities, AEARU)는 한국·중국(홍콩 포함)·대만·일본 등 4개국의 17개 연구중심대학이 학술교류와 연구증진을 목적으로 1996년 1월 발족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POSTECH과 KAIST, 서울대가 회원대학으로 활동 ■ 동아시아 연구중심대학 학생들의 학술·문화교류 및 우호증진을 위해 매년 여름 방학 중 회원대학이 돌아가면서 개최 ■ 1997년 7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POSTECH에서 첫 캠프를 가진데 이어,

구분	프로그램 명	주요내용
		'98년 대만 국립청화대학, '99년 중국 북경대학과 홍콩과학기술대학, 2000년 일본 도쿄대학과 홍콩과학기술대학에서 개최하였으며, '99년부터는 General & Topical 두 가지 형태로 개최하고 있으며, 참가비와 체재비 전액 학교 지원
Inbound Program	Exchange Program	- 한 학기 또는 1년 간 학기별로 3 ~ 9학점을 수강하는 것으로 영어가 능숙한 외국학생 지원 가능 - 학부수업의 70%, 대학원 수업의 100% 원어민강의로 운영
	Research Program	- 학생과 지도 교수 간에 정해진 기간 동안 포스텍에서 연구 활동 참여 - 연구기간 최대 1년
	Combined Program	수업과 연구를 함께 병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자격을 갖춘 외국 학생에게 제공

출처: 포스텍 홈페이지(<http://www.postech.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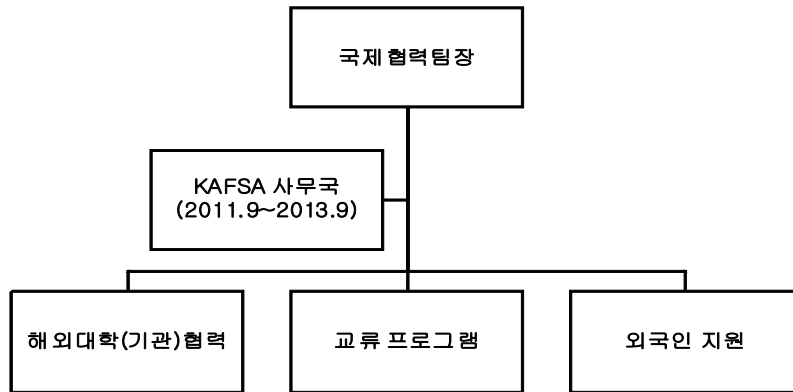
2) 국제화 추진 조직

포스텍의 기획처 국제협력팀은 '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발전하는 국제화 캠퍼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해외 파트너십 구축과 국제 교류 활동 수행 및 지원, 외국인 구성원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해외대학(기관)협력, 교류 프로그램, 외국인 지원 등 3개 영역과 12개의 단위업무로 구성되어 있다(〈표 V-33〉 참조). 구성원은 국제협력업무 팀장 1명, 해외대학(기관)협력 및 교류 프로그램 담당자 5명, 외국인 지원 담당자 2명으로 조직되어 있다(그림 V-6 참조). 교류 프로그램의 경우 Outgoing과 Incoming 담당자로 구분하던 것에서 미주, 유럽, 아시아, 동아시아 등 지역별 담당자로 업무를 구분하여 해당 지역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업무를 구성하고 있다.

〈표 V-33〉 포스텍 국제협력팀 업무 내용

영역	단위업무
해외대학(기관)협력	■ 해외대학 교류 협력(자매대학교류) ■ 학술교류협정체결 ■ 총장 해외대학업무 ■ 국제기관 협력(AEARU) ■ 유관기관 교류 협력(외교공관/교육부) ■ 해외 내방객 ■ 대학자문위원회(UAC)
교류 프로그램	■ Outgoing 프로그램 ■ Incoming 프로그램
외국인 지원	■ 외국인 교원, 연구원, 교환학생 지원(ISSS) ■ POSTECH Summer & Winter Research Program ■ Bilingual Campus

*출처: 포스텍 국제협력팀 홈페이지 내용 재구성 (<http://www.postech.ac.kr/international/eng/subpage.php?Pcode=About&Ccode=01&PageNum=010100>)



[그림 V-6] 포스텍 국제협력팀 조직도

*출처: 포스텍 국제협력팀 내부자료(2012)

3)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현황 및 분석⁴⁹⁾

가) 도입 배경 및 목적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은 2020년까지 세계 우수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포스텍의 VISION 2020에 따라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전공과목의 실습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은 국내와 다른 환경에서 연구를 경험하고, 외국인들과 협업하는 과정을 통해 국제적인 실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나) 참가 방법

포스텍의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존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대학의 연구실로 지원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학생 스스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곳을 찾는 방법이다. 이는 주로 교수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개별적으로 인턴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찾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는 IAESTE에서 운영하는 IAESTE 인턴십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로 선발되면 대학에서 200만원의 인턴활동 장학금이 지급된다. 이 프로그

49) 포스텍 국제협력팀 내부자료(2012) 및 면담자료(면담일: 8월 22일)를 바탕으로 정리.

램의 경우 포스텍에서 2011년까지 IAESTE 기관의 회원대학으로 가입하여 IAESTE 기관에 등록된 이공계 인턴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현재는 멤버십 비용(membership fee)이 부담이 되고 있다.

다) 참가 현황

포스텍의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22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인턴십 참여기간은 이공계열 교육과정의 특성으로 학업에 대한 우려에 따라 방학기간 동안 단기로 참여하는 비율이 높으며, 휴학 비율은 낮은 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는 동안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미리 계획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인턴십 참여 학기는 주로 3학년 2학기에서 4학년 1학기이며, 졸업학기 한 학기 전까지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인턴십 참가 국가는 유럽이 가장 큰 비중으로 전체의 5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참가하는 인턴 기관이 주로 연구소라는 점과 유럽에서 인턴 경험을 하고 온 선배들의 경험담에서 정보를 얻는다는 점 등이 유럽을 선택하게 하는 요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포스텍의 전체 재학생에서 남학생 비율이 83%라는 점에서 인턴십에 참가 한 남학생 비율이 전체 참여자의 86.3%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V-34〉, 〈표 V-35〉 참조).

〈표 V-34〉 포스텍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참가자 현황

참가 연도	성별		참가국가				참가기간	
	남	여	유럽	미주	아시아	기타	학기중	방학
2007	4	1	4			1	3	2
2008	5	0	2	1		2	1	4
2009	3	1	3		1		1	3
2010	4	0	2	2			2	2
2011	3	1	1		3		2	2
합계	19	3	12	3	4	3	9	13

*출처: 포스텍 국제협력팀 내부자료(2012)

〈표 V-35〉 포스텍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채용 기관 현황

구분	채용기관	국가	참가인원 (단위: 명)
대학 연구소	Lappeenranta University of Technology	핀란드	1
	Helsinki University of Technology	핀란드	1
	University of Oxford	영국	1
	University of Sheffield	영국	1
	ARORG, Institute for Surgical Tech & Biomechanics, University of Bern	스위스	1
	University of Minnesota	미국	1
	India MIT(Manipal Institute of Technology)	인도	3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홍콩	2
	University of Tokyo, Research Internship Program(UTRIP)	일본	1
정부출현 연구소	Fraunhofer Institution Solar Energy System	독일	1
	PTB(Physikalisch Technische Bundesanstalt)	독일	1
	A*STAR(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	싱가포르	1
기업	Kraft Fodds Inc.	독일	1
	Wiegand Glas	독일	1
	Hellenic Petroleum SA	그리스	1
	Chr. Hansen	덴마크	1
	Hot Disk AB	스웨덴	1
	Lux	미국	2

*출처: 포스텍 국제협력팀 내부자료(2012)

라) 해외인턴십 운영 특징

포스텍은 국제화 프로그램을 대학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는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또한 학생들의 국제화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해외 교류 경험과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공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학의 환경 속에서 국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담당하고 있는 국제협력팀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돕기 위하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총장 특강 등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업계획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포스텍 대학운영시스템(POVIS)에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에 관한 안내와 설명회 등에 관한 내용을 홍보하고, 개인적으로 문의하는 학생들에게도 상담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포스텍의 국제화에 관한 적극적인 지원과 장려는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성공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포스텍은 학생들에게 해외에서의 전공과목과 관련된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대학에서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검증을 통하여 선별적으로 운영한다는 특징이 있다.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제협력팀에서 프로그램을 선정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좋은 질(quality)의 인턴기관(job placement)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학생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무급으로 참여하는 무분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포스텍의 학생들이 가진 특성에 맞춘 이공계 학생들의 연구 경험을 제공하고 유급으로 인턴십을 경험할 수 있는 IAESTE(국제이공계인턴교류협회)와 같은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독일의 Kraft Foods Inc. 기업에서 인턴십에 참여한 학생의 경우 우수한 성과를 보여 HR 담당자로부터 포스텍과 지속적인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대학의 내실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성공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영어인증제의 실시이다. 포스텍은 국제화 캠퍼스 실현을 위하여 현재 학부수업의 70%, 대학원 수업의 100%가 영어강의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포스텍은 2008년 입학생부터 영어인증제를 도입하여 졸업 시 영어인증제 2등급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것을 졸업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참여 기준에도 반영하고 있다. 영어인증제는 1~5등급으로 구분되며, 포스텍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영어 배치고사를 통해 등급을 부여받은 후 영어인증제를 이수하기 위한 등급별 과목 수강 시 총 4학점을 부여하고 있다(〈표 V-36〉 참조). 이처럼 대학 내에서 철저한 영어 교육을 제공함에 따라 학생들이 해외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함에 있어서 언어적인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대학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V-36〉 포스텍의 영어인증제 등급별 수강 과목

등급	수강과목	필수 / 선택
5등급	말하기+쓰기: 영어 I, II	필수
4등급	말하기+쓰기: 영어 III, IV	필수
3등급	말하기: 중급영어회화, 중급영어연설, 중급시청각영어	2과목 선택
2등급	쓰기: 중급영작문, 중급영어강독, 영문법 말하기: 고급영어회화, 고급영어연설, 고급시청각영어	쓰기/말하기: 각 1과목 선택
1등급	쓰기: 고급영작문, 고급영어강독, 영어논문작성	1과목 선택

*출처: 포스텍 홈페이지(<http://www.postech.ac.kr>)

넷째는 밀착형 학생지도이다. 포스텍에서 학부 신입생을 전원 입학사정관제로 약 300명의 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학부학생 대 교수 비율이 5.2:1명으로 소수정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1, 2학년 학생 전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기숙형 대학(residential college)를 운영하여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소규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의 적응과 경험을 위한 밀착형 학생지도는 학생들의 학업과 학사지도에 대한 교수와 선후배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대학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학생들의 해외인턴십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인턴십 경험자인 선배를 통해 정보를 얻기도 하며, 교수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인턴십에 참여하기도 한다. 이는 대학 내의 교수와 학생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밀착형 학생지도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성공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다. 해외 인턴십 운영의 과제

첫째는 인턴십을 할 수 있는 현장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포스텍과 같은 연구중심대학의 이공계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적합한 프로그램을 찾기 못하여 현재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한 상태이다. 이공계열 학생들의 교육과정의 특징으로 학업의 연계성을 위하여 방학 중 운영되는 단기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취업을 목적으로 한 인턴십이 아닌 전공경험을 살릴 수 있는 현장학습 개념의 해외 인턴십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부해외인턴사업의 경우 취업연계 강화 프로그램의 수가 많고, 글로벌 역량강화에 해당하는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의 경우 학점을 인정해 주는 대학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스텍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다.

둘째는 인턴십 국가와 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희망하는 기간과 전공에 맞는 곳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제협력팀에서는 대학에서 추구하는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찾기 위한 노력 끝에 IAESTE 인턴십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IAESTE 인턴십 프로그램의 경우 개인사업화에 따른 멤버십 비용 지불과 관련한 예산 문제로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를 대체할 프로그램을 찾고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공계 학생들의 경우 교육과정의 연계성이 중요하여 한 학기를 휴학하고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관계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해외 인턴십 경험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편이다. 그러나 방학기간에 참여하기 위하여 미리 지원하여도 인턴십 기관의 부족으로 전공에 맞는 기관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점은 과제라 할 수 있다.

셋째, 인턴십 연구에 관한 사전 정보 부족이다. 해외 연구소에서 연구 경험을 희망하여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나, 전공과 연관되는 연구소에 지원하여 인턴십 활동에 참여하여도 실제로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내용은 본인이 접해보지 못했던 내용으로 연구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 참여보다는 연구소의 지도 교수 혹은 동료로부터 도움을 받아 학문에 대한 학습이나 내용을 파악하는 것으로 인턴 활동이 이루어지거나 인턴활동에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점에서 인턴십 참여 전 인턴활동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5 소결

이상 모드에 따라 공동교육과정개발의 서울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가 우수한 한양대, 외국교육기관으로 학부과정을 설치하고 있는 SUNY-Korea, 해외 파견을 적극적으로 꺾고 있는 POSTECH의 4개 대학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사례 대학 모두 정부의 지나친 규제를 문제로 들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꼭 필요한 외국인 유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과 개설이 불가능하다거나 유학생관리인증제의 평가지표 중 유학생 출결관리 사항과 같이 불필요한 규제로 대학 국제화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SUNY-Korea와 같은 외국교육기관 역시 다양한 교육과정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대학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었다. 해외 인턴십 활성화 사례에서도 글로벌 역량강화에 해당하는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의 경우 학점을 인정해 주는 대학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고 있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정부의 규제와 더불어 정부의 예산 지원의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우수한 학생을 확보하기 위한 안정적인 장학기금 조성뿐 아니라,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도 학점 인정, 나아가 공동학위 혹은 복수학위 취득을 위한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국가 수준에서의 재정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정부뿐 아니라 대학 내부 구성원의 합의 도출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공동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도 대학 본부 차원에서의 조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여 단과 대학 혹은 전공 내에서의 개별 대응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기타 대학 국제화 추진에 있어서도 직원의 전문

성 부족으로 인한 이직율의 증가나 학내 조직 구성의 문제로 국내외 교육기관 협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부 구성원의 합의 도출을 통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국제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넷째는 파트너십의 구축이 향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커리큘럼의 개발을 비롯하여 수업 방법은 물론이고 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소 이수 학점 기준이나 학위 형태 등의 국제적 통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SUNY-Korea와 같은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국내대학과의 공동연구 확대를 위해, POSTECH 역시 전공에 맞는 인턴십 기관의 선택과 기간 및 전공 조정을 위해 향후 국내외 파트너십의 구축을 과제로 들고 있었다. 해외에서의 인지도 향상, 교육과정의 질 제고를 통한 파트너십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VI

면담 조사 분석

1. 면담 조사 개요
2. 한국 대학 국제화의 필요성
3. 한국 대학 국제화 추진의 문제
4. 국제화 추진을 위한 개선 방안
5. 소결

VI

면담 조사 분석

1 면담 조사 개요

대학 국제화 정책 진단 및 개선을 위해 세미나, 협의회, 서면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학 국제화 담당 부서 관계자는 물론, 국제화 전문가, 정책 관련자 등은 물론 국내에 분교를 설치하고 있는 외국교육기관 관계자 면담을 통해 실제 대학 국제화의 필요성, 중시되어야 할 부분, 국제화 추진의 문제, 대학 개선방안과 정책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들 면담 내용을 한국 대학 국제화 현황에 대한 인식, 문제점 그리고 제언 등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대학 국제화 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표 VI-1〉 면담 대상자 현황

구분	기관	대상	총인원
국내대학 관계자	SN대	국제협력본부미주담당소장	5명
	HY대	국제화담당과장	
	CA대	국제교류협력처장	
	PS대	기획처장, 과장	
외국대학 관계자	SK대	총장, 기획처장	4명
	UK대	기획처장	
	FB대	기획실장	
정책 전문가	SA재단	대학연구소장	4명
	KR연구소	고등교육정책부서연구위원	
	KH대	정책연구담당 교수	
	GC대	정책연구담당 교수	
합계	13명		

2 한국 대학 국제화의 필요성

가. 국제환경의 변화

먼저 대학 국제화가 왜 필요한 지 그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무엇보다도 국제 환경의 변화를 들었다. 세계적인 글로벌화로 인해 국가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노동 시장이 확대되는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자: 왜 대학의 국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GC대 관계자: 무엇보다도 전 세계적인 글로벌화로 인해 무역 및 노동, 문화 등 삶의 제 영역에서 국가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졸업생들의 활동 무대가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국제 노동시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어서 국제화는 필수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KH대 관계자: 국제화는 필요의 여부를 논할 주제가 아닌 문화적 기류와 같은 성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학이 국제화되는 것은 변화하는 외부환경과 이로 인한 대학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하여 대학이 얼마나, 어떻게 적응하고 이후 관련 역량을 배양, 육성해 가느냐의 문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UK대 관계자: 세계화가 점점 진행됨에 따라 타국가들과 교류 및 협력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다른 나라의 문화, 언어,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면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화에 앞장서며 글로벌마인드를 갖출 수 있도록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다양성 및 타 문화와 화합하고 언어 및 문화를 배우고 상호간 인적교류를 통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세계화에 걸맞는 인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국제적인 능력이 안되면 국제적으로 치열한 경쟁적인 관계에서 생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터넷의 발달, WTO 등과 같은 세계무역 교류, Hot Money와 같은 유동성 자금의 국제적 이동으로 다국적 기업이 대두되고 있어 국내 기업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KR연구소 관계자: 첨단과학기술 및 교통통신의 발달과 경제의 세계화의 진행에 따라, 기업의 국제적 역량은 우리나라 기업의 필수적인 역량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통신위성, 인터넷 등의 발달로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용이하고, WTO 등, 세계 무역기구의 출범, 핫머니(hot money)와 같은 유동성 자금의 국제적 이동의 증가로 다수의 다국적 기업이 출현하고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기업 또한 자본, 기술, 노동력을 해외로 이전시켜 경영활동을 전개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특히, 자본과 기술투자의 격차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줄어들면 들수록, 인적자본의 영향력은 증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학의 국제화를 통해 노동시장이행을 앞둔 대졸자의 국제적 역량을 함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속화된 국제화의 진행으로 국가 간 경계가 무너지고 인적자원 확보에 있어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한 만큼 대학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인재를 길러 글로벌사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기여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대학의 국제화는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우리 학생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세계인과 상생, 협력하여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즉, 세계의 모든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대학이 되기 위해 대학 교육을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가시적인 글로벌 인프라를 구축함은 물론, 우리대학의 글로벌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져 아직 우리보다 못한 국가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국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접할 수 있었다.

SK대 관계자: [...] 이 학교는 분명히 미국대학인데, 미국 학위를 주는 대학인데 한국에 있어요. 이게 답일 것 같아요. [...] 대한민국이 참 많은 일들을 이뤄냈어요. 정치민주화, 세계적인 스포츠강국 등등,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들, 지금 옛날 우리나라처럼 못 사는 나라들은 배우고 싶어해요. [...] 그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키워서 그들 나라로 돌아가서 대한민국처럼 잘 사는 나라 만들고, 이왕이면 잘 먹고 잘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르고 정직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만들어서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HY대 관계자: [...] 대의적인 차원에서 보면, 국제화라는 것이죠. [...] 중국, 아프리카 무상원조를 통해 교육을 시키고 지한파를 양성하고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미래를 주도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들이 국제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학교에서는 말레이시아 졸업생을 400명 정도 배출해서 동문회도 열고, 말레이시아에서 교수 20여명, 삼성에 몇 명 해서 성과가 큼니다.

나. 국내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 제고

이러한 외부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국내 요인으로서는 사립 중심의 국내 대학 구조 상, 대학 존립과 관련된 학생 확보는 물론 국제경쟁력 제고를 통한 고등교육 질의 향상을 위해 국제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국제화를 통해서 한국의 교육성과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이를 인증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곧 국제화라는 것이다.

연구자: 왜 대학의 국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GC대 관계자: [...]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는 한국 대학의 국제화를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몇 년 후부터 정원 대비 고졸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학생 유치는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대학의 생존 자체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 대학 국제화는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SA재단 관계자: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자율경쟁과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으로서 교육도 일종의 서비스(상품)이라고 본다면, 현재 국내 대학교육이란 상품의 품질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내 부적으로도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년 교육을 받기위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국내학생은 262,465명이며,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유학생은 89,537명으로 국내학생의 국외유출이 국내유입보다 2.9배 많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유학수지는 2011년 기준 약 44억불(한화 5조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외국대학에 비해 국내대학의 교육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한 대표사례로 고등교육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국제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UK대학 관계자: 또한 국제화를 통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출을 통해 경제를 유지하므로 더욱 대학의 국제화를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화를 통해서 한국의 교육 성과 (특히 수학, 과학, IT, 의학 등)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국제적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국내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 국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 FB대 관계자의 면담 자료에서도 외국대학의 유치가 외국기업들의 국내 유치 및 진출을 촉진시키고 외국대학 졸업생들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구축될 뿐 아니라 국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국내학생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연구자: 왜 대학의 국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FB대 관계자: 대학의 국제화를 통해 국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국외 대학들과의 연구 협력을 통한 국제화가 결국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유명대학의 국내 유치를 통해 단순한 외국대학만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학과 관련 있는 산업분야의 기업들과 한국기업들의 협력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그 관련 외국기업들의 국내 유치 및 진출을 촉진시킬 수 있는 거지요. 유치된 외국대학에서 국내 인재양성을 통해 글로벌인재로써의 교육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어 졸업생들을 통한 인적네트워크 구축만으로도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내학생들에게는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

공하게 되고 이를 통해 해외진출의 기회를 창출하게 되기 때문에 외국대학의 유치는 국내대학들에게 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협력가능성을 넓힐 수 있어 상생 가능성과 발전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국내대학들의 세계 진출도 용이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학의 국제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글로벌시대에 있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지요.

또한 국내 대학의 해외 인지도를 제고하여 국내 대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뿐 아니라, 국내 대학의 정원 미달로 인한 대한 사립대학의 재정 구조 개선을 위해서도 국제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자: 왜 대학의 국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CA대 관계자: [...] 외국 학생의 국내 유치와 국내학생의 외국대학 파견을 통해 국제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화 마인드를 심어 줌으로써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르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국내 대학의 해외 인지도를 제고하고 국내 대학의 우수성을 인식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 나아가서는 국내 대학의 신입생 수 감소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정원 외 학생인 외국 유학생을 유치함으로써 대학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 학생들의 스펙 중시

국제환경의 변화나 국내 대학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수요자인 학생들의 수요가 대학의 국제화에 박차를 가하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SN대학 관계자: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것은 국제화의 최종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유학생 형태의 교류가 있고, 이게 정착이 되는 단계가 공동교육과정 운영이거든요. 예전에는 SN대학에 대한 인지도가 적었지만 최근에는 해외에서 인정하고 같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자는 제안이 많이 들어와요. [...] 그러면서 아시아뿐 아니라 구미에서도 SN대학에서 배우고 싶다는 학생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공동교육과정을 확대하는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자: 학생들이 왜 선호하나요?

SN대학 관계자: 일단은 학생들이 국제 스펙을 중시하는 거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수요자잖아요. 수요가 있으니 공급을 하는 거지요.

이러한 학생들의 인식 변화는 공동교육과정 운영뿐 아니라 해외 인턴십 운영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다음 PS대 관계자의 면담자료에서처럼 학생들이 자비를 들여서라도 해외 인턴십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은 인턴십을 통한 취업과 관계없이 해외 경험을 하나의 스펙으로 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PS대 관계자 1: 해외 인턴십의 경우 경영분야, IT 분야로 많이 나가요. 사실 인턴십이라는 것이 회사에서 교육을 시켜 정식 직원을 되기 전 단계로 채용하는 거잖아요. 학생이 뭘 배우기 위해서 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보자면 당연히 pay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내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제공되는 많은 인턴십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없더라도 학생들이 스펙 때문에 자비를 들여 인턴십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 채용이 되는 경우도 거의 없는데도 말이지요.

3 한국 대학 국제화 추진의 문제

가. 국제화 비전의 부족

한국 대학의 국제화 추진의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대학 스스로의 국제화 비전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존재하고 있었다. 다음 면담 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제화가 영어 강의와 같은 외형적인 측면에서만 강조되고 있어 대학 차원에서의 국제화 해석을 바탕으로 한 추진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라 할 수 있다.

연구자: 대학의 국제화 추진의 문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GC대학 관계자: [...] 교육내용과 방법의 국제화 보다는 ‘영어강의 확대’ 및 ‘유학생 유치’와 같은 외형적 측면의 국제화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어강의를 잘 할 수 있는 교원을 충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적으로만 확대된 영어강의는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국내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에 따라 이름만 영어강의인 경우들이 아직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국제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외형적 요인(정부정책, 언론기관 평가, 외국인 학생 유치의 필요성 등)들에 의해서 국제화를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KH대학 관계자: 앞서 언급하였지만, 교육당국에서 제시하는 고등교육국제화의 주요 정책지표인 영어강의 비율과 SCI, SSCI 논문수의 증대가 대학 국제화 추진의 양대 축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이를 보완하거나 견제할 어떠한 국제화 추진 장치가 마련된다거나 논의되고 있지 못한 점이 문제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재정난 해결을 위한 무분별한 유학생 유치로, 유학생의 수준이 낮아 국내 학생들과의 문화적 마찰을 빚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을 다음 면담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A대 관계자: [...] 무분별한 유학생 유치로 인해 실제 유학생 수준이 내국인 학생에 비해 지나치게 떨어지는 대학도 많습니다. [...] 사정이 이러다 보니 제3세계 출신 학생에 대한 대학 사회, 학생은 물론이고 교수님들조차 개방적인 수용 마인드가 많이 부족해요. [...] 영미권 학생들이 교환학생으로 오는 수에 비해 국내 대학 학생들이 교환학생으로 영미권에 가고자 하는 수가 너무 많아 심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아시아권의 경우에는 정반대라서....

이러한 대학의 국제화 비전의 부족이란 바로 인식의 부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 면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영어강의 수나 외국인 교원 수의 측면에서 한국은 아시아 최고수준이지만 다양성을 추구하는 국제화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CA대 관계자: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NAFSA(미주국제교육협의회), EAIE(유럽국제교육협의회), APAIE(아태국제교육협의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내 대학의 외국대학과의 교류협정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짧은 시간에 유학생 수가 급증하였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국내 대학의 영어 강의 수나 외국인 교원 수도 엄청나게 증가하였지요. 실제로 QS ASIA 대학평가를 보면 국제화 부문에서 50위 권 안에 드는 국내 대학이 20개나 됩니다. 중국은 6개, 대만은 7개, 일본은 4개 대학에 불과한데 대단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걸로 국제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 국내 대학생의 자국민 위주의 폐쇄적인 사고와 영미권 외국인에 대한 선호로 외국학생, 특히 제3세계 출신 유학생들이 차별받는 인상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다양성을 추구해야 할 대학 국제화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나. 정부주도의 소극적 국제화

이처럼 대학에서의 국제화 비전의 부족은 대학 주도가 아닌 정부주도의 소극적 국제화로 이어지고 있다. 다음 면담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 스스로가 생존을 위해 국제화를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역량에 따라 국제화 수준이 매우 다르며, 정부의 정책을 통해 그나마 국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 한국의 대학 국제화는 어떤 점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GC대학 관계자: 한국 대학 전체적으로 볼 때, 여전히 대학 국제화는 초보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과 중앙일보 평가 및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 등에 국제화 지표가 포함되면서 대학 국제화에 가속화도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 간에 국제화 편차가 심한 상태로, 학교에 따라서는 연세대 등과 같이 국제화가 비교적 많이 이루어진 대학들도 있으나 대부분 중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여건 조성 차원에서 국제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국내 대학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교육부의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인증제 도입에 따라 각 대학의 유학생들에 대한 지원체제도 개선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최근의 교육 내용에 대한 질이 중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대학의 국제화는 아직 요원하다는 것이다. 다음 면담에서도 교육내용과 성과의 국제 인증은 물론이고, 나아가 고등교육 서비스의 국제적 통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학 교육의 표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 한국의 대학 국제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GC대학 관계자: [...] 교육내용과 성과의 국제적 인정은 아직은 거의 불모지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영어 강의는 그 질에 대한 논란은 많지만, 양적인 측면에서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 유학생 유치에 대한 각 대학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요.

SA재단 관계자: 교역시장의 확대에 따라 고등교육서비스의 비교가능한 표준화가 요구되게 되는데, 이러한 교육의 표준화 작업이 국제화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표준화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한국의 고등교육은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 거래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라 국내시장만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 대학교육의 국제화는 아직....

이러한 정부에 의한 국제화 요구가 질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학들의 자체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문 분야와 학과 문화를 무시한 영어 강의의 강요나 교수 평가에 있어서의 SCI, SSCI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이어지고 이가 결과적으로 영어권 출신 우대의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는 점 역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KH대학 관계자: 미흡한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학문 분야와 학과 문화를 무시한 영어(강의)의 강제적 강요나 SCI, SSCI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여기에 해당하고, 이가 영어권 출신 교수와 학생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 이러한 점이 현재로서는 한국 대학들의 양적 국제화를 어느 정도 견인하는데 기여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속가능성을 봤을 때 양적 성장이 어떻게 질적 성장으로 이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대학들의 자체 논의와 반성은 미흡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SA재단 관계자 면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대학의 국제화란 인적 교류에서 프로그램 교류로, 나아가 시설 이동의 순으로 확대되는 것인데 현재 국내 대학의 국제화는 아직 초기의 인적 교류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경자청 중심의 시설 이동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법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SA재단 관계자: 대학교육의 국제화 단계는 인적 교류-프로그램 교류-시설 이동으로 볼 수 있으며, 제시된 순서대로 국제화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봅니다. 인적교류는 초기의 교환학생제도 등 단순 학생교류부터 연구자 교환, 교수교환 형태로 발전하게 되며, 인적교류가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프로그램 교류단계로 넘어가게 되지요. 프로그램 교류는 단순한 프로그램 수출(로열티)에서 시작하여, 공동학위, 복수학위 단계로 발전하게 되며, 이후 트위닝(1+3공동학위제 등), 프랜차이즈 등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호주의 동남아 대학, 영국의 싱가포르 TNE 프로그램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설 이동단계는 이러한 프로그램 단계를 넘어서 실제 분교가 설치되는 단계로 인력과 프로그램, 시설이 동시에 이동되어 제공되는 것으로, 인천 송도의 SK대가 이에 해당합니다.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내 정부 및 대학의 국제화는 아직 인적교류의 단계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프로그램 교류를 위한 첫 발을 내딛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비록 SK대학 등의 경우가 있지만 이는 특별법을 통해 별도사례로 만든 것이며,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은 만큼 일반적인 경우로 보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지요. 실제로 국내의 고등교육법 및 관련 제도는 인적교류 단계 이상은 관련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며, 국내 대학도 이러한 인적 교류 이상의 단계는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2년 있었던 CA대의 ‘1+3’과정도 그러한 과정의 하나로 시도되었지만, 현재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 관련 규정의 미비

이러한 대학의 비전이나 계획 등이 충실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라 정부의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음 면담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고등교육법이 국내법만을 고집하고 있어 국제화에 어울리는 규정을 만들지 못하고 있으며 만든 것조차 사문화되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SA재단 관계자: [...] 국내 고등교육제도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상 허용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의 국제화 추진에서 외국대학과의 교류는 국내법이 허용한 방식만을 적용하고 있어서 인적교류 이상의 국제화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동학위와 복수학위 등의 학위프로그램의 교환, 시설의 이동에 대해서는 규정도 없고, 비활성화 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라 할 수 있지요.

GC대학 관계자: 대학 국제화가 중요하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국내에서는 합의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교육 내용과 결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중요하며, 실제 외국인 학생들의 유치를 위해서는 교육전달 방식의 국제화, 즉 영어 강의의 확대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영어강의=국제화 강의’라는 등식은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현실적으로 영어가 국제 공통용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영어강의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점은 비영어권 국가들도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해서 영어 강의를 확대하는 현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인 합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 아닐까요?

관련 규정의 미비에 대한 문제는 국내 대학뿐 아니라 한국에 캠퍼스를 유치하고 있는 외국대학에서도 제기되었다. 다음 SK대 관계자의 말처럼, 학교를 설립하거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미국의 기준과 한국의 기준이 다를 뿐 아니라 한국 내에서조차, 외국대학 분교를 유치하는 산업통상부와 경자청 기준이 다르며 실제 설립심사를 하는 교육부의 기준이 달라 설치뿐 아니라 대학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SK대 관계자: 저희 대학은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천자유구역청 있죠. 또 거기에 허가하는 교육부 있죠. 생각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 이 모두를 다 해피하게 해줘야 하는데, 이게 매우 어려운 숙제입니다. [...] 미국에서 ok를 해도 한국정부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냐는 것이죠. 인천시나 산자부 같은 데는 데리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하지만, 교육부 입장에서는 따질 것 다 따지고 국내대학하고 형평성을 따져야 하다보니깐 그런 것들이 저희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 일반 (국내) 사립대학들은 재단이 이런 준비도 하고 너희는 왜 이런 거 하지 않느냐면서 보험을 들게 만들어서 쓸데없이 보험비나 폭폭 나가게 만들기도 하고, [...] 규제기관이 틀리고 실행기관이 틀리다 보니깐 이런 어려움이 많아요.

연구자: 정부에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제도적으로나 뭐 다른 측면에서 건의 사항 같은 게 있으시다면요.

SK대 관계자: [...] 법의 맹점이 있어요. 우리학교는 특별법으로 만든 학교인데 고등교육법이 따로 있잖아요. 특별법에서 다 다루지 못 하는 게 고등교육법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깐 빠진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학교에 한국 학생들이 들어와서 군대를 가야되면 군대 연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거 서류가 없는 거야. 이걸 하나의 예에 불과해요. 이런 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 사실은 top에서 유연하게 대처해 주면 좋겠어요. 앞의 군대 문제 해결할 때는 그 당시 교과부에 문의를 했어요. 교과부에서 국방부에게다 공문을 하나 보냈어요. 이거 학교 맞습니다. 대학교. 그러니깐 연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yes하는 거예요. 국방부에서는 그런 근거서류만 있으면 되는 건데 말이죠. 문제는 그런 일들이 누가 사무관이 되고 누가 과장이 되고 누가 국장이 되느냐에 따라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다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외국대학 유치가 지역의 경자청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해외 우수 대학들이 오히려 한국 진출에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역 경쟁력에 도움이 될 학과 및 분야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명성만 추구하거나, 어렵게 유치된 외국교육기관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대학들의 배타적 인식으로 해외에 있는 대학들과는 협력을 하려 하지만 한국에 진출한 외국 대학은 경쟁상대로 생각해 전혀 시너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외국대학 관계자 모두가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FB대 관계자: 국내 산학연과의 협력 및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여야 하는데 외국대학유치에 대한 경쟁만 부추겨 실질적인 국제화의 이익은 활용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무분별한 지역별 경쟁적인 유치활동으로 해외 우수대학들이 국내 진출에 오히려 거부감을 표시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단기간 성과에 급급하여 외국대학의 실질적 평가 및 분석을 하지 않고 투자유치 활동성공을 추구하여 실질적인 유치에 어려움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지요. 국가 및 지역 경쟁력에 도움이 될 학과 및 분야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명성만 추구하여 기존 유치목적과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큼니다. 국내대학과의 협력 및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여야 하는데 오히려 경쟁만 부추겨 유치된 외국대학의 반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국내대학들의 배타적 인식과 국제협력에 대한 인식이라는 게 해외에 있는 대학들과는 협력을 하려고 하고 한국에 진출한 외국 대학은 경쟁상대로 생각해 협력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깐요.

SK대 관계자2: [...] 이렇게 자꾸 학교만 유치해 가지고 많이 뽑는다는 게 과연 잘하는 것이냐? 제가 보기엔 이제 그만 stop no more입니다. 있는 거 제대로 키워놓고 그 다음에 한 5년이고 10년이고 조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extend를 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10개 한다고 했으니깐 이 10개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로밖에 안보여요. 그러니 답답할 수밖에요.

UK대 관계자: 한국에 있는 한국대학들이 다양한 교류협력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한국교육의 우수성과 성과를 알림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선진국들이 한국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교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대학생들의 해외연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요 대학과 국립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외국의 대학들과 상호 협력하는 관계에서 학생교류이외에 공동연구와 학점교류, 글로벌캠퍼스 구축등 다양한 실질적인 교류가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공동연구의 경우 책임연구기관은 반드시 한국대학교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서 외국의 대학에서 한국대학과 연구를 같이 하려고 해도 책임연구기관이 될 수가 없으므로 적극적으로 공동연구를 할 수가 없는 실정이지요.

국내 대학 관계자 역시 국내 인턴십 운영을 예로 들어 학점 인정은 물론, 국내 노동시장과의 연계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고 있다.

PS대 관계자 1: 대교협에 참여하려면 학교에서 9학점을 제공하는 학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연구자: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해준 프로그램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PS대 관계자1: 대교협에서 9학점 주는 거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 학점을 부여하게 되는 게 quality가 인정이란 되는 부분이 많고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해서요. [...] 연구에 참여해도 저희는 1학점 밖에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턴십 quality의 문제 때문에 학점 인정이 되지 않는 거죠.

근본적으로 정부 정책의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다음 면담자료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으로 외국인 교원, 유학생 유치, 영어 강좌 등 많은 국제화 성과를 이루었으나 양적 성과에만 급급하여 내용이 수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KR연구소 관계자: 2006년 ‘고등교육의 국제화 전략’ 수립 이후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상호 학점 인정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되었고, 2011년에는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 시 현지 국가의 설립요건을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국제화 질제고 차원에서 2008년 WCU 사업을 수행하는 등, 정부정책 추진에 부응하면서 대학은 양적 질적 국제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 추진 안에 따라 202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외국인 유학생 대상의 지원 정책만으로는 한계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가 통합적인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 관리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대학 국제화 수준을 높이는 데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 교원, 유학생 유치, 영어강좌 등, 많은 국제화의 성과가 양적 측면에서 조명되고 있으나, 재정 자원 투입을 통해 이러한 지표를 개선한다하더라도, 질적으로 우수한 교원이 교육과 연구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거나, 내외국인 학생들의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영어강좌에 대한 규정 없이 개설에만 급급하는 상황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특성화 사업과 같은 대학정책이 연구중심으로 계획되어 국제화 과정에 있어서도 교육문제가 도외시 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HY대학 관계자: 내년에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이 끝나고, 특성화 사업이 다시 나오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특성화 대학이라고 해도 대학교들이 똑같은 프로그램 내고, 모양만 바꾸어 낸다는 거죠. 그 안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얘기할 때 교수들의 연구만 얘기해요. 연구수준을 국제수준으로 높이고 하는... 교육에 대한 특성화 얘기도 필요한 데요. 국내 대학에 미비한 영어로 된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 문제도 중요한데...

외국인 교수 임용 문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외국인 교수의 임용은 대학의 알리미 등을 통해 공시되어야 하는 항목으로 대학의 국제화에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대학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외국인 교수 임용은 그 실효가 의문시되고 있고, 또한 그 역할마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HY대학 관계자: 사실 외국인 교수가 한국에 와서 수업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학생을 상대하는 것도 그렇고, 회의가 영어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생활하는 데에도 영어가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로 유명한 석학이나 훌륭한 교수를 초청한다고 해도 그들에게서 얻는 교육적 효과는 실질적으로 드러나기가 어려워요. 심하게 얘기하면 돈만 낭비죠.

라. 학습 및 생활 지원의 미비

이러한 규정의 미비는 물론, 실제 대학에서의 학습과 생활 지원의 미비가 대학 국제화의 걸림돌

이 되고 있음을 다음 면담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구자: 대학의 국제화 추진의 문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SA재단 관계자: [...] 국제화는 표준화이며, 언어적인 측면에서 영어 사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내대학의 영어강좌는 대부분 초급과목에 맞춰져 있고, 신입교수가 담당하는 비율이 높으며, 한 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한국식 영어’를 사용하는 바, 이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지요. [...] 또한 외국학생의 거주여건인 숙소, 식사, 튜터, 상담 등이 지원되지 않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의 면담자료를 통해 학습에 필수적인 영어강의의 수준은 물론, 외국 유학생의 숙소라거나, 식사 상담 등과 같은 생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외형적인 측면에서만 국제화가 강조되어 영어 강의를 통해 질 높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등, 내실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음 KH대와 KR연구소 관계자의 말처럼, 대학의 무분별한 외국인 유학생 수용과 같은 외형적 국제화는 질적 저하를 초래하여 장기적으로는 ‘학위장사’ 기관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국내 학생들에게 오히려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편견을 심어주는 등, 효과가 없을 거라는 것이다.

KH대학 관계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교육내용과 방법의 국제화 보다는 ‘영어강의 확대’ 및 ‘유학생 유치’와 같은 외형적 측면의 국제화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어강의를 잘 할 수 있는 교원을 총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적으로만 확대된 영어강의는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국내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름만 영어강의인 경우들이 아직은 많거든요.

KR연구소 관계자: [...] 대학의 무분별한 외국인 유학생 수용은 대학의 관리 능력 및 지원 범위를 벗어나 질적 저하를 불러 올 수 있어 장기적으로 한국대학은 ‘학위 장사’ 기관으로 전락하는 오명을 쓸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화 부문의 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학생에게도 오히려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편견을 심어주고, 일부 외국인을 위해 개설되는 (질 관리 되지 않은) 영어강의로 인해 학습효과가 크게 감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을 위한 학습 지원 및 생활 지원의 미비는 다음 면담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중 언어 지원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 모집의 수단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관리 부실 대학이 증가하면서 국가적으로도 외국인 유학생이 정체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UK대 관계자: 형식적인 교류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MOU는 있으나 소수 학생들의 어학연수를 제외한 실질적인 교류가 전혀 없습니다. [...] 국제 교류를 통하여 한국교육의 우수성을 알리기보다는 한국 실정과는 거리가 있는 일부 선진국의 교육시스템을 답습하는 데에 치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 한국 대학의 경우 외국의 교환학생을 유치하여 교환학생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경우 이중 언어 지원시스템이 전적으로 부족하여 한국문화와 사회에 단시간 내에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다른 학생들에게 알려지면서 한국으로 유학을 오려는 학생 수가 현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비해 중국 학생수가 7,000명이 나 줄었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를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일부 한국 대학의 경우에는 중국학생들을 유치하여 정원 외 입학이라는 것을 활용하여 외국학생을 교육 및 장차 한국의 외교사절단이라는 것보다 부가가치 창출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 이렇듯 학생에 대한 관리 부실이 발생하면서 중국학생들이 한국으로 유학 오는 수가 점차 줄고 미국이나 일본 등과 같은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가는 학생 수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KR연구소 관계자: 중앙일보 대학평가 등, 일부 대학평가에서 국제화 지표가 활용되는 만큼, 대학은 외국인 교원 및 유학생 유치(in-bound)와 국내 학생들의 해외 진출(out-bound)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작, 유학생이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치고, 우수한 외국 교원이 국내 연구 성과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는 매우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할 때까지의 지원은 이루어지는 편이기는 하나 매력적인 유학환경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 또, 대학 졸업 후 취업과의 연계 등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지속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확대 유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나아가 실제 대학 내부의 행정 절차라거나 전체적인 조직 운영이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다음 SN대학 관계자의 면담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학내 행정 시스템의 관료적인 접근이 외국인 학습이나 생활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다.

SN대학 관계자: [...] 해마다 국제적인 대학평가 순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연구나 교육에 비해 순위가 낮아요. 그 이유가 국제화 지표 점수가 가장 낮기 때문입니다. 국제화 정도가 낮다고 수준도 안 되는 유학생을 유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영어 공용화를 하는 것도 그렇고... 언어가 문제거든요. [...] 사실 우리 사회 시스템 자체가 언어만 영어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하나 증명서를 떼려고 해도 국제적인 기준에서 한국의 시스템은 이상하기만 하대요. [...] 서류를 영어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하나를 하려고 해도 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고 상담을 해도 원래 그런 거니까 따르라고만 하고 그렇지요. 외국인 교수나 유학생들이 이런 점은 고쳐달라고 해서 고치는 부분도 많아요.

마. 조직적인 대응의 미비

국제화의 문제점으로 대학 내외의 조직적인 대응의 미비를 드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 면담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화 전담조직이 있어도 대학차원에서 추진하는 사례는 드물고 개별 단대 수준에서 교수 개인의 네트워킹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거론되었다.

SN대학 관계자: [...] 사실은 대학차원에서는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특히 공동교육과정의 경우, 개별 단대 수준에서 열의가 있는 교수님들이 추진하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센터장님도 유럽 학위를 가지고 계신데 중국 유학생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어요. 따로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밤낮 없이 일하시고 계시거든요. [...] 다른 건 몰라도 공동교육과정 운영은 각 학과 교수님들의 네트워킹과 희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학 내부에서뿐 아니라 국제 교류를 위해서도 대학차원의 조직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는 것을 다음 면담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PS대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학생들이 인턴십 소스를 찾아오는 것도 결국에는 교수들의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비영리 단체인 IAESTE(국제교류협력단)이라는 단체를 통해 학생들의 해외 인턴십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정보가 없어 찾기 힘들 뿐 아니라 요구하는 금액이 많고 왜곡된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연구자: 학교 전체적으로 국제화가 중요하고 교류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일대일 매칭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고 계십니까?

PS대 관계자: 저희 대학에서는 2007년부터 1년에 4명에서 5명 정도, 2011년도까지 22명을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보냈어요. [...] 기존 파트너 대학하고 (리서치 프로그램) 연구실에 가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가 placement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교수님들이나 이런저런 네트워크를 통해 학생 본인이 알게 된 경우에 찾아오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저희가 멤버로 가입 된 IAESTE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 그런데 좋은 placement 찾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인턴십은 저희학교랑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 일단 이공계 인턴십이 굉장히 적구요. 그 다음에 노동력 착취가 아닌 생각이 들 정도로 열악한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구요. 학생들이 스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 돈을 내고 신청하는 경우, placement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얼마 이상 내야한다고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요. 최근에는 study abroad foundation이라는 데에서도 인턴십을 제공해주잖아요 non-paid로 비영리단체라고 하는데, 그 본부는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 들어 온지 4~5년 됐나? [...] 저희가 인턴십 프로그램을 2007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학생들 수요는 많지 않지만 전공에 대한 경험을 쌓는데 필요하니까요. 졸업해서 미국 가서 일할 수도 있고

연구소 가서 일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활기차게 시작했는데, 뒤로 갈수록 어려움이 너무 많더라고요 [...] IAESTE 같은 비영리 단체도 어렵게 찾았어요. 그런데 비싸요. fee가 500만원 정도인데요. 학생이 10명 ~ 20명 되면 커버할 수 있지만 약간 왜곡이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조직적인 대응의 부재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알력을 야기하고 있음을 다음 면담자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PS대 관계자의 말처럼 영어 강의의 미비 등으로 상대국(미국)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개인적인 노력으로 어렵게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이다.

PS대 관계자1: 저희는 그래도 이런 프로그램을 오픈해서 계속하고 싶거든요. 수요는 많지 않지만, [...] 저희가 국내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국내에는 저희와 맞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 과목수강이나 아카데미한 플레이스가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많이 응모하는 거 같아요. 국내는 현장학습 프로그램이 과마다 조금 다르지만 주로 자연계열이나 공학계열이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PS대 관계자2: 저희도 교류 균형이 안 맞는 상황입니다 근래에 시작한 대학들은 겨우 맞춰가는 상황이라 할 수 있지요. 그 예전부터 시작했던 학교들은 영어강의도 적고 이런 것 때문에 미국 애들이 안 움직이지 않아요. [...] 최근에는 교류 협력대학이 많이 생기면서 썸머 스쿨 형태로 research 프로그램 교류를 하지요. 우리가 2-3명씩 받고 있는데 미주 지역 대학들한테 반응이 좋죠. [...] 여름에 와서 연구 참여하고 문화체험도 하고 5주에서 6주 정도 운영합니다. 미주하고 호주 대상으로.

국내 대학 역시 국가 수준에서 문화적, 제도적 차이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연구자 수준에서의 노력에 의지하고 있어 앞으로의 국제화 추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SN대학 관계자 역시 북경대와 SN대, 도쿄대가 함께 하는 BESETO 추진 상의 애로점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고 있다.

SN대 관계자: 사실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대학 차원에서 추진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개별 단과대학 수준에서도 전공에 따라 의견이 다르거든요. 그래도 교수 개인의 의욕과 열정으로 어떻게 한다지만 사실 상대국의 의욕이나 의지 등등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개별 수준에서 노력해도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20년 가까이 추진하고 있는 BESETO만 하더라도 그래요. 도쿄 대학은 굉장히 열심히데 북경대학은 하고 싶어도 국가 통제가 강해서 같이 무슨 일을 못해요. 그래서 북경대학하고는 아직 학위과정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결국, 조직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음 면담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SK대 관계자는 직원들의 일에 대한 열정이 Servant Leadership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이다.

SK대 관계자: 저희들은 리더십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리더십은 한 가지라고 봐요, servant leadership이죠, 섬김의 리더십으로 갔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가족적이예요, 말단 직원하고 총장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그래요. (우리 학교는) American University예요, 그래서 그런 culture를 가지고 가야된다고 봐요. 여기 직원들은 YS대 직원들보다 적어도 3배에서 5배 더 일해요, 그러면 여기 직원들이 YS대 직원들보다 덜 happy하냐. 전 안 그렇게 봐요, 일의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미션과 우리 내부 사람들끼리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섬길 줄 알고 그들의 마음에 같이 다가가서 있을 수만 있으면 최고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 사실은 학생들에서 학생들 끼리 오는 conflict도 있지만 아까 이야기 했듯이 미국학교와 미국정부, 한국정부 관료들하고 생기는 그 문화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저 스스로도 conflict를 겪고 있어요, 학생들도 당연히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벌어지고 있지만, 다행스러운 거는 현재까지는 저희 학교 한국학생들 들어오는 한국학생들은 Americanized 된 한국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주로 외교 애들이 많이 와있고, international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이 현재는 많아요, 앞으로는 이걸 제가 좀 막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서 학생들이 자라온 환경이나 집안적인 걸 보면, 상당히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애들이 와가지고 아직까진 큰 problem은 없는데, 교직원들이나 교수가 그런 heart를 가지고 하면은 못 할게 없다. 제가 음식문제를 해결하는게 단적인 예인데, 뭐든지 대화하고 뭐하고 하다보면 풀어지는 거지, 저는 그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안 놀래요, 외국대학에서 그런 게 안 벌어지면 웃기는 거지, 그런데 이걸 melting pot을 시키는 게 우리학교의 역할이다. 이게 훗날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애들이 나중에 세계에 가면 진짜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여기서 훈련됐거든, 그런 difference를 자기가 극복해봤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가 살아 남아봤기 때문에, 저는 그게 문제가 되지만 오히려 학생들한테는 앞으로 큰 역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UK대학 관계자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나아가서는 졸업생 사후관리를 통해 네트워킹을 통한 조직적인 대응 없이는 국제화 추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SK대 관계자 역시 미국대학이 한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물을 가지고 차근차근 진행을 해야만 쌍방이 만족할 만한 국제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UK대 관계자: [...] 한국에서 유학을 마친 졸업생들에 대한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동문들을 위한 네트워크가 미국처럼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점 역시 문제라 할 수 있지요.

SK대 관계자: [...] 사실 미국에서 제일 걱정이 sustainability거든요. 그래서 미국 애들에게 말했어요. 당신들 fee가 들어가도 우리한테 요청하지 마라. 그래야지 아니 당신네들 애 낳자마자 벌써 어른이 되라고 하는 것 밖에 더 되냐. 그래서 사실은 argue point가 많았어요. (우리정부에서) 만약에 과실송금까지를 허용하면 (미국 본교에서) 정해놓고 뭐 tuition의 몇 프로 가져가겠다고 기본 룰을 정해버리면 여긴 더 살기 힘들죠. 그러니깐 개인적으로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실 송금은 좀 천천히 되었으면 좋겠어요.

4 국제화 추진을 위한 개선 방안

가. 대학 내부의 합의(비전의 공유)

국제화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대학 내부의 비전 공유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많았다. 자체적인 상황 판단, 구성원들 간의 자발적 대화, 의사결정 및 상호합의 의견 도출 등과 같은 내부 구성원의 동의(Consensus) 없이는 국제화 내실과 질적 성과를 견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KH대학 관계자: [...] 대학의 국제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외부의 강제성과 내부의 자율성이 어떻게 조화로운 접점을 찾는가라고 봅니다. 즉, 외부의 환경변화를 주도하는 주요 동력들에 대하여 맞추어야 하는 수동적 적응에만 몰두하는 대학은 국제화라는 시류에 대하여 내부 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부의 자율성, 즉, 자체적 상황 판단, 구성원들 간의 자발적 대화, 의사결정 및 상호합의의 의견도출 등의 절차가 외부의 동력과 접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과 성과 없이 추진되는 대학의 국제화는 내실과 질적 성과를 견인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지요.

GC대학 관계자: 각 대학의 국제화 역량(국제공인 교육과정 운영실태, 영어가능 교원 및 국내 학생수, 외국인 학생수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각 대학의 실정에 맞는 내실있는 국제화를 추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중국 학생이 유학생의 90%인 경우, 중국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강의/영어 강의 중 어느 것을 원하는 지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그를 반영하여 수업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 아울러, 국내 학생들에게도 무조건 영어강의를 수강하게 하기 보다는 ‘국제공인된 자격 취득’과 관련된 과목 위주로 영어강의 개선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영어진행 강의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영어 구사에 자신이 없는 교원들에게 영어강의를 강요하기 보다는 잘할 수 있는 신입교원과 외국인 교원을 활용하여 영어강의를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 대안일 것입니다. 아울러, 외국대학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교수 요원을 확보하거나, 외국대학의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GC대학 관계자의 면담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수요자인 외국유학생의 의견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이나, 강제적인 영어 강의를 교원들에게 강요하기 보다는 외국대학들과의 협력을 통해 교수 요원을 확보하거나 외국대학의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등의 내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학 비전의 공유를 위해서는 국제화 마인드 제고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CA대학 관계자 면담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는 교환학생의 활성화, 교양수업, 그리고 Global Fair, 세계인의 날 지정 등을 통해 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의 필요성을 살펴볼 수 있다.

CA대학 관계자: 먼저 국내 대학생들의 인식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내 학생이 외국에 나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환학생을 적극 권장해야겠지요. 그리고 교양수업을 통해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이라거나 가치, 의무 등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고 봐요. Global Fair나 세계인의 날 등을 통해 다양한 체험을 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 학습 및 생활 지원의 강화

그리고 이러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습 지원과 생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먼저 생활지원의 경우, 이슬람권 유학생들에게 할랄푸드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개선해 나가는 SK대의 사례가 참조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학생 만족도가 높아지고 나아가 국제교류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 대학 국제화를 위한 개선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SK대 관계자: [...] 스태프들이나 교수들한테 요구한 게, 말로만 학생들을 최고라 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라. 너희들이 serving을 해야 개네들이 그걸 느끼지, 저흰 철저하게 섬김의 리더십을 말로 하지 말고 보여주자. 그래서 실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소홀히 했던 게 뭘까하고 제 유학시절을 생각해 보았어요. 내 유학시절 때 애로사항이 무엇이었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보니깐 아주 중요한 거 하나를 놓쳤더라고요. 음식.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을 못 먹는 다는 것. 특히 여기 무슬림 애들이 많아요. 무슬림권 애들이 많이 와 있는데 개네들이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할랄푸드까지 만들 순 없고. 그래서 저희들끼리 그러니깐 저희들끼리 장을 만들어주고 우리 cook이랑 대화하고 staff진하고 대화하게 만들어주고 나니깐, solution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깐 그런 것들을 자꾸 찾아가면서 너희들이 계속 involve해라. 입맛이 안 맞으면 맛을 때까지, 너희들이 레시피도 갖다 주고, 똑같은 것을 해도 애들이 참여하게 하고 자기네들이 아이디어 내게 하고, 그리고 개선해 나가게. 그렇게 되니 음식이 조금 맛이 없어도 만족도는 높은 것 같습니다.

유학생 학습 지원을 위해서는 유학생의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여 학습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다음 면담자료에서도 한국어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공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오리엔테이션이나 한국어 교과목 의무 수강이 필요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연구자: 대학 국제화를 위한 개선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CA대학 관계자: [...] 외국 유학생의 학업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가 거의 없어요. 외국 고등학교 교과과정 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학업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보가 없어 우수한 유학생을 선발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 이런 학생들에게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강화하고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여 전공과목 수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할 경우 전공 수업을 따라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유학생들에게는 한국어 교과목을 의무수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유학생 전담 교수제를 활용하거나 밀착 지원인력 배치를 통해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학습 적응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의 사전 수강 과목을 조사 등과 같은 철저한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KR연구소 관계자: 외국인 유학생 전담 교수제 혹은 밀착 지원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의 중앙 본부의 관리를 통해 일단 입학 절차를 거치고 나면, 별도의 외국인 학생지원서비스 없이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하는 등, 졸업까지 많은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각 전공별 학습에 대해서는 대학의 중앙 본부나, 외국인 유학센터에서는 일일이 지원할 수 없으므로, 최소한 단과대학 전담 교수를 배치하고,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학과 내 buddy 혹은 석·박사 mentor를 지정, 한국 적응 및 학습 적응을 지원해야 해요. [...] 그리고 내외국인 학생이 동일한 강좌를 수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학습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영어 강의의 경우,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유학생의 읽기, 말하기 능력을 충분히 검증하여야 하고, 사전에 어떠한 과목을 수강하였으며, 그 과목들이 현재 수강에 필수적인 요소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수강등록을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활, 한국생활 지원을 넘어서 학습지원과 나아가서는 고용지원으로까지 확대해 나갈 필요를 다음 면담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학생 유치에 관해서만큼은 한국에서 교육 받은 결과가 고용이나 대학원 진학 등의 성과로 이어질 때 지속적인 유학생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연구자: 대학 국제화를 위한 개선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GC대학 관계자: [...]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서비스를 한국생활이나 대학생활 적응 지원을 넘어서 학습지원, 더 나아가 고용지원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교육받은 결과가 고용이나 대학원 진학 등의 성과로 이어질 때, 외국인 학생들의 지속적인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 교육 질의 제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국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다음 KR연구소 관계자의 면담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지속가능한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질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질적 변화란 대학 내적으로 글로벌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내외국인 학생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국제화 프로그램 및 외국인 유학생 학습 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꼽았다.

KR연구소 관계자: [...] 대학의 국제화를 가시적, 정량적 변화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지속가능한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질적 변화에 큰 무게를 두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질적 변화는 상호작용을 통해 유도될 수 있는 것으로, 외국인유학생 및 교원을 유치하여 캠퍼스에 배치하는 것만으로는 국제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유치를 위해 장학금, 높은 급여, 좋은 연구조건 등 각종 대학(또는 정부)의 혜택은 일시적으로 인적자원 구성의 국제화를 가시적으로 증대시켜 줄 수는 있으나, 상호작용을 통한 내국인, 외국인 학생 교원 간 실질적인 교육, 연구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국제화를 추진, 유지하기는 곤란하거든요. 외국인 유학생과 내국인 간에 ‘학습’을 통한 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학 교육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상호 배타적인 관계로 전락, 국제화는 허울만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학 내적으로 글로벌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내외국인 학생의 상호작용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및 외국인 유학생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선발제도의 개선을 들었다. 다음 SK대 관계자의 면담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수준 높은 우수 학생 선발로부터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SK대 관계자: 초기 전략은 우수한 애들 뽑자. 절대 수준 낮은 애들은 뽑지 말자입니다. quality 떨구는 일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60% 밖에 못 뽑았어요. [...] 사실은 처음 목표가 연·고대 대학하고 joint degree하는 학교수준을 만들자는 거였거든요. 그러려면 연·고대 수준 학생

들로 뽑아 놓지 않으면 연·고대가 우리를 상대해 주겠냐는 거지요. 실제 여기 들어오는 게 미국의 본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본교에서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SAT score가 2,400 만점인데, 2,320 자리도 들어오고, 토플도 120만점에 115씩 받고 있는 애들도 있고요. 일부로 그런 전략을 써가지고, 미국 교수가 와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가르치면서 모두 똑같은 소리를 하고 가요. 미국 애들보다 더 잘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너희는 내년에 거기 가서 개네들하고 똑같이 싸워야 할 텐데 거기 가서도 똑같은 소리 나와야 한다. 준비 잘해가지고 가라. 그래서 준비 시키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아이들이 1년 보내고 나면 미국이 더 놀랄 겁니다. 우리아이들 실력이 월등하거든요.

이는 국내 대학 전문가 면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KH대학 관계자도 국제화 개선을 위해서는 외국학생도 엄격한 입학절차와 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폐쇄적인 교수임용 체계를 타파하고 교수 임용 지원 대상을 전 세계로 확대할 뿐 아니라 학술논문 중심의 교수평가를 유연하게 함으로써 국제 통용성이 있는 국제화를 꾀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연구자: 대학 국제화를 위한 개선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KH대학 관계자: 외국학생 유치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외국학생도 엄격한 입학절차와 심사를 통하여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들을 교육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수 학습의 측면에서 혼혈주의 교수임용체계를 타파하고 싱가포르 국립대학이나 홍콩대학처럼 교수임용 지원 대상을 전세계로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논문 중심의 교수업적평가를 국제적 저술서 등으로 확대하고, 평가위원을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학자들로 확대하여 자연스러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국제화를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안목과 수준에 맞는 글로벌 교육과정을 연구하여 개발함과 동시에 국제 통용성이 있는 융합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다음 면담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SA재단 관계자: 국제화는 상호 교류를 전제로 하므로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는 어떤 상품을 어느 장소에서 구매하든지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는 의미지요. 그러나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는 궁극적인 이상적인 모습이며, 실제 교육은 해당 국가의 역사적 배경, 국민교육과 연계되기에 단계적 개방을 취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학교육의 국제화는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대학의 지역적, 교육범위별 특성화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즉 대학교육의 국제화는 표준화된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전달되는 특성화된 교육서비스를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국제통용성이 있는 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UK대 관계자: [...] MOU를 체결하는 대학의 수가 아니라 얼마나 한 대학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공동 연구, 교환교수, 교환학생, 학점교류, 문화 활동, 인턴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UK대학과 유타교육청에서는 2009년부터 우수한 한국 학생을 초청하여 유타 지역의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이 공동수업, 공동프로젝트, 교육실습 등을 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국제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학생들은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느끼며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여 세계화를 선도하는 학생으로 자질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 특히 국제적인 안목과 수준에 맞는 글로벌 커리큘럼 연구 및 개발이 필요합니다. UK대학교가 송도캠퍼스와 공동으로 개설할 예정인 Global Citizenship과 같은 공동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미술과 인문학을 접목하거나 환경과 안전, 인문 생물학 등을 영어 토론, 쓰기 등을 통해 수업하는 융합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교육과정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 교수의 근무규정 개정 등을 통해 장기 체류는 물론 국제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중 언어 교육은 물론 다문화 체험을 위해 국내 대학과 외국대학들이 협력하여 공동수업, 멘토링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국제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KH대학 관계자: 교수의 국제적 이동이 보다 활발하여야 하고, 단순한 안식년 등의 교류가 아닌 연구차원의 단기, 장기적 체류와 교류가 가능하도록 근무규정 등을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UK대 관계자: 언어교육이 필요합니다. 외국어를 배우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 등을 이해하고 사람들과 친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화의 기본은 언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 이를 위해서 이중 언어, 다문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개발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는 지리적인 여건과 재정 문제로 인하여 일부 학생들만이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는 많은 학생들이 세계화에 동참하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례로 송도에 들어오는 외국대학들과 같이 협력 프로그램과 공동수업, 멘토링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인 글로벌 경험과 세계화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행정직원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음 면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최근 늘어나는 외국인 교원,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위해서는 대학 직원의 인적 자원관리를 통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KR연구소 관계자: 대학 직원의 국제화 역량강화가 필요하지요. 외국인 교원 및 학생은 늘고 있지만, 담당 부서의 책임만 가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학의 전반적인 인프라는 교수, 학생뿐만 아니라 행정직원에도 있는 만큼, 대학 직원의 인적자원관리를 통해 역량을 강화시켜 두어

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컨대, 대학교직원의 인사역량평가 및 직무기술서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우수학생 선발, 교육과정 개발, 우수 교원의 확보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것만이 질 높은 국제화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다음 면담자료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SK대 관계자: [...]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의 원리로 수요와 공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예외가 아니지요. [...] 제가 요즘에는 겐트대학교하고 유타대학, 조지메이슨도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어요.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당신네들 학교가 어느 수준 이상의 학생들을 뽑지 못하면 우리 전부가 공멸합니다. [...] 여기 총장들한테 사람 숫자가 적더라도 quality는 꼭 지키자 지키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 국제화 문화의 확산(리더십 제고)

그리고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많았다. 다음 면담자료로 확인할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는 학내외 문화의 형성과 정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화 문화형성과 정착을 위해서는 다양성에 대한 공동 인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두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 인식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 교류, 현지 인턴십 등, 학문의 교류는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상호 인적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KH대학 관계자: 근본적인 문제는 대학의 문화형성과 정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구하고 가르치는 문화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학내외 문화의 형성과 정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총장과 보직자의 리더십과 비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경쟁을 통하여 총장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미래와 국제적 흐름을 보고 이에 기여하고 이끌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자가 총장과 보직자로 임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UTAH대학 관계자: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이의 수용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다른 점을 인정하며 의견이나 문화, 생각이 달라도 같이 잘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지요.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 공존하는 하나의 공동체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학문의 교류는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상호 인적교류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를 알고 파트너로 진행이 될 수가 있도록 양방향의 상호인적교류가 필요하지요.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 교류, 현지 인턴십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로의 벽을 허물고 파트너로 발전하는 단계로 승화될 수 있을 겁니다. 교수들도 공동연구 및 교환교수제도를 잘 활용하여 상호 방문을 통해 파트너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러한 내부 합의의 중요성은 다음 PS대 관계자 면담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도 학생들의 목표와 의지, 그리고 대학 내부의 리더십을 통한 조직 내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PS대 관계자: 국제 활동을 하기 위한 외부 대상과의 국제화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consensus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 학생들의 목표와 의지, 그리고 대학 내부의 리더십 등이 더해지는 내부의 consensus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SK대 관계자: [...] 제일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건 quality라고 봐요. 질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크지요. 그래서 전인교육 시키지 못하고 남들과 차별되는 교육 시키지 못할 거면 내가 왜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해요. 나중에 연대 갈 학생들이 우리학교 선택하게 만들어보고 싶어요. [...]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게 우리 비전입니다. 시대의 문제를 풀어내는 애들을 교육하는 거. 그런 교육기관으로 만들어보자.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교육의 모델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어보자. 기업들이 정말 당신네 학교에서 이렇게 좋은 애들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내대학들의 국제화 추진을 위해서는 해외대학을 유치하고 지역대학과의 협력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FB대 관계자: [...] 국내에 유치된 해외대학들을 중장기적인 지원 및 협력을 통해 외국대학의 장기적인 성과 도출을 도모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치 외국학교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협력프로그램 공동 구축, 네트워크프로그램 구축 지원, 문제점 해결 방안 지원 등 다양한 운영지원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하겠지요. 지역 및 국가 이익에 수반되는 지원프로그램 구축 및 활용을 통하여 국내 산학연들과의 시너지효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를 위해서 먼저 국내대학들의 국제화 인식변화를 위한 다양한 정보 세미나,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대학국제화를 위한 공동 준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아가 해외 네트워킹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다수 제시되었다. 다음 면담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세계대학 평가에서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해외 네트워킹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외네트워킹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SK대 관계자 면담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CA대학 관계자: 한국국제교육자협의회(KAFSA)의 위상을 제고하고 이들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명문 대학과의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3세계 국가에 대해서도 ODA의 일환으로 교육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외 네트워킹을 강화함으

로써 우리나라 대학도 세계 대학 평가에서 순위를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SK대 관계자: [...] 저희가 고민하는 가장 큰 문제가 5년 후입니다. 정부가 5년은 서포트를 해 주니깐 5년은 어떻게든지 견디면서 나갈 수가 있는데, 5년 후에는 굉장히 큰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fund raising 중심으로 경영합니다. 국내 펀드뿐만 아니라 해외 국내 다 관계없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 동원해서 다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resonable한 수익 사업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우리 학생들 모두가 다 장학금을 받는 겁니다. 전교생 다 장학금 주는 게 꿈인데, 일 년에 300억 있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개네들 다 장학금 주면서 장학금 받고 들어온 애들한테 미리 약속을 받습니다. 이거는 의무는 아니지만, 너희 졸업하고 나서 돈 벌게 되면 그 이상의 돈을 학교로 다시 돌려라. 그래서 개네들이 donation, 우리 졸업생들이 donation 해주는 돈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학교를 기본적인 유지는 하고, 학교가 버는 다른 income source 가지고는 교수들 연구할 수 있게 해주고 복지를 위해 쓸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plan을 갖고 있어요.

외국에 대학의 분교를 설립하여 인재활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개발도상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교육할 뿐 아니라, 국내 학생들에게 해외 분교에서의 국제 경험을 쌓도록 하여 인적자원 유입과 네트워크 구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KR연구소 관계자: [...] 외국에 대학분교를 설립하여 브레인 써큘레이션과 글로벌 인재활용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교육하는 것과 동시에, 국내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을 추가하지 않고 분교에서 국제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해외 분교는 인적자원 유입과 네트워크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마. 정부의 행·재정 지원의 확대

규정의 미비와 규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행·재정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제언이 있었다. 먼저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해 유치 및 지원 센터의 운영 관련 인건비 및 운영비의 정부 지원이 필요할 뿐 아니라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고 국내 대학 평가 방법 역시 각 학교의 유학생 유치 실태 등을 고려하여 각 대학 사정에 맞는 평가 방법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음 면담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GC대학 관계자: [...] 먼저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의 확대입니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각 대학에게만 사실상 맡겨져 있고, 정부의 역할은 대학 홍보, 유학생 박람회 개최 등에 한정되어 있습

니다. 최근에는 질 관리 차원에서 유학생 관리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정작 이러한 노력들은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려는 개별 대학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유학생 유치에 소요되는 경비, 즉 유학생 유치 및 지원센터 운영 관련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학 교육내용과 방법 측면에서 국제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과의 공동과정 운영이 필요합니다. 효과가 불확실한 외국대학 유치를 위해서 재정 지원을 하기 보다는, 국내 대학 교육의 내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외국대학과의 공동과정 운영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학의 국제화 노력을 다각적인 평가할 수 있는 평가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정부의 각종 평가에서 국제화를 외국인 학생수, 영어강의비율, 교환학생 비율 등으로 획일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데, 각 학교의 유학생 유치 실태 등을 고려하여 중국 학생 비율이 매우 높은 경우, 이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중국어 강좌 제공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지요.

교육과정 품질 관리를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 인증이 필요하고 나아가서는 인적교류, 학점 및 프로그램의 교환, 해외시설의 인정 및 활용, 해외국가의 상호교육기관 인정 등, 해외대학의 국내 분교, 국내 대학의 해외분교를 아우르는 고등교육법 및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SA재단 관계자: 거주여건의 개선이 시급하겠지요. 그리고 실제 이러한 거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현재 외국인 유치 인증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교육과정 품질관리측면으로 보면 유치 인증제 이외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단계적으로 국제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관련된 규정이 필요합니다. 해외대학의 국내분교, 국내대학의 해외분교에 대해 통괄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및 관련규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요. 인적교류, 학점 및 프로그램의 교환, 해외시설의 인정 및 활용, 해외국가의 상호교육기관 인정도 물론 필요하고요.

외국인 교원 채용에서도 임용절차와 임용조건이 완화될 필요가 있으며, 영어 강좌의 경우에도 ‘영어강의인증제’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음 면담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R연구소 관계자: 외국인 교원의 연구와 교육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인 교원 임용절차 및 조건이 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교원 투입 지표에 지나치게 경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예컨대, 공립대학의 경우는 전임교원은 교육공무원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외국인을 전임교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또, 높은 외국인 교원의 임금을 고려할 때, 교원의 투입 보다는 교육 및 연구 과정의 참여와 그 성과 분석도 실시해야 하겠지요. [...] 또한 영어강의인증제를 통한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대학에서 이에 미치는 못하는 영어강좌를 대학

임의로 개설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외국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하거나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체적으로 행정적인 규제를 완화해야만이 대학 국제화가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UK대 관계자: 특히 외국에서 글로벌 인터십, 교육실습 등으로 이수한 학점이 인정이 되지 않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꼭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 글로벌 수준에 맞는 의사결정, 정책과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요.

이를 위해 정책 차원에서 ‘국제화 중점대학’ 혹은 ‘국제화 중점학과’를 지정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KR연구소 관계자: In-bound중심의 국제화는 특정학과 혹은 대학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국제화 중점대학’ 혹은 ‘국제화 중점 학과’를 지정 운영해 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국제화의 명분으로 대학이 소수의 외국인 학생을 위해 다수의 영어강의를 개설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경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우리 대학이 강점을 가진 중숙련 기술 분야의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의 특정 학과를 중심으로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국가기간 산업에도 투입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 하다고 봅니다.

외국대학 관계자 면담에서는 미흡한 관리규정 및 지원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다음 면담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외국대학 유치의 경우에는 초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국내대학들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구축, 중장기적 지원 및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SK대 관계자2: 교육부에 이 말씀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든지 처음에 제일 어렵잖아요. SK대가 처음 왔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는 사람은 총장님 밖에 없는 거예요. 행정적인 작은 것들은 쭉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FB대 관계자: 초반 해외대학 유치에 많은 지자체 및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외대학들을 접촉하여 많은 대학이 국내에 유치될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 현재 국내에 유치 확정된 3개 외국대학 중 현재 1개 대학은 철수하였고 2개 대학도 최초 지원 5년이 지난 후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게 될 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해외대학의 유치 성과에만 급급한 나머지 유치 후 사후관리와 정착 지원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한국에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해외우수대학들은 아직 존재해 있고, 이는 향후 국내의 대학 국제화의 성공에 주요한 과제가 되리라 봅니다. 기존의 시행착오와 미흡한 관리 규정 및 지원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고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기관이 설립된다면 한국의 대학국제화의 성공은 어렵지 않다고 봐요. 국내대학들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프로그램 구축, 중장기적 지원, 관리 및 협력시스템을 구축을 통한 국내 성공적 정착 지원 활성화, 다양성과 지역의 개별성에 맞는 계획적인 사전 심사 및 검토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대학국제화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을 양성하여 해외대학유치 및 국내대학 해외진출 등 모든 전반적인 대학국제화를 위한 전문기관이 국내 관련정부기관(교육부, 산업부)들과 협업하여 중장기적인 한국의 대학국제화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대학에서 조직적인 대응이 어려운 공동교육과정의 경우, 국가가 재정지원 등을 포함한 정책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HY대학 관계자: 여러 가지 선결해야 하는 문제도 많겠지만, 지역별, 혹은 도별로 몇 개의 대학을 선정해서 각 대학의 가령 5개 이상의 영어프로그램과 외국인 교수를 채용하도록 하고 그 경비를 국고보조금을 통해 충당할 수 있다면 특성화된 공동교육과정이 생길 수도 있겠죠.

나아가 산학연 연계를 통한 외국인 유학생의 인턴십 확대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외국인 유학생을 국내 기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안전 보험이라거나 외국인 유학생 최저임금제도의 정착, 나아가 석박사급 우수인재의 기업 적응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KR연구소 관계자: 외국인 유학생의 인턴십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우수한 국내 기업에 일할 수 있는 경험은 국내 대학에서의 경험보다 더 매력적으로 다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외국인 유학생 인턴십은 일부 대기업에 극히 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일터의 안전 문제와 급여로 압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향후 우수 외국인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유학생의 일 경험 축적을 위해서 정부가 사업장의 안전 보험과 학생수준의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지원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석박사급의 우수한 인재가 국내노동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재학단계에서부터 국내 기업의 적응과정을 거쳐 두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위의 FB대 관계자 면담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정부 부처 연계, 협력 프로그램 구축, 사후 관리 등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관리 기구 역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전문가들 역시, 인턴십을 예로 들어 학생들이 많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학과 대학, 국가와 국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PS대 관계자 2: 폭이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학생들 니즈에 맞출 수 있는 랩에서 연구를 하는게 인턴십 주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코퍼레이션 안에 산하에 있는 랩이라든지, 대학의 랩에 개별 연구소라거나, 이런 인턴십 placement를 최대한 넓게 잡아서 나의 전공 분야와 랩에서의 전공 분야가 매치가 잘 돼서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선택권을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정부에서 할 수 있다면 학생들에게 좀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 Quality가 있는 것으로요. [...] 사실 인턴십은 (국제화) 프로그램 중에서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아요. 그렇지만 정부기관 같은 곳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이나 인턴십 연구기관을 제공해주면 좋을 것 같구요. 사실 저희대학에서는 국제화 자체가 목표가 아닌 대학이기 때문에, 목표로 가기 위한 도구로 국제화를 하는 거니까요.

이를 위해서는 국제화를 조망할 수 있는 정보공시가 필요하고 나아가 한국의 국제화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제시되었다.

SA재단 관계자: 또한 각 대학의 국제화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총괄할 수 있는 국제교류에 대한 집계된 정보가 필요하며, 이를 공시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UK대 관계자: 특히 미국학교와 학생들에게 한국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학생 모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에서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소결

이상, 국제화 관련 전문가 면담 자료를 통해 국제화의 필요성, 문제, 그리고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환경의 변화로 국내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고등교육의 시장화로 국내 대학의 국제경쟁력이 문제가 되면서 국제화가 대학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 고등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국제화 요구가 더해져 대학의 국제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 사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그러나 국내 대학들은 이러한 국제화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비전의 부재 등으로 정부 주도의 소극적인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지나친 규제, 혹은 규정의 미비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국제화에 국가 수준에서 제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과 대학 내부에서의 조직적인 대응의 미비가 학습지원 및 생활지원의 미흡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 구성원의 합의를 통한 국제화 비전의 확립과 리더십을 통한 학습지원 및 생활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 대학의 질 제고가 우선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 고등교육법의 정비, 나아가 행·재정 지원을 통한 국제화 지원센터, 정보 공시, 홍보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많았다.

VII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개선방안

1. 국제화 추진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 개선안
2. 개별 대학 차원의 고등교육 국제화 개선방안
3. 고등교육 국제화의 중점 추진과제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개선방안

이상으로 한국 고등교육 국제화 추진 배경과 정책을 알아보고 국제화 현황 및 인식 조사를 통해 실제 국제화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와 더불어 미국과 일본, 중국의 국제화 정책과 사례를 살펴보고, 모드별로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운영 사례, 나아가 국제화에 관련한 면담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고등교육 국제화정책 개선방안을 정부차원과 대학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국제화 추진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 개선안

가.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의 목표 및 방향전략의 명료화

먼저 국제화 정책 목표 및 방향전략을 국가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WTO의 GATS나 FTA 체결 등과 같은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대응하여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제화 비전을 명확히 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글로벌 인재상을 제시하고 국가차원의 국제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1) 구체적인 국제화 목표의 제시

FTA의 확대, 국가 간 노동시장 장벽 소멸, 국제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요구 증가 등과 같은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구체적인 대학 국제화 목표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OECD DAC 가입, G20 정상회의 개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사회 기여 요구 또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등교육 국제화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대학 스스로가 인식하고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Study Korea Project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학생관리역량제 등과 같은 정부의 질 관리에 대한 대학들의 반발도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들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인 국제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명확한 국제화 정책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글로벌화, 개방화에 대응한 국제 통용성을 갖

춘 고등교육체제 구축' 혹은 외국대학의 진출, 학령인구의 감소, 해외 유학의 증가 등에 대응하여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국제 경쟁력 있는 대학교육 시스템과 캠퍼스 환경 구축' 등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국제화의 필요성, 나아가 고등교육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대학은 물론, 기업이나 산업 등, 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시킴으로써 대학 스스로가 국제화 비전과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글로벌 인재상의 설정

이러한 국제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글로벌 인재상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어학·커뮤니케이션 능력, 주체성·적극성, 도전정신, 협조성·유연성, 책임감·사명감,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일본인으로써의 아이덴티티 등과 같은 구체적인 글로벌 인재상을 제시하고 대학 스스로의 교육개혁을 유도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대학에서도 창의 인재가 중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창의 인재상에 글로벌 인재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대학이 육성해야 할 글로벌 인재상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3) 국가차원의 국제화 종합계획 수립

위와 같은 글로벌 인재상의 제시, 국제화 비전 및 전략 수립과 구체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국가 차원에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모든 부처가 연계하여 국제화를 추진하는 중국의 사례는 국가 차원의 국제화 종합계획 수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 이를 위한 고등교육 시스템 개혁 등과 같은 국제화 비전에 맞게 중장기 로드맵 개발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만 대학 역시 이에 맞는 구체적인 국제화 방향을 설정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성 제고

1) 대학 특성에 따른 국제화 전략 수립

국제화 정책 대상 영역의 전략적 설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고등교육의 제 영역을 국제화하기 보다는 정부에서 대응이 필요한 영역 중심으로 국제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앞서 분석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고등교육 기관의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유학생 유치나 해외 파견과 같은 국제화 정도가 다르고 경제자유구역 중심으로 외국교육기관이 설립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황을

고려하여 지역이나 규모, 나아가 연구중심인지 교육중심인지 등의 대학 특성에 따라 고등교육 시장 개방 유형과 관련된 국제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실제 이공계라거나 MBA 등과 같이 국제 인증이 이루어지는 학과 교육과정의 국제적 통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들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의 국제화를, 경제자유구역 등에만 설립할 수 있는 SUNY-Korea와 같은 외국교육기관과 연계를 위해서는 그 지역 소재의 국내 대학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등, 대학의 여건을 반영한 국제화 추진이 필요하다.

2) 국제화 추진방식의 효율화

이처럼 모든 대학이 같은 국제화 방향을 추구하기 보다는 학교 여건을 반영한 국제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동학위, 복수학위 혹은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이미 기반이 구축된 분야부터 국제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양대의 사례에서처럼 외국인 유학생 유치 노력이 뛰어난 대학은 모드 2에 해당하는 외국인 유학생 중점 대학으로 하고, 공동교육과정 개발에 힘쓰고 있는 서울대학의 경우에는 모드 1에 해당하는 공동교육과정 운영 중점 대학으로 하는 등, 국제화 추진 방식의 효율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 분야에서의 국제화 추진이 미진한 대학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대학 현장의 요구가 많은 분야부터 국제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 내실 있는 국제화 추구

1) 대학 교육의 질 제고

국제화의 최종 단계가 국제적 통용성이 있는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있다는 점에서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세계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공동교육과정 개발은 국가 간, 대학 간 서로 다른 제도적 요인뿐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차이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대학 고유의 특화 전공만큼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의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내의 외국인 유학생은 물론, 해외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들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영어 강의, 해외 고등교육기관과의 학점 인정 등을 통해 복수학위·공동학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는 국제 마인드 고취를 위해서 다문화 이해교육, 글로벌 시민교육 등과 같은 국제 이해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쟁력 있는 대학 캠퍼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평가 및 성과관리 체제 구축

그리고 이들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이 이루어지고 국제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화 정책의 진척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먼저 대학 스스로가 국제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특화된 국제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의 자체평가 지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 전체의 국제화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모드별’로 개발하고 이러한 지표를 통해 국가 수준에서 국제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후 체크를 통해 대학의 국제화 노력 정도, 교육의 질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라. 국제화 추진을 위한 인프라 조성

앞서 면담자료나 주요국의 정책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계적으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 및 책무성 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 국제화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진출은 대학 간 경쟁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교육기관이 보유한 국제적 교육환경으로 국내에서도 외국의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을 발휘하기에는 인프라가 부족한 사항들이 있다. 특히, 법적, 제도적 문제로 인하여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하는 행정적인 문제들은 초기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는 국내 교육기관 역시 마찬가지이다. 법 제도의 정비, 나아가 행·재정 지원을 통해 국내 고등교육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법 제도의 정비

국제화의 개선 과제로 가장 많이 지적된 점은 지나친 규제, 혹은 규정의 미비 등과 같은 법·제도의 문제였다. 수업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표준을 설정하거나, 가을학기제의 도입과 같은 개선 과제는 물론, 외국교육기관이 제기한 남학생들의 군입대 연기 문제, 사학연금 적용 불가 등과 관련된 많은 법·제도상의 문제로 국제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국제화 추진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 수준에서 법·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유학생이나 외국인 교원의 비자 문제와 관련된 출입국관리를 시작으로 건강보험, 연금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외국교육기관과 관련된 지나친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이며, 외국교육기관의 위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규정을 제정하여 국내 사학법인에 준하여 공동연구나 발전기금 등을 통한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부처 간 연계 위원회 구성

국내 대학과의 파트너십 형성과 학문적 교류나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의 중앙 부처뿐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청 등의 지방자치단체, 나아가 대학협의회 등, 부처 간 연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유학생이나 외국인 교원 유치를 위해서는 도항 등과 관련된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소, 건강보험 등의 생활 지원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며, 외국대학 설립과 관련해서는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청, 외국대학과의 교류 협력, 공동교육과정운영 등을 위해서는 교육부, 대학협의회와 관련이 있으며, 국내 대학들의 국외 분교 설립과 관련해서 교육부는 물론 외교통상부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면담자료나 설문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부처 간 연계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으로 모든 부처가 고등교육 국제화 필요성에 대한 공통 인식을 가지고 통합적인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는 부처 간 연계 위원회를 설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예산 지원의 확대

이상의 모든 국제화 추진 강화를 위해 정부, 지역자치단체 등의 재정 지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SUNY-Korea의 사례나 면담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교지, 교사를 확보·제공하는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속적인 질 관리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 재원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국제화 추진 주체들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재원 운영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예산 확보와 관련 기관의 매칭 펀드 확대를 통해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제 통용성이 있는 공동교육과정 개발 등과 같은 국내대학에 대한 예산 지원은 대학구조개혁이나 기타 다른 교육부 예산 배분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국제화 지원 센터(가칭) 설립

국제화 추진의 또 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점은 한국 고등교육에 대한 해외 인지도 저조, 해외 대학과의 문화 및 언어 차이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폐쇄적인 인식 등이었다. 외국인 유학생의 급증으로 인한 다양한 언어 교육과 다문화 이해 교육 등을 통해 국제화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며, 우리나라 대학의 해외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국제화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국내외 자료들을 제공하고 국내 대학들의 국제화 활동에 대한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제화

성과 평가와 연계하여 국가수준에서 대학 국제화 현황을 파악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대학 자료 공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마. 국제화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

앞서 POSTECH의 사례에서처럼,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공계열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해외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풍부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UNESCO 및 각종 고등교육 인증 등과 관련된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하는 형태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POSTECH뿐만 아니라 서울대, 한양대 등의 국내 대학에서뿐 아니라 국내에서 학부 과정과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SUNY-Korea 역시 대학 차원의 국내 대학 간 교류 확대의 한 계를 토로하였다. 대학 간 교류 확대를 통해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연구를 활성화하여 공동교육과정 개발이나 학점 인정 등과 같은 교육·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대학 간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대학별로 추진하기 보다는 국제화 전략이 비슷한 대학, 동일 권역에 위치한 대학 등과 연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국제화 전략을 통해 이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내외 기업이나 산업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유학생 유치, 학생 교류, 인턴십 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적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2 개별 대학 차원의 고등교육 국제화 개선방안

가. 대학 특성에 따른 국제화 목표 및 전략 수립

먼저 대학 특성에 따라 국제화 목표와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현황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대부분의 대학들이 국제화 비전은 물론, 구체적인 국제화 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립했다 하더라도 유학생 유치나 해외 교류 등과 같은 일반적인 전략에 그치고 있다. 대학 차원에서 대학의 특성에 따라 국제화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 구성원의 합의와 강력한 국제화 마인드를 가진 리더십을 통해 국제화 비전과 전략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나. 교육과정의 내실화

다음으로는 교육과정의 내실화이다. 국제화란 국내의 고등교육과 외국의 고등교육 기관의 상호

작용이라는 점에서 국내 대학의 질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교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현황자료나 면담자료에서도 해외 우수 유학생 확보를 위한 어려움으로 국제 통용성이 있는 교육과정 개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교육과정을 내실화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향후 대학 국제화 추진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앞서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학생 생활지원을 통한 유학생 유치 환경 조성이나 한국 문화교육이나 연수활동, 한국어 교육 등과 같은 초기 대응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영어전용 강좌와 같은 유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기해 국제적으로 통용성이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 해외교류 프로그램 네트워크 형성

국내 대학 간의 경쟁과 교류에서 전 세계 대학과의 경쟁과 교류로 확대 된 고등교육의 국제화 시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각 대학이 보유한 교육환경, 자원 등을 공유하고 활용함으로써 상호 번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대학 간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 우수한 해외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 구축으로 앞으로 확대될 국제화와 관련된 교류프로그램에 대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개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외 대학 교류가 단순한 교류로 그치지 않고 프로그램 교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라. 전담 조직의 정비 및 예산 지원

현황 및 인식조사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국제화 담당 조직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고 있다. 어느 대학에서는 한국어 언어원에서 어느 대학에서는 유학생 센터가 국제화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화 담당 조직이 없이 각 단과대학별로 국제화가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에 대한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 국제화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국제화 관련 활동을 총괄하고 이에 대한 조직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이에 맞는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3 고등교육 국제화의 중점 추진과제

가. Mode 1: 교육과정/프로그램 협력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교육과정은 물론, 선발, 학점인정, 졸업자격 등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무엇보다 어려운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UNESCO 등지에서 국제 통용성이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화 단계의 최종 단계가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복수학위·공동학위 수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드1의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학부보다는 우선적으로 대학원 중심의 공동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Campus Asia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 국제 표준화가 이루어진 이공계나 경영 MBA 등의 전공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공동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이를 학위와 연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교육과정 운영 개발을 위해서는 각 대학의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학 본부차원에서의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나. Mode 2: 해외 유학 및 해외 연수

유학생 유치의 측면에서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생활 및 학습 지원의 측면에서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유학생 학습 지원을 위한 외국어 전용 강좌의 확대나 더불어 배우는 다양한 국제화 전용 교육과정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유학생 유치에 반해, 국내 학생의 해외 인턴십이나 해외 취업은 매우 미진한 상황이다. 적극적인 국제 교류 협력을 통해 인턴십 과정을 개발하여 국내 학생들의 해외 경험을 다양화하고 이것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대학 수준이 아닌 국가 수준에서의 자료 수집 및 제공, 예산 확대, 규제 완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 Mode 3: 외국교육기관 설립

외국교육기관 유치는 최근 경자청을 중심으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특성, 경제 규모, 지역 대학 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유치로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해서는 심사기관인 교육부와 경자청, 기재부 등 관련 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외국교육기관 운영은 물론 교육과정의 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와 사후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

다.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강화하려면 무엇보다 교육과정 운영 프로세스를 수시로 체크하고 정부차원에서 외국교육기관 역시 국내 대학과 마찬가지로 평가를 받는 국제 공통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 교육기관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라도 국제 수준의 평가기관에 등록을 하여 인증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 Mode 4: 해외 교류

외국인 교원의 채용이나 국내 연구자의 해외 파견과 같은 모드4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자나 건강보험, 연금 등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 연계를 통해 외국인 교원의 채용이나 해외 파견이 용이하도록 규정을 제정하고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인 교원의 적응을 돕기 위한 생활 지원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교원의 주거 지원은 물론 건강보험, 사학연금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에서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해외 파견의 경우에는 상대국 규정에 좌우되므로 다양한 국가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긴밀한 네트워킹을 통해 상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국제화 지원기구 설립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마. 모드별·주체별 추진 전략

이상, 추진 정책 과제별로 중점 추진 전략을 정리하였다. 이를 다시 제도적인 측면과, 교육내용 및 방법, 교수 학생 지원, 파트너십 구축 등의 세부 요소로 나누어 모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VII-1〉 참조).

먼저 모드 1의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성이 있는 교육과정의 표준화 전략이 필요하며 교육내용이나 방법의 측면에서는 특화된 교육과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학생과 교수 모두 온라인, 외국어 전용 강의 등과 같은 학습방법을 지원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프로그램 교환을 통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모드 2의 In-Bound에 해당하는 유학생 유치의 경우, 대학 특성에 따른 명확한 전략 수립이 중요하며 교육내용과 방법의 측면에서는 유학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외국어 전용 강의의 확대, 나아가서는 외국어 전용 트랙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학생·교수지원을 위해서는 학습에서뿐 아니라 기숙사 운영이나 장학금과 같은 생활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의 교육과정 질을 제고하고 정보제공, 유학박람회 등과 같은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해외 파견을 중심으로 하는 Out-Bound 활성화를 위해서는 파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각 기관과의 교환 프로그램을 개발할 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다양한 경험이 글로벌 시민의식의 고취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 이해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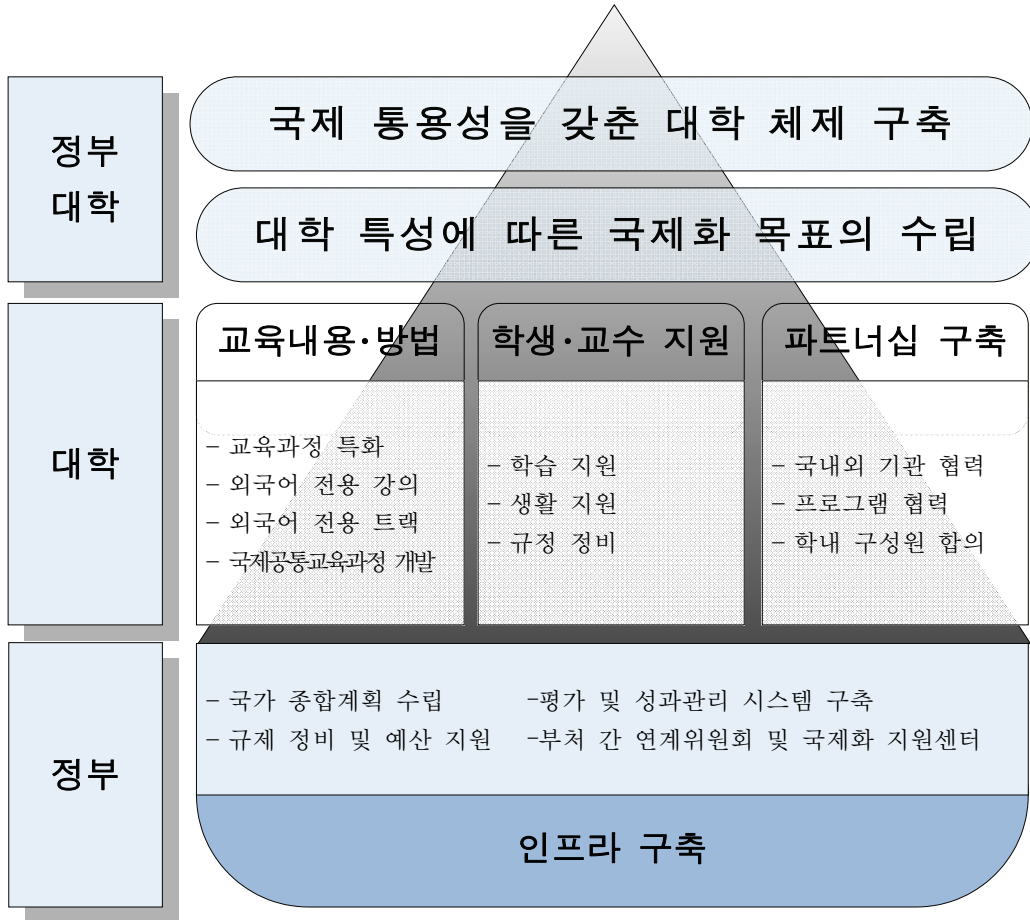
외국분교 유치로 대표되는 모드 3의 경우, In-Bound의 측면에서는 외국교육기관 내부의 규정을 정비하여 공동연구 등을 통한 운영활성화를 꾀하고 학생의 학습과 생활지원은 물론 교육과정의 질을 보장함으로써 국내 대학과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반대로 국내 대학의 해외분교 설립과 같은 Out-Bound 형태의 국제화 추진을 위해서는 국외 분교 설립을 위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상대국의 고등교육 프로그램 교류를 꾀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교육과정의 질을 보장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교육 연구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외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교수 유치, 파견과 같은 모드 4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유치나 파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 협력을 통한 학내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며, 이들이 교육과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을 통해 국내 적응을 도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동연구의 활성화를 꾀하고 생활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표 VII-1〉 국제화 모드별 추진 전략

구분		모드 1 (공동교육과정)	모드 2 (해외유치/파견)	모드 3 (외국분교)	모드 4 (외국인교수)
In-bound	제도수립·개선	·국제표준화	·전락수립	·규정정비	·부서협력
	교육내용·방법	·교육과정특화	·외국어전용 ·외국어트랙	·질 보장	·교육과정특화
	학생·교수지원	·학습방법지원	·학습생활지원	·학습생활지원	·생활지원
	파트너십구축	·프로그램협력	·해외홍보	·공동연구	·공동연구
	기타	·학내합의	·질 보장	·운영개선	·질 보장
Out-bound	제도수립·개선	·국제표준화	·재정지원	·규정정비	·부서협력
	교육내용·방법	·교육과정특화	·국제이해교육	·질 보장	·질 보장
	학생·교수지원	·학습생활지원	·생활지원	·학습생활지원	·생활지원
	파트너십구축	·프로그램협력	·프로그램협력	·프로그램협력	·공동연구
	기타	·학내합의	·정보제공	·공동연구	·행정지원
Infra	·국제화 전략 수립(국가종합계획 수립)				
	·행·재정 지원(규제정비 및 예산 지원 등)				
	·질 보증을 위한 평가 및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부처 간 연계위원회 및 국제화 지원센터 설립				

정책 개선방안을 토대로 정부와 대학에 따른 구체적인 전략을 정리해 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Ⅶ-1] 주체별 국제화 추진 전략 방안

VIII

결론

1. 요약
2. 한계 및 향후 과제

VIII

결론

1 요약

이상으로 한국 고등교육 국제화 추진 배경과 정책을 알아보고 국제화 현황 및 인식 조사를 통해 실제 국제화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와 더불어 미국과 일본, 중국의 국제화 정책과 사례를 살펴보고, 모드별로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운영 사례, 나아가 국제화에 관련한 면담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한국 고등교육 국제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①한국의 고등교육 국제화가 WTO와 FTA 체결 등의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화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이러한 정부 정책 추진에 반응하는 형태로 대학의 국제화가 추진되고 있었다. 또한 ②한국의 국제화는 유학생 유치를 통해 유학수지를 개선하거나, 해외 석학 초청, 외국교육기관의 유치를 통한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바운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③국제화 성과를 보면,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학, 지역별로는 지방보다 서울 소재 대학이, 대학 규모에 있어서는 소규모 대학보다는 대규모 대학이 적극적인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국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를 비교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미국은 국제학생을 가장 많이 유치하는 국가로서 국제화를 주도해왔으나 호주나 뉴질랜드 등 다른 영어권 국가들이 국제 학생들을 유치하는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데다 2001년 9.11 테러 사건이후 강화된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 그리고 무한 경쟁의 무역 전쟁과 더불어 약간 주춤해진 추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국 학생들의 해외파견을 통해 자국의 교육의 질을 제고하면서 국제적인 경험을 증대시켜 국제화가 자국의 교육 체제에 스며들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개정하고 문화적으로 열린 학습자를 길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은 국제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해외의 최첨단 동향을 살펴 일본에서 필요로 하는 ‘글로벌 인재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육성을 위해 각 대학이 교육 목표나 미션을 고려하여 다양하고 발본적인 교육개혁을 통해 글로벌 위기를 타파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국제화는 대부분 유학생이나 외국인 연구자 유치 중심의 시책이 대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최근에서야 재학 중의 학생 교환을 포함한 학생 파견이나 학내에서의 국제적 학습 환경 정비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어 수업의 제공이나 학위 프로그램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고는 하나, 일본의 언어, 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를 중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일본 국제화 정책은 일본 국내 대학의 교육·연구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적인 통용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공자뿐만 아니라 국가와 대학 차원에서 시장개방의 중요성을 인식한 가운데, 적극적으로 국제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의 경우에는 대학의 특성화 분야와 지역적 특성, 각 지방정부의 상황과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가차원에서 유망하거나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분야에 국한하여 선택과 집중 지원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화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국내 대학의 구체적인 국제화 현황 및 인식을 보면, ①국제화 전략이 명확하지 않으며, ②구체적인 전략 역시 해외 교류나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③외국어 전용 강좌라거나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과 같이 실제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국제화를 꾀하고 있는 비율은 매우 적었으며, ④해외 인턴십이나 국내 대학의 해외 분교 설립과 같은 out-bound 형태의 국제화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중시하여 실시해야 하는 국제화 정책 중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①유학생을 위한 경제적 지원은 물론 기숙사 제공 및 알선, 보험이나 아르바이트와 같은 생활지원 및 정신 상담 등과 같은 유치 환경 조성이나 한국문화교육이나 연수활동, 한국어 교육 등을 중시하여 실시하고 있었으나, ②수업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표준을 설정하거나, 가을학기제의 도입, 나아가 유학생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취업 지원 등과 같은 교육과정 개선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대학들의 유학생 유치에 대한 관심은 국제화 문제 인식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었다. ③대학들이 인식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해외 우수 유학생 확보의 어려움이었으며, 다른 항목 역시 해외 우수 유학생 확보와 관련된 항목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국제화 추진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 개선 항목으로 ④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의 부처 간 연계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각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인 교원이나 연구자 유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대학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우수 사례를 모드별로 살펴보았다. 먼저 교육과정 운영 우수 사례대학인 서울대학의 경우, 앞으로의 과제로 ①공동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상대국과의 제도적, 문화적 차이의 극복, ②대학 내부의 합의 도출이 어렵고, ③장학금뿐만 아니라 기숙사 등의 ‘패키지 형 지원’, 나아가 학점 인정, 나아가 공동학위 혹은 복수학위 취득이 전제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예산 확보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유학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양대의 경우에는 일원화된 국제화 창구 운영과 국제협력 업무 경험이 있는 직원을 단과대학의 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으로 재배치하여 국제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었으며, 외국학생 유치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대학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직원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처, 입학한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개별적이고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①직원의 이직율의 증가로 인한 국제화 업무의 비효율화, ②학내 조직 구성의 문제로 국내외 교육기관 협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③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해외 홍보 미진, ④정부의 지나친 규제를 과제로 들었다. 학부 차원에서 외국분교를 국내에 설치한 SUNY-Korea에서는 ①초기 지원금이 고갈되는 5년 후 자립적으로 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을 마련하는 것을 중요 과제로 들었다. 그리고 ②교육과정 운영의 확대에 있어서의 미국 본교와 한국 정부 간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국가의 규제 문제로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었다. 나아가 ③국내 대학과의 파트너십 형성과 학문적 교류를 통해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과제로 지적하였다. ④남학생들의 군입대 연기 문제, 사학연금 적용 불가 등과 관련된 세세한 제도적 장치 문제로 인한 대학 운영의 행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드 4에 해당하는 포스텍의 사례에서는 ①인턴십을 할 수 있는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의 부족, ②인턴십 국가와 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희망하는 기간과 전공에 맞는 곳을 찾기 어렵다는 점, ③인턴십 연구에 관한 사전 정보 부족을 문제로 들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며, 향후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국제화 담당자 및 전문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국내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제화가 필요하지만 비전의 부재, 정부 주도의 소극적인 국제화 추진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지나친 규제, 혹은 규정의 미비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국제화에 국가 수준에서 제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과 대학 내부에서의 조직적인 대응의 미비가 학습지원 및 생활지원의 미흡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 구성원의 합의를 통한 국제화 비전의 확립과 리더십을 통한 학습지원 및 생활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 대학의 질 제고가 우선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 고등교육법의 정비, 나아가 행·재정 지원을 통한 국제화 지원센터, 정보 공시, 홍보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많았다.

이에 따라 대학 국제화 정책 개선방안을 정부차원과 대학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모드별 중점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정부차원에서는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목표 및 방향 전략의 명료화를 위해 ①국제화 정책 목표 및 방향전략을 국가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②이를 위한 글로벌 인재상을 설정하여, ③국가차원의 국제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개선방안으로 들었다. 다음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①대학 특성에 따른 국

제화 전략 수립, ②국제화 추진방식의 효율화를 들고, 내실 있는 국제화 추구를 위해 ①대학 교육의 질 제고, ②평가 및 성과관리 체제 구축을 제언했다. 또한 국제화 추진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위해 ①법 제도의 정비, ②부처간 연계 위원회 구성, ③예산 지원의 확대, 이 모두를 위한 ④부처 간 연계 국제화 지원 센터(가칭)의 설립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화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UNESCO 및 각종 고등교육 인증 등과 관련된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한편, 대학의 과제로는 대학 특성에 따른 국제화 목표 및 전략 수립, 교육과정의 내실화, 해외 교류 프로그램 네트워크 형성, 국제화 전담조직의 정비 및 예산 지원을 제언하였다.

2 한계 및 향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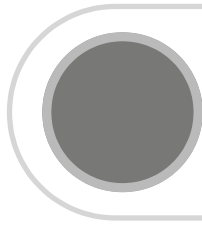
연구의 가장 큰 한계는 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은 물론 인식조사를 시도하였으나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교육부 공문을 통해 조사를 의뢰하고 응답이 용이하도록 온라인 설문을 구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율이 낮아 조사 참가 대학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한국 고등교육 전체의 국제화 현황 및 국제화 인식이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가장 활발한 국제화를 전개하고 있는 서울지역의 대규모 사립대학들의 조사 참여가 낮아, 실제 고등교육 수준에서 어떠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이는 향후 대학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수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알리미의 정보공시 항목은 유학생 수나 외국인 교원, 해외 파견 정도로, 점차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공동 교육과정 개발, 특히 e-learning에 해당하는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정도를 파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해외 분교 유치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UNESCO나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는 물론, 유럽을 중심으로 국제적 통용성을 가진 교육과정의 개발이 중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동 교육과정의 개발에 필요한 현황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국제화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학 내부는 물론,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제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평가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국제화 관련 평가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평가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국제화 평가 사례들을 비교 분석 검토하여 국제적 통용성이 있는 국가 수준의 국제화 평가 지표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평가 지표의 개발을 통해 대학의 국제화 성과를 점검하여 선택과 집중의 효율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대학

스스로가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대학의 해외 인지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뿐 아니라 기업이나 산업체 등, 고등교육 국제화에 대한 사회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제화를 통해 대학의 해외 교류를 통한 교육 연구의 질 향상은 물론, 해외 인턴십, 해외 취업 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대학뿐 아니라 국내외 기업과 산업 연계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산학연관 연계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학 국제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더해 국제화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함으로써 국제화에 대한 사회인식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0). **글로벌 교육서비스 활성화 방안**.
- 교육과학기술부(2011a). **고등교육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외 우수외국교육기관 유치 활성화 방안**.
- 교육과학기술부(2011b). **아태지역 고등교육의 학위 인정 지역협약 개정**. 보도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1c). **교과부, 해외 학위 검증 강화 나선다**. 보도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2). **「고등교육 국제화 추진전략」 보고**.
- 교육과학기술부(2013). **한·EU 대학간 공동학위·복수학위 추진 지원**. 보도자료.
- 대통령 주요업무보고 각년도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13). **교육통계연보**.
- 구자익·박영진·안병환(2012).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정책 사례연구. **중국 종합연구시리즈** 12-33-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경근·김정숙·이계형(2008). 세계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분석 및 그 시사점. **비교교육연구** 18(4), 83-111.
- 김경화(2004). 교육서비스 개방에 대비한 외국 고등교육기관의 국제화 프로그램 사례에 대한 연구: 호주의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국전문대학교육연구학회논문집** 5(3), 455-475.
- 김미경(2011). 세계화와 교육: Thomas Friedman의 이론을 중심으로. **대구사학** 105, 199-236.
- 김미란·박병영·차성현·이병식(2012).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질 보증을 위한 제도개선: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김미란·채재은(2011). **외국대학 유치모델 및 기준 연구: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김병로 외(2012). **체제전환국의 경험과 북한교육개혁 방안**. 파주: 한울.
- 김승보 외(2007).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장기·지경배(2007). 교육개방화 시대에 따른 지방정부의 정책대응: 해외 우수대학 유치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1(3), 81-104.
- 김준동(2002). **WTO 도하개발아젠다협상-교육서비스분야의 논의동향과 대응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대통령업무보고 각년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민윤지(2011). 우리나라 교육서비스시장개방의 기대효과와 교육단계별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저널** 제 21권, 43-59.
- 박민아·이다은·한지혜(2009). 볼로냐 프로세스(Bologna Process): 2009 루벤 공동선언. **대학교육** 160, 80-86.
- 박순찬(2002). 고등교육의 역할과 개방의 영향. 교육시장개방에 대한 서울지역토론회 자료집. 교육인적자원부.
- 박영진(2005). 중국의 WTO 가입과 세계일류대학계획, **아시아교육연구** 6권 2호, 서울대학교교육연구소, 117-142.
- 박영진(2011). 중국 고등교육 개혁의 국제화 전략과 인문학, **인문정책포럼** 10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30-34.
- 박정수 외(2009).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의 질 제고**. 한국교육개발원.
- 서울대학교(2012). 2012년도 서울대학교 운영성과 자체평가 보고서.
- 서울대학교(2012).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 브로셔.
- 송영관·송백훈·강준구(2008). **지식기반서비스의 개방과 외국인투자를 통한 발전방안: 대학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신현석(2007). 한국 고등교육의 시장화와 다양화: 국가, 시장, 그리고 대학의 관점에서의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25(4), 285-314.
- 안미리·류완영·박재운·안일철·홍영란(2007). **외국인학교 실태 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 대한상공회의소.
- 오정일(2006). 교육서비스 시장 개방의 국제수지 효과. **KIET 산업경제** 2006년 8월, 13-21.
- 윤중혁 외(2010). **중국의 선택: 해외 우수인재 유치전략과 고등교육 개혁**, 수탁연구 CR 2010-33, 한국교육개발원.
- 이석희·박재운·박영진(2012). 한·중 FTA 대응을 위한 교육서비스 분야 방안 연구 2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수탁연구(비공개).
- 이경숙 위원실(2007).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 진단 및 개선방안**. 2007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이기정(2013).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우수사례. 한양대학교 내부 프리젠테이션 자료
- 이병식 외(2006). 고등교육기관의 국제화 분석: 실증분석과 사례분석을 통한 종합적 접근. **교육과학연구** 37(3), 279-298.
- 이정미(2006). 교육시장 개방의 딜레마 발생요인과 정책대응 전략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4(2),

103-124.

- 이정미 외(2012). **한-중 FTA 교육서비스 분야 협상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종재 외(2011). **우수 외국대학의 유치와 고등교육의 국제화**, 과제번호 2011-02, 한국연구재단.
- 장덕호(2007). 최근의 국제 관계의 변화와 국제교육정책 형성을 위한 담론. **비교교육연구** 17(1), 53-79.
- 장윤정(2010). 중국대학의 국제화와 인재육성 정책, **인차이나브리프** 181호, 인천발전연구원.
- 정진화(2002). 교육서비스 시장개방 논의와 대응방안. **KIET 산업경제** 2002년 2월, 51-63.
- 주삼환(2002). 고등교육의 시장 개방과 선택. **충남대학교 인문학연구** 29(2), 169-195
- 채재은·김안나(2008). **외국 영리학교법인 실태조사 및 국내에 미치는 영향 검토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최석준(2010). **글로벌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서비스 역량강화 방안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최정운·김미란(2007).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및 지수 개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 최정운·김미란·박영진(2011). **동아시아 국가와의 전략적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현황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포스텍(2012). 포스텍 소개 자료. 내부자료.
- 한국뉴욕주립대학교(2013).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소개 자료: 2013-2014. 내부자료.
- 한국사학진흥재단(2006). 한양대학교 상하이센터 소개 자료.
- 홍영란·서영인·정영기·김성기(2012). **질 보증을 위한 외국교육기관(대학) 유치 추진전략 및 종합계획**. 한국교육개발원.

- Adelman, C.(2008). **Learning Accountability from Bologna: A Higher Education Policy Primer**, Washington DE: Institute for Higher Education Policy.
- Altbach, P. G.(2004). Globalization and the university: Myths and realities in an unequal world. **Tertiary Education and Management**, 10, 3-25.
- Altbach, P. G.(2007). **Tradition and Transition: the International Imperative in Higher Education**. Rotterdam, Netherlands, Sense Publishers.
- Altbach, P. G. & Knight, J.(2006). The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 Motivations and Realities. **The NEA 2006 Almanac of Higher Education**, 1-11.
- Altbach, P.; Reisberg, L; Rumbley, L.(2009). **Trends in Global Higher Education, Tracking an Academic Revolution**. Paris: UNESCO.

- Clark, B.(1983). **The higher education system: Academic organization in cross-national perspective**. Berkeley, Calif: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Daly, A.(2011). Determinants of participating in Australian university students exchange programs. **Journal of Research in International Education** 10(1), 58-70.
- Daly, A. & Barker, M.(2005). Australian and New Zealand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s.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32(4), 333-342.
- De Wit, H.(2002).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Europe: A Historical, Comparative, and Conceptual Analysis**.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De Wit, H.(2011). "Globalisation and Internationalisation of Higher Education" [Introduction to online monograph]. **Revista de Universidad y Sociedad del Conomiento(RUSC)** 8(2), 241-248.
- De Wit & Merckx(2012). The history of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In: Deardorff, D.K., de Wit, H., Heyl, J. and Adams, T.(eds). **The Sage Handbook of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Sage.
- Egron-Polak, E.(2012). **Higer Education Internationalization: Seeking a New Balance of Values**.
 <http://www.nafsa.org/Explore_International_Education/Trends/TI/Higher_Education_Internationalization__Seeking_a_New_Balance_of_Values/>
- Ferlie, E., L. Ashburner, L. Fitzgerald, and A. Pettigrew.(1996). **The new public management in a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eiger, R.(2004). **Knowledge and Money: American Research Universities and the Paradox of Marketplace**. Stanford University Press.
- Gumport, P.J.(2000). Academic restructuring: Organizational change and institutional imperatives. **Higher Education** 39(1), 67-91.
- Knight, J.(2008). **Higher Education in Turmoil. The Changing World of Internationalization**. Rotterdam: Sense Publishers.
- Knight, J.(2011). Education Hubs: A Fad, A Brand, An Innovation? **Journal for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5(2) in press.

- Krip, D.(2003). **Shakespeare, Einstein and the Bottom Line: The Marketing of Higher Education**. Cambridge, MA: Havard University Press.
- Kuwamura, A.(2009). The challenges of increasing capacity and diversity in Japanese higher education through proactive recruitment strategies. **Journal of Research in International Education** 13(2), 189–202.
- Lopez, A.(2011). Functional pattern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 university cooperation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Journal of Research in International Education** 15(2), 203–215.
- OECD(2004). “Internationalisation of Higher Education”. **OECD Policy Brief**, August, OECD, Paris.
- Olsen(2008). Outgoing international mobility of Australian university students 2007. Paper presented at the Australian International Education Conference: Global Citizens, Global Impact, Brisbane.
- Rhoades, G. & B. Sporn(2002) . New models of management and shifting modes and costs of productio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Tertiary Education and Management** 8(1), 3–28.
- Scott, P.(2005). The Global Dimension: Internationalising Higher Education. In: Barbara Khem and Hans de Wit(eds.), **Internationalisation in Higher Education: European Responses to the Global Perspective**. Amsterdam: European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Education and the European Higher Education Society(EAIR).
- Sporn B.(2003). **Convergence or Divergence in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Policy**. Forum for the Furure of Higher Education(Archives).
<http://www.educause.edu/ir/library/pdf/FFPFP0305.pdf>
- Teichler, U.(1996). **Higher education and new socio-economic challenges in Europe**. In **Goals and Purposes of higher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edited by A. Burgen. London: Jessica Kingsley.
- Teichler, U.(2004). The changing debate on internationalisation of higher education. **Higher Education** 48(1), 5–26.
- Trent, J.(2012).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ertiary education in Asia: Language, identity and conflict. **Journal of Research in International Education** 11(1), 50–69.

- UNESCO/OECD(2005). **Guidelines for Quality Provision in Cross-border Higher Educ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2012). **Fall 2012 International Statistics**.
〈http://isss.illinois.edu/download_forms/stats/fal2_stats.pdf〉
- U.S. Department of Education(2012). **Succeeding Globally through International Education and Engagement: U.S. Department of Education International Strategy 2012-16**.
〈<http://www2.ed.gov/about/inits/ed/international/international-strategy-2012-16.pdf>〉
- Whitsed, C. & Wright, P.(2011). Perspectives from within: Adjunct, foreign, English-language teachers in the international of Japanese universities. **Journal of Research in International Education** 10(1), 28-45.
- Whitsed, M. & Volet, S.(2011). Fostering the intercultural dimensions of internationalisation in higher education: Metaphors and Challenges in the Japanese Context. **Journal of Research in International Education** 15(2), 146-170.
- Yonezawa, A.(2011). The Internationalization of Japanese Higher Education: Policy Debates and Realities. In: Simon Marginson et. al.(eds.) **Higher Education in the Asia-Pacific**. Springer.
- Yonezawa, A. & Horta, H.(2011). Reconsidering the realities of the international student market: a perspective from Japan and East Asia. In: Brian Pusser, Ken Kempner, Simon Marginson and Imanol Ordorika(eds.), **Universities and the Public Sphere: Knowledge Creation and State Building in the Era of Globalization**. Routledge. pp. 65-80.
- 天野郁夫(1989). 近代日本高等教育研究. 玉川大学出版部.
- 太田浩(2013). 東アジアにおける高等教育国際化の比較と連携: 日本の国際化の現状・課題・展望を踏まえて、黒田一雄編, アジアの高等教育がバナンス. 勤草書房. 275-300.
- 国際協力機構国際協力総合研修所(2003). 日本の教育経験. 国際協力機構.
- 教育再生実行会議(2013). これからの大学教育等の在り方について(第三次提言).
- 杉本和弘(2011). アジア太平洋地域を舞台にした国際教育の展開と質保証、リクルートカレッジマネジメント161, 42-46.
- 館昭(2009). ボローニャプロセスと大学院:高等教育グローバル化の新機軸と学位システム, IDE, 512, 45-51.
- チェンバースG. S. & カミングスW. K.(1990). 阿部美哉監修『アメリカ大学日本校』アルク。

- 中央教育審議会(2010). わが国の大学と外国の大学間におけるダブル・ディグリー等、組織的継続的な教育連携関係構築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案).
- 塚原修一編(2008). 高等教育市場の国際化, 玉川大学出版部.
- 独立行政法人大学評価・学位授与機構(2006). 大学の諸活動に関する測定指標の調査研究, 大学の諸活動に関する測定指標の測定指標調査研究会.
- 鳥井康熙(2008). 「外国大学の日本校」, 塚原修一編『高等教育市場の国際化』玉川大学出版部, 187-213.
- 鳥居康熙(2007). 外国大学日本校の将来展望: テンプル大学ジャパン事例, 国立教育政策研究所紀要, 第136集, 177-187.
- 広島大学高等教育研究開発センター(2006). 大学改革における評価制度の研究.
- 日本高等教育評価機構(2011). 日本高等教育評価機構概要.
- 日本学生支援機構(2012). 留学生受入れの概況2012.
- 文部科学省(2013). 今後の留学生政策について.
- 米澤彰純(2010). 高等教育の大衆化と私立大学経営, 東北大学出版会.
- 米澤彰純(2013a). 「グローバル化・市場化の中の東アジアの高等教育と日本」(黒田一雄編『アジアの高等教育ガバナンス』勁草書房)301-325頁
- 米澤彰純(2013b). 新興国家の世界水準大学戦略: 世界水準を目指すアジア・中南米と日本, 東信堂.
- 米澤彰純編(2010). 高等教育の公と私再考, 私学高等教育研究所.
- 林金輝, 劉志平(2010). 高等教育中外合作办学研究, 廣州: 廣東高等教育出版社.
- 中國統計年鑑, 各년도 자료, 中國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
- 数据来源于教育部官网(2011). 教育部公布2011年度各类留学人员情况统计结果.
-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2012). 本科中外合作办学機構與項目(含內地與港臺地區合作办学機構與項目)名單.
-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http://cesi.kedi.re.kr>, 최종검색일: 2013년 10월 12일.
-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 <http://www.studyinkorea.go.kr/confirm/>, 최종검색일: 2013년 10월 5일.
- 나고야 대학 홈페이지 <http://www.nagoya-u.ac.jp/extra/22boy//plan2009.html>, 검색일: 2013년 7월 1일.
- 대학알리미 홈페이지 www.academyinfo.go.kr, 최종검색일: 2013년 9월 30일.
- 바이두(百度) 홈페이지 <http://www.baidu.com>

- <http://image.baidu.com>, 검색일: 2013년 6월 27일. http://www.baidu.com/s?wd=%E5%8C%97%E4%BA%AC%E5%A4%A7%E5%AD%A6%E6%9C%89%E5%A4%9A%E5%B0%91%EF%A7%8D%E5%AD%A6%E7%94%9F+site%3Awenwen.soso.com&f=8&ie=utf-8&rsv_crq=1, 검색일: 2013년 7월 28일
- 베이징대학(北京大學) 홈페이지 <http://www.pku.edu.cn/>, 검색일: 2013년 7월 20일.
- 베이징어언문화대학(北京語言文化大學) 홈페이지 <http://www.eblcu.com/learning/learningHome.jspr>, 검색일: 2013년 7월 23일.
- 베이징어언문화대학(北京語言文化大學) 유학생 원격교육 홈페이지 <http://www.eblcu.com/index.shtm;jsessionid=8C616894D7356958F3E4D3E242841471.tomcat3>, 검색일: 2013년 7월 23일.
-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FTA 홈페이지 <http://www.fta.go.kr/new2/ftakorea/ftakorea2010.asp>, 검색일: 2013년 5월 20일.
- 서울공자아카데미 홈페이지 <http://www.cis.or.kr/main.htm/>, 검색일: 2013년 6월 27일.
-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snu.ac.kr/facts>
<http://www.snu.ac.kr/history>
<http://www.snu.ac.kr/global/ranking>
<http://www.snu.ac.kr/global/project1>
<http://www.snu.ac.kr/global/project2>, 최종검색일: 2013년 9월 16일.
- 송도 글로벌 대학 홈페이지 www.sgu.or.kr, 검색일: 2013년 8월 29일.
- 수업사랑(愛課程) 홈페이지 <http://www.icourses.cn>, 검색일: 2013년 7월 22일.
- 인민일보(人民日報) 인터넷판, http://www.edu.cn/zong_he_news_465/20130705/t20130705_982347.shtml, 2013년 7월 5일자 国家开放大学门户网站上线提供3600多五分钟课程, 검색일: 2013년 7월 23일
- 일리노이 대학 홈페이지 <http://adsc.illinois.edu/>
<http://education.illinois.edu/international>
<http://ilint.illinois.edu/about/ips.html>
<http://ilint.illinois.edu/partnerships/fulbright.html>
<http://ilint.illinois.edu/partnerships/isip.html>
<http://ilint.illinois.edu/partnerships/kul.html>
<http://ilint.illinois.edu/partnerships/list.html>
<http://intlprograms.aces.illinois.edu/>
<http://www.online.uillinois.edu/>

<http://www.studyabroad.illinois.edu>

<http://www.studyabroad.illinois.edu/earlyplanning/stats.aspx>

<http://www.studyabroad.illinois.edu/userfiles/pages/icgle.aspx>, 최종검색일: 2013년 10월 18일

일리노이 대학 공대 해외 연수 프로그램 안내 홈페이지 <https://wiki.engr.illinois.edu/display/ipeng/Home>, 검색일: 2013년 7월 5일.

일리노이 대학 국제 경영 교육 연구 센터 홈페이지 <http://www.ciber.uiuc.edu/>
<http://citebm.business.illinois.edu/>, 검색일: 2013년 7월 4일.

일리노이 대학-큐슈대학 합동 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i2cner.kyushu-u.ac.jp/en/>, 검색일: 2013년 7월 5일.

일본 국제화 거점 정비사업 관련 홈페이지 http://www.mext.go.jp/a_menu/koutou/shitu/08052204/001.htm

http://www.mext.go.jp/a_menu/koutou/ryugaku/boshu/1312948.htm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ukyo/chukyo4/027/siryo/attach/1294698.htm, 검색일: 2013년 7월 30일.

일본 글로벌 인재 관련 홈페이지 <http://www.kantei.go.jp/jp/singi/global/1206011matome.pdf>,
검색일: 2013년 8월 5일.

일본 대학별 유학생 유치 및 해외 파견 관련 홈페이지 http://www.uni.international.mext.go.jp/ja-JP/university_list/, 검색일: 2013년 8월 5일.

일본 외국대학 관련 홈페이지 <http://www.tc-japan.edu/provost.html>, 검색일: 2013년 8월 10일.

일본 중앙교육심의회 관련 홈페이지 http://www.mext.go.jp/b_menu/shingi/kokuritu/gijiroku/attach/1319237.htm, 검색일: 2013년 8월 15일.

중국교육망(中國教育網) 홈페이지 <http://www.chinaedunet.com>, 검색일: 2013년 7월 22일.

중국교육부(統計數據) 홈페이지 <http://www.moe.edu.cn/>, 검색일: 2013년 7월 15일.

<http://www.moe.gov.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s7382/list.html/>, 검색일: 2013년 7월 17일.

중국 교육부(統計數據) 통계자료 <http://www.moe.edu.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s7382/list.html>, 검색일: 7월 28일.

중국 유학생망(國家留學網) 홈페이지 <http://www.csc.edu.cn/Chuguo/baa9ae154ba94951b3e85e222787d916.shtml>, 검색일 2013년 7월 17일.

- 중국 유학생 추세조사 보고(中國教育在線, 留學生回國趨勢) <http://www.eol.cn/html/lx/report2012/report3.shtml>, 검색일: 2013년 7월 17일.
- 중국 유학자료망(留學網云榜) 홈페이지 <http://www.liuxue51.net/list/hotcountry.aspx>, 검색일 2013년 7월 18일.
- 중국학인 장강학자 장려계획(神州學人 長江學者獎勵計劃) 홈페이지 <http://www.chisa.edu.cn>, 검색일: 2013년 7월 18일.
- 중앙방송TV대학 홈페이지 <http://www.crtvu.edu.cn/>, 검색일: 2013년 7월 17일.
- 칭화대학(清華大學) 홈페이지 <http://www.tsinghua.edu.cn/>, 검색일: 2013년 7월 20일.
- 통계청 e-나라지표 홈페이지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534&bbs=INDX_001&clas_div=C&rootKey=1.48.0, 검색일: 2013년 10월 25일
- 포스텍 국제협력팀 홈페이지 <http://www.postech.ac.kr/international/eng/subpage.php?Pcode=About&Ccode=01&PageNum=010100>, 검색일: 2013년 9월 10일.
- 포스텍 홈페이지 <http://www.postech.ac.kr>, 검색일: 2013년 9월 10일.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sunykorea.ac.kr>, 검색일: 2013년 9월 10일.
- 후지안영어(浦江英語) 홈페이지 <http://www.hjenglish.com/liuxue/p488877/>, 검색일 2013년 7월 17일.
- The Education, Audiovisual & Culture Executive Agency 홈페이지 <http://eacea.ec.europa.eu/portal/eurydice>, 검색일 2013년 3월 17일.
- Times 대학 랭킹 웹사이트 <http://www.timeshighereducation.co.uk/world-university-rankings/>, 검색일 2013년 10월 5일.

Abstract

A Study on the Policy on Internationalization of Korean Higher Education and Its Implications

Meeran Kim(KEDI)

Young-Ran Hong(KEDI)

Eun Young Kim(KEDI)

Byung Shik Rhee(Yonsei University)

Nakyung Yoon(KED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o play a leading role in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by analyzing the present government's policy implementation at the university level. To achieve the goal, this study examined policies on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and figured out the current status of internationalization by conducting surveys which examined internationalization cases of individual universities and the perception of internationalization of staff in charge of international affairs. In addition, examination of the policy and practices of universities from the U.S., Japan and China and cases of domestic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s well as interviews with experts in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were also conducted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In this study,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ization of universities were suggested. First of all, it is required to clarify aims and strategic direction of the policy for internationalization of universities. For this, ①they should be specifically suggested by the government, ②standards for a global "role-model" need to be established, and ③a comprehensive scheme and roadmap should be provided at the national level.

Second, it is essential to enhance efficiency by selection and concentration strategy,

which should be backed by ①development of strategies for internationalization considering individual institution's characteristics, ②efficiency of the ways of implementing internationalization. Further, for successful internationalization, ①quality enhancement in university education and ②building systems for evaluation and performance management are also required.

Third, it is fundamental to build the infrastructure for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ization, which is backed by ①amendment of the law, ②organization of interdepartmental liaison committees, ③expansion of budget support, and ④establishment of interdepartmental liaison centers for supporting internationalization(tentatively named) which will facilitate the previous three tas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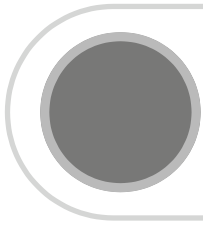
Finally, at the national level, it is necessary to actively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UNESCO,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organizations, and etc in order to build partnerships for internationalization. On the other hand, at the university level, it is required to set aims and develop strategies in accordance with the feature of the individual institution, to enrich the curriculum, form international networks for educational exchange, and organize an exclusive organization and ensure proper budget allocation for internationalization.

Based on the implications above, this study suggested tasks for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as follows. It is suggested to establish policies for internationalization in response to global environmental changes by systematic information collection and analysis. And in order that they are able to be connected to evaluation, it is proposed to develop a universal evaluation index at the national level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evaluation cas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well as other countries.

부 록

부록1 : ‘대학 국제화 관련 인식 조사’ 설문지

부록2 : ‘대학 국제화 현황 조사’ 설문지



부록 1

부록 1: ‘대학 국제화 관련 인식 조사’ 설문지

대학 국제화 관련 인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은 국가 차원의 교육정책 연구 개발과, 교육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급속한 시장개방에 따른 대학 국제화 정책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제화 관련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응답해 주신 내용은 대학 국제화 정책 개발에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응답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 처리되어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므로 학교명이나 여러분 개인 명이 명시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조사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 5월
한국교육개발원장

◆ 설문지와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연구본부 고등·평생교육연구실

– 전화번호: 02-3460-0372(윤나경), 0333(이주혜)

– E-mail: nk0504@kedi.re.kr

■ 일반 특성

문 1 소속대학 명.....()

문 2 소재지

- | | | | |
|---------|---------|---------|-----------|
| ① 서울특별시 | ② 경기도 | ③ 인천광역시 | ④ 강원도 |
| ⑤ 대전광역시 | ⑥ 충청북도 | ⑦ 충청남도 | ⑧ 광주광역시 |
| ⑨ 전라북도 | ⑩ 전라남도 | ⑪ 경상북도 | ⑫ 경상남도 |
| ⑬ 대구광역시 | ⑭ 울산광역시 | ⑮ 부산광역시 | ⑯ 제주특별자치도 |
| ⑰ 세종시 | | | |

문 3 대학 설립주체

- | | |
|--------|------|
| ① 국·공립 | ② 사립 |
|--------|------|

문 4 대학규모(재학생 수 기준: 학부 및 대학원 포함)

- | | |
|---------------------------|-------------------------|
| ① 5,000명 미만 | ② 5000명 이상 ~ 10,000명 미만 |
| ③ 10,000명 이상 ~ 20,000명 미만 | ④ 20,000명 이상 |

문 5 성별

- | | |
|------|------|
| ① 남자 | ② 여자 |
|------|------|

문 6 연령

- | | |
|----------|----------|
| ① 30세 미만 | ② 30-39세 |
| ③ 40-49세 | ④ 50세 이상 |

문 7 대학에서의 직위

- | | |
|------|------|
| ① 교수 | ② 직원 |
|------|------|

문 8 소속 학부

- | | |
|---------|--------|
| ① 인문계열 | ② 사회계열 |
| ③ 교육계열 | ④ 공학계열 |
| ⑤ 자연계열 | ⑥ 의약계열 |
| ⑦ 예체능계열 | |

문 9 국제화 관련 업무 경력

- | | |
|---------|---------|
| ① 1년 미만 | ② 1-3년 |
| ③ 4-5년 | ④ 5년 이상 |

대학 국제화 현황

문 10 귀 대학에서 국제화를 추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위를 번호로 기입해 주십시오.

- | | | |
|---|-------|-------|
| 제1순위: | 제2순위: | 제3순위: |
| ① 다양한 문화·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해
② 해외에서도 취업 가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③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고도 전문 직업 인재 육성을 위해
④ 국제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연구자 육성을 위해
⑤ 학생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
⑥ 해외의 첨단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⑦ 대학의 국제적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⑧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⑨ 대학생의 해외 교류 경험을 증대시키기 위해
⑩ 해외의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여 대학 발전을 꾀하기 위해
⑪ 해외 유학생 유치를 통해 경영 안정을 꾀하기 위해 | | |

(문 10-1) 항목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11 국제화를 위해 귀 대학에서는 다음 활동을 얼마나 중시하고 계십니까?

	실시하고 있지 않다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중시하고 있다	현재 실시하고 있다	특히 중시하여 실시하고 있다
(1) 해외유학을 졸업·수료 요건으로 하는 교육과정의 설치	①	②	③	④
(2) 3개월~1년의 단기 해외유학 프로그램 설치(어학이나 다문화 연수 제외)	①	②	③	④

	실시하고 있지 않다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중시하고 있다	현재 실시하고 있다	특히 중시하여 실시하고 있다
(3) 해외대학에서의 어학·다문화 연수 프로그램(방학 중 프로그램 등)	①	②	③	④
(4) 해외에서의 인턴십	①	②	③	④
(5) 해외 봉사 활동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6) Service Learning(정규수업과 연계한 지역봉사)	①	②	③	④
(7) 해외 탐방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8) 학생 연구의 국제학회발표 조성	①	②	③	④

(문 11-1) 위 항목 이외에 다른 중시하는 활동이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12 국제화를 위해 귀 대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실시하고 있지 않다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중시하고 있다	현재 실시하고 있다	특히 중시하여 실시하고 있다
(1) 과목 수강 지도의 의무화	①	②	③	④
(2) 해외 대학 간의 학생 교육내용 정비 파악	①	②	③	④
(3) 해외 연수 등을 위한 사전 교육으로서의 외국어 교육	①	②	③	④
(4) 해외 연수 등을 위한 사전 교육으로서의 다문화 교육	①	②	③	④
(5) 해외 연수중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상담	①	②	③	④
(6) 해외 협정 대학의 학점제도 파악	①	②	③	④
(7) 해외 협정 대학의 성적평가 제도 파악	①	②	③	④
(8) 해외 협정 대학의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파악	①	②	③	④
(9) 해외 유학에 대해 경제적인 지원	①	②	③	④
(10) 해외 유학에 대한 대학 학생 요구조사	①	②	③	④
(11) 해외 사무소(해외 분교) 설치	①	②	③	④
(12) 해외 유학을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①	②	③	④
(13) 해외 유학을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 성과 조사	①	②	③	④
(14) 국내 학생 및 교원에 대한 다문화 이해 교육	①	②	③	④

문 12-1 위 항목 이외에 귀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중시해야 하는 활동이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13 국제화를 위해 귀 대학에서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실시하고 있지 않다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중시하고 있다	현재 실시하고 있다	특히 중시하여 실시하고 있다
(1) 정규과정 유학생을 위한 유학생 입시 시험(TOPIK)의 점수 요구	①	②	③	④
(2) 유학생 중심의 교육 과정 운영(영어전용 수업 등)	①	②	③	④
(3) 3개월~1년 미만의 단기 유학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4) 3개월 미만의 단기 유학 프로그램(Study Tour, 컨퍼런스, 세미나, 단기 방문)	①	②	③	④
(5) 한국어, 한국 문화 연수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6) 국내 기업에서의 인턴십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문 13-1 위 항목 이외에 귀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중시해야 하는 활동이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14 국제화를 위해 귀 대학에서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실시하고 있지 않다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중시하고 있다	현재 실시하고 있다	특히 중시하여 실시하고 있다
(1) 국내 유학 희망자를 위한 유학설명회(공동설명회 참가 등)	①	②	③	④
(2) 해외에서의 국내 유학 시험 실시	①	②	③	④
(3)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①	②	③	④
(4) 유학생을 위한 한국문화 교육 및 연수	①	②	③	④
(5) 유학생을 위한 취업 지원	①	②	③	④
(6) 유학생을 위한 학습 지원	①	②	③	④
(7) 유학생을 위한 경제적 지원	①	②	③	④
(8)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 제공 및 알선	①	②	③	④
(9) 유학생을 위한 문화적 지원(기도실이나 유학생 문화를 반영한 식단 제공 등)	①	②	③	④

	실시하고 있지 않다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중시하고 있다	현재 실시하고 있다	특히 중시하여 실시하고 있다
(10) 유학생을 위한 생활 지원(보험, 아르바이트 등 지원)	①	②	③	④
(11) 유학생을 위한 정신적 상담 지원(카운슬링 등)	①	②	③	④
(12) 유학생 네트워크(유학생회 등) 활동 지원	①	②	③	④
(13) 유학생의 학습 실태 및 성과 조사	①	②	③	④
(14) 유학생의 생활 실태 조사	①	②	③	④
(15) 유학생 귀국 후의 취업 및 진학 상황 조사	①	②	③	④
(16) 유학생 네트워크	①	②	③	④

문 14-1 위 항목 이외에 귀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중시해야 하는 활동이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15 교육내용이나 교육환경의 국제화를 위해 귀 대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실시하고 있지 않다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중시하고 있다	현재 실시하고 있다	특히 중시하여 실시하고 있다
(1) 한국인을 위한 외국어 교육의 충실	①	②	③	④
(2) 영어 수업의 확대	①	②	③	④
(3) 영어 수업만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치	①	②	③	④
(4) 해외의 사회·문화에 관한 수업과목의 확대	①	②	③	④
(5) e-learning을 통한 해외 교육프로그램의 제공	①	②	③	④
(6) 수업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표준 설정	①	②	③	④
(7) 가을(9월) 학기 제도의 도입 운영	①	②	③	④
(8) 외국인 교원의 적극적인 채용	①	②	③	④
(9) 해외에서의 교육경험을 가진 교원의 적극 채용	①	②	③	④
(10) 외국어(영어)가 가능한 직원의 채용·배치	①	②	③	④
(11) 교원의 국제화교육 실시(Faculty Development): 연수, 외국어 교육 등	①	②	③	④
(12) 직원의 국제화교육 실시(Staff Development): 연수, 외국어 교육 등	①	②	③	④
(13) 교원의 해외 파견 지원제도	①	②	③	④
(14) 직원의 해외 파견 지원제도	①	②	③	④

	실시하고 있지 않다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중시하고 있다	현재 실시하고 있다	특히 중시하여 실시하고 있다
(15) 유학생과 국내학생 교류 프로그램 및 행사실시	①	②	③	④
(16) 학내 자료 및 통지 등, 각종문서의 다언어화	①	②	③	④
(17) 외국대학과의 교류협정 체결	①	②	③	④
(18) 복수 대학과의 국제적 네트워크 협정 가맹	①	②	③	④
(19) 조인트 캠퍼스, 해외 분교 운영	①	②	③	④
(20) 해외 대학과의 공동학위 과정 운영	①	②	③	④
(21) 해외 대학과의 복수학위 과정 운영	①	②	③	④

문 15-1 위 항목 이외에 귀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중시해야 하는 활동이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국제화의 문제 및 정책 요구

문 16 귀 대학에서 국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 동의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지 않다	조금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1) 조직 내의 리더십 결여	①	②	③	④
(2) 리더의 이해 부족	①	②	③	④
(3) 국제화 전략·계획의 미비	①	②	③	④
(4) 폐쇄적인 조직 내의 규정	①	②	③	④
(5) 학내 조직 간의 정보 교환의 부족	①	②	③	④
(6) 학내 조직 내의 책임 권한의 부재	①	②	③	④
(7) 해외 우수 유학생 확보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8) 국제화에 관한 한국인 학생의 인식 결여	①	②	③	④
(9) 교수의 관심·관여 부족	①	②	③	④
(10) 직원의 관심·관여 부족	①	②	③	④
(11) 교원의 승진, 급여 등에 국제화 성과 반영 미비	①	②	③	④
(12) 재원의 부족	①	②	③	④
(13) 교원의 해외 경험 부족	①	②	③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지 않다	조금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14) 교원의 외국어 능력 부족	①	②	③	④
(15) 국제 통용성이 있는 교육과정 개발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16) 해외 대학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과 국내 교육과정의 차이	①	②	③	④
(17) 해외 대학과의 문화·언어 차이	①	②	③	④
(18) 국가차원의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의 미비	①	②	③	④
(19) 한국 고등교육에 대한 해외 인지도 저조	①	②	③	④
(20) 국내외 홍보 부족	①	②	③	④

문 16-1 위 항목 이외에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 문제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17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화와 관련해서 FTA 추진을 통한 고등교육 서비스의 글로벌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유학생 유치에 위해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2) 국내 학생의 해외 파견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3) 외국인 교원 및 연구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4) 국내 대학 교원의 해외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5) 교육과정 개선을 통한 학위의 국제 통용성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6) 외국 대학과의 공동학위(복수학위)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7) 외국대학 분교 유치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8) 국내대학의 해외분교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9) e-learning 등과 같은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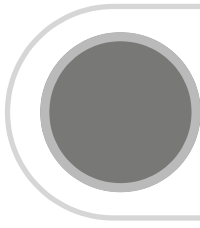
문 18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위해 요구되고 있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국제화 추진을 위해 정부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2) 대학 국제화 추진을 위한 국가수준의 종합 컨설팅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3) 교육국제화특구법과 같은 법 제정을 통해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확대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4) 출입국관리법 등을 개선하여 유학생 및 외국인 교원·연구자 유치를 활성화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5) 학교법인과 같은 법·제도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의 해외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6) 유학생 유치 및 학생 해외 파견, 인턴십 활성화를 위해 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의 부처 간 연계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7) 국제화 선도 대학과 같은 벤치마킹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8) 국제 통용성을 위한 고등교육 질 관리(평가 및 지원)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9)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를 강화하여 국제화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10) 해외 대학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화 관련 DB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11) 국제화 추진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12) 유학생 성과 조사와 같은 국제화 성과 분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문 18-1) 위 항목 이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개선 방향이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19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한국 고등교육 글로벌 서비스화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2

부록 2: ‘대학 국제화 현황 조사’ 설문지

대학 국제화 현황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은 국가 차원의 교육정책 연구 개발과, 교육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급속한 시장개방에 따라 대학 국제화 정책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귀 대학의 국제화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응답해 주신 내용은 대학 국제화 정책 개발에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응답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 처리되어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므로 학교명이나 여러분 개인 명이 명시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조사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 5월

한국교육개발원장

◆ 설문지와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연구본부 고등·평생교육연구실

– 전화번호: 02-3460-0372(윤나경), 0333(이주혜)

– E-mail: nk0504@kedi.re.kr

■ 국제화 인프라 구축

문 6 국제화를 위한 발전전략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 ① 예 → **문 6-1** 로 ② 아니오

문 6-1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전략	구체적 내용

문 7 단기 및 중장기 등 시기별 국제화 목표가 수립되어 있습니까?

- ① 예 → **문 7-1** 로 ② 아니오

문 7-1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시기별	목표	구체적 내용
단기		
중장기		

문 8 국제교류 전담 기구가 있습니까?

- ① 예 → **문 8-1** 로 ② 아니오

문 8-1 국제교류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국제교류 전담 기구의 조직 형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본부내 계선 조직 ② 총장직속기구 ③ 부속기관

문 8-2 위 문항 이외에 전담기구의 조직 형태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문 9 귀 대학은 국제교류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문 9-1**, **문 9-2**, **문 9-3** 으로 ② 아니오

문 9-1 귀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제교류부서의 업무에 대해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① 국제교류 지원 | ② 외국인 학생 지원 |
| ③ 외국인 교직원 지원 | ④ 외국어 교육 |

문 9-2 위 문항 이외에 국제교류부서의 다른 업무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문 9-3 국제교류 부서의 직원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직원 수	주 담당 업무	근무형태 (순환,전담 중 선택)
교원	정규직			
	계약직			
직원	정규직			
	계약직			
조교	내국인			
	외국인			
총계				

문 10 귀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제화 관련 사업의 운영 형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전담부서가 전담
- ② 행정 단과대학이나 학부 또는 연구소 개별 운영
- ③ 본부와 단과대학, 학부, 연구소 상호 협조

문 10-1 위 문항 이외에 귀 대학에 국제화 관련 사업의 운영 형태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문 11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국제교류부서 직원의 해외 연수 및 출장이 있었습니까?

- ① 예 → **문 11-1** 로
- ② 아니오

문 11-1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해외연수 형태	직원 수
장기연수(3개월 이상)	
단기연수(3개월 이내)	
1주일 이상의 워크숍 등	
국제회의 참석 출장 등	

문 12 국제교류부서의 전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 ① 예 → **문 12-1** 로 ② 아니오

문 12-1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작성요령
 -2013년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
 -앞에서 제시한 항목 이외에 대학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책정된 예산이 있는 경우 항목을 새로 설정하여 기재.

항목			예산 (단위: 만원)
대학 총예산			만원
국제화관련 국제교류부서 예산	국제 교류 담당 부서의 책정된 예산		만원
	학생 교류	유학생(장학 관련 예산 포함)	만원
		국내학생의 해외파견	만원
	교수·연구자 교류	해외 교수·연구자 초청	만원
		국내 교수·연구자 파견	만원
	직원의 해외 활동에 책정된 예산		만원
	학교 차원의 국제회의, 학술 대회 주최 등 국제 행사 주최와 관련하여 책정된 예산		만원
	외국인 유학생 또는 외국인 교수 모임에 대한 지원에 책정된 예산(지원 총액)		만원
	기타		만원

문 13 다음은 오리엔테이션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13-1 귀 대학에서는 외국인 교직원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① 예→ **문 13-1** 로 ② 아니오

문 13-1-1 오리엔테이션이 실시되고 있는 경우 운영 주체는?

- ① 단과대학, 학과 등이 개별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음
- ② 국제교류 주관기구가 통합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음

문 13-1-2 위 문항 이외에 귀 대학이 실시하고 있는 오리엔테이션 운영 주체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13-2 귀 대학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문 13-2-1 로
- ② 아니오

문 13-2-1 오리엔테이션이 실시되고 있는 경우 운영 주체는?

- ① 단과대학, 학과 등이 개별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음
- ② 국제교류 주관기구가 통합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음

문 13-2-2 위 문항 이외에 귀 대학이 실시하고 있는 오리엔테이션 운영 주체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14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외국인 학생, 교수, 연구자를 위한 문화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 14-1 로
- ② 아니오

문 14-1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작성요령

-2012년 현황(2012년 3월~2013년 2월)

-문화적응 프로그램이란 한국 문화체험과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서울시 김치박물관 견학 및 체험, 전주 한옥마을 체험과 같은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의 예가 있음

문화 적응 프로그램 명	실적(참가자 수)
1.	
2.	
3.	

문 15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에 가입한 국제교류 관련 협회나 협의체가 있습니까?

- ① 예 → (문 15-1), (문 15-2) 로 ② 아니오

(문 15-1) 귀 대학에서 가입한 국제교류 관련 협회나 협의체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 ① NAFSA | ② EAIE | ③ APAIE |
| ④ KAIE | ⑤ KAFSA | ⑥ IIE |
| ⑦ QSAPPIE | ⑧ JAFSA | |

(문 15-2) 위 항목 이외에 가입한 협회나 협의체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문 16 귀 대학에서는 외국인 학생 또는 외국인 교수가 참여하고 있는 학내 국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문 16-1) 로 ② 아니오

(문 16-1)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외국인 학생 또는 외국인 교수가 참여하는 국제화 프로그램의 예: 멘토제도, 글로벌라운지, 언어교환프로그램

프로그램 명	외국인 구성원의 활동 내역
1.	
2.	
3.	

문 17 귀 대학에는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습니까?

- ① 예 → (문 17-1) 로 ② 아니오

(문 17-1)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작성요령
 -2012년 현황(2012년 3월~2013년 2월말 등록자수)
 -연수기관명: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명(예: 한국어학당)

연수기관명	등록자 수 (명)	국적분포						
		아시아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기타

문 18 귀 대학에서는 외국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문 18-1) 로 ② 아니오

(문 18-1)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작성요령
 -2012년 현황(2012년 3월~2013년 2월말 등록자수)
 -기숙사가 설치되지 않은 대학(교)의 경우, 재학생 수 까지만 기입
 -캠퍼스명: 학생기숙사의 현황은 캠퍼스 별로 작성 (예) 강원대의 경우 춘천캠퍼스, 삼척캠퍼스 각각 작성
 -외국인 학생 수: 대학의 정규 등록생수만 기재
 -기숙사 비용: 월 기준

재학생수(명)				외국인 학생 주거형태(명)			외국인 학생 기숙사 수용 인원(명)		외국인 학생이 지불하는 기숙사 비용(단위:만원/월)	
내국인 학생수		외국인 학생수		학교 기숙사 수용	대학에서 민간임대 지원	기타				
학부생	대학원생	학부생	대학원생				학부생	대학원생	학부생	대학원생

문 19 귀 대학에서는 외국인 교수의 주거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문 19-1) 로 ② 아니오

(문 19-1)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작성요령
 -2012년 현황(2012년 3월~2013년 2월말 등록자수)
 -기숙사가 설치되지 않은 대학(교)의 경우, 교수 수만 기입
 -비전임 교원은 겸임, 초빙, 시간강사, 기타 등을 모두 포함
 -캠퍼스명: 교수기숙사의 현황은 캠퍼스 별로 작성 (예) 강원대의 경우 춘천캠퍼스, 삼척캠퍼스 각각 작성
 -외국인교수 주거 형태
 *자택: 개인적으로 소유하거나 개인자금으로 임대한 경우 모두 포함, 학교지원이 없는 경우 일체
 *사택: 학교에서 소유한 교수 아파트를 제공하는 경우
 *대학에서 민간 임대 지원: 대학에서 임대 자금을 지원하거나 민간 숙소를 임대하여 외국인 교수에게 제공하는 경우 포함

교수 수(명)				외국인 교수 주거형태(세대)			
내국인교수 수		외국인교수 수		자택 (개인자금으로 임대한 것 포함)	사택 (교수 아파트)	대학에서 민간임대지원	기타
전임강사 이상	비전임 교원	전임강사 이상	비전임 교원				

국제화 현황

문 20 귀 대학과 국제교류 협력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 20-1) 로 ② 아니오

(문 20-1)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작성요령

- 2013년 5월 현재를 기준으로 누적된 협정 체결 현황을 기입(단, 갱신만으로 된 협정은 제외)
- 국제교류 협력 협정 체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0으로 표시
- 국제교류 협력 협정을 체결한 외국 대학 현황은 양해각서(MOU) 체결을 기준으로 함.

국제교류 협력협정을 체결한 총 대학 수	국제교류 협력협정 체결 외국 대학의 소재지 분포(단위: 개)														
	아시아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기타
	중국	일본	기타	미국	캐나다	멕시코			영국	독일	프랑스	기타	호주	뉴질랜드	

문 21 외국에 분교 등 학교 설립 실적 또는 계획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 21-1) 로 ② 아니오

(문 21-1)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작성요령

- 2013년 5월 현재를 기준으로 누적된 현황을 기입
- 구분: 이미 설립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1, 설립 예정인 경우에는 2로 표기
- 작성대상: 우리나라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설치예정인 해외 분교(합작투자에 의해 설립된 대학포함)
- 해외교육센터, 사무소, 연구소, 협력대학, 기숙사 등은 분교가 아니므로 작성 대상이 아님
- 과정별: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과정으로 구분(석·박사 통합과정은 박사로 표기)
- 설립추진 시 장애요인 : 해외분교 설립 추진시 장애요인 기술
- 설립 활성화 방안 : 해외분교 설립 활성화 방안 기술

구분	분교설립 국가	설치연도	분교의 명칭	과정	학부(과) 수	학생 수	운영 방식	설립추진시 장애요인	설립 활성화 방안

문 22 외국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시행한 실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 22-1) 로 ② 아니오

문 22-1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작성요령

- 모든 항목의 경우 2013년 5월 현재를 기준으로 누적된 현황을 기입
-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이라 함은 교육인적자원부고시(2005.2.1)에 의거 “국내대학이 당해 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설치 운영하는 교과를 외국대학과의 약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수업이 국내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단순 외국인 교수 강좌개설이 아닌 공동 학위, 복수 학위 운영 등).
- 학위종류: 학사, 석사, 박사 등으로 기재(석·박사 통합과정은 박사로 표기)
- 학위구분: 복수학위, 공동명의학위, 국내단독학위 등으로 기재
- 학과(부):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하는 국내대학의 학과(부)명칭
- 비고: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최초로 시작한 학년도를 기재

학위 종류	학위구분	학과(부)	협약대상		협약 설치 강좌수 (개)	개설 강좌수 (실제 운영된 강좌수)	참여 학생수 (명)	외국인 교수수 (명)	시기
			국가명	대학명					
예시: 학사	공동명의학위	경제학과	미국	시카고대	10	3	25	3	2010년

문 23 다음은 복수학위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23-1 2008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5년 간 복수학위를 취득한 국내 학생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 23-3** 로 ② 아니오

문 23-2 2008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5년 간 복수학위를 취득한 외국 학생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 23-3** 로 ② 아니오

문 23-3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작성요령

- 2008년 5월~2013년 5월까지 5년간 누적된 현황을 기입
- 학위종류: 학사, 석사, 박사 등으로 기재(석·박사 통합과정은 박사로 표기)

학위종류	국내 학생의 복수학위 취득			외국 학생의 복수학위 취득		
	학위취득 학생 수(명)	총 국가수(개)	총 대학수(개)	학위취득 학생 수(명)	총 국가수(개)	총 대학수(개)
학사						
석사						
박사						

문 24 다음은 공동학위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24-1 2008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5년 간 공동학위를 취득한 국내 학생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 24-3** 로 ② 아니오

문 24-2 2008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5년 간 공동학위를 취득한 외국 학생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 24-3** 로 ② 아니오

문 24-3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작성요령

-2008년 5월~2013년 5월까지 5년간 누적된 현황을 기입

-학위취득학생 수

*국내학생: 국내대학 소속 학생으로 외국대학에서 해당 학위를 취득한 학생 수

*외국학생: 외국대학 소속 학생으로 국내대학에서 해당 학위를 취득한 학생 수

-“총 국가수”, “총 대학수”

*국내학생의 경우 : 외국 대학에서 해당 학위를 취득한 경우 해당 외국 국가의 총 수 및 외국 대학 총수

*외국학생의 경우 : 우리나라 대학에서 해당 학위를 취득한 외국 학생의 소속 국가 총 수 및 출신 대학 총 수

-학위종류: 학사, 석사, 박사 등으로 기재(석·박사 통합과정은 박사로 표기)

학위종류	국내 학생의 공동학위 취득			외국 학생의 공동학위 취득		
	학위취득 학생 수(명)	총 국가수(개)	총 대학수(개)	학위취득 학생 수(명)	총 국가수(개)	총 대학수(개)
학사						
석사						
박사						

문 25 귀 대학에서는 외국어 전용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문 25-1** 로 ② 아니오

문 25-1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작성요령

-2012년 현황(2012년 3월~2013년 2월말 등록자수)

-정규과정 중 외국어로 이루어지는 강좌수를 기재하되 외국어 교양강좌는 제외

-부분 영어 강좌 포함

-강좌수는 “정규과정 총 강좌수”로 기재하되 교과목을 복수의 반(班)으로 나누어 강의하는 경우 교과목별 반(班)수의 합으로 기재

-“외국어 전용강좌 비율”은 대학에 개설된 정규강좌수 대비 외국어 전용강좌 비율을 기재

-외국어 전용 강좌 참여 내국인 교원수: 외국어 전용 강좌로 개설된 강좌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내국인 교원 총 인원수

		학사 과정	석사 과정	박사과정
전체 강좌 수	1학기			
	2학기			
	계			
외국어 전용 강좌 수	1학기			
	2학기			
	계			
외국어 전용 강좌 비율(%)		%	%	%
외국어 전용 강좌 참여 내국인 교원 수(명)		명	명	명

문 26 다음은 외국인 학생의 외국어 학습 관련 강좌 및 외국인 학생 전용 강좌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26-1 귀 대학에서는 외국인 학생 전용 또는 외국어 학습 관련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문 26-2** 로 ② 아니오

문 26-2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작성요령
 -2012년 현황(2012년 3월~2013년 2월말 등록자수)
 -외국어 학습관련 강좌 수는 전공을 제외한 외국인 학생의 외국어 학습능력 향상과 관련되는 교양강좌수를 말함(한국어를 포함한 영어, 불어 등)
 -외국인 학생 전용 강좌는 외국인 학생의 학위 취득과 관련된 전용 강좌를 말함

		학사 과정	석사 과정	박사 과정
전체 강좌수	1학기			
	2학기			
외국어 학습 관련 강좌수	1학기			
	2학기			
외국인 학생 전용 강좌수	1학기			
	2학기			

문 27 귀 대학의 외국인 학생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작성요령
 -2012년 현황(2012년 3월~2013년 2월말 등록자수)

학위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현황			비학위 과정 외국인 학생 현황				기타 프로그램을 통한 외국인 학생(수)
학부 학생 수	대학원 학생 수	총 대상 국가 수	학점 인정 교환학생 수	총 대상 국가 수	총 대상 대학 수	학점 인정이 없는 교환학생 수	방문 학생

문 28 귀 대학에는 학점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 28-1) 로 ② 아니오

(문 28-1)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작성요령

-2012년 현황(2012년 3월~2013년 2월말 등록자수)

-총 취득 학점수 : 해당 학생들이 학생 교류를 통해 취득한 학점의 총 수

-“총 국가수”, “총 대학수”

*국내 학생의 경우: 외국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해당 외국 국가의 총 수 및 외국 대학 총 수

*외국학생의 경우: 학위과정, 비학위 과정 등 해당 과정에 참여한 외국 학생의 소속 국가 및 출신 대학 총 수

	초청 학생	파견 학생
학위 종류		
총 학생 수(명)	(명)	(명)
총 대상 국가 수(개)	(개)	(개)
총 대상 대학 수(개)	(개)	(개)
총 취득 학점 수(개)	(개)	(개)

문 29 귀 대학에 근무하는 외국인 교원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 29-1) 로 ② 아니오

(문 29-1)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작성요령

-2012년 현황(2012년 3월~2013년 2월말 등록자수)

구분	내국인 교원 수(A)	외국인 교원 수(B)	외국인 교원 비율(B/A+B)
전임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 및 기타			
계			

문 30 귀 대학에 유치한 우수 외국연구소가 있습니까?

- ① 예 → (문 30-1) 로 ② 아니오

(문 30-1)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작성요령
 -2013년 5월 현재를 기준으로 누적된 현황을 기입
 -외국연구소명: 외국연구소(본소)명칭
 -국가명: 외국 연구소 소속 국가명
 -연구분야: 유치한 전공 분야
 -유치사업명: 유치된 연구소가 중점 추진하는 사업명이 있는 경우 기재
 -사업추진기관 : 외국 연구소 국내 유치를 지원하는 사업인 경우 해당 사업명 기재
 -연구소 설치시기: 연구소를 국내에 설치한 연도, 월 기재 (예) '12.3

외국연구소명	국가명	유치된 연구소의 국내 기관 명칭	연구분야	유치 사업명	사업 추진기관	연구소 설치시기

문 31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문 31-1) 로 ② 아니오

(문 31-1)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작성요령
 -2012년 현황(2012년 3월~2013년 2월말 등록자수)
 -학점인정: 학점인정시 O표시
 -파견국가 수: 해당 프로그램에 의해 인턴을 파견 보내는 국가 총 수
 -대응투자 : 국가지원사업의 경우 의무대응투자비용 명시
 -재원 : 국고(부처명시), 대학자체, 민간 지원 등 표시

프로그램명	지원예산 (만원)	파견인원 (명)	파견국가수	학점인정 여부	대응투자	재원

- 문 32** 마지막으로 귀 대학에서 특별히 추진하고 계신 사항으로 타 대학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는 국제화 사례가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구보고 RR 2013 - 12

한국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발 행 일 2013년 12월
발 행 인 백 순 근
발 행 처 한국교육개발원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바우피로 1길 35 (우면동)
전화 : (02) 3460-0114
FAX : (02) 3460-0121
<http://www.kedi.re.kr>
등록번호 1973년 6월 13일, 제16-35호
인 쇄 처 범신사 02)503-8737
I S B N

본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